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31차 국제학술대회

# 동유럽에서의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국학 연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31차 국제학술대회

주제: 동유럽에서의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국학 연구

● 일시: 2021년 5월 20일(목) ~ 5월 22일(토)

● 홈페이지 동영상 게재 및 온라인 생중계(Webinar by Zoom)

1) **개회식과 주제특강**은 5월 22일(토) 오후 2시(서울 기준)부터 실시간 온라인 접속 형태로 진행됩니다.

2) **분과별 발표와 토론**은 5월 20일(목) ~ 22일(토)에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및 게시판 형태로 진행됩니다.

## 1) 개회식 및 주제특강

- 국가 간 시차를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회의는 5월22일 오후 2시(서울 기준)에 시작됩니다.

개회식(환영사 및 축사)	사회: 김은정(한국외대)
개회사 장항실(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상지대) 환영사 권기창(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 축사 이고르 데니슈(주한 우크라이나대리대사) 김영곤(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소강춘(국립국어원 원장) 강현화(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제1부 주제특강 1: 동유럽의 한국어교육 연구	사회: 이미향(영남대)
발표: 김소영(University Of Sofia, Bulgaria)	
제2부 주제특강 2: 동유럽의 한국학 연구	사회: 김정우(이화여대)
발표: 파베우 키다(University of Potsnan, Poland)	

## 2) 분과별 발표와 토론

- 일시: 2021년 5월 20~22일(3일간)
- 학술대회 전용 홈페이지 공개(Webinar by Web site)
- 3일간 분과별 발표를 공개할 예정이며, 게시판을 통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제1분과 동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사회: 최권진(인하대)	제2분과 동유럽어와 한국어의 대조 연구 사회: 백승주(전남대)	제3분과 동유럽에서의 한국 문화 교육 사회: 신윤경(가천대)
조지아에서 한국어 확산 상황	음향자질 비교를 통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대응 양상 연구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in Ukraine as fundamental component of "soft power" strategy
발표: Tamta Abuladze (Iliia State University, Georgia)	발표: 심현주·박안토니나 (Southern Ukrainian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K. D. Ushinsky, Ukraine)	발표: Semenova Kateryna (Center of Eastern Development and Culture, Ukraine)
토론: 전문이(예레반 국립대)	토론: 권성미(부경대)	
통번역 교육에 있어서 지역학의 위치: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학과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관용구 대조 연구 -신체 어휘 '눈, 머리, 손'을 대상으로-	Identity and Authenticity: a literary perspective between complexity and interculturality
발표: Bahar Aliyeva (Azerbaijan University of Languages, Azerbaijan)	발표: HASMIK TSHAGHARYAN (Yerevan State University, Armenia)	발표: Carolina Dodu-Savca (Fre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Moldova, Moldova)
토론: 조형일(한국산업기술대)	토론: 진대연(선문대)	
	Korea in the dialogue between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and East Asian spiritual teachings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 가지 방법: 서울을 중심으로
	발표: Kaspars Klavins (University of Latvia, Latvia)	발표: 강병용 (University of Ljubljana, Slovenia)
		토론: 유승금(한림대)
	Comparison of honorific forms and their usage in Korean and Latvian languages	
	발표: Ildze Šķestere (University of Latvia, Latvia)	
제4분과 한국어 번역 연구 사회: 고경태(고려대)	제5분과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I 사회: 최은경(동국대)	제6분과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II 사회: 이효정(국민대)
중국어 결과보어 한국어 번역양상 연구: 위화의 소설 『인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 지시문의 명확성 제고 연구	중국어와 한국어의 성경 번역 대조 연구 -<新标点和合本>과 <개역개정판>을 중심으로-
발표: Song Lijuan(한국외대)	발표: 이수영(영남대)	발표: FAN Wei-Xia(남서울대)
토론: 이화진(국민대)	토론: 구민지(가톨릭대)	토론: 손경애(호남대)

<p>일한 번역문에 나타난 수(數) 관련 표현 연구 -'一人' '二人'의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p>	<p>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읽기 질문 분석 연구 -고급을 중심으로</p>	<p>한국어 화상 수업에서의 앱 도구 사용에 관한 파일럿(pilot) 연구 -우랄 연방 대학교 한국어 수강자를 대상으로-</p>
<p>발표: HONDA NIKA(한국외대)</p>	<p>발표: 김양원(동국대)</p>	<p>발표: 김민영(한국외대)</p>
<p>토론: 문희진(아이치가쿠인대학)</p>	<p>토론: 노미연(국민대)</p>	<p>토론: 김금숙(상지대)</p>
<p>독-한 번역에서 나타난 독일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번역 양상 분석</p>	<p>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p>	<p>한국어 속격 구문 연구: 통사적 지위와 위미역 위계를 중심으로</p>
<p>발표: Hana Kim(한국외대)</p>	<p>발표: 김명희·정윤자(단국대)</p>	<p>발표: 강순행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Italia)</p>
<p>토론: 유미희(고려대)</p>	<p>토론: 이하영(부산대)</p>	<p>토론: 이지용(서울신학대)</p>
<p>한-중 정치 연설문에서 '국민'과 '人民'의 번역을 위한 기고</p>	<p>한국어 원격수업 운영 사례와 개선 방안 연구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를 중심으로-</p>	<p>한국어 경험표현 연구</p>
<p>발표: ZHAO XIN(한국외대)</p>	<p>발표: 최광순 (University of Customs and Finance, Ukraine)</p>	<p>발표: 함계임(한국외대)</p>
<p>토론: 이석철(한국외대)</p>	<p>토론: 조인욱(연세대)</p>	<p>토론: 이승연(서울시립대)</p>

# 목차

주제 특강 I: 동유럽의 한국어교육 연구 .....	16
주제 특강 II: 동유럽의 한국학 연구 .....	32
<b>분과 1 동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b> .....	41
• 조지아에서 한국어 확산 상황 .....	42
• 통번역 교육에 있어서 지역학의 위치: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학과를 중심으로 .....	48
<b>분과 2 동유럽어와 한국어의 대조 연구</b> .....	55
• 음향자질 비교를 통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대응 양상 연구 .....	56
•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관용구 대조 연구 -신체 어휘 ‘눈, 머리, 손’을 대상으로- .....	69
• Korea in the dialogue between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and East Asian spiritual teachings .....	76
• Comparison of honorific forms and their usage in Korean and Latvian languages .....	83
<b>분과 3 동유럽에서의 한국 문화 교육</b> .....	93
•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in Ukraine as fundamental component of “soft power” strategy .....	94
• Identity and Authenticity: a literary perspective between complexity and interculturality .....	109
•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 가지 방법: 서울을 중심으로 .....	121
<b>분과 4 한국어 번역 연구</b> .....	131
• 중국어 결과보어 한국어 번역양상 연구: 위화의 소설 『인생』을 중심으로 .....	132
• 일한 번역문에 나타난 수(數) 관련 표현 연구 -‘一人’ ‘二人’의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	143
• 독-한 번역에서 나타난 독일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번역 양상 분석 .....	156
•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 ‘국민’과 ‘人民’의 번역을 위한 기고 .....	165
<b>분과 5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I</b> .....	179
• 한국어 교재 지시문의 명확성 제고 연구 .....	180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읽기 질문 분석 연구 -고급을 중심으로- .....	194
•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	205
• 한국어 원격수업 운영 사례와 개선 방안 연구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를 중심으로- .....	220

<b>분과 6</b> 한국어언어문화교육 일반 Ⅱ .....	235
• 중국어와 한국어의 성경 번역 대조 연구 -〈新标点和本〉과 〈개역개정판〉을 중심으로- .....	236
• 한국어 화상 수업에서의 앱 도구 사용에 관한 파일럿(pilot) 연구 -우랄 연방 대학교 한국어 수강자를 대상으로- .....	250
• 한국어 속격 구문 연구: 통사적 지위와 위미역 위계를 중심으로 .....	262
• 한국어 경험표현 연구 .....	274
KCI 등재지 한국어언어문화학 수록 논문 일람 .....	286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연구 윤리 규정 .....	298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장향실입니다.

<동유럽에서의 한국어문화교육과 한국학 연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문화교육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한국학 연구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어문화교육은 1948년에 체코 프라하대학,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등에서 처음 이루어진 이래,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문화교육은, 2003년에 중·동유럽한국학회(CEESOK)가 창립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추진과 함께 동유럽 지역에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게 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한국과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활기를 띠고 있는 동유럽 지역의 한국학 및 한국어문화교육의 현황을 이해하고, 또 미래를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해외에서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개최국의 연구자들과 학문 발전을 위해 소통하면서 타 언어문화와의 상호 교류를 추구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학회는 주제별 특징에 맞추어 중국, 태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작년에는 COVID-19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겸한 혼합형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였습니다. 대면이 아닌 점에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형식의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COVID-19 상황이 종식되어 동유럽 국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길 기대했으나 국내외의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작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학술대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발표 중심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됩니다. 이어 5월 22일 토요일에는 세종학당재단 대강연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개회식과 주제특강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제특강을 마치면, 3일간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정리하는 자리도 갖고자 합니다. 온오프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국가에 계신 연구자들께서 거리의 장벽을 허물고 더 넓고, 깊은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섯 개 출판사가 함께하는 도서전도 진행합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즐거운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벤트도 준비하였습니다. 학술대회 발표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이나 토론을 해 주신 분들께는, 한국어문화교육 전공 책이나 음료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푸짐한 상품으로 즐거운 학술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신 권기창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님, 이고르 데니숙 주대한민국우크라이나대리대사님,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님, 소강춘 국립국어원 원장님, 강현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제특강을 해 주실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김소영 교수님,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츠대학교 파베우 키다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영상 촬영 등 번거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동유럽 지역 학자들과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신 인하대학교 최권진 교수님, 우크라이나 남부 우신스키 국립사범대학교의 심현주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학회 임원진께서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미향 부회장님, 김서형, 김운주, 최은경 이사님께서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셨고, 이후 임형재 부회장님, 김정우 부회장님, 김은정·정다운 총무이사님, 정다미 총무간사님께서 학술대회 홈페이지 구축, 홍보 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힘써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총괄해 주신 임형재 부회장님의 노고가 크십니다. 임원진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학술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술대회 발표집을 발간해 주시는 도서출판 하우와 학회지를 만들어 주시는 보고서, 또 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서출판 박이정, 소통, 한글파크, 그리고 주식회사 세잎누리의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세종학당재단에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동유럽에서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이 좀더 발전·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참가하신 연구자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장향실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권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입니다.

먼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1차 춘계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한국언어문화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회의 노력에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최근에 길에서 BTS의 배지를 가방에 달고 다니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음식점에서도 마마무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등 한류와 한국어의 인기가 놀라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는 물론이고 이런 한류 콘텐츠를 접하면서 한국어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는 키이브 국립외국어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설치된 이래 처음으로 한국어 전공 입학생의 수가 일본어 전공생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동유럽 국가들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전문가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열정이 한국학과 한국어 확대/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서적 공감’과 ‘문화’가 국제외교의 주요 매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공공외교의 중심에 계신 학회여러분들께서 활발한 교류활동 통해 우리 국제위상 제고에 기여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통해 외국인 한국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상호 번영에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국민들은 문화강국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도전을 겪고 있지만, 공동의 노력과 지혜로 난제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여러분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오늘 31차 춘계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  
권기창

##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from the Embassy of Ukraine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holding of the 31<sup>st</sup>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K)*

여러분 안녕하세요?

Dear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e Embassy of Ukraine, let me first express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hich will be celebrated in September this year.

My deep appreciation goes to all those involved in arranging this meaningful conference and I would like to extend my special greetings and thanks to the researchers for taking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s to join the conference.

Distinguished participants,

The value of language as instrument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ntries is indisputable. Cultural interaction is defined as exchange of ideas, information and other components of culture between the states and peoples in order to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Ukraine's culture diplomacy is also focused on modern approaches that prioritize dialogue, intercultural relations, human contacts and interaction with foreign audiences.

Globalization,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wide usage of social networks, acceleration of a virtual world due to COVID-19 pandemic form new requirements. In this regard,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as well as nongovernmental actors in forming the positive country's image abroad is growing.

In my view,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broad and academic exchanges will serve as a channel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Ukraine, for the development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foster experts who share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I would like to wish this conference a resounding success and look forward to a further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ank you! 감사합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이고르 데니슈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영곤입니다.

국제한국어문화학회의 제31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1년 창립 이래 지난 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국어와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신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쓰신 장항실 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동유럽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켜주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말 북방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유럽 진출의 거점으로서 주요한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류의 확대와 우리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으로 한국어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어 수요가 미주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화의 시기에 '동유럽에서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과 한국학 연구'라는 주제의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립국제교육원은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 기관으로 국제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미션 아래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등 다양한 국제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동유럽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체코에서 첫 시행이 이루어져 19명이 응시하였으며 그간 시행 국가와 지원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9개국에서 1,20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라트비아가 첫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의 경우에도 동유럽 언어 중 폴란드어와 헝가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언어기준에 근거하여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시험을 개발하고, 현지 국가로의 석박사 과정 국비 유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언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포함한 한국어 보급 확대 및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우리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학회의 목소에 귀 기울이며 학계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영곤

##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소강춘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1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유럽 각국에서 참여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동유럽은 한국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던 30여 년 전, 한국이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사회주의 국가는 동유럽에 위치한 헝가리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유럽과 그 주변 지역은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곳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보여 준 곳, 저는 한국에게 동유럽이 이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유럽에서의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국학 연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수교 30주년 전후의 동유럽에서 성년기에 접어든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국학을 성찰하고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면 방식의 국제 교류는 불가능해졌으나,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국제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빛을 던지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새로운 한국학 발전에 대한 희망의 불빛을 받아 가시길 기원합니다.

국립국어원도 올해가 개원 30주년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동유럽의 한국언어문화교육을 위해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왔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매년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를 통해 지역의 한국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어 교재 보급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국외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한국어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외 교재 개발 성과로는 ‘전 세계 유야를 위한 신나는 한국어’가 있으며, 현재는 세종학당에서 쓰일 교재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30년 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동유럽의 한국언어문화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장항실 회장님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국어원장  
소강춘

## 축 사

안녕하세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31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의 진흥과 교류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한국어 교육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세종학당재단은 지난'19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어온 이후 지금까지 한국어·한국 문화의 확산과 교육 진흥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주목받는 현 시점에서 그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이룩한 언어와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를 포함하여 학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자문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동유럽에서의 한국어문화 교육과 한국학 연구'입니다. 동유럽 지역은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도 연계되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과거 소련의 해체 이후 많은 한국인들과 기업들이 진출하여, 현재 교류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동유럽 지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연구를 다루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도 폴란드 포즈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아르메니아 예레반 등에 세종학당을 운영하며 동유럽 지역에서의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에 특화된 교원을 양성하는 현지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견 교원에게 우즈베크어, 폴란드어 등 현지의 특수한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특수 외국어 교육 과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계 차원에서도 재단의 한국어·한국 문화 보급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장향실 학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 31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고맙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



주제 특강 I

동유럽의 한국어교육 연구

## 동유럽의 한국어교육 연구

김소영(University Of Sofia, Bulgaria)

### 1. 들어가기

동유럽 국가는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를 시작한다. 동유럽의 동쪽 지역인 발칸 반도 국가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학과가 생기면서 한국 대학과 동유럽 국가 대학 간의 교육 협력과 교류가 시작되지만, 한국학과는 소수의 정원으로 일본학과 중국학보다 인기가 낮았다. 그러나 2000년대 세계 각국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의 붐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어 수요가 늘어났다. 최근에는 K-POP의 열풍, 특히 방탄소년단의 인기로 10대의 한국어 수요가 늘면서 불가리아에서는 10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세종학당에 등록하여 한국어를 배우거나, 매주 지방에서 6시간씩 밤 기차를 타고 소피아까지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가 높아졌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다른 동유럽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불가리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많고 일반인의 한국어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류 덕분이다.

동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냉전 시기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수교를 하고 6·25 전쟁 원조와 복구 지원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동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소비에트 연방국의 일원으로 북한과 다방면으로 교류를 하였다. 50년대 초반 6·25 전쟁 후 전쟁고아들이 위탁 교육을 받기 위해 동유럽 국가로 보내지고, 전쟁 복구를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북한 젊은이들이 동유럽으로 유학을 오면서 동유럽 국가와 북한은 서로 학생 교류를 시작한다. 불가리아에서는 1953년 불가리아인 교사와 북한인이 공동으로 북한 학생을 위한 ‘불어 문법’책을 개발하여 출간하는 등 북한 학생들의 불가리아어 교육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동유럽 국가 학생들은 북한과의 교육, 문화 교류 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유학을 하러 갔고, 폴란드와 체코의 경우 자국으로 돌아온 현지인이 ‘조선어학과’를 개설하여 ‘조선어’를 가르쳤다. 헝가리의 경우 70년대 ‘조선어’강좌가 운영되었고, 그 외 동유럽 국가에서는 1990년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동유럽으로 유학 온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재단 등에서 파견된 남한의 객원 교수, 한국에서 유학한 동유럽 현지인 등이 ‘한국어’ 강좌 및 ‘한국학과’를 개설하여 한국어를 가르쳤다. 소비에트 연방국의 와해로 동유럽 국가들이 남한과 교류하게 되면서 한국어 교육도 북한 중심의 교육에서 남한 중심의 한국어 교육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동유럽을 유럽의 중부 지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과 유럽의 남동부에 위치한 발칸 반도 지역(구유고슬라비아 연방,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으로 나눠서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중부유럽(Central Europe)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중부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구사회주의 시절 북한과 수교 후 6·25 전쟁 원조와 복구 지원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폴란드(바르샤바대)와 체코(프라하대)는 50년 초부터 ‘조선어’ 강좌를 열었다. 헝가리의 경우는 폴란드, 체코보다 약 27년 후인 70년대 말부터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 ‘조선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조선어’ 강사는 북한으로 유학을 갔다 온 현지인들과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인 교수였다. 그 당시에는 ‘조선어’ 즉 북한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1990년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경제, 문화 교류 등이 활성화되자 점차 북한말 대신에 남한말을 가르치게 된다. 90년 수교 후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어 교재 지원,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 등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했고, 현재 이들 국가에서는 남한어를 정식 한국어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 등으로 유럽 공장지로 부상하였고 한국 기업도 V4)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EU 친환경 정책에 따라 최근 들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전환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V4 국가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어 수요는 더 늘 것이고 한국어 교육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 2.1. 폴란드의 한국어 교육<sup>2)</sup>

현재 한국학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교는 바르샤바대학교(University of Warsaw),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University of Adam Mickiewicz), 야길론스키대학교(University of Jagiellonian), 브로츠와프대학교(University of Wrocław)이다.

바르샤바 대학교의 한국학과는 폴란드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53년 중국어문학과의 강좌 중 하나로 ‘조선어’ 강의가 개설되었고, 1983년에 ‘일본어문학 및 한국학과’로 독립하게 되었다. 1989년 남한과 폴란드가 공식적인 수교를 한 이후에는 남한에서 바르샤바대 한국학과에 교수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남한의 이현복 교수와 북한의 로길용 교수가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여름 로길용 교수가 평양으로 돌아가고 그 후 북한으로부터의 교수 파견은 중지되었다. 그 후 폴란드 출신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학과를 이끌어가고 있다. 1994년에는 박사과정도 개설하였고, 2015년 10월부터 한국학과로 완전히 독립하였다.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Adam Mickiewicz University)는 1998년 10월부터 한국어 강좌를 시작하여 2003년 한국어문학과를 개설하였고, 야길론스키대학교(Jagiellonian University in Cracow)는 1999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시작하였으며, 브로츠와프대학교(University of Wrocław in Wrocław)는 2010년 10월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를 시작하였다.

바르샤바대학교와 브로츠와프대학교의 한국학과는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문학, 철학, 종교, 예술, 문화, 사회 등의 과목도 가르치고,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와 야길론스키대학교는 한국어 강의에 치중한다. 폴란드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한국 교수와 폴란드 교수가 함께 쓴 폴란드인을 위한 한국어 1, 2, 3(Koreański dla Polaków 1, 2, 3), 폴란드인을 위한 한국 문화 30강(Kultura koreańska – wykłady dla polskich studentów) 등이 있다.

1)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협의체

2) 정현숙(2016), 동유럽에서의 한국학 교육 현황 (1) - 폴란드의 대학을 중심으로, 『구보학회 14집』, 251~283쪽.

## 2.2. 체코의 한국어 교육<sup>3)</sup>

동유럽에서는 체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50년 프라하 까렐대학교 철학부에 전공학과로 조선어 학 과정이 개설되었다. 1972년까지는 Alois Pultr 교수가 1972년 이후에는 블라디미르 푸체크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한국어를 가르쳤다. 이 시기에는 북한과의 일방적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으로부터 도서를 입수하고 학생들도 북한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그 후 1993년 체코와 한국과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고,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과 한류의 영향으로 조선어학 과정에서 한국어학을 가르치는 한국학과로 바뀌게 되었다. 한국인 교수의 파견과 체코 학생들이 한국 유학 및 연수를 거치고 돌아오면서 한국어 교육은 질적인 면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5년 9월에는 을로모우츠 팔라츠키 대학교에 비즈니스 한국어학전공이 학사과정으로 개설되었다. 까렐대학교 한국학과 교육 목표는 한국어, 문화, 역사,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이고, 학사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180학점 중에서 실용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1%가 된다. 그리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보다는 읽기 교육 중심으로 독해 능력을 강조한다. 반면, 팔라츠키대학교 비즈니스 한국어학전공은 한국과의 교류를 위하여 한국어와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가장 중요한 학습영역으로 보고, 비즈니스 한국어 및 언어학 관련 비중은 180학점 중 40% 정도이다. 학생들은 비즈니스 한국어학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어와 언어학 관련 전공필수과목뿐만 아니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국제경제와 유럽연합경제, 경제 관련 법규 등의 필수과목을 들어야 한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학의 지식을 갖춘 전문 인재로 양성되어 한국 기업이나 한국 관련 현지 기업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견고하게 할 교량 역할을 할 것이다.

## 2.3. 헝가리의 한국어 교육

1980년대 중반 이후 Dr. Mártonfi Ferenc 지도로 ELTE에 "한국학 스튜디오(Koreai Stúdiium)"이 운영되며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1991년 이 스튜디오의 책임자인 Dr. Mártonfi Ferenc 사망 이후 폐지되었다. 중국어과 교수인 Dr. Mártonfi Ferenc (1945-1991)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2년 동안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실습생으로 한국어에 대해 연구한 후 귀국하여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중국어과 학생 몇 명에게 교외 보충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논문 5편도 발표했는데, 그 중 한국어의 존대법, 국어사, 한글의 발생과 한국어의 인칭문제에 대한 글은 헝가리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Mártonfi 교수의 요절로 인해서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90년대 말까지 중단되었다.

그 후 부다페스트 대외무역 단과대학과 헝가리 ELTE (Eötvös Loránd Tudományegyetem)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했는데 현재는 ELTE대학교에서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헝가리는 1998년 2월 동구권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이후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협력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부터 한국 측에서는 헝가리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교인 ELTE대학교에 여타의 다른 동양언어학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학과가 아직 설립되지 못한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으면,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했다.

그리하여 한국어학과 개설의 예비단계로 1996년 9월부터 2007년까지 '한국학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과목으로 '한국어, 한국어사, 한국학 입문, 한국의 불교사,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3) 광부모(2018), 팔라츠키대학교 비즈니스한국어학전공의 현황과 발전 방안

무속,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화사' 과목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07년 12월 헝가리 학과 승인위원회(The Hungarian Accreditation Committee)는 ELTE 대학교의 인문대학소속 동양어-문화학과에 한국어 전공이 설립되는 것을 정식으로 인가하였다. 이로서 2008년 9월부터 한국학 부전공은 전공으로 승격하여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는 고등학생들이 직접 한국학을 지원하여 전공으로 학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3년에 석사과정(2년), 2018년에는 박사과정(3년)이 개설되었다. 엘테대 한국학과는 동아시아학부 내에서 연혁이 가장 짧은 학과임에도 '20/21'학년 입학생의 합격 커트라인 기준 일본학(379점) 및 중국학(338점), 더불어 어문학/지역학 분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영문학(391점)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커트라인과 1지망 선택 비율(40%)에서 나타나듯이,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헝가리 청소년층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면서, 엘테대 한국학과 이외에도, 부다페스트(한국문화원 부속, 2012년 설치) 및 제 2의 도시, 데브레첸 등 2개소의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있다.

#### 2.4. 슬로바키아의 한국어 교육<sup>4)</sup>

슬로바키아는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1918년부터 1992년)에서 분리되었다. 인구 5천 5백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1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투자 진출했고 한국 기업 진출,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였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브라티슬라바에 위치한 코메니우스 대학교 철학학부 동아시아학과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다. 한국어 강사인 김명신 박사는 주로 철학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다. 2012년 9월에는 코메니우스 대학교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었다. 현재 교원은 한국인 파견 교수 1인과 슬로바키아인 2명이다.

### 3. 발칸 반도 국가의 한국어 교육

발칸반도는 유럽의 동남쪽 지역으로 구유고슬라비아연방 국가(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코소보),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알바니아가 속한다. 이들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있으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세력의 지배를 받았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독자적이고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를 지향한다. 알바니아도 냉전 시기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가 많지 않았던 폐쇄된 사회였다. 스탈린이 죽은 후 흐루시초프의 반스탈린 노선 강요와 경제 간섭, 유고슬라비아와 화해 등으로 1961년 소련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대립 중이던 중국의 동맹국이 되었다. 1970년 중국이 미국에 접근하자 이를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여 중국과의 관계조차 냉각되는 등 동유럽국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였다.

1990년대 소련 붕괴 후에 공산 정권의 몰락에 따라 발칸반도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다. 한국어 교육도 한국과 수교를 한 1990년 이후 몇몇 국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현재 대학 기관에 정식으로 한국학과가 개설된 나라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3개국뿐이다. 구유고슬라비아연방 국가들은 1992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수차례

4) <https://fphil.uniba.sk/katedry-a-odborne-pracoviska/katedra-vychodoazijskych-studii/httpswww-migraciafphilunibaskindexphi d5941/> (코메니우스 대학교 홈페이지)

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했고 한국과의 교류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유고 슬라비아가 7개의 나라로 분리되어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성장하면서 한국과의 문화 교류도 늘어나고 인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이 점점 확산될 전망이다.

### 3.1. 슬로베니아<sup>5)</sup>

슬로베니아에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은 류블랴나대학교 아시아학과가 유일무이하다. 류블랴나대학교는 1919년에 개교한 슬로베니아 최고이자 최대의 교육기관으로 1995년 이 대학에 아시아학과(당시 아시아아프리카학과)가 설립되었다. 아시아학과에 2003년 한국어 강좌가 생긴 뒤,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에 따른 유럽 지역 교육 개편과 함께 한국학 전공의 전신인 한국학 모듈이 생겼다. 그 후, 아시아학과 강사들의 협력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재단, 대한민국 대사관 등 한국 정부기관의 도움과 한국 및 슬로베니아 기업의 지원으로 슬로베니아의 한국학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2012년 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씨앗형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학이 태동할 수 있었고, 2013년 4월 한국문학, 한국문화 등 어학 이외의 강좌가 개설되면서 한국학 전공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2015년에 슬로베니아 최초로 한국학 (복수) 전공이 개설되었다. 현재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석사과정은 없다. 박사과정은 일본학, 중국학, 한국학전공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박사과정생은 7명, 한국학 전공 학부는 총 3년 과정으로 현재 재학생은 39명이다.

### 3.2. 크로아티아<sup>6)</sup>

크로아티아는 2013년 한국의 한 방송사 프로그램이 소개된 이후로 한국인에게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유명해졌고, 2019년에 현대자동차가 크로아티아 초고성능 전기차 회사 리막 오토모빌리(Rimac Automobili)에 1,10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 또한, K-pop,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대학(3개소), 세종학당(1개소), 한글학교(1개소)가 있다. 자그레브 대학교, 플라 대학교, 스플리트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크로아티아 수도인 자그레브에 위치한 자그레브 대학교에는 2개의 한국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자그레브대 인문대학 극동아시아어학과에 한국어 강좌가 2015년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었고,<sup>7)</sup> 2019년부터는 국제교류재단에서 객원 교수 1명을 파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대학 크로아티아어 대학에 세종학당재단에서 2020년 세종학당을 설치하고 교원 1명을 파견했다. 자그레브대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에는 한 학기(15주)동안 총 45시간으로 30명 정도의 재학생이 등록한다. 세종학당은 일반인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총 3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학생 수는 96명이다. 세종학당은 각 단계를 마치면 시험을 보고 수료증을 받는다. 이 수료증은 한국 비자나 교환학생 신청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수강생의 호응이 아주 높다. 이외 자그레브 시내에 위치한 한글학교에서 교민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한글학교는 2010년에 개원하였고, 2013년부터 한글학교 내 한국어 학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글학교와 한국어 학당의 강사는 동일인 1명이다. 이외

5) 강병용(2017), 슬로베니아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179』, p.111-135.

6) 류재원(2021), 크로아티아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자그레브 대학교와 자그레브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32권 1호』, p. 49-72.

7) 한국어 강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되었고 강사 부족으로 일시 중단되었다. 2019년 국제교류재단의 교수 파견으로 한국어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자그레브 내 사설 한국어 학원으로 'ENBE'가 있다. 류재원(2021)의 자그레브 대학생과 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그레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20대 여성이 73%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39.3%), 한국어에 대한 관심(3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9%), 한국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4.5%),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2.2%), 기타(8.8%)순으로 나타났다.

### 3.3. 세르비아<sup>8)</sup>

세르비아의 전신인 구유고슬라비아는 1989년 12월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2년 이후 한국 유학생들이 베오그라드대학에 유학을 시작하면서 양국 간 교육 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되었다.

베오그라드대학 인문대학이 한국어 과목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10월부터이나 이전에도 동양학과 커리큘럼 상에는 한국어 과목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열악한 자원과 교수요원의 전무 등 여러 여건으로 실제 운영되지는 못했다. 베오그라드대 인문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정근재 박사는 1999년 초 학교 당국에 한국어 과목 설치를 건의했으며,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해 가을 한국어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1999년 한국어 과목이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2007-2008학년도 1년을 제외한 전 기간 한국어 과목은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2008학년도부터는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2009년 6월에는 베오그라드대학 총장 및 인문대학 학장 일행이 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한국학 진흥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수도인 베오그라드 외 지방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비사드 대학교, 니쉬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노비사드 대학교에는 2017년 10월 철학 대학 언어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다가 2019년 하반기에 세종학당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어 6개월간 운영 후 2020년 1월 정식 세종학당으로 출범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현지 교원 2명과 세종학당 재단 파견 교원 1명, 총 3명의 교원이 있다. 학생 수는 138명이다. 그리고 노비사드대학교 철학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양과목(3학점)으로 지정하였고, 수강생 수는 20명이다. 세르비아에는 한국의 국립국제교육원 교원 해외파견사업으로 베오그라드, 노비사드, 니쉬에서 고등학교 방과 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8월 한국어 수업이 중단된 상태다.

### 3.4. 북마케도니아<sup>9)</sup>

북마케도니아공화국은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분리 독립했지만 한국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28년 후인 2019년에 이뤄진다. 북마케도니아는 오랫동안 한국의 미수교국이었던 때문에 교류가 많지 않아 북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아직 생소한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BTS의 인기 상승으로 북마케도니아에서도 젊은 층 사이에 K-pop 팬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류 덕분에 최근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글을 다 익히고 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이 많다고 한다.

2005년 북마케도니아 거주 교민들이 스코피에 키릴메토디 대학 문과대학장과 만나서 한국어 과정 개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의 협조로 2008년 국제교류재단에서는 파견 교수 1명을<sup>10)</sup> 스코피에 키릴 메토디 대학으로

8) 세르비아 최근 한국어 교육 현황은 세종학당 교원인 김원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9) 북마케도니아 한국어 교육 현황은 스페스 랑겔로프 교수님과 정경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10) 북마케도니아에는 한국대사관이 없으며 주불가리아 대한민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다. 그런 관계로 처음 북마케도니아에 한국어 강사를 파견할 때 주불가리아 한국 대사관에서 소피아대 한국학과 교수인 필자에게 한국어 강사 추천을 의뢰했고 소피아대 일본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에서 한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스페스 랑겔로프 선생을 추천했다. 스페스 랑겔로프 교수는 현재 외대 그리

보냈고, 인문학부 내 교양과정으로 한국어 강좌가 신설되었다. 처음 3년 동안은 한국어를 1학기에 60시간씩 배웠고, 2011년부터는 한국어 외 한국 문법, 한국어 음운론, 어휘론, 한국 문명, 문장론 및 의미론, 한국 현대문학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2016년부터는 국제교류재단 파견 교수가 불가리아로 돌아가고 스코피에에 거주하는 한국인 강사 1명이 강사로 채용되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3.5. 루마니아<sup>11)</sup>

루마니아는 발칸 국가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도 2,100만 명으로 가장 많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1990년 3월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했다. 루마니아에서는 1996년 부쿠레슈티대학교 외국어문학대학에 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 3 언어”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그 후 클루즈나포카 시에 있는 바베시보여이대학교에서도 1997년에 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한국어 강의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정치학부, 경제학부 학생들, 그리고 루마니아 정부 기관(특히 외무부와 산업자원부)에 근무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관심으로 청강을 했다.

현재 루마니아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기관은 총 7개이다. 이중 대학 과정에서 한국학 학사학위를 수여 하는 곳은 부쿠레슈티 대학교와 바베시 보여이 대학교이다.

부쿠레슈티대학교에서는 1996년 “제 3 언어”<sup>12)</sup>로 한국어 과정을 열었고, 2003/2004년도 학기에는 학술진흥재단의 한국학 강사의 파견까지 중단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4년 하반기부터 부쿠레슈티대학교에 대한 학술진흥재단의 파견 교수 제도가 부활하였으며, 그 당시 파견 교수인 황정남 박사와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귀국한 Diana Yuksel 교수의 노력으로 2005년 가을학기부터는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격상되었다. 수업 시간도 늘어서 한국어 외 한국어 구조와 언어학,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 문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였다. 2017년까지는 격년에 한 번씩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8년부터 매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학 전공 석사과정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문화중심 도시 클루즈나포카에 있는 바베시보여이대학교는 1997년 국제협력단 자원봉사단원으로 파견됐던 강사 2인에 의해 강좌를 운영해 오다가 2002~2004년 2년 동안 폐강이 되기도 했으나 박사과정 한국 학생에 의해서 다시 개강했다. 그리고 2005년 가을부터는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박영숙 선생이 파견되었다. 2007년 한국어 강좌 개설 1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대학 내에 한국문화센터라는 부속기관을 경제대학에 설치하고 학술 및 문화 활동을 강화하게 되었다. 루마니아의 EU 가입과 한국 기업 투자 증가로 학생들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한국어를 일반교양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였고, Codruta Cuc 선생이 고려대에서 일 년 간의 한국어 펠로우십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한국어과 강사로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한국어 문학’으로 주전공과 부전공을 창설하였다. 첫째는 두 명의 학생이 등록했으나 현재는 학부생은 120명으로 양적으로 현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은 몇 년간 한국 기업의 투자와 한류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강좌를 대학 비학위 선택과정으로 운영하는 곳은 부쿠레슈티의 ‘루마니아인 아메리카 대학교’와 이아쉬의 ‘이오안 쿠자 대학교’이다. ‘루마니아인 아메리카 대학교’에서 한국어는 선택과목으로 일반인과 대학생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 불가리아어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11) 루마니아 한국어교육 현황은 부쿠레슈티 대학교 Diana Yuksel 교수, 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인 김영성과 박영숙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12) 전공과 부전공 외의 기타 복수 전공 과정

한국 교민 대상 한글학교 수업도 이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오안 쿠자 대학교’에서는 비학위 선택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학 강의를 개설하였고, 2018년 한국학 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한국인 연구원을 초빙하여 한국학 연구 및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면서 한국학 전공 개설을 추진 중이다. 세종학당은 2020년 부쿠레슈티 ‘디미트리에 칸테미르 크리스천 대학교’에 개설되었고 현재 ‘한국어’와 ‘태권도’반이 운영되고 있다.

### 3.5. 그리스, 알바니아

한국은 그리스와 1961년에 수교를 하고 조선·해운, IT, 인프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한국어 교육 기관을 하는 곳은 아테네 국립대학교와 아테네 한글학교이다. 아테네국립대 외국어교육센터 내 한국어 강좌가 2010년 개설되었으며 현재 한국어 강사는 3명이고 2019~2020년 한국어 강좌에 등록한 학생은 97명이다. 이외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곳은 1982년에 설립된 아테네 한글학교로 이곳에는 현지인 70여 명, 교민 자녀 1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알바니아는 1991년 한국과 수교했으며 교민은 106명으로 대부분 선교사이다. 알바니아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곳은 티라나에 있는 알바니아 한말학교가 유일하다. 교사 2명과 학생 25명이며 모두 한국 교민 자녀들이다.

### 3.6.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인구가 7백만이 안 되는 작은 나라이다. 불가리아는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2년 133년 전통의 소피아 국립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1995년 소피아대학교 내 동양어 문화센터에 한국학 전공을 개설하였고, 이후 동유럽 최초로 대학원 한국학 석·박사 과정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은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설립 26주년을 맞이한다.

26년이 지난 소피아대학 한국학과와 불가리아 내 한국어 교육은 가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 내에서도 15여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불가리아 내 한류 팬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류라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소피아대학교 한국학센터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한국어능력시험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소피아대에서 올해부터는 토픽 점수가 3급 이상이면 소피아대 한국학과 입학전형의 필기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국어 시험으로 개발된 토픽시험을 불가리아 대학(해외대학)에서 인정하여 입학전형 시험으로 대치하는 것은 한국학과가 개설된 세계 대학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이는 소피아대학교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높이 평가하고 불가리아 내 한국학의 발전과 함께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불가리아에서는 소피아대학교를 비롯하여 수도와 지방에 있는 5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9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사립학원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불가리아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13)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그리스·불가리아어과를 개설했다.

① 소피아대학교<sup>14)</sup>

불가리아의 한국어 교육은 1992년 3월, 소피아대학교 고대 및 현대어문학대학, 동양어문화 센터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sup>15)</sup> 당시 한국어 강좌는 일본학 전공생과 터키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2 아시아어 선택 필수 과목으로 2년 과정이었다. 일주일에 4시간씩 실용 한국어(한국어 회화)를 위주로 운영되었고 담당 교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장학생으로 소피아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최권진 선생이었다.

선택 필수 과목으로 출발한 한국어 강좌는 더욱 발전하여, 1995년 10월 아시아어문화학과 한국학 전공으로 승격되었다. 2010년 3월 전임교원을 7명으로 늘리면서 일본학, 중국학이 속해 있는 아시아어문화학과에서 분리되어 한국학과로 독립하였다. 2013년 10월에는 일본학·중국학·한국학 공동 석사과정 ‘동아시아문화’ 외에 한국학과 단독 석사과정인 ‘한국 사회와 문화’를 개설하였다.<sup>16)</sup>

현재 한국학과와 학생 수는 학부생 70명, 석사과정생 7명, 박사과정생 4명으로 총 81명이다. 올해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22명의 학생이 한국학과에 입학하였다.<sup>17)</sup> 한국학과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중국학과, 남동아시아학전공 등 소피아대학교의 다른 학과로 입학한 후 한국학과로 편입하거나 재수, 삼수로 다시 한국학과에 도전하기도 한다.

한국학과 입학생의 입학 동기도 예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학과 개설 초기에는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1지방인 일본학과에 들어가지 못해 한국학과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2010년부터는 한류 또는 한국 등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학과에 입학했다는 학생들이 늘었고, 최근 몇 년간은 일본학과에 다니다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 올해 입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한류, K-pop 특히 BTS 팬으로 이들은 한국 드라마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한국어가 멋있게 들려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이처럼 몇 년 사이 불가리아에서 한국학의 위상은 일본학과 중국학 비교하여 현격히 올라갔다.

소피아대 한국학 전공에서 현재 시행 중인 4년제 학사과정 커리큘럼은 크게 1) 실용한국어, 2) 한국어학, 3) 한국문학, 4) 한국지역학(문화, 역사, 경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는 주당 한국어 수업 시간이 12시간으로 여학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필수과목 외에 교수진의 상황에 따라 전공 선택 과목으로 한국 전통음악[사물놀이], 대중매체로 배우는 한국어, 한국어평가대비과정,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무속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동아시아학과 및 동남아시아학과생은 선택 필수(제2 아시아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주당 4시간씩 배운다. 2020년 10월부터 석사 과정에 실용한국어 대신 통·번역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통역과 번역 공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플로브디프 ‘파이시이 힐렌다르스키’ 국립대학교(개설 초기 현황)

2014년 10월 플로브디프대학교 응용언어학부에 세부전공으로 ‘영어-한국어’와 ‘불가리아어-한국어’전공이 개설되었다.

14) 설립 - 1888년, 현 학생 수 - 23,000명

15) 불가리아와 북한은 1948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냉전시기 동안 북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교류가 있었지만, 한국어 강좌는 개설되지 않았다.

16) 2020년 현재 동양어문화센터에는 한국학과 외 일본학과, 중국학과, 아랍학과, 터키-알타이학과, 고전 아시아학과 등 6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2013년에는 동남아시아학과가 추가로 개설되었다.

17) 2020/2021년 소피아대 신입생 모집 시 118개의 전공에서 8개의 전공이 1지방에 정원이 마감되었다. 한국학과는 유럽학, 경영학, 스칸디나비아학, 히브리어학과, 소프트웨어공학, 아프리카학, 회계·재정학과와 함께 1지방에서 정원이 마감되었다. <https://www.mediapool.bg/sofiskiyat-universitet-zapalni-8-ot-118-te-si-spetsialnosti-news309806.html>(검색일:2021년 5월 9일)

2014년 응용언어학과 ‘영어와 한국어’ 전공 신입생은 총 17명이었고 ‘불가리아어와 한국어’ 전공 신입생은 11명이었다. ‘불가리아어-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한국어교육 중심 교육을 받고, ‘영어-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한국어 번역가를 목표로 공부한다.

최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2019년에는 ‘불가리아어-한국어’ 전공에 10명, ‘영어-한국어’ 전공은 15명이 등록했다. 2015년 ‘불가리아어-한국어’ 전공 입학생 2명, ‘영어-한국어’ 전공 입학생 4명과 비교해보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플로브디프대학의 한국어 수업 시간은 1학년 1학기 120시간, 2학기 120시간으로 총 420, 2학년과 3학년은 1학기 180, 2학기 180으로 총 360시간이고, 4학년은 1학기 180, 2학기 240시간으로 총 420시간으로 4학년 때 한국어 수업이 가장 많다.

### ③ 벨리코 터르노보 ‘성 키릴 메토디’ 국립대학교

2012년 10월 벨리코 터르노보 대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총 35명이 등록하였는데 수강생들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일반인으로 대부분이 K-pop 팬이거나 한국 드라마 및 영화 팬이었다. 2013년 10월 벨리코 터르노보 대학교는 응용언어학 학생들에게 제1외국어로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이수하게 하고, 제2외국어로 한국어 및 다른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외국어 한국어 과정은 1학년 1학기 375시간, 2학기 150시간으로 1학년 과정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운다.

### ④ 뉴 불가리아 대학교<sup>18)</sup>

2019년 10월 뉴 불가리아 대학교에 한국어 과정(1A-10명, 1B-5명)이 개설되었으며, 2020년 10월에는 한국어 A1 과정에는 15명, A2 12명, B2 5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매달 1회 한국 특강을 조직하고 있는데, 한국 역사, 사회, 전통·현대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어 강사와 소피아대 교수 등이 강의를 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 ⑤ 트라키아 대학교<sup>19)</sup>

2014년 트라키아 대학교에 한국 친구 동아리(K-club)가 만들어졌고, 클럽 운영은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출신인 트라키아 대학교 영문학과 강사가 담당했다. 이 동아리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한국문화 행사를 조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올해 10월부터 트라키아 대학교 수의학과에 한국어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현재 7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작은 지방 도시의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정식과목으로 개설되고 5년 동안 매년 한국문화 행사가 개최된 것은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졸업생인 제냐 군다쉐바의 한국에 대한 열정과 노력 덕분이다.

18) 개설년도 1991년, 학생수 10,000명

19) 소피아에서 230기로 떨어진 산업도시임. 1995년에 설립되었고 학생수는 7000명임.

### ⑥ 18번 소피아 공립학교 “William Ewart Gladstone”<sup>20)</sup>

2011년 초 불가리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유럽 최초로 9월부터 한국어 전공 반을 개설하였다.<sup>21)</sup> 한국어 전공 반 학생들은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공부한다. 2011년 6월에 실시된 한국어반 입학생 모집에 총 156명이 응시하였고, 이 중 26명을 선발하였는데 한국어반은 일본어반 다음으로 커트라인이 높았다. 2013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배우는 반이 개설되어서 현재 한국어 전공 반은 1학년부터 12학년에 각각 한 반씩(정원 25명)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담당 교사는 불가리아인 3명인데 모두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출신이다. 현재 18번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300명이 넘는다. 2016년에는 8~12학년 과정을 마친 한국어 전공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2020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7학년까지 한국어 전공 반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하고 8학년으로 진학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어반 졸업생 수는 총 102명으로 2016년은 22명, 2017년은 24명, 2018년에는 28명, 2019년은 28명이었다. 18번 학교의 학년별 한국어 연간 시수는 2학년 64시간, 3학년 96시간, 4학년 102시간, 5~6학년 119시간, 7학년 108시간, 8학년 648시간, 9학년 144시간, 10학년 72시간, 11학년 144시간, 12학년 124시간이다. 8학년 한국어 수업은 연간 648시간으로 이 시기에는 한국어 교육을 집중시켜 어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⑦ 138번 소피아 공립학교

2020년 9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관광전공 반을 8학년에 개설하였고 소피아대 한국학과 4학년 학생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⑧ 97번 소피아 초등학교

2020년 9월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였고, 소피아대 한국학과 4학년 학생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⑨ 바르나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sup>22)</sup>

바르나 한국어 교육센터는 비영리 단체(NPO)로 불가리아 비영리단체법에 의해 센터장 및 교원 포함 총 9인의 이사로 시작되었다. 2020년 현재 7인(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소지 교사 2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에는 6명의 바르나 한국어 교육센터의 학생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진행한 단기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간 무료로 진행하던 수업을 유료 형태로 전환하여 학습자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단순 취미 목적에서 벗어나 유학, 취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선별,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했다. 수강료 유료화와 함께 학

20) 1905년에 설립된 18번 학교는 깊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불가리아의 우수 공립학교이다. 현재 재학생 수가 2,000명으로 불가리아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이다.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이며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의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21) 2010년 김소영 교수가 18번 공립학교를 방문, 스토이체바 교장을 만나서 한국어 전공 반 개설을 건의하였고, 학교 측에서 긍정적인 검토하여 교육부에 한국어 반 개설 승인을 요청하였다.

22) 바르나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제공 - 바르나 한국어 교육센터 김세희 소장.

습자의 연령대가 10~20대로 교체되었다.

2016년 4월 바르나 1번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2020년 현재까지 3년 동안 꾸준히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한국어 과정 개설 후 2017년부터 한국 교육부를 통해 이곳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 및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 ⑩ 소피아 세종학당

소피아 세종학당은 재외공관(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 및 소피아대학교 연계형으로 2013년 7월에 신규학당으로 지정되었다. 소피아 세종학당은 소피아대학교를 현지 운영기관으로 하여 연계형으로 승인된바, 소피아 세종학당 교원은 소피아 대학교에 소속된 자를 교원으로 선발하였다. 2019년 현재 불가리아인 교원 2명, 한국인 교원 4명이 한국어 및 문화를 교수하고 있다. 한국어는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세종 한국어 1~8’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종 한국어 1~2권은 현지인이 교수하며 세종 한국어 3권부터는 한국인이 교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표준한국어 정규 과정은 1년에 2학기로 운영을 하고 있다. 1학기는 매해 3월~6월, 2학기는 9월~12월로 운영을 한다. 1학기는 60 시수로 1주 4시수, 15주로 운영된다.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정규과정 문화 반을 개설하여 일반 문화 및 사물놀이를 교수하고 있다. 소피아 세종학당에서 사물놀이반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사물놀이를 교수할 수 있는 교원이 있으며 둘째, 사물놀이를 연습할 수 있는 악기를 갖추고 있으며 셋째, 사물놀이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강습실이 있기 때문이다. 소피아 세종학당은 세종학당 재단의 지원으로 상기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 수강생들이 사물놀이를 공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량을 끌어올렸다. 2017년에는 세종학당재단 문화사업부 신규 사업인 ‘세종문화 아카데미’ 사업에 지원하여 문화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물품 지원을 받아 체험형 문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부터는 재단 파견 문화 전문가의 수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세종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문화 전문가가 진행하는 한식, 한복, 한지공예, 케이팝 댄스, 케이뷰티, 사물놀이 수업이 진행 중이다. 세종문화 아카데미 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16년부터 교수를 시작한 사물놀이 수업이 2017년부터 정규 문화 수업으로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국립국악원 소속 파견 강사를 통해 사물놀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을 배양했다는 점이다.

소피아 세종학당 출신 중에 4명이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학부 과정에 입학하였고, 1명이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한국학을 수학하고 있다. 세종학당 수강생에서 한국학과 학생으로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학을 연구하는 것은 발전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세종학당 수강생 수는 62명인데 그중 10명은 사물놀이반이고 나머지는 초급과 중급 한국어반, 비즈니스 한국어반이다. 한국어 과정 50명의 연령대를 보면 10대 16명, 20대 18명, 30대 11명, 40대 5명이고 직업은 학생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자 5명, 의사 2명, 회사원 4명, IT 4명, 시각 디자이너 2명, 프리랜서 2명, 기타 5명이다. 가족이 함께 한국어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올해는 의사 2명이 한국어 초급반이 등록했다. 의사인 아버지가 K-pop 팬인 딸, 자신의 동료 의사와 함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국드라마나 영화 팬인 30~50대가 한국어를 많이 배웠는데 K-pop의 인기로 10~20대 수강생 수가 늘어나면서 K-pop 팬인 10대 자녀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부모가 자식을 한국어 반에 입학시켜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 ⑪ 부르가스 한국어 교육 현황<sup>23)</sup>

부르가스 지역은 2018년 공립학교에 한국어반이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의 한국어 수학 동기 조사 결과 60% 이상이 'BTS 때문'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그다음은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였다. 첫째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직업 전문 고등학교, 코자카팔리아타 초·중학교 및 영어 외국어 고등학교 3개의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다. 2019년에는 수학 중·고등학교, 키릴 메토디 초·중·고등학교 2개의 학교에 추가로 한국어반이 개설되었다. 각 학교에서는 1년에 총 180 시수의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진다. 가장 어린 학생은 5학년이며 12학년 학생까지 한국어를 신청할 수 있다. 매년 한국어 수업 신청자 수는 60~70명이며 상기 지정된 학교 외에 이탈리아어 외국어 고등학교, 프랑스어 외국어 고등학교, 상업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반이 구성되었다.

## 4. 나오기

동유럽 국가들은 90년대 초 한국과 수교를 맺은 후 한국과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하며 한국어 교육도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하였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기존에 '조선어'강좌를 열고 북한말을 가르치던 학교에서는 한국과 수교 후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현지인이나 한국인 파견 교수의 영향으로 남한말을 표준어로 가르치게 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동유럽 내 한류 팬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2, 3년에 걸쳐 인기 케이팝 그룹인 BTS 등의 10대 팬들이 팬덤을 형성하여 한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 열풍으로 최근 한국학과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는 이미 미디어와 한류를 토대로 한국 문화와 대중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한국학과에 오기 전, 인터넷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얻거나, 사설학원과 고등학교에서 기초 한국어를 미리 학습하고 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유럽 내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학 발전의 토대가 되고 이들을 한국학의 학문 후속 세대로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류라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어 교육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발칸지역 국가 중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에서는 90년대에 한국학과가 대학에 정규학위 과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구유고슬라비아 연방국들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한국학을 정식 학위 과정으로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가리아 소피아대 한국학과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전임교원이 8명으로 유럽 한국학과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피아 세종학당도 운영 요원 2명, 교원 6명, 총 8명의 현지인과 한국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등 발칸 국가들의 한국어 교육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말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와 소피아 세종학당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어교육자 워크숍에서 발칸한국어문화학회를 발족시켰으며 앞으로 이 학회를 통해 발칸 국가의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위해 교류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한국어 학습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케이팝, 특히 BTS의 인기 때문이다. 2010년 불가리아에서 한류 열풍이 일면서 30대 이상의 여성 팬들이 주로 한국어를 배웠으나 그 후 청소년 K-pop 팬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학습자 연령도 10대, 20대로 낮아졌다. 이들은 K-pop 댄스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만나서 춤을 추거나 콘서트를 열고 그들의 부모도 자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등 온 가족들이 드라마, K-pop의 팬이 되기도 한다. 이런 청소년층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어 강사 지원, 문화 교구 및 교재 지원 등으로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현대 문화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국가

23) 부르가스 한국어 교육 현황 제공 - 부르가스 한국어 교사 김수미 선생님

의 교육부, 현지 학교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사 워크숍, 문화강좌 등을 조직하여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증대하고 교수 역량을 함양하고,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에 대한 사회, 문화적 시야의 지평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그 성과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소영(2011), 불가리아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2011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교육』, 한국학 중앙연구원.
- 김소영(2012), 불가리아의 한류와 한국어교육, 『Journal of CEESOK 13』, 비엔나대학교.
- 최권진(2005), 동유럽 지역의 한국어 교육과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 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주제 특강Ⅱ

동유럽의 한국학 연구

## 동유럽의 한국학 연구

파베우 키다(University of Potsnan, Poland)



# 폴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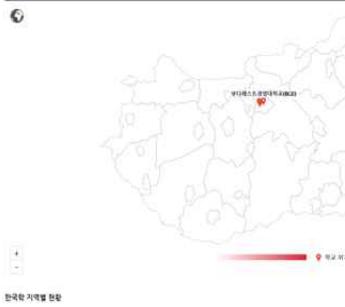
# 체코



# 슬로바키아



# 헝가리



## 소역사-체코

- 유럽 가장 오래된 한국학 - 프라하 대학교 1950년
- Vladimír Puck 교수
- Miriam Löwensteinová 교수
- Marek Zemanek 교수

## 소역사 - 폴란드

- 바르샤바 대학교
- 아담 미츠키에비즈 대학교
- 야기엘로니안 대학교
- 브로츠와프 대학교

소역사-  
헝가리

- ELTE 대학교
- Mozes Csoma 교수
- Beatrix Mecsi 교수

소역사-  
슬로바키아

- Comenius 대학교
- Milos Prochazka 교수

프라하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3년, 석사 2년)

1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li> <li>제2외국어</li> <li>한국어기초문법</li> <li>한국학개론</li> <li>한자</li> <li>한국외지법</li> <li>철학 입문</li> <li>아시아 문화의 형성</li> <li>아시아의 사상</li> <li>프로세미나</li> </ul>
2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li> <li>제2외국어</li> <li>한국어기초문법</li> <li>한국어 텍스트 읽기</li> <li>한자</li> <li>한국어 장단 연습</li> </ul>
3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li> <li>학사 논문 연구</li> <li>한국어 어휘론</li> <li>한국어 텍스트 읽기</li> </ul>
수업 선택 과목 1.0.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역사, 한국 문화, 한의 한국 문화, 한국 근대사</li> <li>아시아 근대사 형성</li> <li>논문 연구</li> <li>한국어 및 텍스트의 형식</li> </ul>
1.0학년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이론문법</li> <li>한국어 통역 연습</li> <li>한국어의 발달사</li> </ul>
필수 선택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 문화의 역사와 형성, 아시아의 종교와 문화, 아시아 문화의 언어와 문화</li> </ul>

ELTE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3년, 석사 2년)

1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li> <li>한자</li> <li>한국어 역사</li> <li>국문 문법 및 교육</li> <li>한국어</li> <li>한국어 텍스트 읽기</li> </ul>
2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문학</li> <li>한국어 회화</li> <li>한국어 역사</li> <li>한국어 전통 문화</li> <li>한국 사회</li> <li>한어 한국 문화</li> <li>한국어</li> <li>한국어 회화</li> </ul>
3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즈니스 한국어</li> <li>한국어 번역 연습</li> <li>한국어 이론학 입문</li> <li>한어 한국 문화</li> <li>논문 연구</li> <li>한국어</li> <li>일본어</li> <li>한국 현대사</li> <li>한국어 문법</li> </ul>
1.0학년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문학</li> <li>한국 전통 문화</li> <li>한국어 번역 연습</li> <li>국문 전통 문화</li> <li>상동문사</li> </ul>

포즈난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3년, 석사 2년)

1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중 한국어</li> <li>제2외국어</li> <li>한국학 기본</li> <li>인사적 입문</li> <li>일반대학 입문</li> <li>한자</li> <li>능력학</li> <li>일반 입문</li> </ul>
2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중 한국어</li> <li>제2외국어</li> <li>한국어 종합</li> <li>한국학 역사</li> <li>한자</li> <li>한국학 현황</li> <li>일중 한국어</li> <li>제2외국어</li> <li>한국어 기술 종합</li> <li>한국학 문화</li> <li>한국어 역사</li> <li>한국어 번역(번역) 실용</li> <li>논문 연구</li> </ul>
3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외국어</li> <li>한국어 기술 종합</li> <li>한국학 문화</li> <li>한국어 역사</li> <li>한국어 번역(번역) 실용</li> <li>논문 연구</li> </ul>
필수 석사 과정	한국 사회, 한국어 능력 시험(어휘 1, 키오시스 한국어 1, 한국 현실)
1.0 학년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중 한국어</li> <li>일중어</li> <li>한국어 번역 연습</li> <li>한국어 문화 연습</li> <li>한국어 전문 분야 번역 연습</li> <li>논문 연구</li> </ul>
필수 석사 과정	한국 경제, 한국어 능력 시험(어휘 2, 키오시스 한국어 2, 한국 현실)

Comenius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4년, 석사 2년)

1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제1회 1.0</li> <li>한국어 종합 1.0</li> <li>한국어 종합 연습 1.0</li> <li>한국어 쓰기 1.0</li> <li>한국학 기본</li> <li>한국어 제1회 2.0</li> <li>한국어 종합 2.0</li> </ul>
2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자 1.0</li> <li>한국어 실용 연습</li> <li>한국어 키오시스(연습)</li> <li>한국어 신문 읽기 1</li> <li>한국어 제1회 3.0</li> <li>한국어 키오시스(연습) 2</li> <li>한국어 신문 읽기 2</li> <li>한국어 역사</li> </ul>
3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자 2</li> <li>한국 사회</li> <li>문화의 역사와 현재</li> <li>키오시스 한국어</li> </ul>
4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키오시스(읽기) 연습 1</li> <li>고급 한국어 제1회 1.0</li> <li>한국학 현황</li> <li>한국어 키오시스(연습) 3</li> <li>한국어 키오시스(읽기) 연습 2</li> <li>이전고 쓰기</li> <li>논문 연구</li> </ul>
필수 석사 과정	한국학 연구, 아시아의 경제, 한국 언어학
1.0 학년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급 한국어 제1회 1.0 &amp; 2.0</li> <li>한국어 실용 연습</li> <li>한국어 전문 분야 키오시스 읽기 1.0</li> <li>한국어 번역 연습 1.0</li> </ul>
필수 석사 과정	주제어 1.0, 동아시아의 경제, 한국 역사

## 연구와 문제점

- 단행본 출판
- 공동 프로젝트
- 강사와 교수 부족
- 한국인 학자와 협력
- 한국국제교류재단 역할
- 한국학 중앙 연구원 역할
- 자매 대학교 협력

감사합니다



분과

1

동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사회 : 최권진(인하대학교)

## 조지아에서 한국어 확산 상황

Tamta Abuladze(Ilia State University, Georgia)

### 머리말

우리 나라, 조지아와 대한민국 관계가 1992년부터 시작되고 요즘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조지아 관계는 올해 12월에 30년이 될 것이다.

조지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러 교육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한국어에 관심이 왜 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언제 시작했는지 알려 드릴 것이다.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상황이 완전 변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국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객들도 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지고 한국어가 더 인기가 증가한다.

또한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없어서 그런지 한국어를 다른 외국어를 통해서 가르친다.

코로나19에 상황때 여러 단장점도 생겼다.

단점은 온라인 교육 자료이고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보내기 힘들었다. 하지만 대학교 지원덕분에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하면 학생들에게 여러 국제회의에 참여한 기회를 주어서 중요한 경험을 받게 되었다.

### 1. 우리 나라 소개하기 - 조지아

조지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다. 조지아 역사가 너무 오래되며 재미있으며 겁니다. 우리 나라의 수도가 트빌리시이다. 인구는 2016년 조사에 의하면 1.114(백십일만사천)명이고요. 조지아가 세계의 작은 나라 중에서 하나이다.

조지아는 역사적으로 소련 연방에 있던 나라이며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하였다. 현재 조지아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독립된 나라이다. 지리적으로 조지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과 관광을 목적으로 조지아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중국,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조지아에 많은데 요즘 한국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조지아를 관심 있게 봐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많이 달라진다. 외나하면 관광객이 오기 쉽지도 않고 우리 나라에 코로나탓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고여러나라에서 올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 1.1 조지아 특별한 점

우리 나라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과 겨울이 있다. 봄이 3월에 시작되는데 좀 춥다. 4월부터 꽃이 피며 따뜻해진다. 사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나들이도 많이 다니고 정망이 좋은 산맥 지역에 방문하기도 한다.

여름은 조지아에서 가장 더운 계절이기에 사람들이 휴가로 시원한 산에 많이 가거나 서쪽에 바닷가로 여행을 하기도 한다. 조지아는 농산물도 풍부해서 맛있는 제철 과일 및 야채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가 있다.

가을이 조지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을에는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담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주한다. 아시다시피 조지아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방법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으면 이를 크베브리라고 합니다. 이때는 날씨도 선선해서 단풍 구경을 하고 멋진 전망을 만끽 할 수 있다.

가을이 끝날 무렵에 바로 겨울이 시작되며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온다. 온 나라가 눈에 뒤덮이며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어진다. 조지아는 산맥이 많기에 스키나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산에 가고 거기서 놀 수 있다. 올해는 우리 나라에서 스키-크로스 국제 대회를 대접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스키선수가 많이 왔다.



## 2.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전 세계에서 한류가(Korean wave) 1980년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에 이 열풍이 조지아까지도 도달을 하였다.

한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지아에서는 한국어에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역사에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물론 여러가지 있다.

조지아에 한국 열풍이 불고 있는 가중 중요한 요소는 K-pop 과 한국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 유학을 목표로 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좋은 한국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거기서 좋은 경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면 유학도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우리 나라에 오는 관광객도 있고 투자하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또한, 여러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도 있으리라 한국어공부가 취미로 시작한다.하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에 관심

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도 여러분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이다.

### 3. 한국어를 가르치기

무려 1996년에 처음으로 자유대학교에 아시아-아프리카 학과에 한국어 수업이 생겼지만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표하지 않았다.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저 포함 3명 밖에 없었다.

그 후 2012년부터 급격히 조지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하여 자유대학교 외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몇 개 생겼다.

2014년에 외국어 학원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을 때는 학생이 5명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50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봄학기부터 저는 일리아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되었다.

대학교 과정에 따르면 한국어는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다. 즉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누구나 원하면 강습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주 2회 2시간 동안 한국어 수업이 개최된다.

지금은 초급반에 1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중급반에는 5명이 있다.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노래와 드라마를 동반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2020년 세계적인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 하고 있다.

무려 1년 넘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면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말처럼 수월하지가 않다. 또한, 교수진 및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경험이 없어서 문제점이 많았다. 하지만 일리아 국립대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은 학생들에게 쉽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저는 한국어 문법과 새로운 자료를 설명할 때 비디오 형식으로 녹화를 해서 공유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공부를 재밌게 하기 때문이다.

대학교의 협력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한국어 교과서 발굴 과정이다. 조지아어로 되어있는 한국어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된 어 있는 책을 사용한다. 영어와 한국어를 동해서 이해해야 되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저희는 가나다 한국어 for Foreigners; Ihwa Korean , Grammar in Use 등 여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 4. 국제 회의, 문화적인 행사 그리고 여러가지 프로그램

저는 학생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운 한국어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에는 주 조지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문화 행사에 저희 학생들이 참여를 하여 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작년 말에 일리아 국립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Hankuk)가 협력을 하여 한국어에 대한 발표를 하여 학생들도 참가할 기회를 주었다.

올해 3월 말에도 일리아 국립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또 국제회의를 가져 우리 학생들이 조지아와 한국 관계, 그리고 그 두 나라 추후 개발에 대한 논의를 했다.

유감스럽게도 대면으로 하는 문화 행사가 많이 없어서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다.

앞으로 이러한 화상 회의 및 문화 행사는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조지아에서는 일 년에 한번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신청을 하면 참여를 하여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인증받을 수 있다.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유학의 기회가 생겨서 한국어 능력시험 인기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지아에서는 KGSP라는 석사 장학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가 있으며 매년 서류를 보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는 일리아 국립대학교의 졸업생을 합격을 하여 9월부터 한국에 유학을 할 예정이다.

석사와 박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주조지아대한민국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결론

우선 저희 대학교에서는 봄 학기말에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에 관한 여러 분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조지아어와 한국어 사전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준비 과정에 있다.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게 하는 게 저희 희망이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를 조지아어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일리아 국립대학교와 같이 협력을 하여 교과서를 만들 생각이다. 이런 교과서가 생기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약할 드리자면 한국어는 조지아에서 인기가 급상승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한국에 유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많은 학생에 가서 멋진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토론〉 “조지아에서 한국어 확산 상황”에 대한 토론문

전문이(예레반국립대학교)

이 발표에서는 조지아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그 원인을 소개하고, 나아가 현지어로 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조지아어 사전 편찬, 한국학 관련 화상회의 등 지역 내 한국어 교수학습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과 실제로 진행된 한국 내 대학교와의 공동 화상회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활동하는 모습을 뵈게 되어 아주 기쁘고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준비하고 계신 여러 활동들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조지아인 한국어 학습자 관련:** 조지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로 한류의 영향, 유학, 취직 등 다양한 요인을 나열하셨습니다. 한국어 학습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요구 설문 조사 등과 같은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지아 내 한국어 교육 기관, 최근 10년간 한국어 학습자 수의 변화, 학습 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최종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조지아어 한국어 교재 관련:**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 중 하나로 조지아어로 된 한국어 교재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역시 조지아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지어로 된 한국어 교재가 없어서 영어나 러시아어로 설명이 된 교재를 사용하거나 한국어로만 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급 학습자의 경우 문법이나 어휘 등 현지어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중급 이상의 학습자 역시 수업 시간에 현지어로 된 교재가 절실하게 필요한가에 대한 점입니다. 교실 수업에서는 한국어로만 진행을 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수업 이후 참조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한국어-조지아어 사전 개발:** 2000년대 초반에 조지아에서 계로이 교수님께서 한국어-조지아어 사전 편찬을 준비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리야 대학교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사전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전인지 궁금합니다. 사전 편찬 작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 대학교 차원 이외의 다른 기관의 도움이 요구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4. 한국학 관련 화상회의 개최:** 이번 학기 말에 한국학 관련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회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국제회의:** 해외에 있는 대학교와 한국 내 대학교 간의 이러한 협력은 모범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일리야 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교에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통번역 교육에 있어서 지역학의 위치: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학과를 중심으로

Bahar Aliyeva(Azerbaijan University of Languages, Azerbaijan)

### 1. 들어가기

본 논문의 목적은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학과를 중심으로 한국학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짚어가면서 한국어 통번역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언어만 알아서는 전문적인 통번역사가 될 수는 없다. 통역 및 번역 과정은 단순히 말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포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소, 또는 연사나 저자의 생각과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 또한 언어 학습에만 국한되면 안 되며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 더 나아가서 문학을 배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통역(번역) 과정에서 요구되는 배경지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아제르바이잔에서 통번역 교육 과정에서 지역학 교육은 과소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본 대학 통번역 교육 과정에서 지역학 과목은 학사과정 중 단 한번에 걸쳐서 45시간으로 개설되고 있는데 그 시수만 봐도 지역학(한국학) 교육이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통번역교육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역학을 통번역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학습자들이 언어와 지역학(한국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통번역 과정 시 배경 지식

통번역이란 단순히 어떤 말이나 글을 출발어로부터 도착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연사나 저자가 의도한 바, 생각한 바 혹은 그 느낌까지 다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번역사는 먼저 도착어로 된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의 이해가 아니라,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 혹은 컨텍스트의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해라는 과정이 배경지식 없이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아무리 언어를 잘 알고 있더라도 해당 텍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 혹은 감각이 없으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해낼 수가 없다.

예컨대,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을 번역할때 한국전통집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소설에서 나온 윗방, 아랫방 같은 단어들은 1층, 2층에 해당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잘 못 번역한 적이 있었다. 이런 번역 오류는 물론 해당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배경지식은 통번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통번역 교육 과정도 언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통번역 훈련과 동시에 배경지식도 쌓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제르바이잔에서 유일

하게 한국어통번역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통번역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언어 교육과 지역학 교육의 연계 방안

#### 3.1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교 한국어 통번역과 교육 과정

현재 한국어/ 한국학 교육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아제르바이잔언어대학교(한국어통번역학과) 및 바쿠 국립대학교(한국학과) 뿐이며<sup>1)</sup> 교양 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이 진행되는 대학은 공개대학교, 겐제 공대 대학교, 나흐즈반 대학교로 총 3개 대학이다.

〈표 1〉 아제르바이잔 한국어/ 한국학 교육 현황 (2020-2021년 기준)

		기관 수	학생 수	한국어/한국학 인원 수
학위 과정	한국어 통번역과	1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교)	학사 과정 59 명 / 석사 과정 3 명	5
	한국학과	1 (바쿠 국립대학교)	학사 과정	3
	한국어교육 학과 (대학원 과정)	1 (바쿠국립대학교)	1명	-
	기타(제 2 외국어 등)	3 (공과대학교, 겐제 공대 대학교, 나흐즈반 대학교)	-	6

한국어통번역학과가 유일하게 개설된 아제르바이잔언어대학교는 사범대학교의 소속으로 외국어학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의 아제르바이잔언어대학교의 모습으로는 1948년도에 설립되었다. 현재 교육학부, 국제관계 및 운영 학부, 언어학 및 신문방송학부, 통·번역학부, 보충 교육 및 실습학부의 총 5개 학부로 운영되고 있다.

통·번역학부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통·번역 전공이 학사 및 석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통·번역 전공의 경우에는 학사 과정이 199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sup>2)</sup> 석사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된 해는 2011년이다.

현재 학사 과정 재학생은 총 59 명이며, 석사 과정 재학생은 총 3명이다. 지난 몇 4년 동안 입시 때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한국어통번역학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예컨대,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한국어통번역학과를 선택했다) 이는 한류 열풍 등으로 아제르바이잔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의 질이다. 이렇게 열공적인 학생들을 받아놓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

- 1) 한국어/한국학을 전공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언어대학교와 바쿠 국립대학은 서로 전공이 달라서 양 대학의 교육 과정도 서로 다르다. 예컨대,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의 경우에는 언어 위주의 교육의 진행되는 반면에 바쿠 국립 대학의 경우 지역학 위주로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 2) 한국어 과정은 1994년에 통·번역학부 내에 영어학과의 복수전공으로 개설되었다가 2007년에는 영어 통번역학부에서 독립되어 한국어통번역학과로 개편되었다.

부분은 1학년에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만 막상 2학년으로 넘어가고는 그 중 대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열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또 큰 문제는 졸업할 때가 되면 한 반의 졸업생들 가운데 많아도 2-3명만 한국어/ 한국학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한국어통번역 전문가로 활동할 능력을 가진다. 물론 여기에는 향후 취직 문제 등 여러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으나 본 글에서 그런 요인들을 배제하여 교육 과정, 그 중에서도 ‘한국학 교육’에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현재 운영되는 한국어 통번역 교육 현황/ 강좌 개설(학사 과정)을 살펴본 다음 문제점 및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교 한국어통번역과교육 과정

학년	과목명	학생 수	교재
1	읽기 (주당 8 시간)	15 명	연세대학교 교재
	쓰기 (주당 8 시간)		
	말하기 (주당 8시간)		
	발음 및 듣기 (주당 8시간)		
	지역학과 문화 간 소통 (한국학) (주당 4시간)		통일된 교재 부재
	통번역 입문 (주당 2시간)		아제르바이잔어로 된 교재 사용
2	문어의 이해와 표현(주당 8시간)	16 명	연세대학교 교재
	구어의 이해와 표현(주당 6시간)		
	직업 통역론(주당 6시간)		최정화, 외국어와 통역 번역 외 다수
	기타 (전공 외 과목) : 정보학, 역사, 국어, 영어		
3	번역(주당 6시간)	15 명	통일된 교재 부재
	주제 통·번역 1 (사회 정치, 국제기구, 경제 등) (주당 6시간)		
	주제 통·번역 2 (환경, 문서 번역 등 ) (주당 6시간)		
	통·번역 개론(주당 2시간)		
	순차통역과 노트테이킹 기술(주당 6시간)		
	문서와 용어(주당 2시간)		
	컴퓨터 프로그램 번역 (주당 4시간)		
	아제리어-한국어 번역 (주당 4시간)		
	서면 텍스트의 통역 (주당 4 시간)		
	기타 (전공 외 과목): 다문화, 영어		
4	통역(주당 6시간)		통일된 교재 부재
	주제 통·번역 3 (의학, 문학*, 석유 분야) (주당 6시간) *2020년 입학생부터는 문학 번역은 필수 과목임.		
	대중 매체 자료 번역 (주당 4시간)		
	기타 (영어)		

〈표 2〉에서 나타나듯이 1학년을 제외하면 한국학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공하는 언어의 문화, 사회, 역사, 문학 등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채 3-4년에 넘어가서 문학, 사회 정치 등과 관련된 통번역 수업을 수강하게 되어 4학년

말기에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학위논문까지 써야 한다. 결국 배경 지식이 부재한 채 통번역 연습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sup>3)</sup>

한편 1학년에 배우는 한국학 과목이 학교 규정상 한국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1학년생들은 한국학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국어로 이해할 수준이 되지 못 한다. 결국은 비교적 쉬운 내용의 문화 텍스트를 위주로 한국학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통일된 교재도 부재한 것이나, 이는 현재 집필 중이다.

### 3.2. 언어교육과 지역학 교육의 연계 방안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통번역 교육 과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1학년에만 개설되는 한국학 과목을 2, 3 학년에도 개설하는데 각 학년의 한국어 수준 및 다음 학년에 개설될 통번역 수업을 고려하여 서로 주제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어 수준이 아직 초급인 1학년의 경우에는 “한국 문화” 과목을 개설하여, 2학년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와 정치”, 3학년의 경우에는 “한국문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한다. 그러면, 2학년에 배운 한국사회와 정치에 대한 내용들은 이후 3학년 과목 중에 하나인 주제번역(사회 정치, 국제기구, 경제 등) 과목과 연계될 것이고, 한국문학 과목은 문학번역 과목과 연계될 것이다. 따라서 통번역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쌓아가지고 보다 질 높은 통번역 실습의 밑바닥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현재 “한국학 교재”가 집필 중이나 이는 현재의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집필된 것이어서 향후 각 주제에 관한 서로 개별된 교재를 집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통번역 과목 시 실습 자료로 활용된 텍스트들의 구성이다. 예컨대, 한국어-아제르바이잔어로 통번역 실습 시 자료 구성을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계획하여 학생들이 한국학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제 번역-경제” 과목에서는 실습 자료로 한국 경제, 혹은 한국수출 등에 관한 텍스트들을 활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관련 어휘 및 표현들을 습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분야/ 문제 관련 한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보여주게 한다. 그러면 향후 학생들이 실제 통번역 시 한국과 관련된 그 어떤 주제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 4. 결론

이상에서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과를 중심으로 한국학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짚어가면서 한국어 통번역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통번역 교육의 있어서 지역학 교육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통번역사의 배경지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다. 따라서 언어 위주의 통번역 교육에서 벗어나고 전공언어의 지역학 교육과 동시에 통번역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공언어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지식 없이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어’만 외우는 것에 그칠 테고, 결국 그런 교육을 받은 통번역사의 통역/번역은 단어 혹은 문장을 통역/번역하는 것이지 ‘언어’를 통역하는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3) <표 2>에서 나타나듯이 1-2학년에는 주로 한국어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3-4학년에는 통번역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표만 봐도 이런 교육 과정의 문제점들을 엿볼 수 있다. 우선, 2학년에는 한국어 수업 시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대신 역사, 국어 등으로 전공 외에 과목들의 시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전공 공부에 할당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점은 학교 측에서도 인정한 것이나 아직도 이런 교육 과정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 참고문헌 ■

최정화, 2005, 외국어와 통역 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이향, 2008, 번역이란 무엇인가, 살리.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한국문화사.

미카일 우스티노프 저, 조준형 역, 2020, 번역,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토론〉 “통번역 교육에 있어서 지역학의 위치: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학과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조형일(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역학, 국제 사업을 중점에 두면 통번역 교육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알리에바 바하르 선생님의 논의에서 잘 포착되었듯 지역학 측면에서 통번역 교육의 내용과 중점을 고찰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고 국제교류, ODA 사업들을 담당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을 설게 운영하고 있는 저는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 고견을 청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해 보겠습니다.

통번역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 요구 조건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들 양상 및 추가 요건에 대한 말씀을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기술된 내용으로 볼 때 성적이 높은 학생처럼만 기술되어 있는 바, 한국어 능력은 어떻게 측정되었고,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표1에 따르면 1학년 단계에서 지역학(주 4시간)을 배우고 2학년 단계에서는 정보학, 역사학, 3-4학년 단계에서는 주제별 통번역 연습 안에 지역학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한국어 과목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추가될 수 있을까요? 1-2학년에 한국문화와 문학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번역 주제번역과 연계 실습하는 과정을 제안하고 계신데요. 1번의 질문과 연계하여, 한국어 6급 수준의 학습자가 통번역 과정으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주제 중심의 통번역 교육이 1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문화와 문학적 분야의 지식은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통역과 번역을 하나로 묶어 통번역으로 처리하기에는 이 두 영역의 특성은 너무도 다릅니다. 따라서 통역 전공과 번역 전공으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목표	
8개 외국어(영어, 불어, 독어, 노어, 서어, 중어, 일어, 아랍어)를 포괄하는 국내 및 아시아 최초의 통역번역 교육기관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수 언어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연계하여 특수어 협동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국어와 전공외국어에 대한 완벽한 구사력을 입학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며, 입학 후 강도 높은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 통역사 및 전문번역사를 양성,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	
공통필수과목	1. 통번역 입문 (Introduc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2. 주제특강 I, II (Special Lecture)
공통선택과목	1. 통번역강독 I, II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Reading)

	2. 모의회의 I, II (Mock Conference)
전공필수과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순차통역 A-B/B-A I (Consecutive Interpretation I)</li> <li>2. 순차통역 A-B/B-A II(Consecutive Interpretation II)</li> <li>3. 순차통역 A-B/B-A III(Consecutive Interpretation III)</li> <li>4. 순차통역 A-B/B-A IV(Consecutive Interpretation IV)</li> <li>5. 일반번역 A-B/B-A (Basic Translation)</li> <li>6. 산업경제번역 A-B/B-A/C-A (Translation of Economic and Commercial Texts)</li> <li>7. 동시통역입문(Introducing Simultaneous Interpreting)</li> </ol>
전공선택과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제별 발표/시사토론 I, II (Presentation/Debate in Current Affairs)</li> <li>2. B언어숙달, II (Advanced B Language Discourse)</li> <li>3. 한국어숙달 I, II (Advanced Korean Language Discourse)</li> <li>4. 정치법률번역 A-B/B-A/C-A (Translation of Political and Legal Texts)</li> <li>5. 전문번역 (Advanced Translation)</li> <li>6. 문학번역 (Literary Translation) (비영어과)</li> <li>7. 인문사회번역 (Translation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비영어과)</li> <li>8. 과학기술번역 A-B/B-A/C-A (Transl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Texts)</li> <li>9. 미디어번역 A-B/B-A (Media Translation)</li> <li>10. CAT (Computer-Aided Translation)</li> <li>11. 번역프랙티컴 I, II (Translation Practicum)</li> <li>12. 전문순차통역 A-B/B-A I, II (Consecutive Interpretation for Specific Areas)</li> <li>13. 동시통역 A-B/B-A I (Simultaneous Interpreting I)</li> <li>14. 동시통역 II A-B/B-A(Simultaneous Interpreting II)</li> <li>15. 전문동시통역 A-B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Specific Areas)</li> <li>16. 지역사회통역 A-B (Community Interpreting A-B) (비영어과)</li> </ol>
선택과목 (한영과 번역전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학번역 A-B (Translation of Korean Studies Texts)</li> <li>2. 번역비평 (Translation Criticism and Evaluation)</li> </ol>
전공필수과목 (한영과 번역전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번역학입문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li> <li>2. 한국어작문</li> <li>3. 영어작문</li> <li>4. 문학번역 A-B/B-A I, II, III (Literary Translation)</li> <li>5. 인문사회번역 A-B/B-A I, II (Translation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li> <li>6. 번역학세미나 (Translation Studies Seminar)</li> </ol>

발표를 좋은 연구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성근 토론을 맺습니다. 고맙습니다.

분과 2

동유럽어와 한국어의 대조 연구

사회 : 백승주(전남대학교)

## 음향자질 비교를 통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대응 양상 연구<sup>1)</sup>

심현주·박안토니나(Southern Ukrainian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K. D. Ushinsky, Ukraine)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를 위한 실제적인 한국어 자음 음가의 표기(transliteration)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자료에서의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음가의 표기 방식을 참고하여 자음 간 대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자음의 음향자질(acoustic feature) 특징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인 음성자료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각 자음별 음향자질 자료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두 언어의 자음별 음향자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음 간 대응 관계를 설정하였다. 하고 한국어 자음의 음가 표기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자음의 음가 제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발음의 지각 및 산출, 오류 양상 등의 연구에도 기초자료로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재나 발음교육 관련서적에서는 보통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그리고 발성 유형(phonation type) 등을 기준으로 자음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와 함께 국제음성기호(IPA)나 유사한 음가의 영어 자음을 병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공자가 아닌 이상 IPA를 보고 학습자가 그 음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영어와 같은 매개어를 사용하는 것도 한국어 자음이 가지는 본래의 음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sup>2)</sup> 그리고 교재에 따라 음가를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이다(김서형, 2018; 안주호, 2018).

한국어 자음의 음가 표기를 외국인 학습자 측면에서 유용하고 한국인의 인식에도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언어의 분절음 발음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어의 경우 자음을 변별하는 음향자질의 특징과 위계를 분석하고 교재에 나타난 자음의 음가 제시 방법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배문정·김정오, 2002; 배문정 2010; 김서형, 2018; 안주호, 2018). 반면에 우크라이나어는 음가 표기에 있어서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음향자질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Pompino-Marschall 등, 2017; Vakulenko, 2019). 키릴 문자(Cyrillic alphabet)를 기반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어는 한국어교사에게 낯선 언어이기 때문에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자음 간 대응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교사에게 직접 발음을 배우기 어려운 국외 학습자를 고려한다면 객관적인 분석 방법을 통한 효용성 있는 한국어 자음 음가의 표기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작업이다.

1) 이 발표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연구(NRF-2020S1A5B5A17091193)의 일환임.  
2) 국제음성기호가 서구어의 음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장애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것은 아니다(김서형, 2018:292). 그리고 영어식 표기의 사용에 있어서도 두 언어 간 말소리가 완전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이미향, 2007; 심현주, 2011).

## 2. 이론적 배경

### 2.1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체계 및 음가의 표기

한국어의 자음은 모두 19개로 /ㅇ/을 제외한 나머지는 초성으로 사용된다. 한국어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alveolopalatal),<sup>3)</sup>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조음 방법에 따라 크게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뉘며, 장애음에는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이 있고 공명음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다. 발성 유형에 있어서 한국어는 독특한 성질을 가진다. 장애음이 삼중 대립을 가지면 보통 무성 평음(plain voiceless)과 유성 평음(plain voiced), 무성 격음(aspirated voiceless)로 나타나는데(허용, 김선정, 2013:101), 한국어의 경우 모두 무성음이며 기식성과 긴장성의 정도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의 삼지적 대립을 보인다.

그리스 문자에 기초한 키릴 문자(Cyrillic alphabet)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어는 말과 글을 가지는데 각 음소의 철자와 음가가 대체로 일 대 일 대응을 하는(정영주, 2012:192) 표음문자라는 면에서 한국어와 유사하다. 우크라이나어에는 모두 33개의 음소가 있으며 그중에서 자음은 22개로 /Б, В, Г, Ґ, Д, Ж, З, Й, К, Л, М, Н, П, С, Т, Ф, Х, Ц, Ч, Ш, Щ/가 있다. 그리고 두 자음이 합쳐진(two compound consonant) /ДЖ/와 /ЦЗ/가 존재한다.<sup>4)</sup> 자음들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순치음, 치경음, 경구개치경음(palatoalveolar),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나뉘고 조음방법에 따라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분류된다. 장애음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전동음(trill)이 있고 공명음에는 접근음(approximant)과 비음, 유음이 있다.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특징으로는 모든 자음이 경자음(hard sound)과 연자음(soft sound)으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기본 음가대로 발음되는 경우를 경자음이라 하고 특정 음운환경에서 구개음화되어 실현되는 것을 연자음이라고 한다. 본 논의에서는 별도의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 연자음과 활음 역할을 하는 반자음 /Й/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경자음 21개에 합성자음 2개를 포함하여 총 23개의 자음이 연구 대상이다.

국내외 교재에서는 우크라이나어 자음을 유사한 음가의 한국어 자음에 대응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홍석우(2007)와 정영주(2012)를 살펴본 결과 자음 간 대응이 서로 다르게 제시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어 발음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의 부족으로 개별 연구자의 청각적 인식에 의존하거나 음향자질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행히 우크라이나어 음가 표기의 기존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최근 IPA 표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졌다(Pompino-Marschall 기타, 2017; Vakulenko, 2019). 물론 아직은 실험음성학적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으나 IPA라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가 제시보다는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체계를 IPA를 기준으로 대응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두 언어의 자음 간 일 대 일 대응을 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n 대 n의 대응을 보이거나 또는 서로 대응하는 자음이 없는 경우도 확인된다. 따라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성적 유사성(phonetic similarity)의 관점에서 가장 유사한 음가로 판단되는 두 언어 간 자음을 서로 대응한다면 한국어 자음의 발

3) 신지영(2014)은 마찰음을 제외하고는 치음, 치경음, 후치경음의 구분이 한 언어에서 의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박영순 외(2013)에서도 경구개음 [t͡ɕ]와 후치경음 [t͡ʃ]의 음가가 대동소이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두 언어를 비교하는 만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박영순 외, 2013; 신지영, 2014; Ian, 1984)를 근거로 하여 치경경구개음으로 설정하였다.

4) 이와 반대로 우크라이나어 자음 'Щ'는 'Ш'와 'Ч'를 합친 것과 같은 소리로 영어 'fresh cheese'에서의 'sh-ch' 연쇄처럼 들린다. 우리말에는 이에 상응하는 소리가 없고 대체로 '슈즈' 음에 가깝다(홍석우, 2007:14).

음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대응 관계

방법	위치	양순음	순치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경구개-치경음	연구개	성문음
		파열음	한 ㅂ[p] ㅃ[p'] ㅍ[ph]		ㄷ[t] ㄸ[t'] ㅌ[th]			ґ[k] ґ[k'] к[kh]
	우	п[p] б[b]		Т[t] Д[d]		К[k] Г[g]		
마찰음	한		-	ㅅ[s] ㅆ[s']		-	ҕ[h]	
	우		Ф[f]	С[s] З[z]	Ш[ʃ] Ж[ʒ]	Х[x]	Г[ɦ]	
파찰음	한			-	-	ㅈ[tʃ] ㅉ[tʃ'] ㅊ[tʃh]		
	우			Ц[ʦ] ґ[ʣ]	Ч[ʧ] ґ[ʧʰ]			
전동음	한			-				
	우			Р[r]				
접근음	한		-					
	우		В[v]					
비음	한	ㅁ[m]		ㄴ[n]		о[ŋ]		
	우	М[m]		Н[n]		-		
유음	한			ㄹ[r/]				
	우			Л[l]				

2.2 한국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

한국어 자음의 음향적 특징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논의로는 신지영(2014)이 대표적인데 조음 방법에 따라 크게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 어두에서의 한국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신지영, 2014)

구분	음향 특성	발성 유형별 차이	
파열음	VOT	경음 < 평음 ≤ 격음	
	F0(후행 모음)	평음 < 경음 ≤ 격음	
	강도 상승 속도	평음 < 격음 < 경음	
	H1-H2/F2	경음 < 평음 ≤ 격음 (경음: 짜내기, 평음/격음: 숨소리 발성)	
장애음	마찰음	마찰 소음의 길이	평음 < 경음
		기식구간의 길이	경음 < 평음
		마찰 소음의 중심 주파수	평음 < 경음
		F0(후행 모음)	평음 < 경음
		H1-H2/F2	경음 < 평음
파찰음	파찰음	마찰 구간의 길이	경음 < 평음 < 격음
		기식구간의 길이	경음 < 평음 < 격음
		F0(후행 모음)	평음 < 경음 < 격음

주. 공명음은 장애음과 달리 발성 유형별 대립이 존재하지 않아서 음향 특성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파열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VOT가 경음과 나머지 두 발성 유형을 구별하고, F0는 평음과 나머

지 두 발성 유형을 구별하는 음향자질로 보았다. 그리고 폐쇄음의 발성 유형적 차이는 후행 모음의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데(신지영, 2014:227) 이러한 차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음의 차(H1 - H2)로 계산되며 평음과 격음은 숨소리(breathy) 발성으로 H1이 강해서 양수로, 짜내기(creaky) 발성인 경음은 H2가 강해서 음수로 나타날 수 있다(Joan, 2020:92).

〈표 3〉 한국어 파열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수치

구분		평음	경음	격음
VOT(ms)	장혜진(2012)	70.05	14.4	78.24
	조민하(2004)	67	15.5	83
	Ahn(2019)	79	12	85
	서동일(1997)	49.1	39.5	60.3
	신지영(2014)	55 - 79	12 - 19	72 - 94
F0(Hz)	장혜진(2012)	154.67	197.90	214.46
	조민하(2004)	155	187	200
	Ahn(2019)	74	113	72
	신지영(2014)	150	189	238
모음음질(H1-H2)	신지영(2014)	숨소리(양수값)	짜내기소리(음수값)	숨소리(양수값)

파찰음은 마찰구간과 기식구간의 길이가 발성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F0 수치도 평음 < 경음 < 격음의 순으로 차이가 변별적임이 확인되었다(장혜진, 2012:88-89).

〈표 4〉 한국어 파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수치

구분		ㅈ	ㅉ	ㅊ
마찰구간(ms)	장혜진(2012)	41.83	30.73	45.64
기식구간(ms)	장혜진(2012)	51.10	5.14	56
전체길이(ms)	장혜진(2012)	92.47	35.9	101.64
	최영숙(2014)	68.48	39.44	77.96
F0(Hz)	장혜진(2012)	154.79	195.57	218.54
무게중심(Hz)	최영숙(2014)	5962	7295	6285
	이주현(2005)	5386	5608	5208

마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마찰구간의 길이는 /ㅉ/이 /ㅈ/보다 평균 42.89ms 길고, 반대로 기식구간은 /ㅈ/이 /ㅉ/보다 평균 45.03ms 긴 것으로 나타났다(신지영, 2014:120). 한편 F0와 마찰구간은 /ㅈ/과 /ㅉ/ 간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고 기식구간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이석재 등, 2008; 박채림, 2010). 한편 /ㅎ/는 공명음과 같이 혼동을 일으킬 만한 주변음이 없어서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표 5〉 한국어 마찰음의 발생 유형별 음향자질 수치

구분		ㅅ	ㅆ
마찰구간(ms)	장혜진(2012)	67	109.9
	박채림(2010)	56.5	79.1
	문경진(2020)	97.4	184.2
	최소라(2013)	94	132
기식구간(ms)	장혜진(2012)	52	7
	박채림(2010)	20.1	13.5
	문경진(2020)	64.7	11.5
	최소라(2013)	13	8
	이석재 등(2008)	37	16
전체길이(ms)	장혜진(2012)	118.97	116.76
	박채림(2010)	76.6	92.6
	이석재 등(2008)	156	154
F0(Hz)	장혜진(2012)	206.5	197.2
	박채림(2010)	194.6	198.1
무게중심(Hz)	이주현(2005)	6461	6641

### 3.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음성자료 수집과 음향자질 분석

#### 3.1 자료 수집 방법

한국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경우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연구자가 직접 원어민을 대상으로 음성자료를 수집하였다.

녹음에 참여한 우크라이나인은 모두 6명으로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서 한국어를 학습 중인 성인 여성이다. 이들 중에서 4명은 19~22세의 대학생이며 나머지 2명은 대학교와 공립학교에서 교강사로 근무 중인 20대 후반 여성이다. 한국어 수준의 경우 5명은 초급 수준의 강의를 듣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중급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였다. 녹음 참여자의 국적은 모두 우크라이나이고 부모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녹음에 문제가 될 만한 청지각 및 발화와 관련된 장애는 없었다.

음성 녹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어 자음 23개에 모음 /a/를 결합한 CV 형태의 단음절을 무작위 순서로 녹음 참여자에게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읽도록 요청하였다. 녹음은 조용한 강의실에서 디지털 녹음기(ICD-UX523F)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률 44,100 Hz, 16 bit로 샘플링하여 wav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였다.

수집된 모든 음성자료는 프라트를 사용하여 각 자음별 음향자질을 측정하였다. 분석에 앞서 녹음 참여자에 따른 음성의 크기 차이를 줄이고자 프라트의 Scale intensity 기능으로 평균 강도를 70dB로 평균화하였다. 각 자음의 음향자질은 스펙트로그램과 음파를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파열음의 경우 VOT, F0, 모음음질(H1-H2)의 세 가지를 측정하였다. VOT는 개방파열(spike)부터 성대 진동 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F0와 모음음질은 후행모음의 전반부 1/3 정도를 선택하여 평균 주파수(F0)를 측정하고 동일한 범위에 대해 스펙트럼을 분석해 첫 번째(H1)와 두 번째(H2) 배음을 측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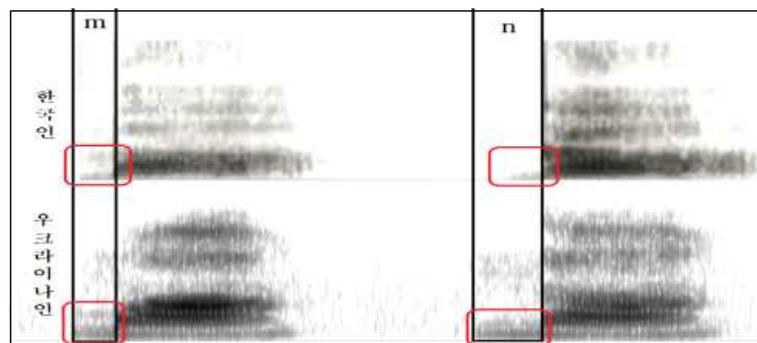
였다. 다음으로 파찰음에서는 마찰구간과 기식구간, F0, 무게중심을 측정하였으며 한국어 파찰음이 삼지적 대립을 보이는 만큼 모음음질도 참고하였다. 파찰음의 F0와 모음음질의 측정 방법은 파열음에서와 동일하다. 마찰구간과 기식구간은 개방파열과 후행모음 사이의 불규칙적인 잡음을 측정하였으며, 그중에서 기식구간은 스펙트로그램에서 고주파수 대역의 소음부가 끝나고 모음이 관찰되기 전까지 모음의 포만트를 닮은 소음부로 하였다(신지영, 2014:244). 그리고 무게중심은 마찰소음부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찰음에서의 음향자질은 파찰음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다만 한국어 /ㅎ/는 음운환경에 따라 음가가 다양하게 변하는 등 그 독특성으로 별도의 음향자질을 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크라이나어 자음이 복수인 만큼 무게중심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 3.2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대응 관계 분석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을 바탕으로 자음 간 대응 관계를 크게 공명음과 장애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공명음

비음의 경우 초성에 사용될 수 없는 한국어 /ㅇ/를 제외하면 두 언어에서 /ㄴ/와 /H[n]/, /ㄹ/와 /M[m]/가 일대일의 대응을 보인다. 그리고 혼동을 일으킬 만한 인접 음소가 없으므로 유사한 음가로 대응하여 제시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어는 비음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한국어는 초성에서 비음성이 매우 약하다.<sup>5)</sup> 이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가 평파열음과 혼동하기도 하므로 발음을 제시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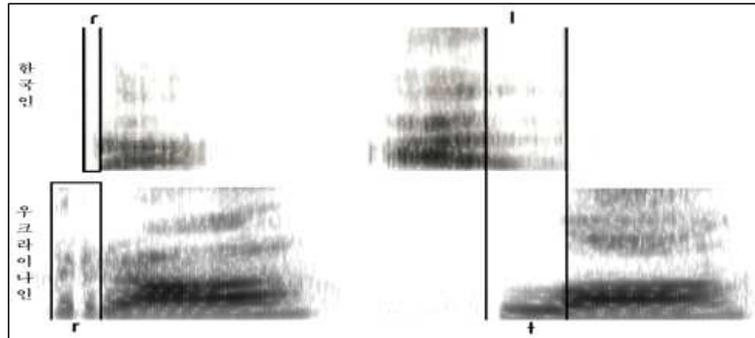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과 우크라이나인 비음 스펙트로그램

유음에서는 한국어 /ㄹ/은 초성에서 탄설음 [ɾ]로 실현되고 종성에서는 설측음 [l]로 발음된다. 반면 우크라이나어는 각각에 유사한 음소가 존재한다. 먼저 한국어 [ɾ]에는 우크라이나어 전동음 P[ɾ]가 유사하다. 두 음소는 조음 위치에서 큰 차이가 없고 짧은 전동음의 경우 혀치는 동작이 많지 않아서 유사하게 들린다. 다음으로 한국어 [l]에는 우크라이나어 J[l]을 대응할 수 있다. J[l]은 어두운(dark) 소리라서 한국어 받침 /ㄹ/과 음가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크라이나인 학습자의 한국어 받침 /ㄹ/ 발음을 실제로 들어본 결과 흔들릴 정도로 어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습자도 큰 어려움 없이

5) 한국인의 자료는 신지영(2014)에서 인용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인의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녹음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발음을 익혔다. 또한 영어의 경우 밝은 /l/로 실현될 때(leaf의 /l/) F2 값이 1,200Hz 정도이고, 어두운 /l/로 실현될 때(feel의 /l/) 800Hz 정도인데(오은진, 2015:87에서 재인용), 우크라이나인 음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F2 값이 평균 1118Hz(sd=189.7)로 밝은 /l/에 더 가까웠다.



〈그림 2〉 한국인과 우크라이나인 유음 스펙트로그램

## (2) 장애음

파열음의 경우 조음 위치가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으로 두 언어에서 동일하다. 반면에 발성 유형을 구별하는 자질이 한국어는 기식성과 긴장성이고, 우크라이나어는 성대 진동(유성성)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음의 음향자질을 분석하여 어떠한 음소들이 서로 유사한 소리로 대응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한국어 파열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 자질은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어 파열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발성 유형별 차이(평균값)
VOT(ms)	경음(18) < 평음(64) ≤ 격음(77)
F0(후행 모음, Hz)	평음(133) < 경음(172) ≤ 격음(181)
모음음질(H1-H2)	경음(음수) < 평음(0~양수) ≤ 격음(양수) (경음: 짜내기 소리, 평음/격음: 숨소리 소리)

이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어 파열음의 음향자질을 분석, 수치화하고 조음 위치가 같은 유성음과 무성음에 대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F0에서 /K/와 /Γ/만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df=12,  $t=2.312745$ ,  $p=0.03928$ ) 나머지 음향자질에서는 자음 간 차이가 없었다.<sup>6)</sup> 결국 우크라이나어 파열음은 유성성을 제외하면 음성적 실현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음 위치의 유성 파열음과 무성 파열음이 한국인에게 서로 변별적으로 지각된다면 이는 유성성이 한국어 음소 분류에서는 잉여자질(Redundant feature)이지만 지각에서는 변별자질(distinctive feature)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7)</sup>

6) 전체적인 통계결과는 지면의 제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7) 우크라이나어와 마찬가지로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러시아어를 대상으로 지각실험을 실시한 심현주(2020)에서도 자음의 유성성이 한국인 청자에게 평음처럼 지각하게 하는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7〉 우크라이나어 파열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유성 - 무성 간 차이(평균값)
VOT(ms)	П[p](22.8) ≃ Б[b](16.3), Т[t](26) ≃ Д[d](18.8), К[k](35.8) ≃ Г[g](31.8)
F0(후행 모음, Hz)	П[p](223) ≃ Б[b](220), Т[t](231) ≃ Д[d](202), К[k](240) > Г[g](181)
모음음질(H1-H2)	П[p](1.68) ≃ Б[b](1.53), Т[t](2.15) ≃ Д[d](1.29), К[k](-1.25) ≃ Г[g](0.57)

두 언어의 파열음 간의 대응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음향자질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VOT는 /K/와 /Г/를 제외 하고는 30ms 이하로 짧게 실현되고<sup>8)</sup> F0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모음 음질을 나타내는 H1-H2는 양수로 확인되지만 그 값이 작아서 기식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sup>9)</sup> 따라서 우크라이나어 파열음은 조음 위치와 성대 진동에 관계없이 한국어 경음에 가까운 소리로 예상된다. 한편 유성 파열음의 경우 홍석우(2007) 등의 국내 우크라이나어 관련 서적에서는 한국인에게 보통 평음으로 지각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우크라이나어 무성 파열음을 경음에 대응한다고 했을 때, 한국어 평음과 유성 파열음을 대응하여 변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파찰음에서 한국어는 경구개치경음인 반면에 우크라이나어는 치경음과 치경경구개음이므로 조음 위치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발성 유형을 구별하는 음향자질도 차이를 보인다. 앞서 살펴본 한국어 파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은 다음과 같다.

〈표 8〉 한국어 파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발성 유형별 차이(평균값)
마찰구간(ms)	경음(18) < 평음(30.7) < 격음(45.6)
기식구간(ms)	경음(5.1) < 평음(51.1) < 격음(56)
F0(Hz)	평음(154.8) < 경음(195.6) < 격음(218.5)
무게중심(Hz)	평음(5962.4) ≃ 격음(6284.83) ≃ 경음(7295.7)

우크라이나어 파찰음의 음향자질 분석에서는 〈표 7〉의 4가지 음향자질에 더해 모음음질(H1-H2)도 살펴보았다. 한국어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찬가지로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크라이나어 파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을 수치화하고 평균한 후에 개별 파찰음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비모수 분산 분석(Kruskal-Wallis test for equal median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마찰구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chi2=4.517, tie corrected=4.518, p=0.2107), 나머지 음향자질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사후점검(Tukey's pairwise)을 실시하였다.

8) VOT 측정 시 유성 파열음도 개방파열 이전의 성대 진동은 배제하고 무성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한국어 파열음과의 지각적 유사성 분석에서는 성대 진동 여부보다는 개방 파열 이후의 단서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9) Pompino-Marschall 등(2017:4)에서도 우크라이나어 파열음은 기식성이 없다고 하였다.

〈표 9〉 우크라이나어 파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자음별 차이(평균값)
마찰구간(ms)	ㄴ[ts](99.4) ≃ ㄴ[ʃ](82.1) ≃ ㄷ 3[dz](102.5) ≃ ㄷ ㄱ[dk](89.8)
기식구간(ms)	ㄴ[ts](16.1) ≃ ㄴ[ʃ](25) > ㄷ 3[dz](4.8) ≃ ㄷ ㄱ[dk](4.5)
F0(Hz)	ㄴ[ts](255) ≃ ㄴ[ʃ](245) > ㄷ 3[dz](223) ≃ ㄷ ㄱ[dk](224)
무게중심(Hz)	ㄴ[ts](8667) ≃ ㄷ 3[dz](7935) > ㄴ[ʃ](3889) ≃ ㄷ ㄱ[dk](4345)
모음음질(H1+H2)	ㄴ[ts](1.68) ≃ ㄴ[ʃ](1.39) > ㄷ 3[dz](-1.68) ≃ ㄷ ㄱ[dk](-1.43)

음향자질을 살펴보면 /ㄴ[ʃ]/가 기식구간이 가장 길고 F0도 높아서 /츠/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게중심에서는 /ㄴ[ts]/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조음 위치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며, 오히려 /ㄴ[ʃ]/가 /츠/와 조음 위치에서 더욱 유사함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한국인에게 보통 /ㄴ[ʃ]/가 /츠/으로 지각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어 /ㅍ/은 /ㄴ[ts]/과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향자질 분석 결과를 보면 /ㄷ 3[dz]/ 역시 /ㅍ/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기식구간이 /ㄴ[ts]/에 비해 짧으며 모음음질도 음수(-1.68)를 나타내 경음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어 경음처럼 무게중심과 F0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식성이 없고 긴장성도 낮은 /스/에는 /ㄷ ㄱ[dk]/가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기식구간과 F0값이 상대적으로 작고 무게중심도 한국어 평음과 가장 가깝다. 다만 모음음질이 짜내기 소리로 경음의 특징을 보이는데,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녹음 자료를 들었을 때 경음보다는 평음에 가까운 소리로 지각되었다.

마찰음에서는 두 언어 사이에 음소의 수와 분류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조음 위치에서 한국어는 치경음 /스, ㅍ/과 성문음 /ㅎ/이 존재하나 우크라이나어에는 순치음 /Φ[f]/, 치경음 /C[s] 3[z]/, 치경경구개음 /III[ʃ] ㄱ[ɟ]/, 연구개음 /X[x]/, 성문음/Γ[ɦ]/이 있다. 따라서 조음 위치에서 유사한 자음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어 마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은 다음과 같다.

〈표 10〉 한국어 마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발성 유형별 차이(평균값)	
마찰구간(ms)	스(78.7) < ㅍ(126.3)	
기식구간(ms)	스(37.36) > ㅍ(11.2)	
전체길이(ms)	스(117.2) ≃ ㅍ(121.1)	
F0(Hz)	스(201) ≃ ㅍ(197.7)	
무게중심(Hz)	스(6461) < ㅍ(6641)	ㅎ(1176)

우크라이나어 마찰음의 분석에서도 모음음질을 음향자질에 포함하였다. 우크라이나어 마찰음의 음향자질을 수치화하고 평균한 후에 개별 마찰음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비모수 분산분석(유의수준 0.05)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식구간(chi2=1.021, tie corrected=1.022, p=0.3121)과 모음음질(chi2=7.922, tie corrected=7.93, p=0.2433)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그 외의 음향자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사후점검을 실시하였다. 자음의 개수가 많은 만큼 분석 결과가 복잡하여 조음 위치를 고려해 자음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스, ㅍ/은 /C[s], 3[z], III[ʃ], ㄱ[ɟ]/와 대응 관계를 살펴보고 /ㅎ/는 /Φ[f], X[x], Γ[ɦ]/와 비교하였다.

〈표 11〉 우크라이나어 마찰음의 발생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자음별 평균값	통계적 차이
마찰구간(ms)	C[s](155), 3[z](146), ㅅ[ʃ](195), ㅈ[ʒ](157), X[x](162), ㄱ[ɦ](136), ㅍ[f](106)	3[z] < ㅅ[ʃ]
기식구간(ms)	C[s](26.6), ㅅ[ʃ](21.9), 그외 기식성 없음	없음
FO(Hz)	C[s](251), 3[z](221), ㅅ[ʃ](249), ㅈ[ʒ](221), X[x](245), ㄱ[ɦ](224), ㅍ[f](245)	C[s] > 3[z], ㅈ[ʒ] ㅅ[ʃ] > 3[z], ㅈ[ʒ]
무게중심(Hz)	C[s](7215), 3[z](8155), ㅅ[ʃ](3839), ㅈ[ʒ](3148), X[x](2610), ㄱ[ɦ](1081), ㅍ[f](6699)	C[s] > ㅅ[ʃ], ㅈ[ʒ] 3[z] > ㅅ[ʃ], ㅈ[ʒ]
모음음질(H1+H2)	C[s](1.95), 3[z](0.28), ㅅ[ʃ](0.73), ㅈ[ʒ](0.23), X[x](1.73), ㄱ[ɦ](1.77), ㅍ[f](0.96)	없음

먼저 /s, ʃ/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어 마찰음 /C[s], 3[z], ㅅ[ʃ], ㅈ[ʒ]/를 보면 마찰구간은 대부분 /ʃ/보다 길게 실현되었고 기식구간은 /C[s]와 /ㅅ[ʃ]/에서만 나타났다. 한국어 마찰음 /s/이 /ʃ/보다 기식구간이 길다는 점에서 /C[s]와 /ㅅ[ʃ]/는 /s/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마찰구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C[s]/가 좀 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0)</sup> 또한 /C[s]/가 /ㅅ[ʃ]/보다 무게중심에서 /s/와 더 유사하고 모음음질이 더 크다는 것도 이러한 대응의 단서가 될 수 있다. 한편 /ʃ/에 대응할 만한 음소는 마땅치 않은데 ㅅ[ʃ]는 구개음화된 /s[ʃ]/로 들리고 /3[z]와 /ㅈ[ʒ]/는 마찰음임에도 오히려 파찰음 [ʒ, ʒ]와 각각 유사하게 지각되는 것으로 보고된다(홍석우, 2007:13).

한국어 /ㅎ/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Φ[f], X[x], ㄱ[ɦ]는 각각 순치음,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조음 위치가 다르다. 순치음 /Φ[f]는 보통 영어 /f/의 음가로 소개되지만 음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찰성이 약하고 기식성도 크지 않았다. 따라서 /ㅎ/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데 한국인이 ‘필라(FILA)’, ‘후라이드(fried)’로 지각하고 산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ㅎ/은 /X[x], ㄱ[ɦ]와 대응하는 것이 음가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조음 위치뿐만 아니라 /ㅎ/처럼 음운환경에 따라 음가가 다양하게 변한다(Pompino-Marschall 등, 2017; Vakulenko, 2019). 특히 /ㄱ[ɦ]는 /ㅎ/와 같은 성문음으로 무게중심이 비슷하고 기식성도 약하다. 반면에 /X[x]는 긴 마찰시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흐아]처럼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 /ㅎ/에는 우크라이나어 /ㄱ[ɦ]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국어 자음을 어떠한 우크라이나어 자음으로 대응하여 제시하는 것이 실제적인지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우크라이나어의 음성자료를 분석하여 자음별 음향자질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음향자질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서로 유사한 음가를 가지는 음소 간의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0) 홍석우(2007) 등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C/가 /ʃ/로 지각된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심현주(2020)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도 /C/를 /s/로 지각한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러시아 원어민의 경우 오히려 /ʃ/보다 /s/로 지각한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어에 대해서도 지각 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5〉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 음가 표기 방안

한국어 자음	우크라이나어 유사음	한국어 자음	우크라이나어 유사음
ㄱ	Г[g]	ж	ДЖ[ɕʃ]
ㅋ	К[k]	жж	Ц[ʦ], ДЗ[dz]
ㆁ	-	ч	Ч[ʧ]
ㄷ	Д[d]	с	С[s]
ㅌ	Т[t]	ш	-
ㄷ	-	л	Л[l]
ㅂ	Б[b]	р	Р[r]/Л[ʎ]
ㅃ	П[p]	м	М[m]
ㅇ	-	н	Н[n]

####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사용하는 자음 음가의 표기 방식에 대한 실제성에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의 교육 방안과 관련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과 현지 우크라이나인의 음성자료를 분석하여 수집한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음향자질을 비교함으로써 자음 간 음가 표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파열음 /ㄱ, ㅋ, ㆁ, ㄷ, ㅌ, ㅃ, ㅅ, ㅆ/와 마찰음 /ㅃ, ㅆ/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어로 한국어 자음의 음가를 표기할 수 있었다. 다만 대응 자음이 없는 /ㄱ, ㄷ, ㅌ, ㅃ, ㅆ/는 억지로 대응 관계를 설정하기보다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학습자가 본연의 음가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인 학습자에게 자음 발음을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또한 우크라이나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지각과 산출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음향자질의 특징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대응 관계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적 음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쟁에 놓인 외국어 표기법에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분석 대상 자료가 다소 미흡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 실정으로 인해 피험자 모집이 어려워 충분한 음성자료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표준 발음을 선별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어 역시 지역에 따른 방언이 존재하고 이는 발음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외적변인을 통제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음성적 대응 관계가 실제 지각과 산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서형. (2018). 한글 자모 교육에서의 자음 음가 표기 방안 연구. *반교어문연구*, 48, 283-308.
- 문경진. (2020).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마찰음 /ㅅ, ㅆ/ 발음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박영순 외. (2013). *한국어와 한국어교육—개정판*. 한국문화사.
- 박채림. (2010). 영어 마찰음 /S/와 한국어 마찰음 'ㅅ, ㅆ'에 관한 대조 음향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배문정. (2010). 한국어 자음에서 변별 자질들의 지각적 위계. *말소리와 음성과학*, 2(4), 109-118.
- 배문정 & 김정오. (2002). 한국어 자음의 지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4(4), 375-408.
- 서동일, 표화영, 강성석, & 최홍식. (1997). 한국어 파열자음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음성언어의학회지*, 8(2), 217-224.
- 신지영. (2014). 말소리의 이해: 음성학·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2nd ed). 한국 문화사.
- 심현주. (2020). 한국어와 러시아어 자음 간 지각적 대응 관계 분석. *언어와 문화*, 16(3), 183-204.
- 안주호. (2018). 한국어 통합교재의 음소 제시 양상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2, 231-256.
- 오은진. (2015). *외국어 음성 체계*. 한국문화사.
- 이미향. (2007). 효율적인 교수 모형 개발을 위한 한국어교재의 한글 교수 단위 연구. *언어과학연구*, 42(0), 81-105.
- 이석재, 장재웅, 김태경, 김정아, 장운자, 성제현, 임수경, & 김종덕. (2008).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마찰음 /ㅅ/ 와 /ㅆ/ 구분의 음향 단서 분포 특징에 관한 비교 연구. *언어연구*, 24(2), 261-280.
- 장혜진. (2012). 국어 어두 장애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영주. (2012). [우크라이나어-한국어 사전] 의 편찬 원칙과 특징. *한국사전학*, 19, 186-216.
- 조민하. (2004). 서울과 대구 방언 파열음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최소라. (2013). 치경 마찰음의 음향적 특성: 한국인의 영어와 한국어 발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영숙. (2014). 한국어와 일본어 파찰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 분석-마찰소음구간과 무게중심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31, 317-333.
- 홍석우. (2007). *핑 먹고 알 먹는 우크라이나어 첫걸음*. 문예림.
- Franko, R. (1994). *Ukrainian for Speakers of English Oral Exercises*. Brush Education.
- Ian, M. (1984). *Patterns of sou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an, B. (2020). *음향음성학 기초매뉴얼*. 한국문화사.
- Pompino-Marschall, B., Steriopo, E., & Żygis, M. (2017). UKRAINIA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47(3), 349-357.
- Vakulenko, M. O. (2019). UKRAINIAN CONSONANT PHONES IN THE IPA CONTEXT WITH SPECIAL REFERENCE TO/v/AND/gh/. *Linguistica Online*, 22.
- Силка, А. А. (2018). Українська мова для студентів-іноземців медичного профілю (з російською мовою навчання). Університетська книга.

## 〈토론〉 “음향자질 비교를 통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대응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권성미(부경대)

자음의 언어 간 특성을 기술하는 데에는 음운론적인 차원에서의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심현주·박안토니나 선생님의 연구는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은 물론, 자음 체계상 우크라이나어 자음과 우크라이나어 자음에 대응되는 한국어 음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음향학적 측면에서 상세히 고찰하신, 상당히 학술적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두 분 선생님의 연구는 우크라이나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 발음 교육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신 귀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선생님들의 연구에 대한 저의 이해를 확인하고, 선생님들의 연구 내용 중 몇몇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크라이나어의 유무성 파열음의 VOT 값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사하신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어의 무성 파열음은 VOT가 22.8~35.8ms로 short 유형이며, 유성 파열음 역시 16.3~31.8로, short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우크라이나어의 유무성 파열음은 VOT로는 대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유무성 변별에 VOT가 음향적인 변별 자질로 기능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Pompino-Marschall(2017)에서 논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어의 유성음은 진짜 유성음으로(fully voiced), VOT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lead 유형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어의 파열음의 발성 유형은 러시아어나 프랑스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성음과 무성음이 lead와 short로 변별되는 체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권성미 2019, 새국어교육 118호). (러시아어나 프랑스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은 lead-short로 대립되며, 영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이 VOT에 있어서 short-long으로 대립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의 유성음과 달리 ‘진짜 유성성’을 가진 유성음의 경우, 폐쇄를 해제하기 전 폐쇄 지속 구간에서 이미 진동이 관찰됩니다. VOT를 측정하실 때 폐쇄 구간의 유성성(진동)을 관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발성 유형에 따른 후행모음의 F0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파열음의 경우, <표 5>에서 나타내신 바에 따르면, 치조파열음과 연구개파열음의 경우는 무성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가 유성음의 경우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순파열음의 경우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순파열음만이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양순파열음의 경우는 파찰음, 마찰음의 유무성 대립에 나타나는 f0의 특징과 유사해 보입니다. (파찰음과 마찰음의 경우, 유무성음 간 f0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열음과 달리, 파찰음과 마찰음에서는 유무성음 간에 f0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양순파열음의 경우, 다른 파열음들과 다른 경향성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측정 지점에 대한 것을 포함해 f0를 측정하신 방법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관용구 대조 연구

-신체 어휘 ‘눈, 머리, 손’을 대상으로-

HASMIK TSHAGHARYAN(Yerevan State University, Armenia)

안녕하세요?

아르메니아 예레반 국립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하스미크 짜하리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관용구 대조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 시작하여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눈, 머리, 손’과 관련된 관용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언어의 신체 어휘 관용구 대조 분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구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적 의미 해석이 어려운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신체 어휘 관용구란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관용구를 말합니다. 신체 어휘 관용구는 인간에게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관용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체 어휘 관용구가 활발하게 쓰입니다. 다른 관용구보다 신체 어휘 관용구는 이해하기 쉽고 또한 양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 1. 서론입니다.

1.1 연구 목적은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 간의 관용구 중에서 신체 어휘 관용구를 대상으로 하여, 대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양국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나아가, 양 언어 간의 신체 관련 관용구의 의미와 그 배경이 되는 문화적인 차이의 대조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아르메니아는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고 양쪽 모두 다른 말을 쓰며, 각 언어의 표현법이 다르더라도 신체 부위가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까운 것이기에 의미적인 측면에서 양 언어의 공통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1.2 연구 방법입니다.

논의는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눈, 머리, 손’과 관련된 관용구 소개와 다섯 가지 대응 유형에 따른 대조·분석으로 전개됩니다.

다섯 가지 대응 유형이란, 첫째, 표현과 의미가 비슷한 경우(유형유의), 둘째,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경우(이

형유의), 셋째, 표현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유형이의), 넷째, 한국어에만 있는 경우, 다섯째, 아르메니아어에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눈, 머리, 손’과 관련된 관용구 소개입니다. 신체 어휘 관용구 목록으로 한국어의 경우에는 『한국어기초사전』, 아르메니아어의 경우에는 P.Bediryanyan(2011) 『아르메니아어 관용구 해명 사전』과 A.Sukiasyan & S.Galstyan(1975) 『아르메니아어 관용구 사전』에서 추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눈(աբխի)’, ‘머리(գլուխ)’, ‘손(ձեռք)’과 관련된 관용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한국어기초사전』에 수록된 신체 어휘 관용구 140개를 대상으로 이에 대응되는 아르메니아어 신체 어휘 관용구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양국의 신체 어휘 관용구의 총수

언어 \ 신체어	눈	머리	손	총계
한국어	67 (47.9%)	46 (32.9%)	27 (19.2%)	140 (100%)
아르메니아어	58 (49.6%)	29 (24.8%)	30 (25.6%)	117 (100%)

이 표를 통해 보면 한국어는 ‘눈(67개)’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머리(46개)’, ‘손(27개)’의 순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어의 경우에는 ‘눈(58개)’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손(30개)’, ‘머리(29개)’의 순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3. 두 언어의 신체 어휘 관용구 대조 분석입니다. 바로 대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 대조 유형별 신체 어휘의 빈도

신체 어휘 \ 유형	유형 유의	이형 유의	유형 이의	한국어에만 있는 경우	아르메니아어에만 있는 경우	총계	
	눈	13	25	5	23	20	86
머리	11	17	5	13	5	51	
손	7	15	1	6	8	37	
총계	총 합계	31	57	11	42	33	174
	비율	(17.8%)	(32.8%)	(6.3%)	(24.1%)	(19%)	(100%)

총174개의 관용구를 5 가지 대응 유형에 따라 대조하였는데 먼저, ‘이형유의’가 3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형이의’가 6.3%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먼저 ‘유형유의’입니다. 대조 대상인 174개의 용례 가운데 양국어가 유사한 관용구가 31개로 17.8%를 차지했습니다. 표현과 의미가 비슷한 경우를 살핍으로써 양국의 ‘눈, 머리, 손’에 대한 인지방식이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 관용구 대조: 시간 제한 때문에 모든 예를 살필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유형유의’의 예를 들자면, 잠시 동안 잠을 자다’의 의미를 눈을 뜨고 감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는 한국어 관용구 ‘눈(을) 붙이다’와 아르메니아어 관용구 ‘առջ Լսուցիտի նս Բուիտա’는 표현과 의미가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잠을 잘 때 눈을 감고, 잠에서 깨어나면 눈을 뜨는데, 눈의 개폐가 수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두 언어의 기본 발상은 같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 관용구 대조: ‘머리(를) 굽히다’는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에 똑같이 ‘굴복’과 ‘굽실거림’의 의미를 머리의 자세로 관용적으로 나타냅니다.

‘손’ 관용구 대조: ‘손을 씻다’와 ‘ծռնոթը Լվուցուլ 손들을 씻다’는 양국에서 비슷한 표현과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손을 씻다’는 더러워진 손을 씻는 경험이 그것과 똑같이 언어에 반영되어 특히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2 ‘이형유의’입니다. 양국에서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한 경우(이형유의)’가 총 57개(32.8%)이며, 대조 분석에 대한 다섯 가지 대응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눈’ 관용구 대조: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한 경우’의 예를 들자면, ‘눈’이 몸에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음으로 눈으로 존중과 관심 따위를 관용구에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신임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면; 한국어의 경우 ‘눈 밖에 나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어의 경우 ‘눈에서 떨어지다’로 서로 다른 표현으로 비슷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머리’ 관용구 대조: 일이 어렵거나 복잡해서 힘들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주로 쓰인 표현으로 한국어의 ‘머리가 빠지다’와 그에 대응되는 아르메니아어의 ‘գլուխը սլայթել’머리가 터지다’가 있습니다.

‘손’ 관용구 대조: 인간의 손은 남을 때리고 해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 ‘손으로 살짝 때려도 몹시 아프다’의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맵다’라는 형용사가 결합되고 아르메니아어의 경우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무겁다’라는 형용사가 결합됩니다.

3.3 ‘유형이의’입니다. ‘표현이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유형이의)’가 11개(6.3%)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양 언어에서 비슷한 표현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눈’ 관용구 대조: 예를 들면, ‘눈이 시뻘겋다’와 같은 표현은 비슷하지만; 한국어에는 ‘자기 이익만 찾는 데에 몹시 열중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아르메니아어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다’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머리’ 관용구 대조: 양국에서 모두 ‘머리(가) 굳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머리(가) 굳다’는 한국어에서는 ‘사고하는 능력이나 기억력 등이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며 인지와 관련된 것이고, 아르메니아어에서는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로 쓰이며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손’ 관용구 대조: 양국에서 ‘손이 가다’라는 표현은 같지만 한국어에서는 ‘음식이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다’의 의미가 있고, 아르메니아어에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지닌 것’의 의미가 있어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한국어에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어에는 대응되는 표현이 없는 한국어 표현 총 42개(24.1%)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어에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인들이 익숙하여 잘 쓰는 신체 어휘 관용구들 중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표현들과 그들의 비유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 관용구 대조: 예를 들면, 한국어 관용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은, 사랑스러운 대상은 작고 귀여운 것이라 눈에 집어넣을 수 있거나 눈으로 가릴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특이한 표현이므로 아르메니아어에는 비슷한 표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 관용구 대조: ‘머리(를) 깎다’라는 관용구는 불교에서 ‘스님이 되다’의 의미로 쓰이는데, 아르메니아어에 이 관용구가 없는 이유는, 아르메니아는 서기 301년에, 기독교를 공식 종교(국교)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이므로 불교를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교에 관한 관용구가 아르메니아어에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가 한국어 신체 어휘 관용구의 다양하게 쓰인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아르메니아어와의 전통적인 차이, 종교적인 차이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손’ 관용구 대조: ‘손에 장을 지지다’라는 한국어 관용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지닌 표현이며, 이 관용구가 아르메니아어에 없는 이유는 간장을 꿰는 한국 고유문화에서 경험할 수 있는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 5. 아르메니아어에만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에는 대응되는 표현이 없는 아르메니아어 표현 총 18개를 살펴봤습니다.

‘눈’ 관용구 대조: 예를 들면, 아르메니아어 관용어 ‘눈이 얼다’라는 표현은 ‘손님이 곧 올 것을 알리는 징조로 여겨지다’의 의미를 갖는 특이한 표현이므로 한국어에는 비슷한 표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 관용구 대조: ‘죽음의 원인이 되다’의 의미를 갖는 아르메니아어의 ‘մեկի գլուխն ունել’ 어떤 사람의 머리를 먹다’라는 관용구에 대응되는 한국어 관용구를 찾지 못 하였으며 아르메니아어의 특유의 관용구라 할 수 있습니다.

‘손’ 관용구 대조: 아르메니아어의 ‘[ւոջկա] ձեռքը խնդրել [여자의] 손을 요청하다’는 아르메니아의 청혼 풍습을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이런 청혼 풍습은 아르메니아 뿐만 아니라 영국과 아랍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노진서 (2015: 19-20)는 ‘ask for her hand’은 단순히 그녀의 손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에게 청혼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아랍 문화에서 아르메니아에서 아주 예전부터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자 할 때, 먼저 여자의 부모와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만날 때 그 집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의미로 딸의 손을 요청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그 집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Emara2016: 144)

결론: 이렇게 해서, 대조 분석을 통해서 양 나라의 개념, 문화적 특성, 가치관, 전통 풍습, 종교적 차이까지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 연구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대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관용구 대조 연구  
- 신체 어휘 ‘눈, 머리, 손’을 대상으로-”에 대한 토론문

진대연(선문대학교)

먼저 재미있고 유익한 발표의 토론을 하게 해 주신 학회와 발표자께 감사를 표하고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 의미를 언급한 후 몇 가지 요청과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토론문을 구성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밝히신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신체 어휘 관용구를 대상으로 의미와 표현 방식을 대조하여 양국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그 배경이 되는 문화적인 차이를 고찰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눈, 머리, 손’과 관련된 관용구 소개(2장)와 두 언어의 신체 어휘 관용구 대조 분석(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관용구 대조를 통해 양국의 사고방식, 문화적 특성, 가치관, 전통풍습, 종교적 차이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계기로 아르메니아에서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양국 간의 상호이해가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바람에서 몇 가지 요청 또는 질문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발표자께서 참고 자료를 인용하여 <표 1>에 제시하신 ‘양국의 신체 어휘 관용구 수’는 한국어 140개, 아르메니아어 117개로 합계가 257개입니다. 그런데 <표 2>에서 대조 유형별로 제시하신 관용구의 총계는 174개입니다. 유형유의, 이형유의, 유형이의 등의 유형에서 중복된 것이 있어서 조사 대상 관용구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무엇 때문에 숫자가 달라진 것인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이에 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2) 이형유의 유형의 사례로 한국어의 ‘머리가 빠지다’와 아르메니아어의 ‘գլուխը պայթել(머리가 터지다)’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도 같은 의미로 ‘머리가 터지다’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유형유의 유형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3) 한국어에서 ‘머리’는 영어의 ‘head(머리통), brain(뇌), hair(머리카락)’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지다’와 ‘머리를 깎다’에 들어 있는 ‘머리’는 엄밀하게 보면 다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머리’가 아르메니아어로는 어디까지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의적인 어휘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발표자께서는 아르메니아의 대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약간 확장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대조 연구를 하신 결과를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는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르메니아의 한국어교육 현황은 대체로 어떤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거리를 제공해 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Kaspars Klavins, Dr. hist.

Acting Professor,  
Faculty of Humanities, Department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Latvia  
Mobile: +371 25641150  
E-mail: [kaspars.klavins@lu.lv](mailto:kaspars.klavins@lu.lv)  
Visvalža 4a, Riga  
LV-1050, Latvia

### **Korea in the dialogue between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and East Asian spiritual teachings**

Today, Korea is known as one of the East Asian intellectual centers. In addition, Korean thinkers are recognized for their critical evaluation of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However, contemporary Korean philosophical thought has gone through a short but extremely intense period of development – from the rapid adaptation of Western education to the reappraisal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in the context of spiritual dialogue between East and West.

---

### **Korea in the dialogue between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and East Asian spiritual teachings**

The situation of Korea in the East-West intellectual dialogue is unique, considering its late yet extremely intense integration in this process and the great transformations that Korean philosophers, writers, literary scholars and publicists have experienced in a short period of time.

Korea's spiritual and intellectual contact with the West began in the 18<sup>th</sup> century, when Christian missionaries from Europe began their work in the country. When the early Catholic mission started in Korea, it was dominated entirely by Neo-Confucianism supported by the ruling Joseon dynasty, and the ruling *yangban* class stressed the importance of faithful service to society and Confucian moral ethics. This sparked a number of disagreements between missionaries and Korean scholars, which is reflected in written sources of the Joseon dynasty. Contrary to the importance of the theory of original sin and the concept of the afterlife in Christianity, Confucianism focused on

*this lif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gnostic, rationalist and society-oriented Confucianism, Christianity was at best a curious superstition, a kind of marginal Buddhism or even less worthy. The theory of heaven and hell was perceived as psychologically understandable desire, rooted in the selfish nature of human beings. Furthermore, Christianity was seen as destroying the social order, because it placed God above parents and the king, in contrast to Confucianism, which stressed the pa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his people as well as filial piety as the most essential virtues. Nevertheless, despite its initial failures, Christianity in Korea succeeded due to Protestant missionaries, whose worldview framework was closely related to the Protestant movements of religious awakening (Great Awakening) in Europe and America. In addition, Korean traditional shamanism aided in promoting Christianity as a religion of revelation. Shamanism was widespread among the majority of the rural population, from which the ruling educated Confucian elite had gradually distanced themselves. In Korea, the seeing of visions,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and the active search for personal connection to the spiritual world (God) were automatically associated with shamanic practices, hence intensive prayers were perceived as analogous to the intensive meditations characteristic of shamanism. Another factor that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piritual modernisation of Korea “along Western lines” was the formal education (reading and writing skills) promoted by Christian missionaries and the schools they established:

At the end of the 19<sup>th</sup> century,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were already in place for the expansion of literacy: books and newspapers using the Korean script rather than classical Chinese (which had been the standard medium of written exchange in the Joseon period) became widespread, and written Korean became more easily accessible to the common reader. Moreover, with the influx of modern Western culture and the institutions of a bourgeois society came new ways of perceiving the world and the individual's place within it. (Yi Nam-ho, U Ch'anje, Yi Kwangho, Kim Mihyŏn, 2001, p. 6).

Contemporary Chinese scholars have similarly evaluated the role of the 19<sup>th</sup> century Western Protestant Christian missionaries in China during the late Qing perio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ir translation work in proposing new terminology, new concepts and hence also another world outlook, and as a result:

They opened new horizons and broadened the vision of reality for the Chinese people. These translations have exerted tremendous impact on the mentalities of the Chinese during the crucial historical period. They challenged the prevalent values and served as a mirror that forced Chinese people to reexamine themselves and the future of their nation (Yi Zhang, 2018, p. 274).

However, none of this lessens the long and significant influence of East Asian spiritual teachings in Korea nor the huge upheaval Korean thinkers experienced in the 20<sup>th</sup> century as they attempted to integrate into the Western philosophical (and literary) discourse. First of all, here one must focus briefly on Confucianism, considering that, apart from China, Korea was the first country in which Confucianism exerted a sweeping influence and, apart from China, Korean Confucianism has the longest and

richest history. The problem is that, in its essence and in the issues it addresses, Confucianism is very different from Western philosophy, and therefore one may with good reason question whether it can even be qualified as a “philosophy” from the Western perspective, which has evolved from the ancient Greek philosophical discourse. Already Confucius (551–479 BC) himself was largely concerned with social issues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cosmology or knowledge as a philosophical concept.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Confucianism, which was emphasised in Korea as a positive setting, a human being through self-cultivation (moral training):

[...] sets a foundation for proper social relationships,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the achievement of familial and national stability and peaceful existence. Moral relations are basic to social relations and social order, and this type of existence extends its influence to the world beyond, i. e., the transcendental realm, as well. (Keum Jang-tae, 2000, p. 16)

In Korean Neo-Confucianism, themes connected with human beings are unfortunately very difficult to integrate into academic philosophical discussion according to “Western standards”, because it is hard to grasp:

[...] what a human being exactly signifies, what the self-cultivation to be a human being means, why it is ever necessary, even how far it is worthwhile to talk about it, and so on. (Yoo Weon-Ki, 2018, p. 56)

As well the discussions that arose among Neo-Confucian scholars in China early in the 18<sup>th</sup> century, for example, as to whether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man and matter existed, were rejected by the conservative Korean thinkers. At the same time, Confucianism gradually lost its freshness as a teaching based on empirical principles, which dictated increasing openness among the ruling social strata with regard to “practical learning”. In the 19<sup>th</sup> century, the Kingdom of Joseon, despite its official ideology of harmony, stability and human enlightenment, as a hierarchical society based on birth and bloodlines, was already at the brink of a social explosion. All of this led Korea in the late 19<sup>th</sup> century and early 20<sup>th</sup> century to an ever-increasing desire for “Western knowledge”, which in time was associated not only with Christianity and the modern technologies of the day but also with Western literature and philosophy as an alternative view of the world. As a result, the very rapid adaptation of Western philosophy and literature took place in Korea at approximately the same time. Already since 1908 an impressive number of young Korean writers had begun writing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Western literature.

The overlapping of philosophy and literature in East Asia – and, consequently, Korea – was influenced by another cultural feature, namely, here “philosophers” were not so much philosophers as writers who expressed their view of the world in works that, according to the Western understanding, would more likely be classified as literary essays. In East Asia, however, these works addressed politics and didactics (providing instructions on how to deal with people, things, etc.) much more than their Western counterparts did.

The adopting in Korea of Western philosophical concepts and terminology began in earnest in the 1920s, after Korea had already become a Japanese colony. As a result,

the West was not associated here primarily with imperialism and colonialism, as it was in many other places. Like mathematics, physics, psychology and sociology, philosophy was a new discipline that came from the West and was perceived as necessary and useful knowledge to Korean society. According to Young Ahn Kang:

Essentially, the first Korean philosophers' problems, their method of dealing with these problems, their concepts, and their way of thinking and writing were modeled on Western philosophy. So-called "East-Asian philosophy" was excluded completely from their intellectual education. In this respect, they we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 philosophers of earlier generations. The first Korean philosophers shared their problems and philosophical methodology with, for instance, those of the Neo-Kantians, the Neo-Hegelians, and the Husserlians... Modern education is specific in the way it uses completely new technical words and terms such as Freedom (自由), Equality (平等), Justice (正義), Right (權利), Individuals (個人), Subject (主體, 主觀), Thought (思想), Reason (理), Rationality (合理性), Rationalism (合理主義), Empiricism (經驗主義), Inquiry (探), Science (科學), and many others. These are vocabularies which determine human activity and the human place in the world, different from traditional ways of thinking. The first generation of contemporary Korean philosophers came to understand humans and the world by learning these new vocabularies and new ways of seeing and thinking. They did not need to explain the meanings of these academic words and terms; they used them as they used their spoons and chopsticks.

Today, Korea is known as one of the centres of East Asian philosophical thought. In addition, Korean intellectuals are recognised for their ability to speak on behalf of all of East Asia – in their emphasis of the ancient East Asian spiritual teachings as an alternative to the dualism of the confrontative, black-and-white Western worldview. Likewise, contemporary Korean intellectuals are famous for their criticism of the global ideology of capitalism, which bears a certain influence from Marxism and Neo-Marxism (but must not be confused with the North Korean ideology of *Juche*; we are speaking here about South Korea).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en the criticism of Western philosophy (and the value system advocated in the West) began in Korea. This is partly due to the geopolitical and socio-economic upheavals of the 20<sup>th</sup> century, the inability of the West to offer a philosophy-based value system that is suited to East Asian society, and the stagnation of European intellectual thought as well as the non-existence of a positive spiritual strategy on the part of the West in the 21<sup>st</sup> century. The arrival in Korea of Marxist socio-political theory (and, along with it, Marxist philosophy) took place already in the 1920s under the guise of anti-imperialism and anti-feudalism, at the same time supporting Korean national liberation. Of interest in this context is, for example, Shin Nam-ch'öl's (1907–1958) critique of the dominant philosoph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Western idealist philosophies (Neo-Kantianism, Neo-Hegelianism, phenomenology, existentialism), which, albeit very simplified, encouraged the adapting of foreign philosophy based on a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colonial reality instead of simply accepting the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as is. Speaking of Marxism in a narrower sense, Shin Nam-ch'öl's

critique of Western Oriental studies was very significant for the field's sole concern with ideological phenomena such as religion, philosophy, arts and literature while completely ignoring the economic base and relations of production, thereby asserting the necessity of Marxist methodology in Oriental studies.

The complicated times of social transformation after the nation's independence (1946-1960) (overshadowed by the ghastly Korean War (1950 - 1953), the following period of rapid industrialization (1961-1980) facilitated an increasingly critical attitude to the West among Korean intellectuals. It was not only the value of the family in Confucianism or the respect towards authorities and elderly people that was crucial in the criticism of the Western worldview, which grew through estrangement in the society, general commercialisation and escalation of competition at work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proposing an alternative system of values – also traditional spiritual teachings of Taoism and Buddhism has an enormous significance in Korea. In many senses these teachings provide the opposite to the arsenal of Western expansionist ideas with its traditional dualism of opposing “the good” and “the evil”, glorification of a person's permissiveness, hypertrophying of an individual's ego and the tendency to privatisation event in the area of human relations. From the vantage point of Buddhism an accurate criticism of the world outlook of Western society f. ex. has been formulated by one of contemporary Korean Buddhist theoreticians Misan:

Every being on Earth is connected to each other. That's why there is no happiness when one's thinking or behaviour becomes extreme. Buddhism teaches us that we attain the greatest happiness only when the middle way of thinking and a moderate life and behaviour are made possible. For that, we need a certain amount of wisdom to see others from an independent point of view. Only then can we reduce the evils of democracy and capitalism, which today we enjoy very much.

Buddhism in Korea is more than deeply rooted – Korea can also boast a specifically Korean version of *chan Buddhism*, created by philosopher Chinul (1158–1210), who proposed the reconciliation of sudden enlightenment with the appropriate religious texts. Taoism, in its turn, had over time coalesced with the Korean mentality and feeling of nature, thus becoming omnipresent – from painting, poetry and garden planning principles to the world outlook in general. In comparison to Buddhism it is in essence equally far from the Western person's active ever-presence, the tendency of defining self and everything around, accompanied by acute stressing of “*own* property”, “*own* abode” and “*own* environment”. This is proved by the underlying idea of Taoism that the nature of reality is unaffected by our ways of trying to grasp it.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aoism (as f. ex. ‘shapelessness’) envisages that one is not separated from nature. Such world understanding is very difficult to unite with the model of thinking dominant in the West at the level of both scientific and daily consciousness. Contemporary Korean philosopher Byung-Chul Han attempts to show in his works that even regardless of the findings of philosophy the mentality of Western thinkers is unable to free itself from its hypertrophied ego ident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non-presence” of the Far East, which is manifested even in the absence of accurately marked city centres with the familiar “dominants” or the absence of main dish on the Korean table.

In Korea in the 21<sup>st</sup> century the comparison of Western and Oriental philosophy is present not only among the ranks of professional philosophers, the theme is also

tackled by researchers of religions and literature scholars whereby they stress dualism as the major issue to be overcome in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which according to Korean colleagues is manifested as separation of a subject from object, transcendence from immanence, idea from things, mind from body etc. This discussion in the Korean intellectual environment of the 21<sup>st</sup> century within the context of Eastern-Western philosophical dialogue now includes numerous new aspects, including new assessment of the surviving ancient Shamanism whereby treating Shamanism as a world view in which:

There is no negation, but only affirmation ringing far and wide. The culture of the reunion of intellect and sensitivity, life and death, that is to say, the culture in which liberty and joy create history without oppression: this is the outlook of Shaman culture (Ryu, Tongshik).

Regardless the important place in Korea of the philosophic teachings -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 so essential all over the Far East, the dialogue between the West and Korea is possible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less known and more difficult-to-formulate intellectual traditions. In the Korean culture an important place is occupied by the concept of *han* (한), which to a certain extent coincides with the European existentialist concepts of *confusion* (in the meaning of *bemusement*) and *despair*. In the Korean context *han* is interpreted as grief, collective trauma as a result of human suffering and suffering of the Korean people in general. Respectively, *han* is a set of emotions as the by-product of tragic experience etc. In literature, art, music and cinema it is manifested as one of the expressions of the Korean identity. Yet despite all similarities with the Western existentialism *han* does not change into either Western nihilism and radicalism or terrorism presently escalating in the near and Middle East. Sadness within *han* framework is active sadness and the people suffering it continue to perform their duties and remain formally integrated in the family and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achieve considerable degree of internal freedom. This can be understood only through analysing *han* in relation to other, already mentioned traditional Far Eastern teachings. According to Lee Younghee :

The last stage of the *han* is the transcendental phase. In this phase, intimately related to Buddhism, desire is understood as the cause of suffering. Suffering is seen as temporary and as part of the transitory nature of the universe. This is not resignation but an embracing of suffering and joy, fear and love, pain and pleasure. "They disengage themselves from the web of life and their lives are put into a universal perspective, known as *musang-ham* (nothingness)." It is then the Buddhist framework that provides the final answer to *han*. Whereas Confucianism would have individuals accept their place in society and accept *han* as natural and part of the social system, and Shamanism provides an emotional release from *han* through a creation of a community of mutual suffering, it is Buddhism that helps us to spiritually understand and thus transcend *han*." This transforming and transcending process can be compared to one of the most prized symbols of Buddhism, the water lily. Although the water lily has its roots in murky silt and grows in muddy waters," it emerges beautiful and pure, untouched by the mud from which it grew.

At the same time, in the context of *han* – with regard to modern Korean literature we should not forget the influence of Taoism. As already mentioned, unlike in Europe, in the Far East it was literature rather than specific philosophical treatises that for a long time remained the place for presentation of philosophical ideas. Despite copying or interpreting examples of Western literature in Korea, which started at the beginning of the 20<sup>th</sup> century, with time plot solutions of stories and novellas in the Korean literature departed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the conflict-solution plots, which dominated in the West, and ruled out motifs of confrontation, victory, achievement and revenge. The

tackled by researchers of religions and literature scholars whereby they stress dualism as the major issue to be overcome in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which according to Korean colleagues is manifested as separation of a subject from object, transcendence from immanence, idea from things, mind from body etc. This discussion in the Korean intellectual environment of the 21<sup>st</sup> century within the context of Eastern-Western philosophical dialogue now includes numerous new aspects, including new assessment of the surviving ancient Shamanism whereby treating Shamanism as a world view in which:

There is no negation, but only affirmation ringing far and wide. The culture of the reunion of intellect and sensitivity, life and death, that is to say, the culture in which liberty and joy create history without oppression: this is the outlook of Shaman culture (Ryu, Tongshik).

Regardless the important place in Korea of the philosophic teachings -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 so essential all over the Far East, the dialogue between the West and Korea is possible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less known and more difficult-to-formulate intellectual traditions. In the Korean culture an important place is occupied by the concept of *han* (한), which to a certain extent coincides with the European existentialist concepts of *confusion* (in the meaning of *bemusement*) and *despair*. In the Korean context *han* is interpreted as grief, collective trauma as a result of human suffering and suffering of the Korean people in general. Respectively, *han* is a set of emotions as the by-product of tragic experience etc. In literature, art, music and cinema it is manifested as one of the expressions of the Korean identity. Yet despite all similarities with the Western existentialism *han* does not change into either Western nihilism and radicalism or terrorism presently escalating in the near and Middle East. Sadness within *han* framework is active sadness and the people suffering it continue to perform their duties and remain formally integrated in the family and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achieve considerable degree of internal freedom. This can be understood only through analysing *han* in relation to other, already mentioned traditional Far Eastern teachings. According to Lee Younghee :

The last stage of the *han* is the transcendental phase. In this phase, intimately related to Buddhism, desire is understood as the cause of suffering. Suffering is seen as temporary and as part of the transitory nature of the universe. This is not resignation but an embracing of suffering and joy, fear and love, pain and pleasure. "They disengage themselves from the web of life and their lives are put into a universal perspective, known as *musang-ham* (nothingness)." It is then the Buddhist framework that provides the final answer to *han*. Whereas Confucianism would have individuals accept their place in society and accept *han* as natural and part of the social system, and Shamanism provides an emotional release from *han* through a creation of a community of mutual suffering, it is Buddhism that helps us to spiritually understand and thus transcend *han*." This transforming and transcending process can be compared to one of the most prized symbols of Buddhism, the water lily. Although the water lily has its roots in murky silt and grows in muddy waters," it emerges beautiful and pure, untouched by the mud from which it grew.

At the same time, in the context of *han* – with regard to modern Korean literature we should not forget the influence of Taoism. As already mentioned, unlike in Europe, in the Far East it was literature rather than specific philosophical treatises that for a long time remained the place for presentation of philosophical ideas. Despite copying or interpreting examples of Western literature in Korea, which started at the beginning of the 20<sup>th</sup> century, with time plot solutions of stories and novellas in the Korean literature departed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the conflict-solution plots, which dominated in the West, and ruled out motifs of confrontation, victory, achievement and revenge. The

# Comparison of Honorific Forms and Their Usage in Korean and Latvian Languages

Ildze Šķestere (University of Latvia, Latvia)

## 1. Introduction

The most difficult parts of learning a language are frequently the ones that do not appear in your mother tongue. Or if they do, they take on a completely different look from what you are used to. Korean language and Latvian language share only slight similarities as they are from totall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with different linguistic characteristics. Latvian language is part of the Baltic branch of the Indo-European language tree and Korean language is said to be an isolated language part of its own language family. This makes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difficult and sometimes impossible, but even so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n how one or the other language can be more efficiently learned by the native speakers of the other it can become necessary.

In this case the comparison will be made between the two languages' approach to formality and honorifics. The usage of honorific forms is important in a variety of languages, but especially so in Korean, where the system is based on a long-standing tradition which stems from Confucian values. Not using the correct honorific forms will result in awkward situations at best and ruined chances in business or personal relationships at worst. In the case of Latvian, the use of honorifics is much more subtle and not such a big focus in daily life. Even so native speakers frequently use these subtle forms, a lot of the time not even thinking much of it.

With the possibility of some comparison and showcasing enough examples this becomes a way on how to better learn languages and understand the culture that surrounds them. For now, only in this format, but in the future research on this topic could be expanded.

## 2. Honorific Forms in Latvian

There is no specific honorific system in Latvian as such, instead a system called functional language styles was created to classify a somewhat similar phenomenon. There are five functional language styles – scientific, formal, journalistic, colloquial and literary style. This system was created during the 1960s based on an existing one in Czech language. But it has been noted that attempts at categorization began even before that when Latvian

language was first attempted to be systemized as such.

Definition: a functional language style is a historically developed type of language, which is characterized by a certain sphere of functioning and the related selection of specific language tools.

Honorific forms or lack of them appear quite prominently in the formal and colloquial styles of Latvian language and their combination with one another. The formal style is usually considered mainly a written form. The oldest written examples of a formal functional style in Latvian language come from the 17<sup>th</sup> century documents and translations of documents. It has since been further developed and has distinct guidelines on usage depending on the type of document or communication. The spoken parts of this style and their combination with the colloquial style are much less defined, but they can definitely be observed, especially in business, work spaces and daily interactions which require a certain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the users.

A notable grammatical part of the formal style in Latvian is the so-called T-V pronoun distinction, which has the 2<sup>nd</sup> person plural pronoun used in certain contexts as the 2<sup>nd</sup> person singular pronoun. While it is no longer part of common day English language, it remains a feature in many Indo-European languages and it originates from the Latin *tu* and *vos*. In Latvian – *tu* and *jūs*.

The first pronoun *tu* and its case forms (shown in table below) note a sense of closeness or lack of necessity for formalities and are the most widely used form to address somebody in the 2<sup>nd</sup> person. The second form *jūs* and its case forms (shown in table below) are rarer and note a sense of high formality or a lack of closeness. This form is frequently used in formal settings and when talking to somebody for the first time. It is maintained if the relationship remains strictly professional. It is expected to be used and the form with the capital letter has to be maintained throughout when writing formal documents that are addressed to somebody (formal e-mails, letters, greeting cards etc.).

Table. Comparison of case forms for the 2<sup>nd</sup> person pronouns in Latvian

Grammatical Case	Singular	Plural and Formal Singular
Nominative	Tu	Jūs
Genitive	Tevis	Jūsu
Dative	Tev	Jums
Accusative	Tevi	Jūs
Instrumental	(ar) Tevi	(ar) Jums
Locative	Tevī	Jūsos

Another part of the formal style stems from the Latvian grammar characteristic of matching the verbs in the sentence to the nouns or in this case pronouns used. Thus, even though the addressee is a singular person, if the plural pronoun is used, the verbs are also changed accordingly.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 verbs do not change, it all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 of each verb – 1<sup>st</sup>, 2<sup>nd</sup>, 3<sup>rd</sup> conjugation verbs or irregular verbs.

Examples:

Who are you? – Kas tu esi? Kas jūs esat?

Where are you going? – Kur tu ej? Kur mūs ejat?

Your bag is open. – Tava soma ir vaļā. Jūsu soma ir vaļā.

I am going with you. – Es iešu ar tevi. Es došos ar jums.

The examples show both cases of verbs changing or staying the same in their conjugated forms. The last example shows that there are instances when a different verb is preferred to be used in the case of wanting to appear more formal – using doties instead of iet (both mean go in Latvian). This is a characteristic of the formal functional style of language which prefers stronger, but neutral words, instead of more colloquial style expressions.

The last part of honorific forms in Latvian to mention are honorific titles or address. In Latvian these are words that show respect towards a person or that person's achievements, usually in academics or career. The most common example is kungs/kundze which is the equivalent to Mr./Mrs./Ms. titles in English. They are usually placed after person's full name or last name. Another common example is in academics with the use of profesors/professore which is the equivalent of professor in English. This form is usually placed before the person's full name or last name. There are no honorifics used in the case of informal situations, then the person is simply called by their name or nickname and sometimes by their familial relationship title to that person, but is not considered an honorific form usually.

Example:

Annas Liepas kundze Jūs tikāt ielūgta uz atklāšanas balli?

Profesors Liepiņš piedalījās grāmatas atklāšanā.

Mamma aizgāja uz veikalu.

### 3, Honorific Forms in Korean

The very first thing most Korean learners see in their studies is the way how to say “I” in Korean. This is their first step into the world of honorific forms in Korean. There are two ways to say “I” – 저 or 나. The first one – 저 – is regarded as a way of showing humbleness, lowering yourself and showing respect towards the addressee of the sentence, while 나 does not have that connotation and in a lot of conversations could be considered rude if uttered.

Beyond this Korean language overall is a language that is rich with grammatical forms that require specific context and situations to be used in. A great part of those fall into the many categories that can be called honorific forms.

These forms as a group in Korean have different names – 높임법, 높임말, 존댓말 etc.

But all of them express the same idea that there is somebody that is lowering their speech in politeness and that there is somebody that is making their speech higher in politeness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us, these honorific forms are used according to certain conditions: social (age, family, status) or psychological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These honorific forms have a long history and they have evolved over time. A lot of them have been forgotten and they are not used in common modern Korean language. For sake of clarity and ease, for this particular paper only the modern Korean language forms that are most used will be looked at.

Overall, it has been agreed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honorific forms in modern Korean language and the types of expressions are grammatically divided into sentence final endings (종결어미), pre-final endings (선어말어미), postpositions (조사), vocabulary (어휘) and suffixes (접미사).

The three types are:

### 1) 주체높임 or subject elevation

This first group uses all of the grammatical forms mentioned above to show politeness toward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t is important to know the subject's age and/or social status. These forms are only used for 2<sup>nd</sup> or 3<sup>rd</sup> person. In rare cases 1st person may also be used, but only when exaggerating for literary purposes.

Forms used: pre-final ending -(으)시, postpositions -께, -께서, suffix -님, special vocabulary (verbs)

Examples: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부르신다.  
 선생님이 우리집에 오셨다.  
 이 교수님은 사무실에 계십니까?

An interesting case is when the listener of the sentence is older than the speaker, but the subject is younger than the listener. Then the pre-final ending -(으)시 is usually omitted. This is usually referred to as 압존법 or relative honorifics.

Example:

할머니, 어머니 어디 갔습니까?

It is also possible that not the person themselves, but their possessions or traits are treated with the same respect.

Example:

사장님의 사업이 잘 되셨어요?

## 2) 상대높임 or addressee elevation

This group is mainly expressed through sentence endings and take into account the person that is hearing or reading the conveyed message. In this case, it is important to know the receiver's age and/or social status.

The sentence ending types are classified as 아주높임 or highly addressee raising, 예사높임 or moderately addressee raising, 예사낮춤 or moderately addressee lowering, 아주낮춤 or highly addressee lowering. These forms also frequently are called by different names like 존댓말 and 반말.

Forms used: various sentence final endings according to sentence type and connotation

Examples:

아주높임 -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주높임 -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사높임 - 그 소식을 들었어?

아주낮춤 - 그 소식을 들었냐?

These examples illustrate how different a sentence with the same meaning can sound when there is an addressee of a different age or status.

## 3) 객체높임 or object elevation

This type of formality is mainly expressed through vocabulary and postpositions. It shows respect to the object or adverb in the sentence. It is important to know the object's age and/or social status.

Forms used: vocabulary, postposition -님, suffix -께

Examples:

내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께 말씀 드립니다.

Another part of Korean honorific forms are the forms of address which were partially looked at above, but there are more cases than the mentioned grammatical forms and these are honorific forms of address or 호칭. Just like the other honorific forms this is also a complex phenomenon that would require a lot of in-depth research to showcase them all. Here the most common forms of address that learners of Korean language use will be discussed.

The form of address towards another person depends on a lot of conditions. It is once again a question of age, statu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When first meeting and when upkeeping a formal relationship 씨 or 님 is added next to the last name or full name. In other cases the title of the person's profession or position with the suffix -님 is added to their last name.

Example:

김하늘 씨 여기 오세요.  
이석진 님도 초대했습니다.

If it's a closer or more familiar relationship with a slightly older person than the speaker then familial titles like 형, 누나, 언니, 오빠 etc. are used either alone or added to the person's name. If it's a younger person than the speaker then frequently just that person's name is used.

Example:

아린 누나 왔어요?  
민호 오빠를 봤어?  
윤호가 어디 있어?

These types of formal address are usually used both when speaking to the person and referring to them as the subject or the object of the sentence, so they apply to all the honorific form categories above.

#### 4. Honorific Form Usage Comparison

The comparison of the different honorific systems in each language can shed a light on how to introduce the very complex system in Korean language to new learners it. It would be much easier if there were proper terms and plenty of examples explained in a way that is familiar to the learners' own language and culture. A part of it might also be creating new terminology and teaching this terminology to students learning the language. Thus far there have been distinguished researchers and papers made on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s in Latvian, but beyond student theses and some textbooks almost nothing on Korean language. This paper will attempt to make some headway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bridge on navigating the two language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The first point of comparison would be the pronoun system usage and formality. As mentioned above the Latvian system of formality weighs mostly on usage of T-V pronoun distinction. Whereas in Korean while they do exist, in practice the 2<sup>nd</sup> and 3<sup>rd</sup> person pronouns are usually replaced with honorific forms of address or skipped altogether.

Examples:

교수님, 어디 가세요? Profesor, kur jūs dodaties?  
오늘 언니가 못 갔어요. Viņa šodien nevarēja ierasties.

The two examples show how vastly different the two sentence structures and sometimes even meanings can become when trying to adhere to each language's honorific system and their natural usages. In the first example while the Korean sentence has just the honorific form of address, the Latvian sentence has both the honorific pronoun and form of address. In the second example mentions the honorific form of address in Korean, but in

Latvian it's more natural to use the 3<sup>rd</sup> person female pronoun. To further expand upon this the table below shows a comparison of the pronouns in both languages with some important points highlighted.

Table. Korean and Latvian Personal Pronoun Comparison

Person		Korean			Latvian
		예사말	높임말	낮춤말	
1st	Singular	나/내	본인	저/제	Es
	Plural	우리(들)		저희(들)	Mēs
2nd	Singular	너/네, 당신	당신, 그대	자네, 당신	Tu / Jūs
	Plural	너희(들)	여러분(들), 그대들		Jūs
3rd	Singular	그/그녀	당신		Viņš/Viņa
	Plural	그들/그녀들			Viņi/Viņas

As the table shows there is a variety of pronouns in the Korean language according to formality, while Latvian has a much simpler system. It is however interesting to note that a lot of the Korean pronouns are not used in everyday life. The ones that do get used frequently are the 1<sup>st</sup> person pronouns and 2<sup>nd</sup> person plural pronouns. For new learners of Korean language especially coming from a background of Indo-European languages it can be difficult to get used to this, but with plenty examples similar to the one's above and more exposure to the language in the classroom and outside it will eventually become a part of their language habit to adhere to the proper system in each language.

Lastly, an important part of pronoun usage is the switching between the formality levels. Usually, the usage of honorifics in Latvian comes quite naturally, but there can be instances when one party asks the other if they can refer to them as tu the 2nd person singular pronoun. This indicates a sense of the relationship getting more familiar and friendlier. Sometimes it happens without asking over the course of time while working with or getting to know the other person. This is similar to Korean language where it is not uncommon to ask permission to use 반말 or informal language with somebody of a similar age. This also can happen quite naturally over time, but it is more common to actually ask.

An interesting part to look at in the honorific system are the honorific nouns used in Korean. Like using different words for house, age, person, meal etc. when speaking to or about people who are older or higher status than the speaker. In Latvian, while it is usually not done in day-to-day conversation, there are some instances where synonyms or diminutive forms of a word might be used instead to give the sentence emotional flare or a different connotation. This can only be done in appropriate situations and with the right people, otherwise it can be considered rude. This might be a good comparison for learners to grasp this concept in Korean.

Examples:

House: 집 / 댁 Māja / Mājele / Ūķis

Age: 나이/연세 Gadi / Gadiņi

The next part to compare would be the honorific postpositions and suffixes used in Korean sentences. These can be daunting for Latvian learners at first, because they seem like a completely new grammatical pattern they are not used to. Here the comparison can be made with the noun case system in Latvian as shown in the table below.

Table. Comparison of postpositions in Korean and case system in Latvian

Postposition in Korean language	Case in Latvian language
-은/는 -이/가 -께서	Nominative
-의	Genitive
-에게/-한테/께	Dative
-을/를	Accusative
-와/과 -(이)랑 -하고 함께	Instrumental
-에 -에서	Locative
-야/-아, -님	Vocative

This is only an approximate comparison that is made so it would be understandable to Latvian students a more complete research into Korean postpositions would be needed to make a complete table and thorough examples.

The most complex case for comparison is the sentence ending honorifics. As noted by the author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Latvian students of Korean language often get confused with the difference in translations or sometimes the lack of them. In the most basic cases it is not hard to make distinctions when looking at two complete opposites of the honorific system spectre, like shown below.

Example:

뭐 하고 싶어? –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Ko tu gribi darīt? – Ko Jūs vēlaties darīt?

But in a lot of more complex cases, there are no Latvian equivalents to make the translations different enough that the formal connotation behind it comes through.

Example:

오늘 뭐 해? – 오늘은 뭘 해요?

Ko šodien dari? – Ko šodien dari?

While these are just rudimentary examples, they show a difficulty that comes with learning a language with grammatical forms vastly different from one's native language. This is something that can only be taught through a lot of exposure to dialogue between different people in the target language and when necessary, making

comparisons to their native language.

## 5. Conclusion

Overall, grasping the subtle differences on formality will still be a challenge to any learner of the language no matter what. But comparative linguistics offer a chance to examine both the learner's mother tongue and their target language closely, noting the differences and bringing up examples that can be comparable to better understand both sides. In the case of Latvian and Korean there were a surprising number of grammatical constructs that could be comparable. This shows possibility in expanding the materials Korean language teachers use to include more technical aspects of the language while including examples from real life that illustrate them.

Thus far, the grammar books and textbooks published in Latvian only showcase the Korean language grammar points making little or no comparison to other languages, which for learners that are using these books for self-study with no teacher to expand upon the topics, can make it quite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what exactly is meant there. With case studies and further research in both comparative linguistics and language education it is possible to make this more of a common feature in Korean language classrooms or study materials in Latvia and other places too.

## Bibliography (APA 6<sup>th</sup> editon)

- 1) Skujiņa, Skujiņa, Valentīna, & Latvijas Universitāte. Latviešu valodas institūts. (2007). Valodniecības pamatterminu skaidrojošā vārdnīca : Aptuveni 2000 terminu latviešu, angļu, vācu un krievu valodā / sastādījis autoru kolektīvs V. Skujiņas vadībā ; LU Latviešu valodas institūts. Rīga: [Valsts valodas aģentūra].
- 2) Veisbergs, Veisbergs, Andrejs, & Valsts valodas komisija. (2013). Latviešu valoda / Andreja Veisberga redakcijā ; Valsts valodas komisija. Rīga: LU Akadēmiskais apgāds.
- 3) Skujiņa, & Skujiņa, Valentīna. (2011). Lingvodidaktikas terminu skaidrojošā vārdnīca : 470 terminu latviešu, angļu un krievu valodā / autoru kolektīvs: Valentīna Skujiņa (darba vadītāja) ... [u.c.].
- 4) Uzruna. (n.d.). Latviešu Valodas Resursi. Retrieved April 20, 2021, from <http://valoda.ailab.lv/latval/vidusskolai/TEKSTS/uzruna.htm>
- 5) Sohn, H. (1999). The Korean language / Ho-min Sohn. (Cambridge language surveys). Cambridge, UK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6)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 (2008). 도서출판 서울.
- 7) 라트비아 대학교 아시아학부 한국학 대학원 과정 특별 세미나 자료집. (2018). 라트비아 대학교.



분과 3

동유럽에서의 한국 문화 교육

사회 : 신윤경(가천대학교)

##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in Ukraine as fundamental component of “soft power” strategy.

Semenova Kateryna (Center of Eastern Development and Culture, Ukraine)

Intensification of communication is spreading with high speed all over the world. This radically changes the approach towards state policy on the international scen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al means, communicational technologies along with the boost of social webs we can draw a conclusion about erasing of the borders among the countries and people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new worldwide informational society.

Dealing with the last observed tendencies should be mentioned active usage of informational means by the society to take part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ven to attempt to influence events in the world. Nowadays citizens of certain country evaluate, analyze and judge not only the decisions and actions taken by their own government. The world society attentively watch everything happening on the international scene and in other countries, delivering positive or negative judgement. Individual opinions spread fast due to the communication technologies.

One of the way to express public opinion is flash-mob. For example, talking about political decisions, there was a “March of peace” in 2014 in Moscow when more than 50 thousand of people walked along the streets demanding to stop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Every year a Flash-mob “imagine” by UNICEF devoted to children takes place making people think about important things. In 2020 there was an online flash-mob with hashtag “BTS come to Ukraine”, when Ukrainian fans of BTS expressed their wish to see their favorite band in Ukraine. So, society not just evaluate but take actions. Small or big, dealing with simple or huge problems, concerning one country or world spread, these actions are significant. Today is so easy for a country to become either loved or hated. Thus, new conditions require new approaches towards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there is one more significant participant – society which power should be definitely taken into account.

The necessity to adopt to new conditions named as “phenomenon of socialized international relations” stimulate the interest of scientists as well. Thus, P. Bourdieu along with the concept of the country's economic capital, introduces a new term – “social capital” [1]. So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scientist, includes, on the one hand, the ideological values of the state, important for citizens, and on the other hand, the country's reputation, the capital of honor and prestige. P. Bourdieu does not consider social capital conceptual, and insists on the direct connection between economic and social capital.

Nye J. suggests the concept of “soft power”, by which he understands the flexible and mobile power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flows [2]. Nye's ideas are in tune with the tenets of the ancient treatise “The Art

of War”, which likewise favors soft, flexible methods of reaching the aims, which are more effective and economical than aggressive, straightforward actions [3]. “Soft power” is using the attractiveness of political leaders, political decision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hievements broadcasted around the world and providing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country.

Being aware of the great influence of the society, scientific community started to search for the solution. Nye J. suggested to use “soft power”, aimed at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the citizens of other countries, instead of “tough strategy”, based on military power, economy agreements, etc. Anholt S., a specialist in territorial branding, considers that every state can significantly affect its own image and offers a strategical model, known as “Nation Brand hexagon”, which includes 6 main factors: people, tourism, exports, culture and heritage, governance, investment and immigration [4]. According to the ideas of Anholt, the main source of the brand is an integrated ideology controlling all six components among which the most important is society.

Theoretical approach of soft power is still uncertain. But in practice there are successful as well as significant results. Of course, it is about such popular phenomena being under close attention of the world – “Korean wave”. “Korean wave” came to Ukraine too. Thus, the aim of this work is to describe the realization of Korean “soft power” on the territory of Ukraine.

## **Diplomatic relations.**

As the first political act of interaction can be considered the recognition of the independence of Ukraine by South Korea on December 30, 1991, which was followed by the official regist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on February 10, 1992 and the opening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Kiev in November 1992, and in October 1997 – the Embassy of Ukraine in Seoul. During 29 years, significant work has been done by both countries to strengthen and develop friendly relations. The communiqué o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between Ukraine and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starting point in the creation of a contractual framework and the legal consolidation of bilateral rela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signing of a number of important agreements: Joint Declaration on the Principles of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Ukraine and the Republic of Korea,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Mutual Assistance and Investment Protectio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Trade Committee, etc.

## **Economic interaction.**

Among the most demanded economic spheres of cooperation, it is worth mentioning the agricultural sector, alternative energy, IT, e-commerce, education, waste processing and bio-fuels.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agricultural sector (construction of a granary in the Nikolaev region) is important for Ukraine. In June 2019, the Korean company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signed a contract with the Ukrainian company “Helios

Strategia”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of two solar power plants with a capacity of 12.6 MW and 11.5 MW in the Carpathian region. The total cost of the project is \$ 24 million, USA.

## Collaboration in the sphere of science and technologies.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Ukraine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regulated by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1994). In the course of cooperation with the Korean side, it was agreed to finance certain areas of joint research projects in the field of bio, nan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hysics and aerospace. GS Construction, a large Korean company, signed a contract with a Ukrainian partner to build a solar power plant. Samsung Electronics has a research center in Kiev.

## Cultural and educational interac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ere has been a constant growth of cooperation in the cultural sphere. In recent years, Ukraine has been widely represented in Korea: tours of the Khmelnytsky Regional Academic Symphony Orchestra, the Sevastopol Municipal Symphony Orchestra, the Donetsk State Philharmonic Symphony Orchestra. S. Prokofev, Symphony Orchestra of the Chernivets Philharmonic. The Ukrainians annually take part in the Seoul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as well as the Koreans –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Young Pianists in Memory of Volodymyr Horovits, they got the first place in the senior group and the gold medal in 2017 and 2010.

An important event was the celeb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Ukraine and Korea. In honor of this significant event, numerous cultural events were held in Ukraine, which allowed Ukrainians to learn more about the traditions and culture of Korea, and the 18th Korean Center was also opened.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signed a Memorandum of Mutual Understanding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Ukraine.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both countries are now fruitfully cooperat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Korean Educational Center at the Embassy was established, which in turn makes efforts to improve educational ties and increase the exchange of experience in this direction between our states and directs its activities to popularize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in Ukraine.

The same year, musicians from Ukraine and Korea performed at the musical festival “Ukraine as Korea”, which emphasize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countries and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on the territory of Ukraine. In 2018, the participant in this concert received an award from the Korean Embassy for her contribution to the popularization of Korean culture in Ukraine. The Ukrainian–Korean round table is becoming a traditional special event within the framework of KYIV MEDIA WEEK, since the expansion of cultural and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Ukraine and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one of the priority areas of international activities of both countries.

In 2018 507 Ukrainians studied Korean and Taekwondo at the Korean Education Center. Today there are more

than 20 Taekwondo clubs in Ukraine and the number of Ukrainians engaged in Taekwondo study is increasing. This year more than 1500 people are going to take part in the annual Taekwondo competition.

Another activity of the center is assistance in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Ukrainian and Korea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concluding agreements on cooperation, inviting Ukrainian educators on business trips to Korea to get acquainted with Korean experience and advanced scientific achievements, and also selecting students for a grant for study in Korea.

Student exchanges take place on a regular basis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of Ukraine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scholarships for study in Korea are awarded within the framework of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for students from Ukraine. Currently, more than 20 Ukrainian students study at state univers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on scholarships basis.

There are Korean language faculties in three universities of Ukraine and significant number of language schools, offering Korean languages as well as private tutors. For example, at the National Linguistic University, which has faculties of Korean and Chinese, the number of freshmen who enrolled to study Chinese was 120 students, Japanese – 50, and 80 students enrolled in the faculty of Korean in 2018. And this number is constantly increasing. Especially after the opening of Sejong Institute in Ukraine. Right now there are more than 250 students at Sejong Institute, leaning Korean language, and more than 200, studying Korean culture.

In Ukraine there are a number of agencies that send students to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re is the Center of Eastern Development and Culture, which sends students to Asia.

## Public attitude.

Talking about the image of Korea in Ukraine, First, should be mentioned that Ukrainian teenagers liked K-pop music so much that they started creating fan groups and clubs as well as creating own k-pop bands. Ukrainians also liked Korean doramas and movies. As it was rather difficult to find Korean movies translated into Ukrainian, fan clubs started to translate and dub movies themselves. Love towards Korean culture made Ukrainians willing to learn Korean language, Korean calligraphy and even martial arts. Ukrainian people with pleasure buy and use a wide range of Korean products (cars, cosmetics, etc.).

This is facilitat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of the Korea Education Center in Ukraine, the Korea Intangible Heritage Promotion Center,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kraine and other organizations, which hold various events (festivals, conferences, days of Korean culture, etc.). All over Ukraine, people enjoy attending cultural events dedicated to amazing Korean culture and traditions. Each year cultural events become more diverse and large-scaled. Ukrainians have a great opportunity to get acquainted with Korean traditions and culture, arts, traditional clothing, music, history, etc. Cross-cultural events dedicated to friendship between Ukraine and Korea also contribute strengthening of relations (fig. 2).



Fig. 2. a) Korean Culture Camp in Poltava [7], b) Korean culture days in Zhytomyr [5], c) “Velokaravan of Ukraine-Korea friendship” [9].

Ukrainians like Korean cuisine, which is spicy but very delicious. More and more Korean restaurants are opened in Ukraine (Fig. 3).



Fig. 3. a) Pyan Se Bar, b) Kim Food, c) Korean barbecue at “Kin Kao”, d) the map of the marked Korean restaurants [2].

## Experience of the Centre of Eastern Development and Culture.

In 2003 to encourage understanding among the nations, contribute building of tolerant socie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Centre of Eastern Development and Culture was established. The best way to help people gain understanding is acquaintance with various customs, traditions of nations in the world. To achieve this aim wide range of events and projects were implemented.

Our experience with promotion of Korean culture include the courses of Korean language and arts as well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classes, lectures, master classes, etc. For example, in 2016 grand event where Asian culture including Korean was presented took place in Poland. People tried to learn Asian languages, cook Asian food and so on. In 2017 we organized internship “Forward, dragons!” to let the youth to take part in the organization of Asian cultural projects including k-pop and k-dorama marathons. The project “Educational Diplomacy for communication” was also implemented including presentations and lectures in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In 2018–2019 at cultural festivals Korean culture was presented by interactive lecture “Korean alphabet in 45 minutes”; lecture and master-class “The Way of the Master of the Brush” (Korean

calligraphy); interactive lecture 'K-pop – hidden behind the text'; lecture "Education in Asia".

We see the increasing interest of Ukrainians to learn Korean language, study and work in Korea. We are proud that this year two of our students entered Yonsei University. Next year we expect more students to study in Korea.

## Strategy mix.

Due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possible to design a formula for effective building a successful image of the country: from the country to society.

Building the country's image in the eyes of people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trategic stages: attraction of interest,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creation of love. The following strategy elements were successful:

**1. Tourism.**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ols for gently stimulating interest to a country. People love to travel and learn new things.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introduce Korea as it has everything necessary: beautiful nature, attractions, cuisine, etc. Korea is very popular especially in the field of plastic surgery and health programs.

**2. Practical interest.** Once English became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ducation. The Korean language can gain the same popularity. To achieve this, people from other countries must have understood the advisability of learning Korean. The following incentives are: 1) education opportunities in Korea (A lot of people want to enter Korean universities because of the quality recognized worldwide. Yonsei University became 30th in the world rating of universities. Right now, our two students are already enrolled in Yonsei university and this year we are expecting 16 students; 2) work in Korean companies or representative offices; 3) business opportunities from trade (Korean products are famous and considered to be of very good quality as well as the price is affordable) to significant scientific projects.

**3. Education.** Education in other countries is the subject of interest for many people. According to Korea experience the following should be mentioned as successful approaches: 1)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with local companies that can promote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2) PR company that could reveal the benefits of studying to stimulate interest; 3) attraction of partner companies for processing documents for applicants to universities.

**4. Cinematography and art.** One of the most popular sources of gain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other countries is cinema. Korean dramas are very popular today. The popularity is so great that tons of amateur fan sites and fan groups exist on the Internet. The owners of the mentioned sites and fan pages even create amateur translations of Korean dramas.

**5. Music.** Music conquers hearts. In this sphere, Korea has gained fantastic success – besides popularity of K-pop worldwide,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example of this popularity is the fact that BTS became UN peace ambassadors. A lot of teenagers in Ukraine started learning Korean because of the wish to understand and be able to sing favorite K-pop songs.

**6. Cultural events in various fields** (exhibitions, culture days, etc.). The number of events devoted to culture acquaintance and exchange let Ukrainian people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afterwards love it.

**7. Exchange.** Exchange programs in sports, culture and educatio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opularization of Korea on the territory of Ukraine.

## Conclusion.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today are purposefully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relevant soft power strategies. A feature of the soft power discours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inclusion of commercial brands in soft resources: the international successful export of Korean products has turned commercial brands into a soft power aspect of South Korea's diplomacy (Samsung, Hyundai Kia Automotive Group, and LG are considered as world trade marks).

In January 2009, the Presidential National Branding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enhance the national status and prestige of the Republic of Korea. Its goal is to shape the image of Korea as "a responsible nation that everyone loves." And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we can make the conclusion that this aim is achieved.

"Soft power" resources are recognized as a successful experience of rapid modernization and democratization, a strong economy, and the so-called "Korean waves" ("hallu"), reflecting the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Researchers traditionally distinguish two groups of goals of South Korea's "soft power" policy: 1) trade and economic (expanding international markets for exports,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ng tourists); 2) political and security goals. But talking about Ukraine we definitely should add goals to achieve mutual understanding and support.

Currently, the tangible results of the successful Korean soft power strategy are: the expansion of markets for trade, a significant increase in tourist flows to South Korea, consulting and expert assistance to politicians and businessmen from other countries on the issues of modern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countries where the "Korean Wave" is welcomed, as well as in Ukraine, the Korean lifestyle, the Korean type of consumption and service are spreading, and Korean brands and celebrities are becoming popular. In addition, South Korea intends to use such soft power resources as animation, computer games and, of course, IT technologies to world markets.

The Republic of Korea and Ukraine are separated by a distance of more than 7,500 km, but there is a lot in comm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pproximately the same population, love for dances and songs since ancient times, a similar desire to preserve their identity and overcome difficulties in order to become successful countries. A similar situation regarding the restoration of territorial integrity. All efforts made by both sides led to strong, friendly relations between Ukraine and the Republic of Korea.

Summarizing the above, we can say that in the diplomacy of the future "soft power" will be assigned one of the central places and the experience of Korean waves is contributive. The most important lesson we can get from Korean "soft power" success is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should be built on mutual love, understanding and support.

## ■ References ■

1. Bourdieu, P. Social space: fields and practices / P. Bourdieu. – SPb: Aletheya, 2014. – 576 p.
2. Nye,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04.
3. Sun-tzu and Samuel B. Griffith. The Art of War. Oxford: Clarendon Press, 1964. Print.
4. Anholt S., Hildreth D. Brand America: the mother of all brands. M., 2010. – 21 p.
5. [https://www.tripadvisor.ru/Restaurants-g294474-c10661-Kyiv\\_Kiev.html](https://www.tripadvisor.ru/Restaurants-g294474-c10661-Kyiv_Kiev.html)
6. [https://www.tripadvisor.ru/Restaurant\\_Review-g294474-d12487155-Reviews-Kin\\_Kao-Kyiv\\_Kiev.html](https://www.tripadvisor.ru/Restaurant_Review-g294474-d12487155-Reviews-Kin_Kao-Kyiv_Kiev.html)
7. <https://nupp.edu.ua/news/bilshe-sta.html>
8. <http://insider.zt.ua/zhitomir/29526-yak-ckavo-provesti-vihdn-anons-zahodv.html>
9. <https://persha.kr.ua/theme/133413-velokaravan-druzhby-ukrayina-koreya-zrobyv-zupynku-u-kropyvnytskomu/>
10. <https://ukurier.gov.ua/uk/articles/korejska-hvilya-zajshla-u-kiyiv/>
11. <https://ukrainer.net/koreitsi/>

## “소프트 파워”전략의 기본 요소 인 우크라이나의 한국어 및 문화 교육

Semenova Kateryna(Center of Eastern Development and Culture, Ukraine)

통신의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현장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합니다. 번역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 수단의 발전과 소셜 웹의 활성화와 함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 정보 사회를 만드는 국가와 사람들 사이의 경계선 제거에 대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 된 경향을 다루는 것은 사회가 정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국제 관계에 참여하고 심지어 세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언급해야 합니다. 오늘날 특정 국가의 시민들은 자국 정부가 내린 결정과 행동을 평가, 분석 및 판단합니다. 세계 사회는 국제 현장과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깊게 관찰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판단을 전달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인해 개인의 의견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 외에도 사회는 평가뿐만 아니라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날 한 나라가 사랑 받거나 미움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건은 한 명 더 중요한 참여자 인 사회가 있기 때문에 국제 관계 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화 된 국제 관계 현상”이라는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P. Bourdieu는 국가의 경제 자본 개념과 함께 “사회적 자본”[1]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합니다. 과학자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한편으로는 시민에게 중요한 국가의 이데올로기 적 가치를 포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명성, 명예와 명성의 수도를 포함한다. P.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더욱이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주장합니다. Nye J.는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신 및 정보 흐름의 유연하고 이동성있는 힘을 이해합니다 [2]. Nye의 아이디어는 고대 논문 “The Art of War”의 교리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행동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부드럽고 유연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3]. “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정치 지도자의 매력, 정치적 결정,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과를 활용하고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을 제공합니다.

사회의 큰 영향을 인식 한 과학계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Nye J.는 군사력, 경제 협정 등을 기반으로 “강한 전략”이 아닌 다른 국가의 시민들과 함께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영토 브랜딩 전문가 인 Anholt S.는 이를 고려합니다. 모든 국가 자체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람, 관광, 수출, 문화 및 유산, 거버넌스, 투자 및 이민 [4]의 6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하는 “국가 브랜드 육각형”이라는 전략적 모델을 제공합니다. Anholt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브랜드의 주요 원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 인 6 개 구성 요소를 모두 제어하는 통합 이데올로기입니다.

소프트 파워의 이론적 접근 방식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공적인 결과와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기 현상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는 ‘한류’에 대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도 ‘한류’가 찾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실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 외교 관계.

최초의 정치적 상호 작용은 1991 년 12 월 30 일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하고 1992 년 2 월 10 일에 국가 간 외교 관계를 공식 등록하고 대사관이 개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92 년 11 월에 키예프에서 대한민국을, 1997 년 10 월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29 년 동안 양국은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관계 수립에 관한 성명서는 여러 중요한 협정의 서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 프레임 워크를 만들고 양국 관계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출발점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간의 관계 및 협력 원칙,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상호 원조 및 투자 보호에 관한 협정, 외교부 공동 무역위원회 설치에 관한 양해 각서 대한민국의 경제 관계와 무역과 에너지.

## 경제적 상호 작용.

가장 요구되는 경제 협력 분야 중 농업 부문, 대체 에너지, IT, 전자 상거래, 교육, 폐기물 처리 및 바이오 연료를 언급 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농업 분야에서 대한민국과의 협력 (니콜라 예프 지역 곡물 창고 건설)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 GS 건설은 2019 년 6 월 카르 파티 아 지역에 12.6MW, 11.5MW 규모의 태양 광 발전소 2 개 건설에 따라 우크라이나 기업 '헬리 어스 전략과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2,400 만 달러입니다. 미국.

##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업.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협력은 과학 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 (1994)에 의해 규제됩니다. 한국 측과의 협력 과정에서 바이오, 나노, 정보 통신 기술, 물리학 및 항공 우주 분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특정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GS 건설은 우크라이나 파트너사와 태양 광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 전자는 키예프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

## 문화적, 교육적 상호 작용.

외교 관계 수립 이후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이 성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Khmelnytsky 지역 학술 심포니 오케스트라, 세 바스 토폴 시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도네츠크 주립 필 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 순회 등 한국에서 널리 대표되었습니다. S. Prokofev, Chernivets Philharmonic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인들은 매년 서울 국제 음악 콩쿠르에 참가하며 한국인뿐만 아니라 볼로디미르 호로비츠를 기념하는 젊은 피아니스트 국제 콩쿠르에서 2017 년과 2010 년 시니어 그룹 1 위와 금메달을 받았다.

중요한 행사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수교 25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이 중요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문화 행사가 열렸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제 18 회 한국 센터도 개관했습니다. 한국 교육부는 우크라이나 교육 과학부와 상호 이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은 이제 교육 분야에서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 년 3 월 대사관에 한국 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육

적 유대 관계를 개선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주 간의 경험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학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어. 같은 해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뮤지션들이 뮤지컬 페스티벌“Ukraine as Korea”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는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한류”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2018 년 이번 콘서트 참가자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우크라이나-한국 라운드 테이블은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의 문화 및 경제 파트너십 확대가 양국의 국제 활동의 우선 영역 중 하나로 남아 있기 때문에 KYIV MEDIA WEEK 프레임 워크 내에서 전통적인 특별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2018 년 우크라이나 인 507 명이 한국 교육원에서 한국어와 태권도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는 20 개 이상의 태권도 클럽이 있으며 태권도 연구에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또 다른 적극적인 활동은 우크라이나와 한국 고등 교육 기관 간의 관계 수립 지원, 협력 계약 체결, 한국 출장에 우크라이나 교육자들을 초청하여 한국 경험과 선진 과학적 업적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교육 기관간에 정기적으로 학생 교환이 이루어지며,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한국 유학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현재 20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대한민국의 주립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3 개 대학과 상당수의 어학원에 한국어 학부가 있으며 한국어와 사교육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중국어 학부가있는 국립 언어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등록한 신입생 수는 2018 년에 한국어 학부에 등록한 학생 120 명, 일본인 50 명, 80 명이었습니다. 그리고이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증가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학생들을 유럽과 미국에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여러 기관이 있으며 학생들을 아시아로 파견하는 동양 개발 및 문화 센터도 있습니다.

## 대중의 태도.

첫째,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은 K-pop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나라에서 팬 그룹과 클럽을 만들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팬 상품을 구매하고, K-pop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좋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번역 된 한국 영화를 좋아하기 어려웠 기 때문에 팬클럽들이 직접 영화를 번역하고 더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어, 한국 서예, 심지어 무술을 기꺼이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무술 태권도는 우크라이나 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올해는 15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례 태권도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즐거움을 가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양한 한국 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을 사고 사용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한국 교육원, 한국 무형 유산 진흥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등 다양한 행사 (축제, 컨퍼런스, 한국 문화의 날)를 주관하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촉진된다.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사람들은 놀라운 한국 문화와 전통에 전념하는 문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즐깁니다. 매년 문화 행사는 더욱 다양 해지고 대규모 화됩니다. 우크라이나 인들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 예술, 전통 의상, 음악, 역사 등을 알 수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우정을 위한 이문화 행사도 관계 강화에 기여합니다 (그림 2).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드라마를 포함한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으며 물론 K-pop 문화는 K-pop 대회에 참가하고 [10] 커버 밴드를 만듭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한국어, 노래를 배우고 한국 대학에서의 추가 교육에 대해 생각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림 2. a) 폴 타바 한국 문화 캠프 [7], b) 지토 미르 한국 문화의 날 [5], c)“우크라이나-한국 우정의 벨로 카라반”[9].

우크라이나 인들은 매운맛이지만 아주 맛있는 한식을 좋아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점점 더 많은 한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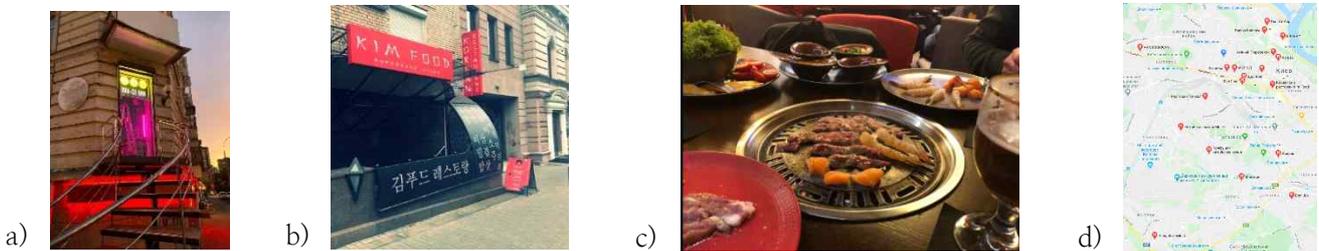


그림 3. a) Pyan Se Bar, b) Kim Food, c)“Kin Kao”의 한식 바베큐, d) 표시된 한식당지도 [2].

### 동양 개발 및 문화 센터의 경험.

2003년에는 국가 간 이해와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국제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동양 개발 및 문화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관습, 전통을 아는 것입니다. 2016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프트 협력 전략 인“가치의 삶”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와 아시아 국가의 협력을위한 유리한 환경을 설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 관습, 예술 등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른 이벤트의 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정기적 인 활동과 예정된 일회성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의, 강연, 명절, 관습, 역사, 언어 및 예술에 대한 지식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과 외국인 게스트가 아시아 국가의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일 / 학습 / 사업 구축 및 교류의 기회를 찾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수업, 강의, 마스터 클래스 등 적절하게 설계된 공간에서 개최됩니다. 2016년 폴란드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가 선보이는 그랜드 이벤트. 2017년 : 2017년 인턴십“Forward, dragons!”; 프로젝트“커뮤니케이션을위한 교육 외교”; 학교 및 교육 기관 등에서 발표 및 강의. 2018-2019 : 대화 형 강의“한글 45분”; 강의 및 마스터 클래스“빛의 길”(한국 서예); 대화 형 강의“K-pop-텍스트 뒤에 숨어”; 강연“아시아 교육”; 공휴일 및 식목“나무의 날”등

2007년부터는 동양의 발전과 문화의 중심에 한국어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학생들 중 두 명이 연세대 학교 학생

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전략 믹스.

따라서 국가에서 사회로 국가의 성공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위한 공식을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관심의 끌기, 정보 제공 및 사랑의 창조와 같은 여러 전략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전략 요소가 성공적이었습니다.

**1. 관광.** 그것은 국가에 대한 관심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가장 인기있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여행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볼거리, 요리 등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한국을 소개 할 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은 특히 성형 외과 및 건강 프로그램 분야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2. 실질적인 관심.** 영어가 국제 비즈니스 및 교육의 언어가 된 후, 한국어도 같은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 학습의 타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서의 교육 기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연세대 학교는 세계 대학 평가에서 30 위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두 학생은 이미 연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학과 올해는 16 명의 학생이 예상됩니다. 2) 한국 기업 또는 대표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인해, 3) 무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얻습니다. (한국 제품은 유명하고 가격이 매우 좋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렴한) 중요한 과학 프로젝트에.

**3. 교육.** 다른 나라의 교육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한국의 경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접근 방식을 언급해야 합니다. 1)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촉진 할 수있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 2)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 공부의 이점을 드러 낼 수있는 PR 회사 3) 대학 지원자 서류 처리 협력 업체 유치

**4. 촬영법.** 지식을 얻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인기있는 출처 중 하나는 영화입니다. 오늘날 한국 드라마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너무 커서 인터넷에 수많은 아마추어 팬 사이트와 팬 그룹이 존재합니다. 언급 된 사이트와 팬 페이지의 소유자는 한국 드라마의 아마추어 번역도 제작합니다.

**5. 음악.** 음악은 마음을 정복합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환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pop의 인기 외에도 방탄 소년단이 UN 평화 대사가 된 것이 이러한 인기의 예라고 언급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K-pop 노래를 이해하고 부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 다양한 분야의 문화 행사** (전시회, 문화의 날 등). 문화에 대한 지식과 교류를위한 수많은 행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나중에 그것을 좋아하게했습니다.

**7. 교환.** 스포츠, 문화, 교육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한국의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했습니다.

## 결론.

한국은 오늘날 관련 소프트 파워 전략 개발에 의도적으로 참여하고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아침 신선한 나라는 1) 급속한 근대화화 및 민주화의 성공적인 경험, 2) 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른바 '한류' 확산 등 상당한 소프트 파워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수준에서 한국은 그리 오래 전인 1990년대 초경 현재의 형태로 "소프트 파워"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이 분야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매우 유용하고 매력적입니다.

한국 소프트 파워 담론의 특징은 소프트 리소스에 상용 브랜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제품의 국제적 성공적인 수출은 상용 브랜드를 한국 외교의 소프트 파워 측면으로 전환 시켰습니다 (삼성,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 LG 재벌은 세계 상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소프트 파워", 특히 "소프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보안 아키텍처 구축을 통해 국가의 보안을 보장 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소프트 파워"를 촉진하기위한 강력한 톨킷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조직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준주 조직, 인터넷 자원, 언론, 디아스포라 조직도 포함됩니다. 2009 년 1 월에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국가 브랜드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한국의 이미지를 "모두가 사랑하는 책임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 이미지 증진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연락 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평판 관리"계획을 실행하고, 파트너 국가의 여론을 고려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자원은 급속한 근대화과 민주화, 탄탄한 경제, 소위 '한류'('한류')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인정 받아 한국 문화의 인기를 반영하고있다. 연구원들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정책의 두 가지 목표를 구분합니다. 1) 무역과 경제 (수출을위한 국제 시장 확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관광객 유치); 2) 정치 및 안보 목표.

현재 성공적인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의 가시적 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상품 무역 시장 확대, 한국으로의 관광객 유입 증가, 다른 국가의 정치인 및 사업가에 대한 컨설팅 및 전문가 지원 현대화와 민주화. '한류'를 환영하는 나라에서는 한류 라이프 스타일, 한류 형 소비와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브랜드와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고있다. 또한 한국은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IT 기술 등 소프트 파워 자원을 세계 시장에 홍보하는 데 있어 미국, 일본과 진지하게 경쟁 할 계획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외교에서 "소프트 파워"가 중심적인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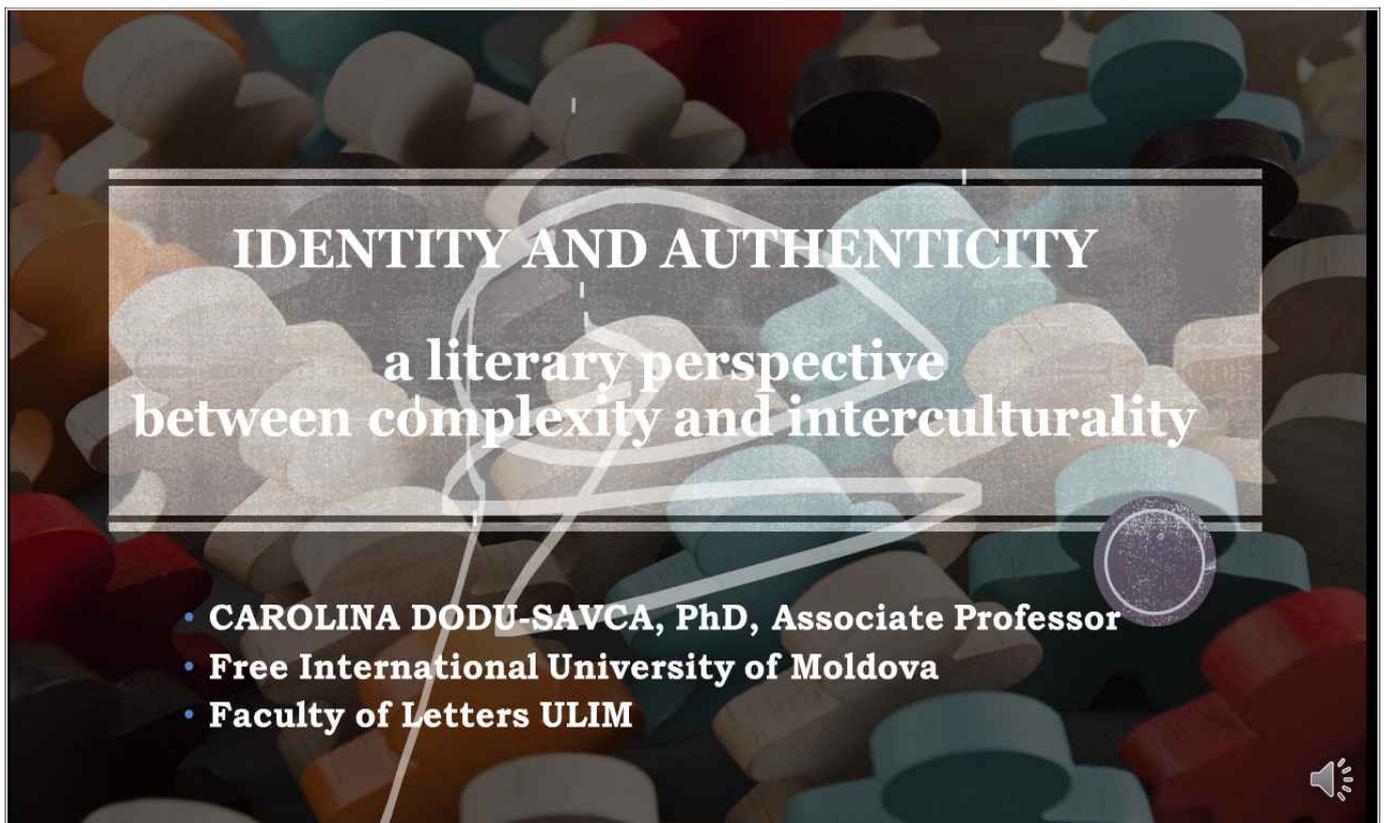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7,5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고 인구는 거의 같으며 고대부터 춤과 노래에 대한 사랑, 정체성을 지키려는 비슷한 욕구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국가가되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영토 보전의 회복에 관한 유사한 상황. 양측의 모든 노력은 우크라이나인들의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 ■ References ■

1. Bourdieu, P. Social space: fields and practices / P. Bourdieu. – SPb: Aletheya, 2014. – 576 p.
2. Nye,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04.
3. Sun-tzu and Samuel B. Griffith. The Art of War. Oxford: Clarendon Press, 1964. Print.
4. Anholt S., Hildreth D. Brand America: the mother of all brands. M., 2010. – 21 p.
5. [https://www.tripadvisor.ru/Restaurants-g294474-c10661-Kyiv\\_Kiev.html](https://www.tripadvisor.ru/Restaurants-g294474-c10661-Kyiv_Kiev.html)
6. [https://www.tripadvisor.ru/Restaurant\\_Review-g294474-d12487155-Reviews-Kin\\_Kao-Kyiv\\_Kiev.html](https://www.tripadvisor.ru/Restaurant_Review-g294474-d12487155-Reviews-Kin_Kao-Kyiv_Kiev.html)
7. <https://nupp.edu.ua/news/bilshe-sta.html>
8. <http://insider.zt.ua/zhitomir/29526-yak-ckavo-provesti-vihdn-anons-zahodv.html>
9. <https://persha.kr.ua/theme/133413-velokaravan-druzhby-ukrayina-koreya-zrobyv-zupynku-u-kropyvnytskomu/>
10. <https://ukurier.gov.ua/uk/articles/korejska-hvilya-zajshla-u-kiyiv/>
11. <https://ukrainer.net/koreitsi/>

Identity and Authenticity: a literary perspective between complexity and  
interculturality

Carolina Dodu-Savca(Fre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Moldova, Moldova)



# Outline

1. **Preliminary View on Identity**
2. **A glance on a perception of Identity versus Authenticity**
3. **Literary Reflections in the 20<sup>th</sup> and 21<sup>st</sup> cc.**
  - **A literary perspective on Identity between complexity and interculturality**



## CONTEXT

**Identity and Authenticity**

**Preliminaries & perspectives**

**Forms & functions**

**Definitions, classifications**

## OBJECT

**Identity vs Authenticity ...**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

**Interdisciplinary Itinerary**

**Interpre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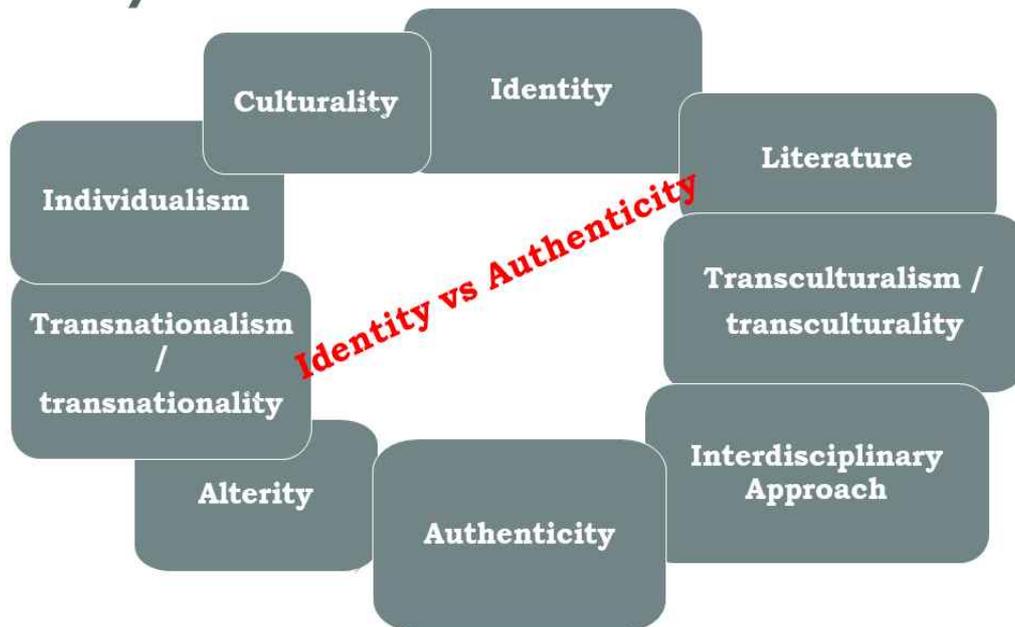
## SUBJECT

**Identity in complexity and Authenticity in interculturality**

**Literary perspective Aspects & symbols**



## Key words:



« L'homme pense, sent et vit uniquement dans la langue » (Humboldt, 2000 :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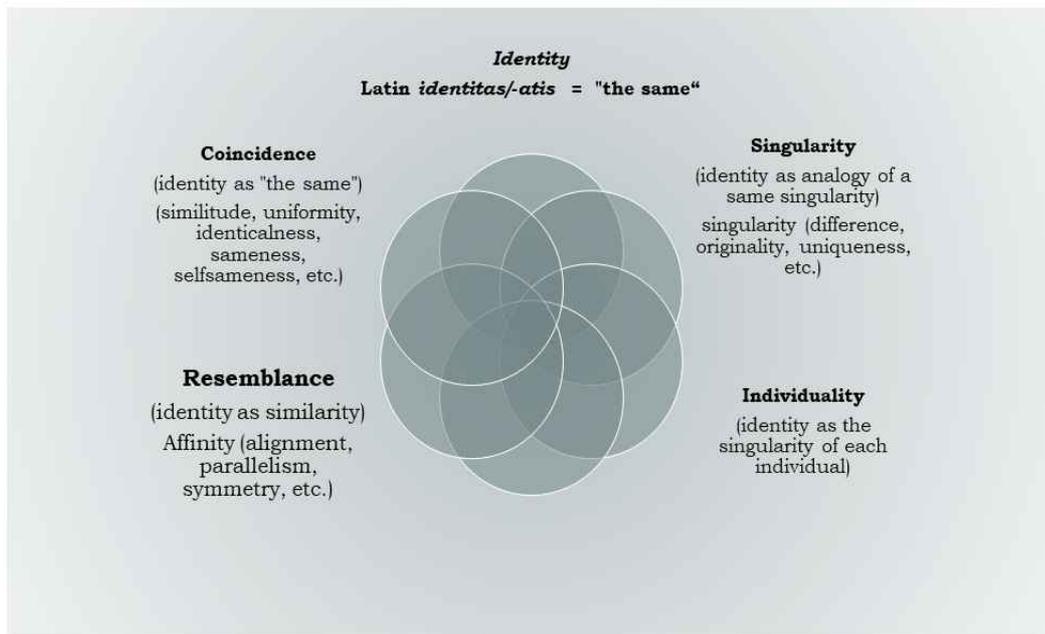


# 1. Preliminary View on Identity

- a) **Etymological note: the notion “identity” = *Idem vs Ipseity***
- b) **Identity – identification – Forms of Identity**
- c) **Overview on Identity: theoretical, scientific, and application fields**
  - Identity - epistemological challenge with a multidisciplinary phenomenology
- d) **Interdisciplinary Connections**
- e) **Interdisciplinary Itinerary : Lévi-Strauss, Todorov, Morin, Ricoeur**



### a) Etymologically, the notion “identity” = *idem*



## b) Identity – identification – Forms of identity

### Identity = ipseity

- mēmetē
- Bernard Péroile: « polymorphe et boulimique »
- (« La notion d’identité nationale comme négation de la nation » In *La Pensée*, 308, 1996, p.97-114)

### Identification

- Claude Dubar : 2 types: essentialist & logical
- A. “essences”, essential realities = sameness;
- B. “categories”, the “essential” - ipseity
- Ipseity = “Individual identity : **SELFHOOD**” / (Merriam-Webster)
- those heavenly moments ... when a sense of the divine *ipseity* invades me — L. P. Smith

### Forms of identity

- Forms = *Panta rei*
- Heraclite
- Being identical = to the essence of one’s being, to the true nature of oneself
- The ancient Greek wisdom in the Heraclitian formula “ Ever-newer waters flow on those who step into the **same rivers** (you can not bathe twice in the same river) / *panta rei* = “everything flows“ = everything changes, evolves, transforms itself.



C) Overview on Identity: theoretical, scientific, and application fields

## Identity - epistemological challenge with a multidisciplinary phenomenology

biology, social and biological sciences	philosophy, logics	anthropology, ethnology, socio- anthropology, genealogy	theology
geography	philology, language science, literary sciences, literature	psychology	social psychology psychoanalysis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social sciences, sociology, etc.	Neurosciences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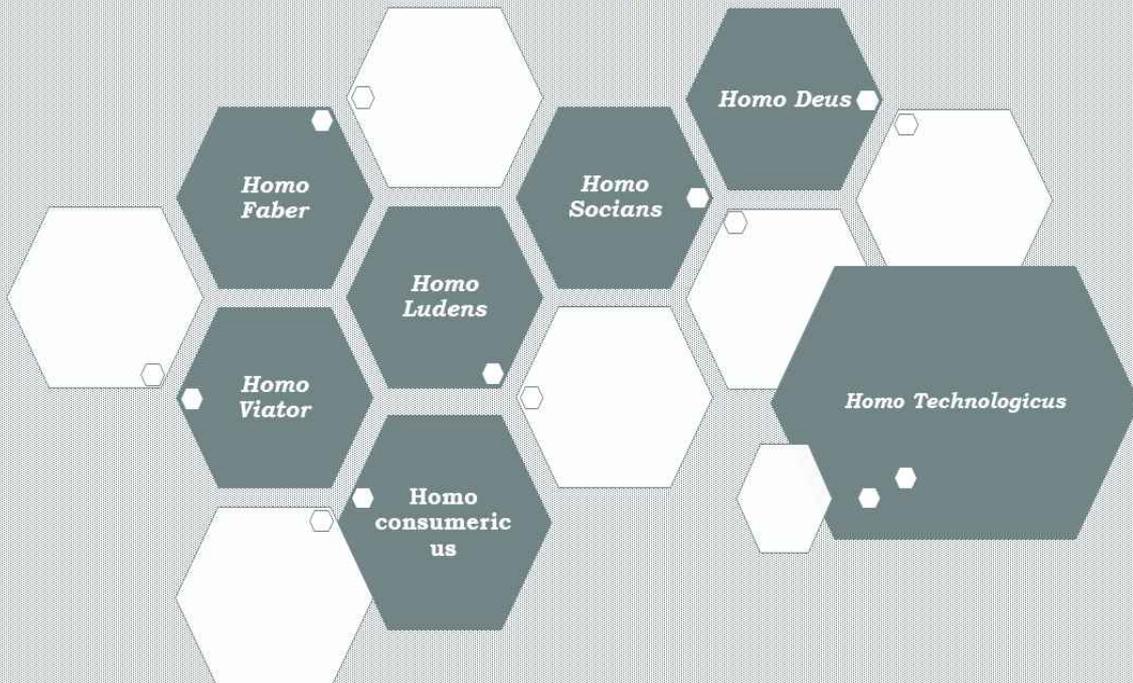
## Bimillenary Identity

*Homo Viator*  
*Homo Ludens*  
*Homo Sapiens*  
*Homo Faber*  
*Homo Socians*  
*Homo De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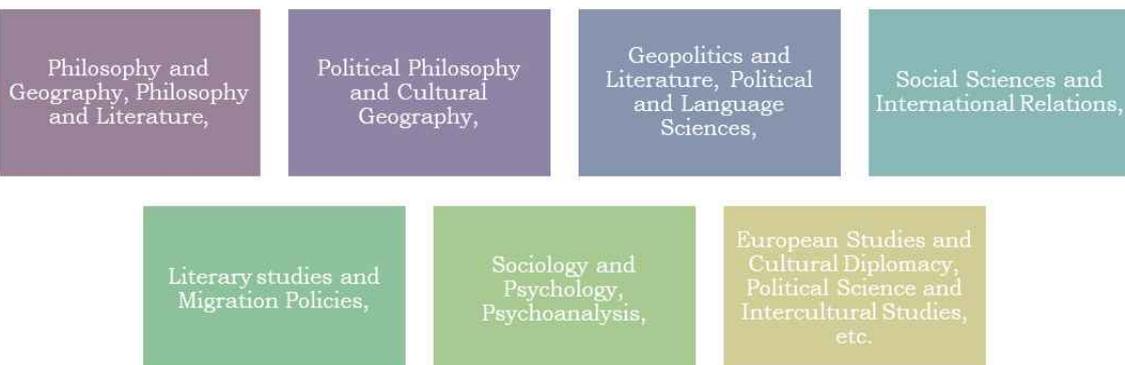
PICTURE OF 20<sup>TH</sup> CENTURY IDENTITY// 21 st c. ?



## Multimilenary Identity



## d) Interdisciplinary Connections



##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Interdisciplinary Itinerary on Identity

traditional	transitional	renewed
Les classiques	Les analytiques	Les contemporains
Perspective <b>normative</b> = <b>National Identity</b> relation unidimensionnelle/ monologique: I= sa langue, l'identité et sa culture	Perspective <b>contextualist</b> = <b>Cultural Identity</b> relation dialogique <i>langue-culture</i> relation paradigmatique internaliste langue-identité et culture- conscience géoculturelle	Perspective <b>adaptative</b> = <b>Transcultural Identity</b> relation dialogique <i>langue-culture</i> la relation paradigmatique externaliste sur la construction de l'identité via <i>idem</i> et <i>ipse</i> , le <i>même</i> et le <i>différent</i>

**Langue – culture – civilisation – identit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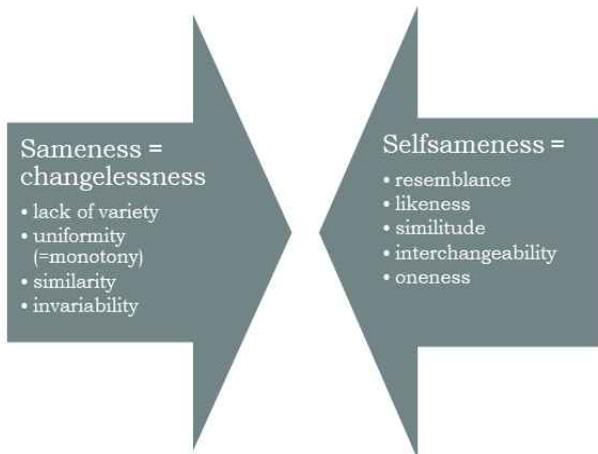
Morin, Lévi-Strauss, Todorov, Ricoeur.

Lévi-Strauss, Todorov, Morin, Ricoeur, Barth, Ferret, Gérard Lenclud, Carole Ferret, Alain Touraine



## 2. A glance on a perception/interpretation of Identity versus Authenticity

###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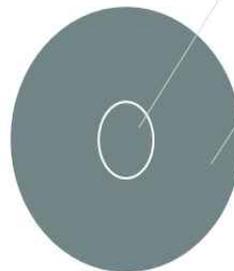
### Authenticity

**Authenticity = true Self**

- No social mask
- No social conventions
- No social norms imposed
- =>

**Individuality = Unicity**

- The unique inside Self
- => Originality





## 3. Reflections in the 20<sup>th</sup> and 21<sup>st</sup> cc.

A literary perspective on Identity between complexity and intercultu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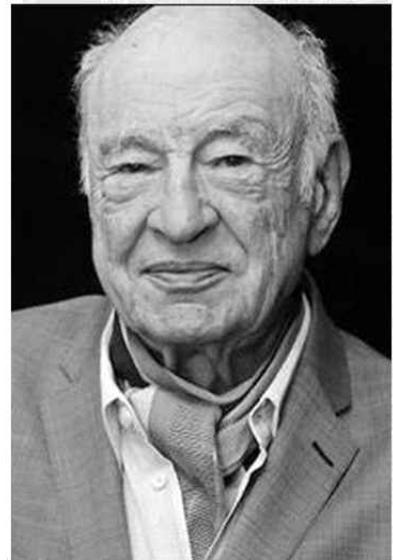


Human Identity = Cultural Identity

Humans = Lg

▪ **Paradigm of complexity of the human being - profile of diverse individuals who fit into the mosaic representation of humanity as Human Identity ("identité humaine").**

*« L'homme s'est fait dans le langage qui a fait l'homme. Le langage est en nous et nous sommes dans le langage. Nous sommes ouverts par le langage, enfermés dans le langage, ouverts sur autrui par le langage (erreur, mensonge), ouverts sur les idées par le langage, fermés sur les idées par le lang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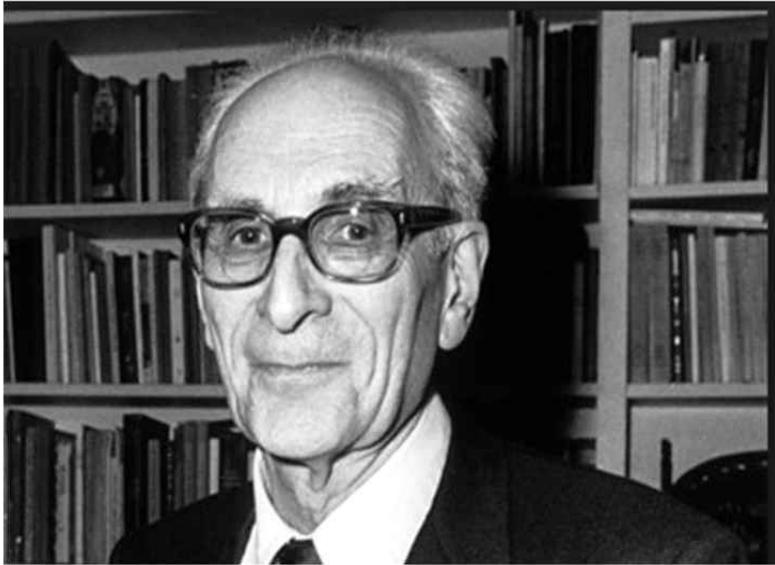
**Edgar Morin**

/ 1921 (age 100)

Morin, Edgar. *La méthode, numéro 5 : L'identité humaine*, 2001, p.31. The 6 volume Method is perhaps Morin's culminating work



## Symbolic (aspects of)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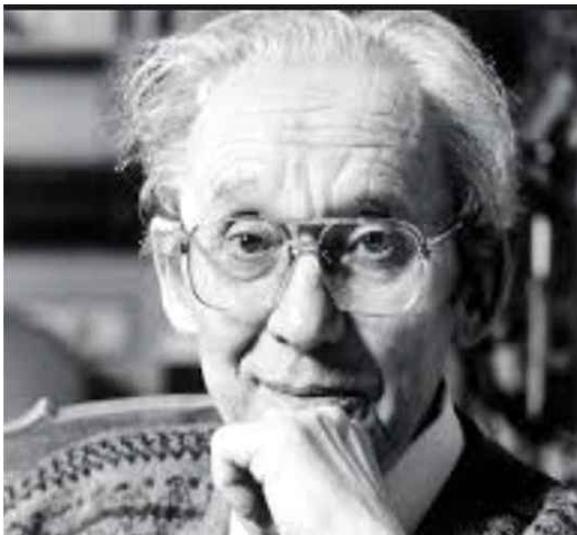


**Claude Lévi-Strauss**  
(1908-2009)

- The French anthropologist and ethnologist defines and emphasizes the social-structural and symbolic aspects of identity;
- his works have been published especially since the fifth decade of the twentieth century.



## "Moving Entity"



**Paul Ricœur**  
(1913-2005)

- French philosopher and hermeneutist Jean Paul Gustave Ricœur examines the limits of identity as a "moving entity" (which does not change despite the changes) and distinguishes between "identity-sameness" (*idem*) and "identity-ipseity" (*ipséité*).
- The hermeneutist introduces the new concepts, identity as *mémeté* and as *ipséité* attributing them to the narrative identity as the Other that is the Self (with the permanent reference to the Other).



## Other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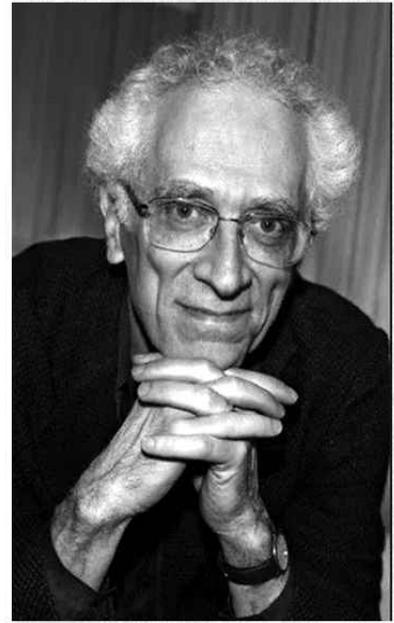
**otherness-migration-alteration**

**otherness-exotism-tolerance**

**equity-race/gender- justice**

- Literary critic, historian of ideas, essayist, and semiologist, Tzvetan Todorov (1939-2017).
- new visions on different dimensions of identity treating the philosophical, linguistic, intercultural, and inter-civilizational aspects of the issue.
- tackling identity in the equation of the old or emergent concept and notions.

**the Other-the “savage”-the barbarian**



**Tzvetan Todorov  
(1939-2017)**



## The notable concepts of 20<sup>th</sup> and 21<sup>st</sup> c.

**I -& humanity**

**I & Western vs. Eastern Identity**

**I & ethnocentrism**  
**I & the Other**

**Identities vs. social & cultural movements, the frontiers of I, the end of societies**

**the narrative identity & Other=Self**

**Gender I & difference**

**I & Time**

**'fragmented identity'**

**plural identity/ identities**

**I & history/moder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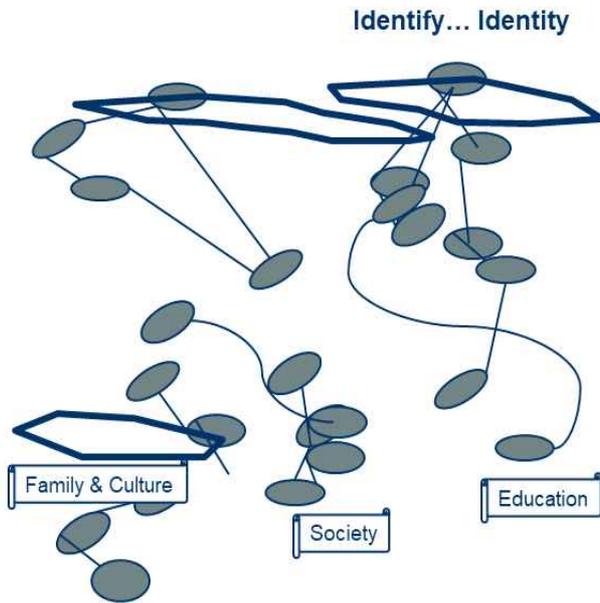
**social phenomena & I**

**I & consciou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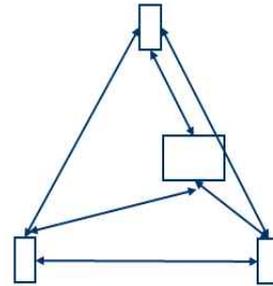
« Avoir une autre langue, c'est posséder une deuxième âme », Charlemagne



I = four foundations



Analyse ... Authenticity



**"material physical existence,  
biological species,  
cultural or community belonging,  
& individual person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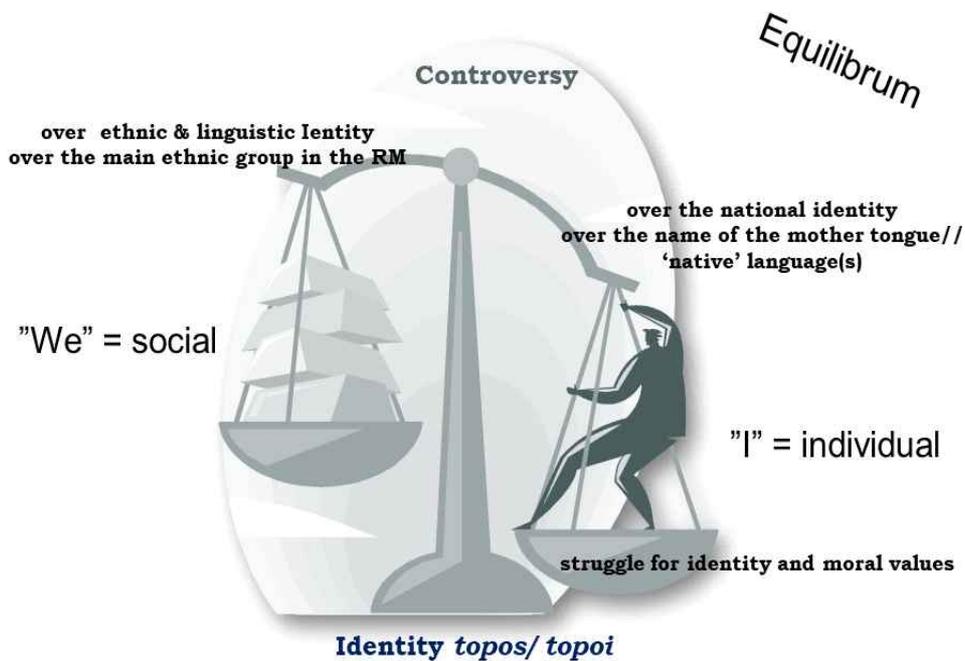
Weber, Max. The Concise Encyclopedia of Economics. Library of Economics and Liberty (2nd ed.). Liberty Fund. 2008, p.133

Max Weber's path-breaking theory on collective Identity and the construction of collective identity

20



*A glance on a dual perception of Identity and Authenticity*



## An Interface of IDENTITY AND AUTHENTICITY between complexity and inter/culturality



## Bibliography

1. Barker, Colin. "Consumerism: I shop, therefore I am?": Socialist Worker Online, Issue 1831 [www.socialistworker.co.uk/art.php?id=4132](http://www.socialistworker.co.uk/art.php?id=4132) [accessed May 24, 2018]. 2002.
2. Ehalaf Martin. *Signs of Identity, The Anatomy of Belonging*. Taylor & Francis, 1 aug. 2017, 170 pag. // DOI 10.4324/9781315271439 // ISBN 9781138280946: Available from URL: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9954440\\_Signs\\_of\\_Identity\\_The\\_Anatomy\\_of\\_Belonging](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9954440_Signs_of_Identity_The_Anatomy_of_Belonging) [accessed Jun 24, 2018]. Publisher: Routledge, September 2017, page 2.
3. *English Oxford Living Dictionary*. © 2018 Oxford University Press. [On-line: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identity>].
4. Morin, Edgar. *La Méthode, numéro 5 : L'Identité humaine*. Broché, 7 novembre 2001.
5. Micheletti, Michele. "Political virtue and Shopping. Individuals, consumerism and collective action": Palgrave Macmillan, 2003, p.3.
6. Taiye Selasi. "Don't ask me where I am from, ask where I am a local." Discourse Ted Talks. [On-line: [https://www.ted.com/talks/taiye\\_selasi\\_don\\_t\\_ask\\_where\\_i\\_m\\_from\\_ask\\_w\\_here\\_i\\_m\\_a\\_local/](https://www.ted.com/talks/taiye_selasi_don_t_ask_where_i_m_from_ask_w_here_i_m_a_local/)] / Ted global talks on-line.
7. Weber, Max. *The Concise Encyclopedia of Economics*. Library of Economics and Liberty (2nd ed.). Li. berty Fund. 2008, p.133.

##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 가지 방법: 서울을 중심으로

강병용(University of Ljubljana, Slovenia)

### 1. 서울에 관한 의문들

16년 전, 외국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서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1)

답변은 비교적 다양했다.남산, 한강, 남대문, 광화문, 동대문, 지하철….

같은 시기에 이런 질문도 해보았다.

-서울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요?2)

서울에 관한 긍정적인 단어로는 역동성(dynamic), 편리성(convenience),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등이 있었다. 부정적인 단어는 교통 체증 (traffic congestion), 공해 (pollution), 빈부 차이(the gulf between rich and poor)그리고 범죄(crime)였다. 16년 전 서울은 역동적이면서 편리했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했지만, 교통 체증과 공해가 심했으며, 빈부의 격차를 쉽게 체감할 수 있었으며, 범죄가 만연했던 도시였다.

서울에 관한 첫 번째 의문은 “(그랬던) 서울이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이다.

남산, 한강, 남대문, 광화문 등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에도 쉽게 부정하기 힘들다. 역동성은 자랑하는 서울은 여전히 역동적이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서울이기도 하다.

서울에 관한 두 번째 의문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편리하며,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교통 체증이 심하고, 공기가 좋지 않고, 빈부의 차도 심한 서울이 다른 대도시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2016년 서울은 공식적으로 정체성을 표출한 바가 있다. 한동안 논란의 도마 위에 있었던 'I SEOUL U (아이서울유)'라는 브랜드가 바로 그것이다.시민 공모로 선정된 이 브랜드 로고는 '나와 너의 서울'이라는 기본 의미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나와 너 사이에 서울이 있다' 즉, 서울을 사람들과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즉, 이 브랜드의 의도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그냥 '머무는' 곳이 아닌, '함께 사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에 따라 서울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른바, 열린 개념의 브랜드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이상과는 달리 이 브랜드는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다. 발표 초기부터 시민 및 누리꾼들에게 지속적으

1) 2005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마케팅연구센터는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대해 물어봤고, 첫 번째 질문인 서울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남산, 63빌딩, 한강, 남대문, 광화문, 경복궁, 시청, 청와대, 동대문, 지하철 순으로 나타났다.

2) 동 연구원에서는 서울에 관한 긍정어, 부정어도 조사하였다.

로 패러디를 통해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고, 브랜드 담당 국장은 2개월 넘게 공석, 심지어 서울시 브랜드를 ‘아이서울유’로 바꾸는 내용의 상징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고전을 했다. 그리고 해당 브랜드를 런칭했던 시장의 사망과 함께 해당 슬로건은 서울시 내부 공문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만다.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서울의 이미지는 외국인이 보고 있는 그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서울과 앞 그리고 뒤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서울의 앞: 우리가 아는 크고 길고 오래된 서울

### 2.1. 큰 서울

서울은 크다.<sup>3)</sup>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만큼, 특히 유럽 사람들에게 서울은 정말 크다. 인구 수로 볼 때, 서울의 규모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인 런던의 두 배 정도이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베를린이 런던의 반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럽인들에게 서울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도시이다. 유럽의 웬만한 나라보다 서울의 인구 수가 훨씬 많다.<sup>4)</sup>

서울은 인구가 많은 아시아에서도 초거대 도시에 속한다. 극단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중국의 몇몇 도시를 제외하면 서울보다 큰 도시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심지어 도쿄보다도 서울이 크다. 그런 까닭에 큰 서울이 내세우는 것들도 ‘큰’ 것들이다. 큰 광장, 넓고 차가 많은 대로, 크고 높은 건물들. 실제로 서울에는 세계적 규모를 갖춘 것들도 적지 않다. 아시아 최대 지하 쇼핑몰 코엑스몰<sup>5)</sup>, 세계 최대 규모의 한약재 시장 경동약령 시장<sup>6)</sup>, 세계 최대 스크린 상영관<sup>7)</sup>도 서울에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sup>8)</sup>도 서울에 있다. 제2 롯데월드<sup>9)</sup>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된다.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광화문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등이 서울을 대표 큰 길이며,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 역시 도시가 품고 있는 강의 규모로는 손에 꼽힐 만하다.<sup>10)</sup> 바로 이 거대함에서 이른바 ‘역동성’이 발현된다.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

### 2.2. 긴 서울

서울은 길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이 서울 하면, 떠올렸던 ‘지하철’이 그것을 대표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은 자

3) 서울의 면적은 약 605 제곱킬로미터이다. 유럽 주요 도시의 면적은 런던 1,570 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두 배, 파리는 105 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작고, 베를린의 면적은 900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되지 않으니 서울보다 큰 편이다. 결국 서울은 인구 과밀이 심한 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같다. 도쿄 면적은 2,000 제곱킬로미터가 넘고, 베이징은 16,000 제곱킬로미터가 넘는다.)

4) www.citymayors.com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세계 8위)는 1천백만 명이 넘고, 모스크바(10위)는 1천만 명, 도쿄(15위)가 8백만 명, 런던(23위)이 7백5십만 명, 베를린(68위)은 3백4십만 명이다.

5) 2014년 개장한 코엑스몰의 규모는 올림픽 주경기장의 14배가 넘으며, 점포 수도 260여 개에 달한다.

6) 이곳에는 1천여 업소와 더불어 한의원과 약국만 각각 300개 이상 영업을 하고 있다.

7) CGV영등포 스타리움에 설치된 스크린이 2009년 기네스북 등재 세계 최대 스크린이었다. 2015년에는 롯데시네마의 슈퍼플렉스G가 가로 34미터, 세로 13.8미터로 기네스북 인증 세계 최대 스크린으로 선정되었다.

8) 2016년 개장한 HCD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만든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형 면세점이다.

9) 제2 롯데월드는 높이 555 미터로 국내 최고층 건물이다.

10) 템즈강의 폭은 한강의 절반 정도이고, 세느강의 폭은 한강의 3분의 1이다.

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길이만도 300Km가 넘고, 정차역은 500개가 넘고, 연간 수송인원은 무려 30억이 넘는다.<sup>11)</sup> 규모 면에서뿐만 아니라, 시설 면에서도 훌륭하다. 미국의 한 대중교통 관련 기관은 서울 지하철을 세계 최고로 뽑은 일이 놀랍지 않을 정도이다.<sup>12)</sup> 실제로 유럽에 지하철에서 구경하기 힘든 (역사는 물론이고, 객차 내) 지하철 도서관, 객차 내 각종 문화 이벤트는 차별화를 넘어 서울 지하철의 고유한 특색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잘 연계된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등도 ‘긴’ 서울의 자랑거리이다.

서울은 ‘긴’ 하루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길게’ 누릴 수 있다. 밤이 되지 않는 도시, 바로 서울이다. 상당수의 점포가 ‘긴’ 시간 영업을 한다. 24시간 편의점은 물론이고, 카페, 주점, 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다른 도시보다 더 ‘길게’ 영업한다. 이러한 교통 편의와 밤 (영업) 문화 때문에 서울은 열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다. 실제로 서울은 세계 10대 (대)학생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sup>13)</sup> 젊은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의 ‘긴’ 밤을 즐긴다. 대중교통의 편리성, 소비자 중심의 편리성이 없었다면, 결코 서울의 ‘긴’ 밤은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 2.3. 오래된 서울

또, 서울을 오래되었다. 언제부터 서울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으나, 거주 시작을 기원전 8천 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sup>14)</sup>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서울에 제대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시점은 기원전 18년이다. 당시 위례성이 이미 백제의 수도였으니 의심할 나위 없이 오래전부터 서울은 꽤 큰 규모의 도시였다.<sup>15)</sup> 조선이 건국되면서 서울은 진짜 (‘수도’라는 의미로) 서울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서울은 쪽 서울이었다. 그러니 서울은 길게는 6천 년의 역사를, 짧게는 6백 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도시이다.

덕분에 서울은 다양한 시대를 품은 볼거리가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트립어드바이저’에 따르면, 서울의 볼거리 상위 10개 중 5개가 고궁, 박물관 등 오래된 서울과 연관된 것들이다.<sup>16)</sup> 결국, 오래된 서울은 역사라는 문화 콘텐츠와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서울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견지에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양한 세대가 살면서 만들어낸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

크고 길고 오래된 서울에서 우리는 이 도시의 특성인 역동성, 편리성, 문화적 다양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서울의 특성은 예전에도 존재했으며, 현재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쉽게 드러나며, 오래전부터 외국인의 눈에도 잘 보였던 서울의 앞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서울의 모습이면서, 가장 서울적이지 않은, 그저 어느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앞모습일지도 모르겠다.

11)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 대중교통 분담률의 34.7%를 차지하며, 하루 평균 수송인원 400만 명이다.

12) www.Jalopnik.com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은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뒤로는 도쿄, 파리, 홍콩, 런던, 뉴욕, 모스크바, 몬트리올, 평양, 바르셀로나 지하철 순이다.

13)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2016년 최고의 학생 도시 10위 들었다. (The 10 best cities in the world to be a student in 2016) 9위 베를린, 8위 홍콩, 7위 몬트리올, 6위 싱가포르, 5위 런던, 4위 시드니, 3위 도쿄, 2위 멜버른, 1위 파리이다.

14) 서울특별시가 제공한 서울의 역사에 따르면, 한강 유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로 강남구 삼성동 50번지 일대에서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 등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15) 기원전 18년 백제의 온조왕이 한강 유역으로 남하해 위례성을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세웠고, 그 당시 위례성을 한성이라고 불렀다. 현재 송파구, 강동구 일대이다.

16) 해당 사이트가 제공한 관광 명소 상위 10개는 다음과 같다. 1위 한국 전쟁 기념관, 2위 경복궁, 3위 북한산 국립공원, 4위 창덕궁, 5위 시티 투어, 6위 한강 공원, 7위 국립중앙박물관, 8위 명동 쇼핑 거리, 9위 N 서울 타워, 10위 인사동이다.

그렇다면, 크고, 길고, 오래된 서울 말고 또 어떤 서울이 있을까?

### 3. 서울의 뒤: 그들이 본 욕망의 서울, 서울의 욕망

#### 3.1. 홍상수의 서울

홍상수의 영화를 몇 차례 본 관객이라면 그의 영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다. 유사한 장소들이 반복적으로 배경이 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술집, 골목, 여관 그리고 고적이 바로 그것들이다.

등장인물의 직업도 대학교수, 작가, 영화감독, 대학원생 등으로 매 작품 유사한 편인데, 이른바 지식인 그룹이다.<sup>17)</sup> 이러한 인물들이 홍상수의 영화 속에서 술집, 골목, 여관, 고적 등 장소를 반복적으로 유사한 동선으로 움직인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잘난 척 떠든다. 그리고 취중에 ‘골목’으로 나온다. 주로 그중 남녀 둘이 골목에서 좀 헤매다가 ‘여관’을 찾아간다. (혹은 여관과 비슷한 빈 방) 술이 깨면, ‘고적’에서 만나 진지한 척 이야기를 다시 나눈다. 하지만 그들이 머물거나 지나치는 술집, 골목, 여관, 고적은 앞서 언급한 크고, 길고, 오래된 서울과는 좀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술집은 드러나는 맛이 아닌, 진짜 마실 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해 보이고, 골목은 변화한 느낌이 전혀 없이, 넓기는커녕 좁고 답답하고 어둡기만 하며, 여관은 휴식이 아닌, 단지 ‘섹스’라는 이름의 욕망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처럼 여겨진다. 술에서 깨고, 욕정에서 깨어나 제정신으로 찾아간 고적에는 사람들이 없고, 대신 주인공인 지식인들의 의미 없는 말들만 부유한다.

〈오! 수정〉 〈북촌방향〉 등에서 보여진 홍상수 감독의 필름에 담긴 서울은 그렇다.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의 한구석 술집에 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기 위해 뒷골목으로 쏘다니다, 골목의 어느 구석에 잠시 머물러 ‘욕망’을 풀기 위해 섹스를 하고, 그 ‘욕망’을 적당히 해결한 뒤에는, 공개된 곳,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원래 ‘욕망’이 없었던 양 태연한 척 떠들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홍상수의 보여주는 서울이다.

서울은 ‘욕망’은 한없이 크지만, 속이 좁고, 답답한 사람들이 그 ‘욕망’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찾는 좁고, 답답한 점(spot)들도 그득한 곳이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주인공들처럼 ‘찌질한’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 ‘잘난’ 익명으로 살며 욕망을 감추면서도, 욕망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일지도 모르겠다.

홍상수가 본 서울은, 그가 보여주는 서울은 크고 밝은 것과는 거리가 먼, 좁고 어두운 ‘욕망’의 도시일 뿐이다.

#### 3.2. 김기덕의 서울

김기덕의 영화에서도 서울의 좁은 골목들, 모텔촌의 모습을 통해 ‘욕망’의 서울 혹은 서울의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sup>18)</sup>

김기덕의 〈피에타〉에서 적나라하게 서울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 〈피에타〉의 지리적 배경은 서울, 그것도 서울의 한복

17) 홍상수 영화의 소위 지식인 주인공들은 다음과 같은 직업을 가졌다. 시인(강변 호텔, 2019), 화가(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2016), 영화감독(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2015), 강사(자유의 언덕, 2014), 교수, 영화감독(우리 선희, 2013), 대학강사(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2012), 영화 감독(다른 나라에서, 2011), 영화 감독, 교수(북촌방향, 2011).

18) 〈빈 집〉(2004)에서는 두 주인공이 빈 집을 찾아 서울의 골목을 누비며, 〈사마리아〉(2004)에서는 10대 소녀들이(서울이라고 특정할 순 없지만) 도시의 모텔촌에서 겪는 일을 다룬다.

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계천이다. 지금처럼 인공적으로 물이 흐르기 전 청계천, 즉 아무것도 흐르지 않고 땅속에 묻혀있던 청계천의 위가 영화의 배경이다. 그 청계천 위에서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피에타>다.

영화 속에서 대부업자에게 거액을 빌리고, 갚지 못한 중년은 돈을 받으러 온 업자에게 하늘에서 청계천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천(川)’이지만 물이 흐르지 않고, 작고 볼품없는 소규모 공장들만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sup>19)</sup> 그것이 하늘에서 본 청계천이다. 작은 공장들 너머에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다. 하늘에서 청계천을 보면, 가난과 번영이 동시에 보인다. 중년은 청계천 공장에서 5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다. 그리고 곧 없어질 청계천에 대한, 곧 개발될 청계천에게 한숨을 내뿜고, 하늘에 더 근접한 옥상으로 올라가 목숨을 끊는다. 청계천 부지가 개발되면 가난은 표면적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가 남긴 마지막 한 마디처럼 곧 청계천도 개발이 되어서 빌딩들이 들어설 것이다. 그렇게 번영의 상징인 ‘빌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마치 예전의 흐르던 물 위로 콘크리트를 부어 공장을 세웠던 것처럼 표면적인 발전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아래로, 그 뒤로 발전의 그림자, 자본화의 어둠, 산업화의 모순이 그대로 남아 있다. 드러나지 않아 잘 보이지만 앓을 뿐이다. 여전히 돈을 갚지 못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김기덕이 보여주는 서울이다. 빌딩 아래 혹은 빌딩 뒤에서 목숨까지 잃어가며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 도시가 바로 김기덕의 서울이다. 그저 돈이라는 ‘욕망’으로 밤낮없이 돌아가는 곳이 바로 김기덕이 보여준 서울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청계천 그 밑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슬픈 눈물의 천이 흐르고 있다. 자본이라는 욕망 때문에 고통받았던 자들의 슬픔으로 가득한 천이다. .

김기덕의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서울 아래에 숨겨진 어두운 ‘욕망’을 볼 수 있다. 성과 자본이라는 이름의 욕망. 그것을 꾸준히 감추려는 몸부림, 그리고 감춰왔던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3.3. 봉준호의 서울

한강을 가장 잘 보여준 영화를 꼽으라면, 봉준호의 <괴물>이 빠질 수 없다.

영화 초반,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 그리고 비 오는 한강에 투신하는 시민. 그리고 그 시민이 빠진 한강에 괴물이 등장한다. 한강은 누군가에게는 ‘낚시’의 여유를 안겨주는 곳이지만<sup>20)</sup>, 누군가에게는 생을 접는 자살의 장소이다.

별이 좋은 어느 날, 한강변에서 서울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가로이 음악을 듣거나, 가족 단위로 나와 나들이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한강에서 태어난(?) 괴물이 그 모든 것을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다. 한없이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 여유로움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곳이 어찌면 한강일지도 모른다.

괴물의 한강 점령으로 강 주변은 이른바 통제구역이 되고, 그 와중에 욕망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이른바, 공무원들의 비리. 한강을 통제하는 공무원들이 그곳을 출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뜯는다. 돈의 욕망 앞에서 모든 것이 ‘두 번째’가 되어버리는 변질된 자본주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영화 속의 어린 노숙자들도 한강의 이변이다. 아름다웠던 낮의 한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린 노숙자들이 괴물이 지배한 어두운 한강에 등장한다. 그들의 등장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 슬프기까지 하다. 어린 노숙자들은 배가 고프다는 이유만

19) 청계천은 종로구와 중구를 흐르는 3킬로미터 남짓한 하천이다. 원래 이름은 ‘개천’이었으나, 조선 제3대 왕 태종 때, 주변 지역이 침수가 잦아 처음으로 개거 공사를 통해 치수 사업을 했으며, 영조 때는 천을 직선화하기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 초에 청계천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대대적인 준설 공사도 행해졌다. 1958년부터 1960년간 복개하여 간선도로와 고가도로를 만들었으며, 2003년 7월부터 청계천 복원 공사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20) 현재 한강은 전체가 낚시 가능하지만, 생태계 보호와 지형상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25곳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으로 어둠의 한강에 나타나 한강변 컨테이너 상가를 떼낸다.

누군가에게는 여유로움을 주는 한강이, 누군가에게는 투신을 하는 곳이며<sup>21)</sup>, 뒷돈을 쥐야 다닐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고, 살기 위해 절도를 해야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는 ‘괴물’의 등장으로 변한 한강이지만, ‘괴물’이 없는 서울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매년 400명이 투신자살을 하고, 공무원 비리가 판을 치고, 노숙자가 4,000명이나 되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sup>22)</sup> 그리고 이러한 서울의 어둠은 서울 시민의 잘못이기 이전에, 어떤 이들의 과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영화 속 ‘괴물’의 등장이 서울 시민의 잘못이 아닌, 외부인들의 욕망에서 기인한 것과 같이.

서울의 그늘 뒤에는 바로 누군가의 ‘욕망’이 웅크리고 있다. 마치 괴물이 한강 다리 밑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처럼.

### 3.4. 박찬욱의 서울

박찬욱의 서울은 달콤쌉사래(Bitter, Sweet)하다. ‘Bitter, Sweet, Seoul’은 박찬욱, 박찬경 감독의 공동 연출한 서울에 관한 영화 <고진감래>의 영어 제목이다.

박찬욱, 박찬경 감독은 2013년 8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98일간 2821명이 만든 11,852개의 서울에 관한 비디오 클립 중 154개를 뽑아 그것을 가지고 편집하고, 음악을 넣어서 이 작품을 완성했다. 서울의 ‘날(live)’ 모습, ‘다양한 얼굴(deferent faces)’을 가지고 두 감독이 생각한 서울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박찬욱 감독은 영화 제작 후 News1과의 인터뷰에서 “아름다움만 담긴 홍보 영상은 거짓말이다. 그것을 사실로 믿을 사람은 없다”라며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밝은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슬픈 한강과 서울 사람들의 꿈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대로가 아닌, 골목을 통해 서울로 들어간다. 그 골목들에서 서울의 대표하는 도로가 될 순 없지만, 그 골목들을 통해 서울의 대다수는 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을 만난다. 청년들, 노인들, 외국인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무명 예술가들. 그들을 만나고 난 뒤, 다시 한강을 돌아온다. 그 여정에 긍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름다움 역시 찾기 어렵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강은 변함이 없고, 흐르던 음악이 계속 흐른다. 서울의 한강에서 시작한 이 영화는 다시 한강으로 돌아가 마무리된다. 그렇게 영화는 한강 위에서 저승사자 복장을 한 국악단이 구슬픈 연주에 맞춰 한강변의 서울을 보여주면서 끝난다.그들(저승사자)은 한강을 따라 어디론가 떠나가지만, 배경으로 서 있는 강변의 젓빛 아파트는 변함없이 강건하다.

박찬욱 감독은 서울은 달콤하고도 쌉사래하다고 했지만, 영화는 조금 달고 많이 쓰다. 그 달콤함은 당의정의 껍질처럼 아주 얇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소소한 자들의 달콤한 욕망은 금세 흘러가 버리고, 거대한 자들의 쓴 욕망만이 강건하게 남아 있는 곳이 서울일지도 모른다. 박찬욱의 서울은 그렇게 아름다움도 없이, 조금 달고, 많이 쓰다.

## 4. 서울에 관한 (나름의) 대답

크고 길고 오래된 서울은 대단하다. 서울은 앞은 대단하다. 하지만 그 대단함은 이제 그만 내세워도 될 것 같다. 대단

21)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396명이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이다. OECD 건강 통계 2015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 자살하여 회원국 중 최고이며, 헝가리(19.4명), 일본(18.7명), 슬로베니아(18.6명), 벨기에(17.4명) 순이다.

22) 2014년 1월, 서울시가 실시한 노숙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4,623명이다. 그중 거리 노숙인은 536명, 시설 노숙인은 4,087명이다.

한 것들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함께 하고 싶은, 공존하고 싶은,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진솔해지는 것이다. 서울이 서울 스스로에게 진솔해지고, 서울을 소개하는 ‘우리’들이 진솔해질 필요가 있다. 이제 서울을 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다. 서울이 늘 품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떠들어도 될 것 같다.

박찬욱, 박찬경 감독의 <고진감래>에 한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질문자가 서울에 사는 외국인에게 묻는다.

-What is the Greatest Thing about Seoul? (서울에서 가장 대단한 것이 뭐죠?)

그리고 외국인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The greatest? Umm.(대단한 거요? 음?)

그렇다. 서울에 아직 ‘진짜’ 대단한 것은 아직 없다. 그 진짜 대단한 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앞과 더불어 뒤도 돌아 봐야 한다. 우리의 ‘욕망’에 더욱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비단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광고’라고 하고,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교육이라고 한다. 서울을 다시 보는 기회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을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Fin.

## 〈토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 가지 방법: 서울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유승금(한림대학교)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 가지 방법: 서울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신 강병용 교수님의 토론을 맡은 한림대학교의 유승금입니다.

우선 다양한 관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신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 내용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던 내용과는 다른 관점에서 서울을 제시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 논문을 읽으면서 드는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드리는 것으로 본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혹, 제가 드리는 질문이 선생님의 집필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경우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서울의 뒤: 그들이 본 욕망의 서울, 서울의 욕망’에 대하여

선생님의 발표 자료 중 서울의 앞에 대한 2장의 내용은 크고, 길고, 오래된 서울에 관한 내용이고 3장은 2장에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서울의 대한 내용이 아닌 ‘서울의 뒷모습’ 즉 욕망을 나타내는 서울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제 질문은 3장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질문은 자료로 제시한 홍상수, 김기덕, 봉준호,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선정하는 이유입니다. 문화교육의 내용이 교육의 목적, 학습자가 있는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할 때 해당 감독들, 영화가 유럽 학생들과 문화적인 코드가 잘 맞아서인지 또한 학생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선정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시한 감독들의 영화 중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나 봉준호 감독의 ‘괴물’ 등 몇몇의 작품은 작품의 배경이 꼭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이든, 경주이든, 춘천이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즉, 해당 영화가 서울의 대표성이나 특징을 전달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에타의 경우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속죄’의 개념이, 괴물의 경우는 한강의 어두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약품의 무단 방류로 인해 생긴 문제로 더욱 끈끈해지는 가족애가 주제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서울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영화를 활용한 교육의 목표가 내용 이해이기에 선생님이 제안하신 영화를 통한 서울의 어두운 이미지에 대한 교육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계층의 문제, 실제 한강의 오염과 관련한 뉴스, 다큐멘터리 등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화는 감독의 창작성이 반영된, 의도된 이미지로 전달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선생님께서 서술하신 내용과 다르게 저는 영화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이미지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2. 교육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자료로 다양한 매체자료는 아주 좋은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제안

하신 교육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우선 말씀하신 자료로 교육을 할 때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더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 자료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교육 자료로 사용할 때 가치관이 왜곡될 수 있는 영화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화는 부적절한 경우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드러난 서울의 이미지를 본다고 하여도 해당 감독의 영화 자체가 가지는 큰 맥락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감독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 또한 외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과 4

한국어 번역 연구

사회 : 고경태(고려대학교)

## 중국어 결과보어 한국어 번역양상 연구:

위화의 소설 『인생』을 중심으로

Song Lijuan(한국외국어대학교)

### 1. 연구의 필요성

중국어는 복잡한 보어체계를 가지며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보어는 바로 결과보어다. 중국어에서는 변화를 통해 발생한 구체적인 결과를 서술할 때 반드시 술어 뒤에 결과보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없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한 번역 시 원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본 연구는 의미지향학적 관점으로 술어와 결과보어의 구조에 대해 중한 번역시 번역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한국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작가 위화(余华)의 작품〈活着〉와 한국어 번역본<sup>1)</sup> 『인생』에서 나타난 중한 100개 병렬말뭉치를 모두 139개의 결과보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 1.1 중국어 결과보어와 한국어 보어 및 보조용언

한국어 문법체계에는 중국어의 결과보어 개념과 유사한 한국어 보조용언도 있다. 보조용언 의미적 특성에 있어서 보조동사는 크게 ‘동작’과 ‘양태’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동작의미는 크게 ‘완료/종결’, ‘진행’, ‘반복’, ‘사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중국어 결과보어는 술어가 완료된 결과의미를 보여주는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완료/종결’ 의미를 가진 보조용언인 ‘-어/아 버리다, -고 말다, -어/아내다’ 등과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어 결과보어와 한국어 보조용언 체계는 개념 및 의미 문법화와 관련된 내용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각각 구성성분의 특징, 선행 용언, 의미지향 등의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한 번역 시 완전히 대응시킬 수 없다.

#### 1.2 중국어 결과보어의 의미지향

Larson(1998:219-223)에서는 의미역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언급했다. 의미역이란 문장성분이 서술어와 관련되어 갖는 내재적인 관계를 말한다. 의미역에 대한 연구는 중국어에선 술어와 기타성분의 관계에 확장시켜 다른 문장성분과 이와 관련된 내재적인 관계까지 다루었다. 陆俭明(1997)에서는 의미지향이란 문장 안의 한 성분이 의미상 문장의 어느 성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한 본 연구방법에 있어서 결과보어 의미지향의 문법화 정도는 문법화하지 않은 것, 결과보어가 문법화된 것으로 나눈다. 결과보어 의미지향방향은 문장 안의 결과보어를 기준으로 의미 관련 성분이 결

1) 번역자인 백원담은 성공회대 교수로 문학가인 동시에 중국문학 연구자이다. 따라서 중국소설의 번역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번역가라 할 수 있다. 번역가가 번역의 정확성과 문장의 전달력에 힘을 쏟아 번역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과보어 앞뒤에 위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즉,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방향은 결과보어의 전방의미지향과 후방의미지향으로 분류된다. 결과보어 의미지향범위는 한 문장 내부적의미지향과 외부적의미지향<sup>2)</sup>으로 분류된다. 마지막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대상은 술어주체과 술어객체, 술어자체 의미지향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를 통해 의미지향학적 관점을 번역에 적용함<sup>3)</sup>으로써 번역양상이 더 세부화되고 더 구체화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미지향 방향, 의미지향 대상을 정확히 알면 번역하는 학생이 원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고, 번역문이 효과적 등가를 이루는 것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2. 의미지향에 따른 번역양상

아래 내용은 결과보어의 의미문법화 정도,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방향, 의미지향 범위에 따른 번역양상이다.

### 2.1 문법화 정도에 따른 번역양상

아래 <표1>과 같이 결과보어의 의미 문법화 정도에 따른 통계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에서 의미가 문법화된 결과보어가 보편성을 갖는다.

<표1> 결과보어의 의미 문법화 정도에 따른 번역양상

결과보어 의미 문법화정도	문법화 하지 않은	문법화된 결과보어	결과보어의 총수
개수	35	104	139
비율	29.5%	74.8%	100%

먼저 소설 원문에 문법화하지 않은 결과보어의 번역양상을 제시한다. [예문1]에서는 ‘睁大’와 같은 표현이 있으므로 동사 睁 뒤의 결과보어 大는 본래의 뜻인 ‘크다’로 쓰인다. 번역문에서 결과보어 ‘大’는 ‘크게’라는 부사어의 형식으로 나타나 뒤에 ‘뜨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로 번역했다. 이렇듯 치환의 방법으로 등가를 이룬다.

[예문1]

ST: 这时风霞跑了过来, 她睁大眼睛对我说: “爹, 娘坐上轿子了。”

TT: 그때 핑샤가 뛰어와 눈을 크게 뜨고는 나에게 말했다네. “아빠, 엄마가 가마 타고 갔어요”

[예문2]는 문법화된 결과보어에 대한 번역양상이다. 결과보어인 ‘白’는 원래 ‘하얗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의미가 문법화되어 ‘까놓고 말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TT에서는 이를 생략했다. 하지만 문법화된 결과보어를 생략해서 번역하는 것이 원문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결과보어의 느낌은 독자에게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sup>4)</sup>.

2) 赵世举 (2001:41)에서는 의미지향범위를 문장 내부의 의미지향과 문장 외부의 의미지향으로 나눴다. 여기서 ‘외부적’ 개념은 한 문장성분이 의미지향하는 성분이 단문 외의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3) 민난식(2006)에서는 의미 단위는 가능한 상황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비교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번역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Tytler는 Principle of translation에서 번역 텍스트 스타일에 관련된 원칙을 언급했다. ‘That the style and manner of writing should be of the same character with that of the original.’ 이에 따라 원문의 분위기나 문체는 가능한 최대한 살려야 하며 번역문의 표현을 통해 원문의 언어미학 효과 등이 나타나야 한다.

[예문2]

ST: 后来我更喜欢赌博了, 嫖妓只是为了轻松一下, 就跟水喝多了要去方便一下一样, 说白了就是撒尿。

TT: 나중에는 도박을 더 좋아했고, 기생은 단지 한숨 돌리기 위한 것일 뿐이었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보러 가게 되는 것처럼.

## 2.2 결과보어의 지향범위

<표2>에 따르면 내부적의미지향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로는 결과보어와 의미지향 대상은 긴밀한 의미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둘이 동일한 문장 안에 분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2>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방향에 따른 번역양상

결과보어 의미지향 방향	내부적 의미지향	외부적 의미지향	결과보어의 총수
개수	130	9	139
비율	93.5%	6.5%	100%

외부적의미지향하는 [예문3]에서 결과보어 구조인 ‘清楚’가 앞의 문장에 나타난 주체인 ‘我’를 의미지향하고 주체인 ‘我’는 두 가지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我到处游荡’과 ‘我已经弄不清楚’다. 선행문장에서 술어주체 ‘我’가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에 동일한 주체가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생략되었다.

[예문3]

ST: 我到处游荡, 已经弄不清楚哪些村庄我曾经去过, 哪些我没去过。

TT: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지만, 어느 마을에 갔고 어느 마을에는 안 갔는지 잘 분간하지 못했다.

## 2.3 의미지향 방향에 따른 번역양상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방향은 전방의미지향과 후방의미지향으로 분류된다. 결과보어가 전방의미지향하는 것 중 술어의 주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가 술어객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드물게 결과보어가 전방 의미지향하면서 술어객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에 특수한 문장 유형인 ‘把’ 자문<sup>5)</sup>과 ‘被’ 자문이 바로 그 예이다. 왜냐하면 ‘把’ 자문과 ‘被’ 자문은 모두 목적어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목적어를 결과보어 앞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sup>6)</sup>. 아래 [예문4] 바로 ‘把’ 자문의 예시이다. [예문4]에서 결과보어인 ‘光’은 술어의 객체인 ‘家产’을 의미지향하며 ‘가산을 탕진했다’라는 뜻으로 나타난다. [예문4] ST에서는 ‘把’ 자문을 통해 동작의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객체가

5) 马婷婷 (2019) 动结式的补语都指向‘把’的宾语, ‘把’的宾语可以是述语动词的主体论元、客体论元, 也可以是外围论元. 补语的语义优先向前指向‘把’的宾语指示一个倾向性规律, 并不具备普遍性.

6) 吕叔湘 (1948; 182) 은 동사의 전후에 특정 부가성분, 예를 들어 동사 뒤에 보어 등 일부 특수한 목적어와 동사 앞의 수식어 등이 부가될 경우 목적어는 본래의 위치인 동사 뒤에서 ‘把’를 사용하여 동사 앞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王力 《中国语法理论》에서는 형식적으로 보면 ‘把’자문은 ‘把’자를 사용하여 목적어를 동사의 앞으로 전치시킨 것이며, 의미적으로 보면 그것의 주요한 작용은 일종의 목적이 있는 행위와 처리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술어와 결과보어 구조의 앞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결과보어가 앞으로 옮긴 객체를 전방의미지향하게 된다. TT에서 부사 ‘전부’를 추가함으로써 원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전달했다.

[예문4]

ST: 我才知道半年前就欠上他们了, 半年下来我把祖辈留下的家产全输光。

TT: 그제야 나는 비로소 반년 전에 그들한테 빚을 지기 시작해, 반년만에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가산을 전부 탕진했다는 걸 알았지.

결과보어가 후방의미지향하는 경우는 술어객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대부분의 술어는 타동사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3.2장에서 언급할 결과보어가 술어객체를 의미지향하는 번역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3. 의미지향대상에 따른 번역양상

아래 <표3>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결과보어 의미지향대상 가운데 술어자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는 술어객체 의미지향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대상에 따른 번역양상

결과보어의미 지향관계	술어와 결과보어의 지향이 같은 경우		술어와 결과보어의 지향이 다른 경우	
	술어주체 의미지향	술어객체 의미지향	술어자체 의미지향	기타 외부 의미지향
개수	13	78	39	9
비율	9.3%	56.1%	28.1%	6.5%
전체 비율	65.4%		34.6%	

#### 3.1 결과보어의 술어주체 의미지향 번역양상

아래 [예문5]술어 동사인 ‘笑’의 주체는 ‘脸’이다. 여기서 결과보어는 술어주체를 의미지향하기 때문에 주체인 ‘얼굴’이 ‘씩다’라는 결과와 관계를 맺는다. 즉, ST는 ‘那张脸笑’, ‘张脸烂了’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원문에서 ‘龙二’이라는 사람이 화자의 돈을 다 뺏어간 상황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생긴 룽얼에 대한 화자의 불쾌감은 부정적인 뜻을 가진 형용사 결과보어인 ‘烂’을 통해 알 수 있다. TT를 보면 ‘얼굴이 문드러진 것 같았다니까’로 번역했으나 접미사 ‘-지다’를 통해 룽얼의 얼굴이 썩어 힘없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는 TT처럼 술어와 결과보어의 연관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시 연결어미 ‘-다가-’와 접미사 ‘-지다’가 구성된 자동사로 번역하는 것이다.

[예문5]

ST: 龙二嘿嘿笑个不停, 那张脸都快笑烂了。

TT: 룽얼은 히히거리며 어찌나 웃던지... 웃다가 얼굴이 문드러질 것 같았다니까.

아래 [예문6]에서는 ‘-어지다’ 피동사와 보조용언을 사용함으로써 결과보어의 구조 ‘搨去’를 번역하는 예시다. [예문7] 동사 술어와 자동사 결과보어의 결합 ‘吊死’을 한국어 ‘-어/아서-’로 번역하는 예시다. TT에서는 중국어 술어와 결과보어 구조의 인과관계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한국어 연결어미 ‘-어/아서-’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번역했다. 다음은 동사 술어와 형용사 결과보어의 한국어 번역양상에서 부사와 자동사의 구조로 번역하는 양상이다. [예문8] TT에서는 ST의 결과보어 구조인 ‘输惨’은 부사와 동사의 구조인 ‘ 제대로 지다’로 번역했다.

[예문6]

ST: 没过多久, 成群的国军向房屋和光秃秃的树木搨去。

TT: 잠시 후, 무리를 이룬 국민당군이 집과 앙상한 나무가 있는 쪽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예문7]

ST: 我在那条路上走了几步, 走不动了, 看看四周都看不到人影, 我想拿根裤带吊死算了。

TT: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군. 허리띠로 꽂 목을 매 죽고 싶었다네.

[예문8]

ST: 脑袋嗡地一下, 这次输惨了。

TT: 그 순간 머릿속이 윙윙거리더군.  제대로 진 거지.

### 3.2 결과보어의 술어객체 의미지향 번역양상

소설에서는 주로 결과보어 ‘到’, ‘成’ 그리고 피동문이 출현할 때의 술어객체 의미지향의 번역양상을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술어 뒤에 결과보어 ‘到’<sup>8)</sup>와 이루어진 결과보어 구조의 번역양상이다. [예문9]은 타동사 술어인 ‘看’와 결과보어 ‘到’가 결합한 구조다. ‘到’는 술어동사로 이룬 결과인 객체를 보여준다. TT에서는 원문의 동사를 의미 대응하는 타동사와 과거시제 ‘~를 봤다네’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형태구조가 가진 결과보어 구조 ‘听到’, ‘吃到’ 등 한국어로 ‘타동사+과거시제’ 구조로 번역할 수 있다.

[예문9]

ST: 我是在拐弯处看到她, 她一扭一扭地走过来。

TT: 나는 길모퉁이에서 처음 그녀를 봤다네. 그녀는 몸을 좌우로 흔들며 걷고 있었는데.

다음[예문10]은 타동사 술어 ‘变’ 뒤에 결과보어인 ‘成’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한국어로 ‘-으로 변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과거시제를 통해 결과의 완료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으로’를 통해 술어주체가 객체로 변하는 대상도 도출한다.

7) 윤서희, 성운숙(2009)汪树香(2006)등 즉, 중국어 결과보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흔히 한국어의 부사어나 서술어등 기타성분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결과보어 ‘到’에 대해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듣다, 보다, 먹다...’ 등의 술어 동사와 결과보어 ‘到’의 결합 뒤에 술어객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결과보어 ‘到’가 보통 술어객체를 지향한다고 본다. 이는 동작이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행위대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看到, 听到, 吃到...’ 등의 결과보어 구조는 각각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먹었다.’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결과보어 ‘到’를 따로 분석하는 이유는 ‘到’ 뒤에 장소명사가 이어진 경우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문10]

ST: “到了我手里, 徐家的牛变成了羊, 羊又变成了鹅。传到你这里, 鹅变成了鸡, 现在是连鸡也没啦。”

TT: “내 손에서 쉬씨 집안의 소는 양으로 변했고, 양은 또 거위로 변했다. 네 대에 이르러서는 거위가 닭이 되었다가, 이제 닭도 없어졌구나”

중국어 결과보어 구문은 피동문일 때의 번역양상이다. 중국어 피동문에서는 항상 결과보어가 출현한다<sup>9)</sup>. 이는 周顺(2012)에 따르면 피동문이 전달하는 정보가 구정보인 것과 관련이 있고, 다시 말해 중국어에서 구정보를 나타내는 형식인 결과보어, 조사 ‘了’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예문11]는 피동문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양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번역문에서는 동사의 사동형으로 바뀌는 번역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어 피동구문과 한국어의 피동구문의 차이를 보여준다.

[예문11]

ST: 那妓女嘟嘟囔囔背着我去城门走, 说什么雷公不打睡觉人, 才睡下就被我叫醒, 说我心肠黑。

TT: 그녀는 투덜거리며 나를 업고 성문 쪽으로 갔지. 천둥도 자는 사람은 깨우지는 않는 법인데, 이제 막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걸 보면 내 심장이 시커멓 거라더군.

### 3.3 결과보어 술어자체 의미지향 번역양상

결과보어가 술어자체를 지향할 때 술어는 대부분은 동사이다. 동사 자체를 지향하는 것은 주로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 시간, 범위, 거리, 동작의 양 등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다<sup>10)</sup>. 이러한 결과보어는 주로 ‘近, 远, 多, 完, 上’ 등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번역양상은 아래와 같다. 먼저 동작을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데의 번역양상을 살펴하고자 한다. 앞에 언급한 것과 달리 여기 결과보어 ‘到’의 의미가 문법화되어 뒤에 장소, 거리, 범위 등에 관련된 명사성분이 나타나면 보통 동작이 이동하는 거리나 이동 범위의 결과를 의미하여 동사자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술어인 자동사 뒤에 결과보어 ‘到’가 나타났고 뒤에 장소명사가 이어지는 경우에 결과보어 구조는 번역문에서 대개 ‘-에/로+동사’로 번역했다. [예문12]에서도 결과보어 ‘到’ 뒤에 추상적인 장소 ‘那种地步(그런 처경)’이 나타났다. TT에서 ‘그 지경에 처하다’라고 번역했다. 격조사 ‘에’를 통해 동작 ‘落(떨어뜨린다)’가 이루어진 결과를 도출했다. 문장 속 등장인물 예전 풍유한 생활에서 현재 이 처경까지 전락하는 불쌍한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또한 과거와 현재과 비교하는 느낌을 살려냈다.

[예문12]

ST: 其实人落到那种地步也就顾不上那么多了, 我算是应了人穷志短那句古话了。

TT: 사람이 그 지경에 처하면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게 되지. “궁하면 뜻이 작아진다”는 옛말을 따를 작정이었네.

[예문13]는 결과보어가 동작의 이동거리를 보여주는 예시다. 소설 원문에서는 주로 자동사 뒤에 형용사 결과보어 형용사인 ‘近(가깝다)’와 ‘远(멀다)’로 동작의 이동거리를 보여주었다. 결과보어의 구조인 ‘走远’은 번역문에서 ‘멀리 사라지다’

9) 刘月华 (2001) 에서는 결과보어가 동사일 경우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으로 생긴 행위자나 동작 대상의 피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0) 술어가 동사인 경우 뒤에 나타나는 결과보어는 동작의 발생시간, 종료시간, 상태, 이동거리, 동작 량, 동작의 속도 등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 马10)婷婷(2019)에서는 이러한 결과보어의 구체적 예시로는 ‘무일찍, 晚늦다, 长길다, 短짧다, 久오랏다, 迟늦다, 快빨르다, 慢느리다, 迅速급속하다, 多많다, 少적다’ 등이 있다고 했다.

로 번역했다. [예문14]은 결과보어가 동작이 발생한 수량을 보여줬다. 여기 ‘多喝’는 마시다라는 동작이 많이 발생했다는 결과를 강조하는데 번역문에서 ‘많이 마시다’로 번역했다.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 뒤에 결과보어의 구조에서는 대체 한국어에서는 부사와 동사나 형용사의 구조로 전환하여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예문13]

ST: 我苦笑着看他走远。

TT: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예문14]

ST: 后来我更喜欢赌博了, 嫖妓只是为了轻松一下, 就跟水喝多了要去方便一下一样, 说白了就是撒尿。

TT: 나중에는 도박을 더 좋아했고, 기생은 단지 한숨 돌리기 위한 것일 뿐이었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보러 가게 되는 것처럼.

아래 [예문15] [예문16] [예문17]은 소설원문에서 발견한 동작이 발생한 시간과 관련된 결과보어의 예시다. 동작이 발생한 시간에 관련된 결과보어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完’과 ‘上’, ‘掉’ 결과보어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본래의 의미에서 문법화하여 문법적 의미가 더 강하다. 각각 한국어로 ‘-어 내다, -어 버리다, -기 시작하다’로 번역했다.

[예문15]

ST: 擦完脸我把毛巾往盘子里一扔。

TT: 나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얼굴을 닦아낸 수건을 쟁반에 던져놓고.

[예문16]

ST: 他改掉了坏习惯。

TT: 그는 나쁜 습관을 고쳐버렸다.

[예문17]

ST: 我才知道半年前就欠上他们了, 半年下来我把祖辈留下的家产全输光。

TT: 그제야 나는 비로소 반년 전에 그들한테 빚을 지기시작해, 반년만에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가산을 전부 탕진했다는 걸 알았지.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결과보어의 의미지향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먼저 문법화 정도에 따른 번역양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문법화된 결과보어의 사용 빈도는 그렇지 않은 결과보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화되지 않은 결과보어 번역양상을 보면 직역하는 경우가 많다. 문법화된 결과보어의 번역양상은 대부분 이를 생략해서 번역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음으로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범위는 결과보어는 문장 내 의미지향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결과보어의 의미지향방향은 결과보어의 전방의미지향과 후방의미지향으로 분류된다. 통계에 따르면 결과보어가 결과보어 앞의 성분보다 뒤의 성분과 더 긴밀한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보어가 전방의미지향하면서 술어의 객체를 지향하는 경우는 주로 ‘把’ 자문, ‘被’ 자문에서 출현한다. TT에서는 부사를 추가함으로써 원문의 표현효과를 전달했다.

결과보어 의미지향 대상에 있어서 먼저 결과보어가 술어를 주체지향하는 경우, ST 동사와 동사의 결과보어 결합은 ‘-어서’ ‘-다가’ 등 연결어미를 통해 ST 두 개 동작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 동작 이루는 방식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ST에서 술어 동사와 형용사인 결과보어 결합은 TT에서 부사와 형용사의 구조로 나타나거나 ‘-게’ ‘-도록’의 형태로 번역되어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지다’어미로 구성된 구조로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했다.

다음은 중국어의 결과보어가 술어의 객체를 지향하는 경우에 중국어에서 술어가 타동사일 경우 많이 나타났다. 첫째, 술어인 타동사 뒤에 결과보어 ‘到’가 이어 ‘看到’ ‘听到’ ‘想到’ 등의 구조를 이룬다. 이는 TT에서 타동사와 과거시제로 번역했다. 둘째, 술어인 타동사 뒤에 결과보어 ‘成’가 나타나면 이러한 구조는 번역문에서 주로 타동사와 과거시제, 조사 ‘~으로’ 등의 문법요소를 통해 실현했다. 셋째, 피동문문일 경우이다. 중국어 피동문은 보통 ‘피동주+被+행동주+술어+결과보어+기타성분’으로 이루어진다. TT에서는 ST술어와 결과보어 구조 중 술어를 생략하고 결과보어만 번역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결과보어가 동사 자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과보어가 동사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결과보어가 동작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는 결과보어 ‘到’는 주로 동사 뒤 격조사 ‘~에’ ‘~으로’ 등을 추가해 장소 명사를 도출했다. 두 번째는 동작의 이동 거리와 수량을 강조하는 결과보어 ‘远’와 ‘近’, ‘多’가 나타나면 이는 주로 ‘적게, 많이, 가까이 등 부사와 동사’의 구조로 번역했다. 세 번째는 동작 이동 시간을 강조하는 결과보어 ‘完’와 ‘上’ ‘掉’는 번역 시 보조용언 ‘-어/아내다’, ‘-하기 시작하다’, ‘-어/아 버리다’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의미지향학적 관점에서의 번역양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과보어가 문학작품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한 의미지향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중국어 술어와 결과보어의 구조는 한국어로 번역시 주로 ‘부사+술어’, ‘-다가-’ ‘-어서-’ ‘-도록’ ‘-게’ 등 연결어미를 포함하며, ‘동사+과거시제’, ‘본용어+보조용언-어/아내다’, ‘-하기 시작하다’, ‘-어/아 버리다’의 구조 등을 통해 중국어의 ‘결과’라는 의미를 재현한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어 결과보어 번역 시 의미지향학적 관점을 통해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자의 의도를 살려 원문을 충실하게 표현하며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참고문헌 ■

- 이근희(2015)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马真, 陆俭明 (1997a) 【形容词做结果补语考察 (一)】 【汉语学习】 第一期
- 潘文娱 刘月华 故 (2012) 商务印书馆 【实用现代汉语语法】
- 김지원(2010) [현대중국어 결과의미 보어의 의미지향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马婷婷 (2016)现代汉语结果补语语义指向研究 华中科技大学 博士论文
- Larson, M.1998. Meaning-Based Translation, Zanded.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토론〉 “중국어 결과보어 한국어 번역양상 연구: 위화의 소설 『인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화진(국민대학교)

본 연구는 작가 위화의 소설 『活着』와 한국어 번역본 『인생』에서 나타난 139개의 결과보어를 대상으로 의미지향적 관점에서 술어와 결과보어의 구조에 대한 번역양상을 살펴 본 연구입니다. 어느 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쓰여진 글의 내용과 형식을 다른 언어로 재현하는 과정은 두 언어 간의 어휘, 문법, 통사구조,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의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것은 번역자의 숙명이기에 각고의 노력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에서 결과보어는 술어 뒤에 위치하여 동작의 결과 또는 상태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데, 한국어의 다양한 형식과 대응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어 결과보어가 한국어 번역시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의미지향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과보어의 한국어 번역양상을 의미지향 방향, 의미지향 범위, 의미지향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번역의 구체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는 과정에서 드는 의문점과 토론자의 무지함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1) 2.1 문법화 정도에 따른 번역양상

문법화된 결과보어를 생략하면 원문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럼 아래의 예문 중 “说白了”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연구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ST: 后来我更喜欢赌博了, 嫖妓只是为了轻松一下, 就跟水喝多了要去方便一下一样, 说白了就是撒尿。  
 TT: 나중에는 도박을 더 좋아했고, 기생은 단지 한숨 돌리기 위한 것일 뿐이었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보러 가게 되는 것처럼.

### 2) 2.2 결과보어의 지향범위

“〈표2〉에 따르면 내부적의미지향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보어와 의미지향 대상은 긴밀한 의미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둘이 동일한 문장 안에 분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략) 선행문장에서 술어주체 ‘我’가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에 동일한 주체가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생략되었다.”

결과보어와 의미지향 대상이 긴밀한 의미관계를 맺어서 내부적 의미지향이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한 문장 안에 주어와 술어가 같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것이 아닌런지요? 또한 동일한 주체가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주어를 생략하는 현상은 결과보어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 ① 결과보어가 쓰인 문장 : 我早晨得早早起来, (我)把没做完的作业做完。  
 ② 결과보어가 쓰이지 않은 문장 : 我坐在祭坛前座位上, (我)听了牧师说教。

### 3) 2.3 의미지향 방향에 따른 번역양상

“하지만 드물게 결과보어가 전방 의미지향하면서 술어객체를 의미지향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에 특수한 문장 유형인 ‘把’자문과 ‘被’자문이 바로 그 예이다. 왜냐하면 ‘把’자문과 ‘被’자문은 모두 목적어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목적어를 결과보어 앞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중략) [예문4]에서 결과보어인 ‘光’은 술어의 객체인 ‘家产’을 의미지향하며 ‘가산을 탕진했다’라는 뜻으로 나타난다.

‘把’자문과 ‘被’자문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은 해당 구문이 가지는 특수한 구조 때문이지 결과보어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과보어가 사용되지 않은 ‘把’자문과 ‘被’자문에서도 목적어가 앞에 위치합니다. (他昨天被人打了。 / 你把里里外外再检查一遍)

### 4) 3.2 결과보어의 술어객체 의미지향 번역양상

“‘到’는 술어동사로 이룬 결과인 객체를 보여준다. TT에서는 원문의 동사를 의미 대응하는 타동사와 과거시제 ‘~를 봤다네’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형태구조가 가진 결과보어 구조 ‘听到’ ‘吃到’ 등 한국어로 ‘타동사+과거시제’ 구조로 번역할 수 있다.”

결과보어 ‘到’는 목적, 결과의 달성 및 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장을 과거시제로 해석하는 건 다른 문장 요소 또는 문맥 상황에 따르는 것이지, ‘到’가 과거시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看到他那张狂劲, 我心里就烦. (그의 거만한 표정을 보면 나는 짜증이 나.)

别人能听到, 稍微小声点儿说. (다른 사람한테 들리니까 조금 작게 말해.)

5) 이번 연구는 백원담 번역의 『인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결과보어의 번역양상을 살펴 보았는데, 번역 양상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같은 작가의 다른 번역서 즉, 최용만 번역의 〈허삼관매혈기〉, 〈형제〉를 함께 검토하는게 어떤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발표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가 한국어 번역 연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일한 번역문에 나타난 수(數)관련 표현 연구

-‘一人’ ‘二人’의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HONDA NIKA(한국외국어대학교)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통역·번역의 경우, 외국어(L2)를 모국어(L1)로 번역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국어(L1)를 외국어(L2)로 번역하는 Backword Translation도 L1구사 능력과 동일한 수준이 요구된다. 외국어 학습의 경우, 일차적으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고, 이는 대체로 일대일 표현을 도출하기 위한 훈련으로부터 시작한다. 초급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고급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세부내용에 대한 의문점은 온전히 학습자(외국어 사용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수(數)와 관련된 표현이다.

한국어 교육 관련 서적을 보면 수사 쓰임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나와 있으나 대부분 통사론적 관점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가령 수사는 고유어, 한자어, 알파벳이 있으며 수관형사는 순수 한국어 계열(한, 두, 세, 네, 다섯 등)과 한자어 계열(일, 이, 삼, 사, 오 등)로 나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초급 단계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표현의 다양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든 어휘가 그렇듯이, 수 표현 또한 다양한 쓰임이 존재한다면, 모국어의 직관이 없는 학습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할 항목이 된다. 본고에서는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일본어로 된 원문텍스트(ST)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도착텍스트(TT)에 나타난 수 표현<sup>1)</sup>을 살펴봄으로써 L1 번역자가 사용하는 직관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그 쓰임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 대상으로는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 문학작품으로 하였으며, 교보문고가 선정한 2019년 베스트셀러 작품으로 하였다. 그 중, 출판사와 역자가 동일한 작품은 제외시키고 상위 4권<sup>2)</sup>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상기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문학 작품 중, ST에 있는 수 표현이 TT에서 어떤 표현으로 실현되었는지를 파악한 다음, 찾아낸 표현 중에서 빈도수가 특히 많은 어휘를 중심으로 양상을 수치화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양상이 나타난 ‘인간성 수 표현’을 중심으로 TT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람 관련 수 표현의 번역 양상을 보면 ‘一人’은 14가지, ‘二人’은 16가지 표현이 나타나 다양성을 언급하기에 충분하

1) 본고에서는 언어학에서 다루는 품사의 개념인 ‘수사’ 또는 ‘분류사’가 아닌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숫자 표현의 의미에 대해 다루므로 ‘수 표현’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문학소설의 페이지 수는 원서『誓約』321페이지, 역서『돌이킬 수 없는 약속』379페이지, 원서『ナミヤ雜貨店の奇蹟』413페이지, 역서『나미야 잡화점의 기적』455페이지, 원서『人魚の眠る家』469페이지『인어가 잠든 집』507페이지, 『ノルウェーイの森』531페이지, 역서『노르웨이의 숲』567페이지이다.

다고 볼 수 있으나 ‘三人’은 8가지, ‘四人, 五人’은 3가지, ‘六人, 二十人’은 한 가지로 숫자가 커질수록 ST 자체에 많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一人’과 ‘二人’ 두 가지 표현을 중점적으로 의미 성분 분석을 통해서 ‘一人’ ‘二人’이 가지는 의미적 특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표현들 사이에서 실현되는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일한 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모어화자들의 수 표현에 관한 번역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문맥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비교 분석해, 의사소통 요소를 찾아보고, 보다 좋은 번역 표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2.1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와 일본어의 분류사(수사)와 관련해서 대조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松本(1991:85)에 따르면 ‘인간’을 필 요조건으로 하는 수사에는 ‘-リ/ニン(人)’, ‘-メイ(名)’, ‘-カタ(方)’가 있으며, 이중 ‘-リ/ニン(人)’은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며, 일본어 ‘-メイ(名)’, ‘-カタ(方)’의 한국어 설명은 ‘-メイ(名)’는 ‘=명’으로, ‘-カタ(方)’는 ‘-분’으로 각각 되어 있었다. 이는 출발어 텍스트에서 바로 도착어 텍스트로 일대일 대응시킨 번역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가 언어학적인 관점인 형태적인 분석에 그쳐 있으며, 번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一人’도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모두 의미도출 과정에서 현동화<sup>3)</sup>하여 재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Fauconnier(2000)에 의하면 언어학자들의 일은 모국어화자로부터 문법성(grammaticality)에 관한 판단을 수집(collect)하여, 개별언어와 언어전반의 형식적 구조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그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동시에 하는 것(今井·2015:137)이라고 하였으며 본고의 연구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Jackendoff(1983), Pinker(1994), Li & Gleitman(2002), Wierzbicka(1996)를 포함하여 형식주의 이론가들과 비형식주의 이론가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의미분해를 옹호해왔다(임지용 2008:67). 구조주의의 의미론에서 행하던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은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 자질로 분해하려는 시도이다(강범모 2018: 226). 성분분석 이론은 각 단어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단어와 변별시킬 수 있는 의미성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성분분석 이론은 하나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신현숙 2012:155). 노명현(2012)에 의하면 성분분석은 한 언어에서 단어들 사이에 성립하는 의의관계를 나타내주는 체계적이며 경제적인 수단을 제공해준다. 이와 같이 의미 구조를 표시하는 의미표시는 많은 의미특성과 의미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강범모(2018)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의미 자질에 차이가 나는 ‘소년’과 ‘처녀’([성], [어른]의 차이)를 반의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一人’, ‘二人’의 번역 결과물로 나타난 표현들 또한 반의어가 아니므로 두 개 이상의 자질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어휘의 의미연구는 체계성, 엄밀성, 균형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최호철 2013:1). 그러기 위해서도 본고에서는 의미 자질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겠다.

의미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최호철(2013)의 ‘떡다’, 김혜령(2013)의 ‘내리다’와 ‘추락하다’와 같이 동사, 권용문(2013)의 ‘너무, 아주’ 신우보(2013)의 ‘가장, 훨씬’ 등 정보부사, 그 외에도 왕보하(2013)의 ‘조차’, 박지영(2013)의 ‘도, 마저’와 같

3) 현동화(actualization)이란 텍스트 속에 구현된 문자화된 단어를 보고 그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개념 혹은 그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 경험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정호정 2001:252).

은 보조사, 정유남(2013)의 ‘-고자, -려고’와 같은 연결 어미, 백형주(2013)의 ‘상하 공간어’, 황림화(2013)의 ‘바닥’ 와 같은 명사 등 다양한 품사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2 의미성분을 통한 의미자질 분석법

본고의 연구 대상과 유사한 체언을 다룬 백형주(2013), 황림화(2013)에서 사용한 의미자질을 각각 살펴보면 백형주는 [+하위성],[+기초성],[+신체성],[+지위성],[+영향성],[+내부성],[+하류성],[+착용성],[+수량성],[+수준성],[+시간성]자질로 분류했으며, 황림화는 [+하위성],[+굴곡성],[+추상성],[+용기성],[+경계성],[+인간성],[+수접성],[+내부성],[+가치성],[+지역성],[+직물성],[+표면성],[+소모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의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어휘의 각 표현을 의미 자질로 정리한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사람을 셀 때 사용하는 수 표현인 ‘一人’, ‘二人’는 명사가 아니므로 국어사전<sup>4)</sup>에 뜻풀이되어 있지 않아 자질 분석 기준은 소설 속에 나오는 문장 속 상황과 문맥을 근거로 하겠다.

신현숙(2012)에서는 어휘 항목을 분석할 때 의미성분과 의미 자질의 수의 적절성, 어휘 항목에 따른 성분 분석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의미 분석 자질에 대한 보편성과 객관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一人’와 ‘二人’라는 어휘장 안에서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의미 자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一人’을 의미적 자질로 나누어보면 [+숫자성],[+거리감],[+의지],[+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숫자성]은 ‘하나’ ‘둘’ ‘셋’과 같이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나타난 표현을 뜻한다. [+거리감]은 화자가 가리키는 ‘一人’과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며 ‘홀로’와 ‘스스로’는 화자 본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거리감 자질에서는 제외시켰다. [+의지]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낸다는 개념으로 보았다. [+감정]은 외롭거나 쓸쓸한 느낌이 있는 표현으로 ‘홀로’가 대표적인 예이다. [+공손성]은 공식식사에서 쓸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군집성]은 한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일부를 나타내며 [+분리성]은 각각 나뉘지는 표현을 나타낸다.

‘二人’을 의미적 자질로 나누어보면 [+숫자성],[+거리감],[+명시성],[+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명시성]는 대상이 각각 구체적인 명사로 표현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감정]은 ‘一人’과 달리 서로 친밀한 느낌이 있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있다.

## 3. 일한 수 관련 표현 번역 양상

연구 대상으로는 일본어 문학 소설을 A언어가 한국어인 번역가가 번역한 작품에서 사용된 수 관련 표현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연구 자료는 교보문고에서 선정한 2019년 연간 베스트10<sup>5)</sup> 소설 중, 작가가 일본인의 작품으로 하였으며, 첫 번째 작품은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TT1), 원제는 『誓約』(ST1)역자는 김성미, 출판사는 북플라자이다. 두 번째 작품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TT2)원제는 『ナミヤ雜貨店の奇蹟』(ST2)역자는 양윤옥, 출판사는 현대문학이다. 세 번째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언어가 잠든 집》(TT3)원제는 『人魚の眠る家』(ST3)역자는 김난주, 출판사는 재인이다. 네 번째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TT4)원제는 『ノルウェイの森』(ST4)역자는 양역관, 출

4) ‘한사람’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명사」 같은 사람.

예) 그는 며칠 전 길에서 마주쳤던 남자와 한사람이었다.

5) 영업점과 인터넷에서 도서와 eBook을 합산하여 1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순위이다.

판사는 민음사이며, 총 4권을 분석하였다. 2019년 연간 베스트에 포함되는 히가시노 게이코의 《마력의 태동》 원제: 『魔力の胎動』는 출판사가 현대문학이며, 역자도 양윤옥이어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연구 자료로 선정한 소설에 나오는 수 표현을 모두 찾아낸 다음, 그 중에서 빈도수가 많은 어휘를 중심으로 그 번역 양상을 수치화하였다. 수 표현 중 ‘년, 월, 일, 시, 분’과 같은 시간표현은 일한 번역에서 의미상 상이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ST에서 바로 TT를 도출해낼 수 있다. 반면 인간성 수 표현에 경우, ST에서 TT를 도출할 때는 재표현(Reformulation)<sup>6)</sup>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표현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 표현 중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 중 일대일로만 표현이 존재하는 경우, 형태는 상이하나 표기상의 차이일 경우, 예를 들어 ‘1명’, ‘한 명’과 같은 표현은 언어사용에 따른 차이가 아니므로 동일 표현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수 표현은 명사, 조사 등 다른 품사와 결합하여 의미를 첨가하는 특징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어휘 차원의 표현 양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一人<sub>じん</sub>’의 번역이 ‘혼자선’ 외에 ‘한 명<sub>이</sub>어도’ ‘한 명<sub>이</sub>면’처럼 번역이 세분화되므로 연구 범위가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다.

### 3.1 ‘一人’ 표현에 대한 통계적 분석

ST ‘一人’이 TT에서 표현된 양상을 살펴보면 ST ‘一人’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혼자’, ‘하나’, ‘㉸’, ‘한 명’, ‘한 사람’, ‘한’, ‘어떤’, ‘홀로’, ‘한 학생’, ‘스스로’, ‘각자’, ‘아무’, ‘일원’, ‘그들’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혼자’, ‘한 명’, ‘한 사람’, ‘홀로’처럼 ‘一人’이 사전적 의미로 표현된 비율은 전체의 72.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대체 어휘가 사용된 경우는 ‘하나’, ‘스스로’, ‘각자’, ‘그들’로 전체의 12.2%였으며, 부정사로 표현된 경우는 ‘한’, ‘어떤’, ‘아무’, ‘일원’으로 전체 비율의 5.6% 나타났다. ‘一人’이 TT에서 생략된 경우는 전체의 9.1% 나타났다.

### 3.2 ‘二人’ 표현에 대한 통계적 분석

ST ‘二人’이 TT에서 표현된 양상을 살펴보면 ‘二人’은 ‘둘’, ‘두 사람’, ‘두’, ‘우리’, ‘두 명’, ‘우리 둘’, ‘아버지(와) 어머니’, ‘그녀(에토)와 가오루코(그녀)’, ‘두 분’, ‘가오루코’, ‘쇼타와 고헤이’, ‘가도와키는 그녀’, ‘너희’, ‘그들’, ‘부모’로 16가지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 중 ‘두 사람’, ‘두 명’과 같이 사전적 의미로 번역된 비율은 전체의 26.3%로 이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둘’, ‘우리’, ‘우리 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두 분’, ‘그들’, ‘너희’와 같이 대체 어휘로 표현된 경우는 전체의 55.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부정사인 ‘두’는 전체의 4.7%였으며, ‘그녀(에토)와 가오루코(그녀)’, ‘가오루코’, ‘쇼타와 고헤이’, ‘가도와키는 그녀’와 같이 고유명사로 나타난 경우는 전체의 2%였다.

## 4. 일한 수 관련 표현 자질 분석

이 장에서는 일한 번역에 나타난 수 표현 중 ‘一人’, ‘二人’의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고 각 자질 별로 이들이 갖는 의미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6) 해석이론에서 말하는 재표현(Reformulation)이란 의미도출 단계에서 도출된 인지적 정보로서의 의미를 재표현하는 과정은 단순한 재부호화(re-encoding)가 아닌 의미등가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정호정 2001:256).

## 4.1 ‘一人’ 표현에 대한 자질 분석

### 4.1.1 숫자성

[+숫자성]은 ‘한 사람’, ‘한 명’, ‘한 학생’, ‘하나’, ‘한 분’, ‘한’이 있다. 또한 [-숫자성]은 ‘일원’, ‘그들’, ‘아무’를 들 수 있으며 [±숫자성]은 ‘혼자’, ‘어떤’, ‘각자’, ‘홀로’, ‘스스로’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예1]은 나가사와가 하쓰미(와타나베)에게 시부야의 바에서 와타나베와 술을 마시다가 만난 여자 둘에 대해 말하는 대화 장면이다.

[예1] ST4: 「一人の子はきれいだったんだけど、もう一人がひどくてき、」(110-4)  
TT4: “한 애는 예쁜데 다른 한 애는 너무 아닌 거야.”(405-15)

위에서 ‘한’은 두 명을 만나고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각각 비교하는 one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다음 [예2]는 하루미가 사업을 시작하여 정보공학과 출신 학생 몇 명을 채용하고 진행했던 시도들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예2] ST2: 一人に一台ずつパソコンを与え、インターネットで何ができるかを考えさせた。(382-3)  
TT2: 그들에게 컴퓨터를 한 대씩 내주고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안해보게 했다.(413-20)(1인칭주인공 시점)

위에서 ‘그들’은 하루미가 고용한 직원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one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닌 복수의 뜻을 나타낸다.

### 4.1.2 거리감

[+거리감]은 ‘한 학생’, ‘한 분’, ‘어떤’, ‘각자’, ‘일원’, ‘그들’, ‘아무’, ‘한’, ‘하나’가 이에 해당한다. [±거리감]은 ‘한 사람’, ‘한 명’, ‘혼자’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홀로’와 ‘스스로’는 화자 본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거리감 자질에서는 제외시켰다. [예3]은 가도와키가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바라보는 마흔 전후의 여자를 발견하는 장면이다.

[예3] ST3: たしかに本屋のそばに女性が一人立っていた。(249-13)  
TT3: 그녀 말대로 서점 앞에 안경을 낀 여자가 하나 서 있었다.(270-12)(1인칭관찰자 시점)

위에서 ‘하나’는 안면이 없는 낯선 사람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다. 일본어에서는 낯선 사람에 대해 고유어로 된 양수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번역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 [예4][예5]는 각각 [+거리감]과 [-거리감] 두 자질을 가지는 예문이다. [예4]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워져 낯선 사람들이 고스케의 방에 있던 음향 기기를 모조리 실고 가는 장면이다.

[예4] ST2: 男の一人は紀美子に金を渡していた。(222-17)

TT2: 그중 한 사람이 어머니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다. (245-3)(1인칭관찰자 시점)

위에서 ‘한 사람’은 음향 기기를 실어 간 낯선 사람이므로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다. 아래의 예문은 가오루코가 뇌사 판정을 받은 딸 마즈호에게 운동을 시켜줄 수 없냐고 가즈마사에게 제안하는 장면이다.

[예5] ST3: 相談できる人間は一人しかいなかった。(170-6)

TT3: 의논할 상대는 한 사람뿐이었다. (184-21) (1인칭주인공 시점)

위에서 ‘한 사람’은 [예4]와 달리 의논할 사람으로 남편인 가즈마사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심리적 거리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1.3 의지

[+의지]는 ‘스스로’를 들 수 있다. [-의지]는 ‘한 사람’, ‘한 명’, ‘한 학생’, ‘하나’, ‘한 분’, ‘한’, ‘어떤’, ‘각자’, ‘일원’, ‘그들’, ‘아무’가 있으며 [±의지]는 ‘혼자’, ‘홀로’가 해당한다. 아래 [예6]은 나오코가 와타나베에게 자살한 언니에 대해 말하는 대화 장면이다.

[예6] ST4: 「大抵のことは自分一人で処理しちゃう人だったのよ」(264-9)

TT4: “어지간한 일은 스스로 처리해 버리는 사람이었어.”(291-8)

위에서 ‘스스로’는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일이 없었던 언니’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이다. 아래 [예7]은 와타나베가 미도리와 백화점에 가서 식사 후 옥상에 가는 장면이다.

[예7] ST4: 雨の屋上には人は一人もいなかった。(204-9)

TT4: 비 내리는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506-9) (1인칭관찰자 시점)

위에서 ‘아무’는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의지는 없는 표현이다.

### 4.1.4 감정

[+감정]은 ‘홀로’가 있다. [-감정]은 ‘한 학생’, ‘하나’, ‘한 분’, ‘한’, ‘어떤’, ‘각자’, ‘일원’, ‘그들’, ‘아무’가 해당되며 [±감정]은 ‘한 사람’, ‘한 명’, ‘혼자’가 있다. 아래 [예8]은 와타나베가 하쓰미에게 하쓰미 씨 같은 누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예8] ST4: 「つまりね、僕には兄弟がいなくてずっと一人で育ってきたけれど、」(127-2)

TT4: “난 말이죠, 형제 없이 태어나서 오로지 홀로 자랐지만 외롭다거나 형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423-2)

위에서 ‘홀로’는 외롭거나 쓸쓸하다는 느낌이 드러나는 문장이므로 감정이 있는 표현이다. 아래 [예9]는 고스케가 휴게소에서 아무 트럭이나 타고 달아나는 장면이다.

[예9] ST2: しばらくすると一人の男がやってきて、そのうちの一台に乗り込んだ。(255-4)

TT2: 잠시 뒤에 아저씨 하나가 나와서 그중 한 대에 올랐다.(278-20) (1인칭 관찰자 시점)

위에서 ‘하나’는 낯선 트럭 기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외롭거나 쓸쓸한 느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4.1.5 공손성

[+공손성]은 ‘한 분’과 ‘일원’이 해당된다. [-공손성]은 ‘한 사람’, ‘한 명’, ‘한 학생’, ‘하나’, ‘혼자’, ‘한’, ‘어떤’, ‘각자’, ‘일원’, ‘그들’, ‘아무’, ‘홀로’, ‘스스로’가 있으며 [+공손성]은 ‘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음 [예10]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미즈호의 AIBS 전원을 끄고 뇌사 판정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다.

[예10] ST3: このテストをするため、AIBS研究チームの一人である医師が、慶明大学からアドバイザーとして立ち会っていた。(452-3)

TT3: 이 테스트에는 AIBS 연구팀의 일원인 게이메이 대학 병원 의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488-18)(3인칭 관찰자 시점)

위에서 ‘일원’은 최신행 호흡 제어기 연구팀의 우수한 의사를 가리키고 있어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본고 연구 자료에는 없었으나 공손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예로는 ‘한 분’이 있다. 아래 [예11]은 레이코가 와타나베에게 병원 생활에 대해 설명하는 대화 장면이다.

[예11] ST4: 「たとえば私はあるお医者にピアノを教えてるし、一人の患者は看護婦にフランス語を教えてるし、まあそういうことよね」(179-10)

TT4: ‘예를 들면 난 어떤 의사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어떤 환자는 간호사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주고, 그런 식이야.’(200-11)

위에서 ‘어떤’은 부정관형사이며 모든 환자에 해당되고 구체적으로 환자가 누구인지 가리키지 않았으므로 공손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 4.1.6 군집성

[+군집성]은 ‘한 학생’, ‘각자’, ‘일원’, ‘그들’이 이에 해당된다. [-군집성]은 ‘한 사람’, ‘한 명’, ‘하나’, ‘한 분’, ‘혼자’, ‘한’, ‘어떤’, ‘아무’, ‘홀로’, ‘스스로’이다. 아래 [예12]는 미도리가 대학에서 포크송 동아리에 들어갔었던 이야기를 와타나베에게 하는 대화 장면이다.

[예12] ST4: 「ある日私たち夜中の政治集会に出ることになって、女の子たちはみんな一人二十個ずつの夜食用のおにぎり作って持ってくることって言われたの」(61-14)

TT4: “어느 날 야간 정치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여자애들에게 각자 야식용 주먹밥을 스무 개씩 만들어 오라는 거야.”(355-16)

위에서 ‘각자’는 포크송 동아리에 소속된 구성원 중 여자애들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군집성을 갖는 표현이다. 아래 예문은 중학생인 고스케가 부모님을 따라 야반도주하다가 중간에 도망친 장면이다.

[예13] ST2: 自分一人が生きていくチャンスぐらいは見つけ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えた。(258-12)

TT2: 나 한 사람 살아갈 기회쯤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282-5)(1인칭주인공 시점)

위에서 ‘한 사람’은 화자 자신을 가리키므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단 ‘한 사람’에 ‘한 사람씩’처럼 ‘-씩’이 붙으면 군집성을 갖는다.

#### 4.1.7 분리성

[+분리성]은 ‘한 사람’, ‘한 명’, ‘한 학생’, ‘하나’, ‘한 분’, ‘혼자’, ‘한’, ‘어떤’, ‘각자’, ‘아무’, ‘홀로’, ‘스스로’가 있다. [-분리성]은 ‘그들’이 있으며 [±분리성]은 ‘일원’으로 분류되었다. 아래 예문은 고스케가 비틀스 영화를 보러 도쿄로 가는 장면이다.

[예14] ST2: 東京には友達と何度か行ったことがある。だが一人で行くのは初めてだった。(242-11)

TT2: 도쿄에는 친구와 몇 번 가본 적이 있다. 하지만 혼자 가는 건 처음이었다.(265-18)(1인칭 주인공)

위에서 ‘혼자’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스케만 도쿄로 가기 때문에 공간적인 분리성을 갖는다. 아래 예문은 하루미가 사업을 시작하며 정보공학과 출신 학생 몇 명을 채용하고 진행했던 시도들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예15] ST2: 一人に一台ずつパソコンを与え、インターネットで何ができるかを考えさせた。(382-3)

TT2: 그들에게 컴퓨터를 한 대씩 내주고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안해보게 했다.(413-20)(1인칭주인공 시점)

위에서 ‘그들’은 [예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루미가 고용한 직원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one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면서, 동시에 각각 분리되는 개념도 아니다.

이 밖에 아래 [예16]와 같이 ST가 TT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학생’이라는 어휘를 덧붙인 ‘한 학생’이라는 표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예문은 와타나베가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다.

[예16] ST4: 彼らは入口近くのテーブルに座ってメニューを眺め、しばらくいろいろと検討していたが、やがて一人が注文をまとめ、アルバイトの女の子にそれを伝えた。(93-6)

TT4: 그들은 입구 가까운 자리에 앉아 메뉴를 바라보며 잠시 의논을 하더니 이윽고 한 학생이 주문을 정리하여 아르바이트 여학생에게 말했다. (106-1) (3인칭관찰자 시점)

위에서 ‘한 학생’은 앞서 원문 p93 3번째 줄에 ‘학생 넷이 들어왔다’고 언급했으므로 굳이 사용 필요가 없으나 TT에

일부로 첨가하였다. 그리고 원문은 아르바이트가 학생이라는 언급은 없으나 ‘아르바이트 여자 애’를 ‘아르바이트 여학생’으로 번역했다. 이처럼 일본어에서 ‘한 사람’이 ‘学生’로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한국어에서는 ‘학생’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자질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소설 속에 나타난 ‘一人’을 의미적 자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一人’ 자질 분석 결과

一人	숫자성	거리감	의지	감정	공손성	군집성	분리성	BT 대응
한 사람	+	±	-	±	±	-	+	×
한 명	+	±	-	±	-	-	+	×
한	+	+	-	-	-	+	+	△
하나	+	+	-	-	-	-	+	-
한 분	+	+	-	-	+	-	+	+
혼자	±	±	±	±	-	-	+	+
한	+	+	-	-	-	-	+	+
어떤	±	+	-	-	-	-	+	+
각자	±	+	-	-	-	+	+	+
일원	-	+	-	-	+	+	±	+
그들	-	+	-	-	-	+	-	+
아무	-	+	-	-	-	-	+	+
홀로	±	×	±	+	-	-	+	+
스스로	±	×	+	-	-	-	+	+

‘一人’을 의미적 자질로 나누어보면 [+숫자성],[+거리감],[+의지],[+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4.2 ‘二人’ 표현에 대한 자질 분석

‘二人’을 의미적 자질로 나뉘보면 [+숫자성],[+거리감],[+명시성],[+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二人’은 ‘스스로’, ‘홀로’ 등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 성분이 없으므로 변별 자질 중 [±의지]는 제외시켰다. 반면 ‘쇼타와 고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대상이 각각 구체적인 명사로 표현된 경우를 [+명시성]으로 분류하였다.

### 4.2.1 명시성

[+명시성]은 ‘둘’, ‘그녀(에토)와 가오루코(그녀)’, ‘가도와키는 그녀’, ‘가오루코’, ‘쇼타와 고헤이’, ‘우리 둘’을 들 수 있다. [-명시성]은 ‘두 사람’, ‘두 명’, ‘두’, ‘두 분’, ‘그들’, ‘너희’가 있으며 [±명시성]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가 해당된다. 아래 [예17]은 아쓰야, 쇼타, 고헤이 세 사람이 과거에서 온 편지를 읽고 혼란스러워 하는 장면이다.

[예17] ST2: ほかの二人も同様らしく、どちらも膝を抱えたままだ。(409-14)

TT2: 쇼타와 고헤이도 마찬가지로 두 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아무 말이 없었다.(443-12)(3인칭관찰자 시점)

위에서 ‘쇼타와 고헤이’은 대상을 구체인 이름으로 명시화하였는데, 소설 속 상황은 아쓰야가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쇼타와 고헤이가 들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이 누구지는 독자는 알 수 있으나 번역자가 일부로 명시화시킨 것이다. 아래 예문은 무카이가 원수를 갚고자하는 노부코를 말리는 대화 장면이다.

[예18] ST1: 「ふたりを殺したとなれば死刑になる可能性だって高い」(59-10)

TT1: “게다가 사람 두 명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73-2)

위에서 ‘두 명’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는지 말하고 있으므로 명시성을 갖지 않는다.

### 4.2.2 감정

[+감정]은 서로 친밀한 느낌이 있는 표현인 ‘우리 둘’, ‘우리가 있다. [-감정]은 ‘두 사람’, ‘두 명’, ‘두’, ‘두 분’, ‘그녀(에토)와 가오루코(그녀)’, ‘가도와키는 그녀’, ‘부모’, ‘그들’, ‘가오루코’, ‘쇼타와 고헤이’, ‘아버지(와) 어머니’, ‘너희’가 해당되며 [+감정]은 ‘둘’이 있다. 아래 [예19]는 와타나베가 산에서 산책하다가 나오코에게 고백하는 대화 장면이다.

[예19] ST4:「それで、もしよかったら二人で暮さないか?」(166-3)

TT4: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살지 않을래?”(464-16)

와타나베와 나오코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의지하고 친한 관계이므로 ‘우리 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음 예문은 무카이 가게에 마에하라가 사키를 처음 데려온 장면이다.

[예20] ST1: ふたりの前に酒を置くと、話の邪魔にならないように前原たちから少し離れた。(77-8)

TT1: 두 사람 앞에 술을 내놓고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멀리 떨어졌다.(94-4)(1인칭주인공 시점)

위에서 ‘두 사람’은 가게 손님이지만 사키는 그 가게에 처음 온 손님이므로 친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감정]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자질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소설 속에 나타난 ‘二人’을 의미적 자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二人’ 자질 분석 결과

二人	숫자성	거리감	명시성	감정	공손성	군집성	분리성	BT 대응
둘	+	±	+	±	-	-	-	×
두 사람	+	±	-	-	-	-	-	×
두 명	+	±	-	-	-	-	-	×
두	+	±	-	-	-	-	-	+

두 분	+	+	-	-	+	-	-	+
우리 둘	+	-	+	+	-	+	-	+
그녀(에토)와 가오루코(그녀)	±	+	+	-	-	-	-	+
가도와키는 그녀	-	+	+	-	-	-	+	+
부모	±	+	±	-	+	-	-	+
그들	-	±	-	-	-	+	-	+
가오루코	-	-	+	-	-	-	+	+
쇼타와 고헤이	±	-	+	-	-	-	-	+
아버지(와) 어머니	±	-	±	-	+	-	-	+
너희	-	-	-	-	-	+	-	+
우리	-	-	±	+	-	+	-	+

‘二人’을 의미적 자질로 나누어보면 [+숫자성],[+거리감],[+명시성],[+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류하였다.

##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와 일본어 표현 중 어휘적으로 대응관계를 이루는 수 관련 표현에 대해 실제로 번역된 결과물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소설에서 ‘一人’, ‘二人’이 각각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정리하였고, 이에 따라 표현을 분류하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에서는 TT결과물이 서로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형태적 특징이 아닌 실제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양상을 살펴보았다. ‘一人’의 의미적 자질을 [+숫자성],[+거리감],[+의지],[+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석하였으며, ‘二人’의 의미적 자질은 [+숫자성],[+거리감],[+명시성],[+감정],[+공손성],[+군집성],[+분리성] 7가지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물을 통해 번역은 실제 언어 사용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대조로 설명할 수 없는 용역이 존재하고, 반드시 어휘마다 그 범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一人’은 사전적 의미인 ‘한 사람’, ‘한 명’ 외에도 ‘아무’, ‘어떤’, ‘한’, ‘일월’과 같이 부정사가 쓰기도 하고, ‘혼자’, ‘하나’, ‘홀로’, ‘스스로’, ‘각자’, ‘그들’과 같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二人’은 ‘두 사람’, ‘두 명’ 외에도 ‘두’와 같이 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 ‘우리’, ‘둘’, ‘우리 둘’,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 ‘두 분’, ‘그들’, ‘너희’와 같은 어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二人’은 인물을 구체화하여 ‘쇼타와 고헤이’, ‘그녀와 가오루코’, ‘에토와 그녀’처럼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번역에서는 숫자라 할지라도 단순히 한자어와 고유어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어권 학습자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며, 번역 교육 또한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과정에서 번역자는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어휘장(선택지)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진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번역자는 이러한 어휘장을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물은 일본어권 번역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대상으로 소설 4권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연구 대상을 더 확장시키면 보다 다양한 연구 결과

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후행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범모(2018), 의미론, 한국문화사.
- 김혜영(2009), 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 노명현(2012), 의미론개관, 한국문화사.
- 박여성(2013), 기능주의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 신현숙 외(2000),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 신현숙(2012), 의미와 의미 분석, 푸른세상.
- 윤성우·이향(2013), 번역학과 번역철학,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이혜승(2018), 통역과 번역의 이해, 신아사.
- 임지룡·김동환(2010), 의미론의 이해(원저: Understanding Semantics.(2002), Sebastian Löbner), 한국문화사.
- 정연일·남원준(2006)번역학 입문(원저: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Theories & Applications.(2001), Jeremy Munday),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호정(2001), 번역학에 있어서의 통합모델-해석이론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3, 243-266
- 정호정(2007), 통역·번역의 이해, 한국문화사.
- 조의연(2015), “목표언어 중심의 등가적 번역전략에 대한 비판적 연구”, 『번역학연구』 16(1), 145-166.
- 최호철(2013), 한국어 단어의 의미구조와 의미관계 연구, 한국문화사.
- 今井邦彦(2015), 言語理論としての語用論, 開拓社
- 武田珂代子(2010), 翻訳理論の探求(원저: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Pym, A(2009), New York: Routledge), 東京: みすず書房.
- 鳥飼玖美子(2013), よくわかる翻訳通訳学, ミネルヴァ書房.
- 松本曜(1991), 日本語類別詞の意味構造と体系 : 原型意味論による分析 The Semantic Structures and System of Japanese Classifiers, 『言語研究』99, 82-106.

〈토론〉 “일한 번역문에 나타난 수(數) 관련 표현 연구  
- ‘一人’ ‘二人’의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문희진(아이치가쿠인대학교)

이 발표는 일한 번역문 즉 일본 문학 작품(4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에서 나타난 ‘인간성 수(數) 표현’의 어휘를 중심으로 도착텍스트(TT)에 나타난 번역·표현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련된 수(數) 표현의 번역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빈도수가 많게 번역·표현된 ‘一人’ ‘二人’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국어로 번역된 표현을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모어 화자의 번역 표현에 대한 자질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一人’ ‘二人’와 관련된 번역 종류를 분류한 수(數) 표현의 어휘장(선택지)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일본어권 번역학습자의 한국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한 점도 의의 깊은 연구라 생각합니다.

우선 혼다선생님의 발표문에서 ‘二人’의 표현 번역 양상이 ‘16가지’라고 두군데에 표시하셨는데 ‘15가지’ 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15가지’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신 인기있는 일본 문학작품 4종류 중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외에는 미스터리한 작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가 다른 작품을 같이 분석한 이유는 작품의 장르와 관계없이 ‘一人’ ‘二人’의 번역 표현 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작품의 장르에 따라 수(數) 표현의 번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셋째 일본 문학 소설 4작품의 ‘一人’ ‘二人’에 대한 한국어 번역 조사 결과를 표로 수치화하여 명시해 주시면 더욱더 알기 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질 분석 결과인 <표1>과 <표2>에 대한 의미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해 주신 학회와 연구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 독-한 번역에서 나타난 독일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번역 양상 분석

김하나(한국외국어대학교)

### 1. 서론

독일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에서 관사와 대명사가 자주 생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어에서 관사에 해당하는 한정사(관형사)가 없어도 문맥상 의미가 통하고 한국어가 고맥락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 한국어 ST에 한정사가 없다고 그것을 생략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독일어에서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사용은 문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생략을 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독-한 번역 텍스트에서 어떤 관사와 대명사가 생략이 되었고 어떤 것이 번역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아동문학 소설책이 선정되었다. ST는 Franziska Biermann의 『Herr Fuchs mag Bücher』이고 TT는 (프란치스카 비어만 글·그림) 김경연 옮김 『책 먹는 여우』이다. 독일어 문법에서 필수인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한국어로 번역 되면서 생략된 문장들을 비교 분석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독일어권 학습자를 위한 번역전략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2. 독일어의 정관사/부정관사와 한국어의 한정사/비한정사

독일어에는 큰 범주로 두가지의 관사가 있다. 한정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der(남성), die(여성), das(중성), die (복수)’ 그리고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부정관사 ‘ein(남성), eine(여성), ein(중성)’ 하고 부정관사의 복수형에 해당하는 무관사 ‘∅’가 있다. 정관사와 부정관사는 명사의 성, 수, 격을 표시해준다. 한국어와 달리 독일어에서는 관사를 생략 할 수 없다. 한국어에는 한정성을 나타내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 그리고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수관형사 ‘한’ 등 이 있다.

#### 1) Der bestimmte Artikel - 정관사

	Singular - 단수			Plural - 복수		
	Maskulinum - 남성	Femininum - 여성	Neutrum - 중성	Maskulinum - 남성	Femininum - 여성	Neutrum - 중성
Nominativ - 1격	der	die	das	die		
Genitiv - 2격	des	der	des	der		

Dativ - 3격	dem	der	dem	den
Akkusativ - 4격	den	die	das	die

## 2) Der unbestimmte Artikel - 부정관사; der Nullartikel - 무관사

	Singular - 단수			Plural - 복수		
	Maskulinum - 남성	Femininum - 여성	Neutrum - 중성	Maskulinum - 남성	Femininum - 여성	Neutrum - 중성
Nominativ - 1격	ein	eine	ein	∅		
Genitiv - 2격	eines	einer	eines	∅		
Dativ - 3격	einem	einer	einem	∅		
Akkusativ - 4격	einen	eine	ein	∅		

## 3. 번역 양상 - 독일어의 정관사/부정관사의 번역 양상 분석

### 정관사 번역 양상

ST Franziska Biermann의 『Herr Fuchs mag Bücher』 소설에는 정관사가 총 121개 나왔고 그 중에 3개를 TT 번역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소설에서 독일어 정관사가 한국어로 번역된 숫자를 통계로 보면 2.48%이며 97.52% 이상 생략된 것을 볼 수 있다.

ST	TT
Man hatte den kleinen Fuchs erkannt.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강도가 여우 아저씨란 걸 알아보았던 거예요.
Der Fuchs war ein großartiger Schriftsteller!	그 여우, 굉장한 작가인걸!
..., sondern das Buch komplett fotokopiert.	그 책을 전부 복사했던 거지요.

### 부정관사 번역 양상

ST Franziska Biermann의 『Herr Fuchs mag Bücher』 소설에는 부정관사가 총 45개 나왔고 그 중에 14개를 TT 번역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소설에서 독일어 부정관사가 한국어로 번역된 숫자를 통계로 보면 31.11%이다.

- : 23번은 한국어 번역에서 부정관사가 필요 없어서 생략되었고

X : 7번은 부정관사와 쓰인 전체 단어나 문장이 생략되거나 바뀐 경우이다

ST	TT
einer Prise	한
einem Tisch	하나
einer Matratze	하나
einem Stuhl	하나
ein Haus	한
an der einen oder anderen Probeseite	(이것 저것 몇 쪽)
eine Weile	꽤 오랫동안
ein Buch	한
eines Morgens	어느 날 아침
ein paar Bücher	몇 권
eins	그런
ein paar Seiten	종이 몇 조각
einer der berühmtesten Schriftsteller	가장 유명한 작가
ein Tütchen	한
ein Päckchen	한

ST	TT
eines (ein Buch)	-
einem Pfandhaus	-
ein Fuchs	-
eine Papierwolke	-
nach einiger Zeit	-
eine Ausgabe	-
ein Salzfläschchen	-
eine Pfeffermühle	-
einem Seufzer	-
einer Lage	-
einen Plan	-
ein Bürger	-
eine Idee	-
ein Plätzchen	-
ein Schinken	-
ein Assistent	-
ein Schriftsteller	-
ein Buch	-
einer Buchhandlung	-
einen Verlag	-
ein Kassenknüller	-
ein Millionär	-
ein Geheimnis	-

ST	TT
einem Ruck	X
ein Überfall	X
kein Bücherräuberprofi	X
eines Gesetzeshüters	X
ein Pech	X
keine Tage	X
einen Umweg	X

#### 4. 독한 번역과정에서 TT에서 정관사/부정관사의 생략된 예시들을 분석

ST는 Franziska Biermann의 『Herr Fuchs mag Bücher』 소설에서 한 문장이다. TT0는 독일어 모국어화자의 번역 예시이며 TT는 전문 번역가의 번역이다.

(1) ST: Der kleine Herr Fuchs mochte sehr gerne Bücher.

TT<sub>0</sub>: 그 작은 여우 아저씨는 책을 좋아했어요.

TT: 여우 아저씨는 책을 좋아했어요.

한국어 번역 TT에서 ‘der - 그’ 정관사와 ‘kleine - 작은’ 형용사가 생략된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어에서는 그 특정한 작은 여우 아저씨이고 ‘der’를 생략하게 되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에서도 ‘그’가 들어가야 문장의 번역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전문번역가는 ‘그’ 정관사 뿐만 아니라 ‘작은’이라는 형용사 까지 생략을 했다. 문맥상 한국어에서는 그 작은 여우 아저씨라는 것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문이 아닌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2) ST: Tatsächlich mochte der kleine Herr Fuchs Bücher so gerne, dass er, immer wenn er eines zu Ende gelesen hatte, dasselbe mit einer Prise Salz und etwas Pfeffer verspeiste.

TT: 좋아해도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소금 한 줌 툭툭, 후추 조금 툭툭 뿌려 꿀꺽 먹어치웠지요.

der, kleine, eines, dasselbe → 생략  
 mit einer Prise Salz → 소금 한 줌  
 X → 툭툭, 꿀꺽 의성어 추가됨

(3) ST: Mit dieser Vorliebe stillte er also nicht nur sein Bedürfnis nach Bildung, sondern auch seinen Hunger. Und der war riesengroß.

TT: 이렇게 여우 아저씨는 책에서 지식도 얻고 허기도 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우 아저씨는 워낙 식성이 좋아서 먹어도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dieser, sein, seinen, der → 생략

(4) ST: Drei Mahlzeiten am Tag brauchte der kleine Herr Fuchs mindestens und Bücher sind ganz schön teuer.

TT<sub>0</sub>: 그 작은 여우 아저씨는 하루에 최소 세 번은 식사로 책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책값이 워낙에 비싸서.

TT: 하루에 적어도 세 끼는 먹어야 했는데, 책값이 좀 비싼가요.

한국어 번역 TT에서 ‘der kleine Herr Fuchs - 그 작은 여우 아저씨’ 가 생략이 되었다.

(5) ST: Auf Dauer war das kleine Portemonnaie vom kleinen Herrn Fuchs diesen großen Geldaufwendungen nicht gewachsen. Er hatte sogar schon seine ganzen Möbel bei einem Pfandhaus in Zahlung gegeben und besaß mittlerweile nichts mehr außer einem Tisch, einer ollen Matratze und einem klapprigen Stuhl.

TT: 가난뱅이라 책을 맘껏 살 수 없는 여우 아저씨는 벌써 가구들을 모두 전당포에 맡겨 버렸어요. 전당포는 물건을 맡아 두고 돈을 꾸어 주는 곳이지요. 이제 아저씨에게 남은 거라고는 책상 하나, 낡은 침대 하나, 간담거리는 의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 das kleine Portemonnaie → ‘그 작은 지갑’ ⇒ 가난뱅이
- das, vom, kleinen, diesen, seine, einem → 생략
- einem Tisch → 책상 하나
- einer ollen Matratze → 낡은 침대 하나 (매트리스 ⇒ 침대)
- einem klapprigen Stuhl → 간담거리는 의자 하나
- 추가설명 → 전당포는 물건을 맡아 두고 돈을 꾸어 주는 곳이지요.

(6) ST: Doch auch dieses Geld war schnell wieder in neues Lesefutter investiert. Und je mehr Bücher der kleine Herr Fuchs in sich hineinstopfte, desto größer wurde sein Appetit.

TT: 그런데 이걸 어찌죠? 뱃속에 책을 쏘옥쑤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먹고 싶은 마음도 쑤옥쑤 더 자라났어요.

- Doch auch dieses Geld war schnell wieder in neues Lesefutter investiert. → 전체 문장 생략
- 추가된 문장: 그런데 이걸 어찌죠?
- X → 쏘옥쑤, 쑤옥쑤 의성어 추가됨

(7) ST: Da sein Magen mittlerweile einfach ständig knurrte, konnte sich der kleine Herr Fuchs auch aufs Lesen nicht mehr konzentrieren.

TT: 여우 아저씨는 밤낮없이 배가 고팠고, 힘이 없어 책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 sein, der, kleine → 소유대명사, 정관사, 형용사 생략
- ständig → 지속적으로/끊임없이 ⇒ 밤낮없이
- aufs Lesen nicht mehr konzentrieren
-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없었다
- ⇒ 힘이 없어 책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8) ST: Jede Zeile musste er zweimal lesen und das war ganz schön anstrengend.

TT: 눈에 힘을 주어 두 번씩은 읽어야 했는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지요.

- Jede Zeile → 생략

er	→	'그 (여우 아버지)' 생략
das	→	그건
(추가 된 내용)	→	눈에 힘을 주어

(9) ST: Doch der kleine Herr Fuchs war ein Fuchs und beobachtete schon seit Langem ein Haus, in dem unglaublich viele Bücher in Regalen standen.

TT: 그렇지만 아버지가 누구인가? 피쟁이로 유명한 여우잖아요! 어저씨는 벌써 오래 전부터 한 건물을 눈여겨보아 두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책장들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der	→	정관사 생략
ein, ein	→	부정관사 생략
kleine	→	형용사 생략

(10) ST: Es waren noch mehr als in seinem Lieblingsdelikatessladen, der „Buchhandlung an der Ecke“.

TT: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단골로 다녔던 길모퉁이서점보다 열 배 백 배 아니 천 배나 많은 책이 있었어요.

seinem	→	소유대명사 생략
der	→	정관사 생략

(11) ST: Schon während er sich eben diesem Haus näherte, stieg ihm eine köstliche Papierwolke in die Nase.

TT: 그 건물에선 구수한 종이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diesem	→	지시대명사 생략
eine	→	부정관사 생략
köstliche	→	형용사 생략
die	→	정관사 생략

## 5. TT 결과를 문장 단위로 분석

## 6. 결론

독일어의 정관사 부정관사 뿐만 아니라 형용사와, 소유대명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많이 생략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직 연구의 분석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어휘 성분과 문장 단위 뿐만 아니라 텍스트 단위로 넓혀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거 같다.

■ 참고문헌 ■

- 안인경 (2014). 한정성-불확실성-제 2의 창작 문학텍스트의 한,독 번역에서 나타나는 예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62(0), 197-222.
- 안인경 (2015). 번역 가독성 개념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74, 147-168.
- 양용준 (2013). 영어와 한국어의 한정사 구조 비교. 2013년 21세기영어영문학회·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272-282.
- 허남영 (2010). 교육학 :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교육 -한국어의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독일어 대응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49), 283-304.
- Biermann, F. (2015) 『Herr Fuchs mag Bücher』, mixtvision Verlag.
- Imo, W. (2016) 『Grammatik, Eine Einführung』, Metzler Verlag.
- 비어만, 프란치스카 (2020) 『책 먹는 여우』, 김경연 옮김, 김영사.
- 허용 (202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의 이해』, 소통.

## 〈토론〉 “독-한 번역에서 나타난 독일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번역 양상 분석”에 대한 토론문

유미희(고려대학교)

독일어 문장에서 관사가 들어있지 않는 문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독일어에서 관사의 해석은 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그간 언어학적 측면에서 독일어 관사의 용법이나 한정성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로 관사의 용법이나 의미를 일괄적으로 다루거나 독일어 문장 안에서의 각각의 해석 혹은 한국어로의 번역, 한국어와의 비교 등이 이루어져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해서 독일어를 접하는 외국인에게는 특히 번역의 경우 가장 어려운 문법 영역이 관사 체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토론하게 될 발표자의 논문인 ‘독-한 번역에서 나타난 독일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번역 양상 분석’의 경우에도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과도 관련된 독일어 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게 되는 이 논문은 전체 원문 독일어 텍스트에 들어 있는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모두 찾아내고 그것이 번역문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독일어 관사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독일어와 한국어는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관사라는 범주 안에서 한 권의 소설책을 비교·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 양을 떠나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논문의 경우에서도 이 체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문 2장 앞부분에서는 범주적으로 두 종류의 관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어 뒷부분에서는 독일어 관사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토론자로서 독일어 관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보완, 예를 들어 관사의 기능면이나 사용면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점을 먼저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발표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논문에서 ST으로 Franziska Biermann의 『Herr Fuchs mag Bücher』를 선택했고 TT으로는 『책 먹는 여우』(김경연 옮김)를 선택했는데 독일어 관사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면서 이 소설책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2장에서 보면 관사의 정의나 범위를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에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분석에 따르면 7쪽의 (3) 분석에서 dieser(생략)이라든지, 9쪽의 (8) 분석의 경우 das(그건<...>), 10쪽의 (11) diesem(지시대명사 생략) 등으로 관사 분석과 동시에 대명사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문법에서도 ‘관사’와 ‘대명사’를 그 의미상, 구조상 공통점으로 동일한 품사류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3장에서 정관사 번역 양상의 경우에는 ST나 TT 모두 전체 문장을 제시해 줘서 그 문장 안에서의 비교 분석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부정관사 번역 양상의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제시하지 않고 어떤 부정관사가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혹은 번역이 생략되었는지를 단순하게 언급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번역 양상 분석 결과를 통해 통계상으로 정관사의 경우는 97% 이상이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된 반면에 부정관사의 경우 30% 이상이 번역이 되었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다른 (독일어 소설)책의 관사 번역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를 통해 어떤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신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 ‘국민’과 ‘人民’의 번역을 위한 기고

ZHAO XIN(한국외국어대학교)

### 1. 들어가기

인간을 둘러싼 수많은 일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인간들은 새로운 정치 세상을 만들고 싶을 때 새로운 정치언어부터 고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 그리고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조치의 진행됨에 따라 노동 계급, 인민 정권, 사회주의 건설 등 새로운 정치적 표현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언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에서 사용되는 정치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습관적으로 굳어진 것이므로 그 표현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는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한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의 정치언어도 ‘정치적 의미’가 상이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중언어사전에서의 정치언어는 ‘어의 signification’ 차원의 등가에만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된 정치언어의 번역은 반드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치언어 번역에서 양대 축을 이루는 것은 출발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로 함) 분석과 도착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로 함)이고 물론 번역과정에서 ST와 TT 사이에는 정치적 전환 현상이 일어난다. ST의 정치언어를 어떻게 TT로 전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번역자의 머리 속에는 여러 표현이 각 축전을 벌이고 있다. 표현들 사이의 각축전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며 벌이는 심각한 이념의 각축전이다(신지영, 2018: 15).

링컨이 1863년에 행한 게티스버그 연설에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구절이 있듯이, ‘people’는 민주주의의 주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남북분단 전에는 ‘인민’으로 번역되었으나 이후에는 ‘국민’으로 번역되었다<sup>1)</sup>. 이로부터 정치적 작업에서 이런 주권자의 호칭과 그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또한 주권자의 호칭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만으로도 강한 호소 기능이 자리하게 된다. 특히 호소 텍스트에 편입된 연설문에서 주권자의 호칭은 청자의 감성에 호소하여 원하는 바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국민’과 ‘인민’, 중국에서 ‘國民’과 ‘人民’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한중 정치 연설문에 나타나는 ‘국민’과 ‘人民’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한중 정치 연설문과 중한 정치 연설문은 이미 출판된 『한국의 연설문 베스트』(2004),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2003), 『중국의 연설문 베스트』(2016)에 수록된 것이기 때문에 번역 품질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1) 그간 연구사에서 밝혀진 대로 해방 직후 ‘인민’은 특별히 어떤 편향의 정치색을 지닌 용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 이후 “좌파들의 경우는 ‘인민’을 포괄적 의미가 아닌 다소 제한된 의미로 사용한다. 임화, 박헌영 등 좌파 이론가들은 ‘인민’을 노동자나 농민, 기타 중간층이나 지식계급 등을 포섭하는 의미로, 피착취 사회계급이라는 사회계급적인 요소가 보다 더 많이 내포된 개념으로 본다”(박지영, 2013: 64). 즉 ‘인민’은 차별화하는 정치화된 개념으로 변질되어 가는 반면에 국가에 일체감이 부여되는 ‘국민’이

## 2. 정치적 이데올로기어의 특성과 번역

정치언어의 주체는 정치인이다. 정치언어는 정치인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확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서 정치 레토릭, 정치선전, 정치연설, 정치주장이나 명령 등에서 나타난다. “정치언어는 정치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뜻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정치적 어휘를 뜻한다”(김종영, 2004: 207-208). 전자는 특별한 정치적 어휘에만 제한되지 않는 광범위하다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행위는 공식적인 정치제도나 조직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후자의 의미로 사용될 때 정치언어는 정치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고유의 어휘로 지정된다.

정치적 어휘는 크게 이데올로기어, 기관어, 정치 영역의 전문어로 구분된다(김종영, 2004: 208-211). 이데올로기어<sup>2)</sup>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며 흔히 언어 표현에 반영되기도 하고 이를 이데올로기어로 부른다. 이데올로기어는 권력자의 현실 세계 인식에 기초한 권력의지의 반영물로서 그 속에 정치적 신조나 원칙이 관철된다. 이데올로기어에는 그 시대의 혼이 담길 때 그 만큼 호소력 있어서 국가 체제 강화와 구성원의 공속감 유지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어는 감성적 호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설명적 기능보다 정서적 기능이 더 강조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권력관계에만 치중하고 세상의 변화나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이데올로기어는 정치혐오증을 불러일으킨다(박성준, 2015: 24-25). 그러나 김동조(2018: 47)가 언급했듯이 “커뮤니케이션 윤리에 맞는 언어의 보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치 분야에서는 언어의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정치언어의 한 부류인 이데올로기어의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다. 체제와 이해방식의 차이가 따라 상이한 권력주체가 동일한 이데올로기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이것은 정치의 본질과 연관된다.

김한식(2010)에서는 각 언론사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용어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의 개입이 무조건 바람직하거나 특정된 적절한 방식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충실한 번역’과 ‘자유로운 번역’ 사이의 원천적인 논란이다. 일상적이지 않고 고유한 개념, 감정, 태도가 깃들여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어의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불완전하지만 번역자는 번역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Nord(1997, 60)는 ‘번역브리프(translation briefs)’라는 개념을 통해 이런 필요성을 강조한다. “번역브리프란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생산하기 앞서 대상독자 특성과 번역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도착텍스트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의 총합을 가리킨다”(정호정, 2016: 23). 번역브리프에 흔히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된다.

- 1) 의도된 텍스트 기능
- 2) 도착텍스트 독자
- 3) 텍스트 수용의 예상 시점 및 장소
- 4) 텍스트가 전달될 매체
- 5) 텍스트 생산 또는 수용의 이유 혹은 동기

위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번역자는 ST의 성격을 정하고 나아가 이를 번역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및 방법을 세운다. Nord가 주장하는 ‘번역브리프’가 오늘날의 정치 연설문에 포함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어의 번역에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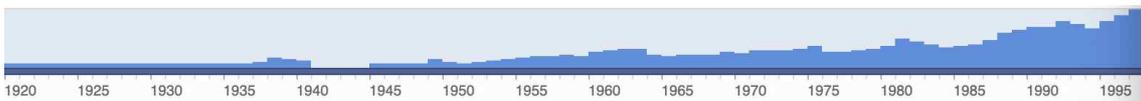
2) 양동안(2020, 19)에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인간과 사회의 현상을 해석·평가하고 인간과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원론적 지침이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복합체”로 정의되었다. 이데올로기에는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관념뿐만 아니라 주관적 관념까지 섞여 있으며 이에 가장 가까운 동양어는 사상이나 세계관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의식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에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제 연설문은 명시적으로 ST 수용자를 겨냥한 호소 텍스트이므로 번역브리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번역브리프와 용인성 관련된 내용을 보충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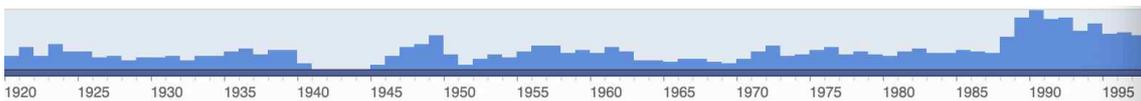
### 3. ‘국민’과 ‘인민’ 및 ‘国民’과 ‘人民’의 개념 변화

#### 3.1 한국어에서의 ‘국민’과 ‘인민’의 개념 변화

한국어에서 ‘국민’과 ‘인민’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낱말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민’과 ‘인민’의 실현 빈도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한반도의 남북 분단의 경험과 관련 있다. 이러한 사실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sup>3)</sup>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곳에 ‘국민’과 ‘인민’을 넣어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표1〉 연도별 신문에 나타나는 ‘국민’



〈표2〉 연도별 신문에 나타나는 ‘인민’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 주민 집단 또는 그 출신을 호칭하는 ‘국민’과 ‘인민’은 특별히 정치적 색깔을 지닌 용어가 아니며 특히 ‘인민’이 ‘국민’보다 실현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치상황이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지면서 ‘국민’과 ‘인민’은 정치적 색깔을 지닌 용어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좌우대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익에서는 ‘국민’, 좌익에서는 ‘인민’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드러났다(김성보, 2009: 72 참조).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자들은 ‘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인민’을 선호하는 반면에 민주주의자들은 국가에 유용하게 종속되는 ‘국민’을 선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좌우대립은 점점 심화되어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좌익세력이 크게 쇠퇴하면서 ‘인민’이라는 용어도 한국의 정치담론에서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정부와 교육기관들이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그에 반대할 것만을 교육·홍보했으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양동안, 2011: 232).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인민’은 사회주의 언어 내지는 공산주의 언어로 정리되어 점차 ‘혐오스러운’이라는 부수 의미 connotation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국민’은 ‘인민’을 대신하는 주도적 이데올로기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국민’과 ‘인민’을 구분짓는 것은 분명히 역사와 이데올로기와 관련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와 국교 수립 후<sup>4)</sup> 과거 적대 관계에 있던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하면서<sup>5)</sup> 한국사회에서 ‘인민’이라는 용어는 새롭게 정의되면서 주요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국민’과 ‘인민’ 그리고 ‘国民’과 ‘人民’의 정의를 규명하기 위해서 한중

3)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2011년에 정식 서비스로 오픈되었고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의 신문을 스캔해 검색까지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뉴스 아카이브이다.

4) 한국은 유고슬라비아(1989), 체코슬로바키아(1990), 불가리아(1990), 루마니아(1990), 알바니아(1991) 등과 잇달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중국과는 1992년 8월 수교하였다. 또 베트남과는 1992년 12월에 수교를 맺었다.

5)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가 ‘인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냉전 때 독일도 서독 국민, 동독 인민 등으로 표기하고 소련 인민, 중국 인민, 폴란드 인민, 쿠바 인민, 베트남 인민 등으로 표현한다.

수교 후 양국에서 발행된 사전을 중심으로 이러한 용어들의 사전적 의미와 그 변화를 알아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그 표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표3〉 한국9 사전에서 본 ‘국민’과 ‘인민’의 정의

년대	사전명	사전적 정의
1999	『국어대사전』, 남광우 외	국민: 동일한 통치권 밑에 결합되어 국가를 조직한 인민. 같은 국적을 가진 인민. 인민: 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국민. 민인. 시민. 백성. the people. ②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
2004	『국어대사전』, 이희승	국민: ① 동일한 통치권 밑에 결합되어 국가를 조직한 인민. 인민: 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백성. 민인 ②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
2011	『동아 새국어사전』, 이기문	국민: ①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결합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민. 인민. 인민: 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국민. 민인. 백성. ② 공화국의 구성원인 자연인, 또는 군주국 따위의 피치자.
202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인민: ①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로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를 이른다. ②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

대표적인 한국어사전 네 곳에 실려있는 ‘국민’의 정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자질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한 나라의 통치권’ 자질이 세 곳이나 담겨있다. 이에 반해서 ‘인민’은 ‘국가’보다도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도드라진 자질이 ‘피지배’ 또는 ‘피치자’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국민’이 가치 중립적인 의미를 품고 있음에 반해서 ‘인민’은 통치와 피치의 개념이 들어있는 이데올로기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국민’과 ‘인민’이 구분되어 있듯이 중국어에서도 ‘国民’과 ‘人民’이 존재한다. 중국사회에서 ‘人民’은 정치권력과 결합된 정치적 주체로 간주되어 시기에 따라 계속 새로이 정의되었다. 왜냐하면 ‘人民’은 내부의 관료주의나 봉건주의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국주의와도 투쟁하였기에 ‘人民’의 개념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人民’이라는 개념은 역사 발전 속에서 계속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人民’은 사회주의의 주체이며 ‘애국’의 주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장윤미, 2015: 98). 즉 ‘人民’은 과거의 사회주의 혁명에 박혀있는 개념이 아니라 개혁시대에도 여전히 중국 체제의 속성을 증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집권당인 공산당은 ‘人民’과 결합한 모델로 사회변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공산당은 ‘人民’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고 ‘人民’의 지지로 기반으로 한다. 한편 ‘人民’은 공산당이 ‘사회주의’의 목표를 실현하는 조력자이며 공산당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어서 중국에서 발행된 사전을 중심으로 두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 ‘国民’과 ‘人民’의 정의를 규명해 보자.

### 3.2 중국어에서의 ‘국민’과 ‘인민’의 개념 변화

〈표4〉 중국 사전에서 본 ‘国民’과 ‘人民’의 정의

년대	사전명	사전적 정의
2001	『新华字典』, 第三版	国民: ① 公民 ② 国人; 本国的人民 人民: 百姓; 以劳动群众为主体的社会基本成员

2002	『现代汉语词典』, 增补版	国民: 具有某国国籍的人就是这个国家的国民 人民: 以劳动群众为主体的社会基本成员
2016	『现代汉语词典』, 第七版	国民: 具有某国国籍的人就是这个国家的国民 人民: 以劳动群众为主体的社会基本成员
2018	『现代汉语规范词典』, 第三版	国民: 具有某国国籍的人就是这个国家的国民 人民: 创造历史、推动人类社会进步的所有社会基本成员的总称

2001년에 발행된 『新华字典』에 ‘国民’은 ‘公民’으로 정의된다. ‘公民’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면서 국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법적 개념으로 한국어의 ‘국민’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국어의 ‘国民’과 ‘公民’ 그리고 한국어의 ‘국민’은 의미적 등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의 ‘国民’은 역시 국가적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한국어에서의 ‘국민’ 개념과 유사하게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짐으로써 그 국가의 ‘国民’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2002년과 2016년에 발행된 『现代汉语词典』에 등장하는 ‘人民’은 ‘劳动群众을 주체로 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의된다. 또한 2018년 발행된 『现代汉语规范词典』에서 ‘人民’은 ‘역사와 인류사회를 발전시키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어휘적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어 ‘人民’ 개념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이나 민족 등 훨씬 다양한 집단의 구성을 포함하는 추상적이며 이상적인 개념이 된 것이다. 더불어 국가의 소멸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국경을 넘어선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이념적 개념도 담지하고 있다(이나미, 2005: 84 참조).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국민’과 중국어의 ‘国民’은 국가적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개인의 ‘국적’이 그 국가의 ‘국민’ 또는 ‘国民’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국민’은 국가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법적 개념이고 중국에서 ‘国民’ 대신에 ‘公民’이 법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한국어의 ‘인민’과 중국어의 ‘人民’은 상이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는 낱말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국에서 계급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국민’의 부분집합으로서 ‘피지배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어로 간주된다. 반면에 중국에서 ‘人民’은 ‘劳动群众을 주체로 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최근에 국가를 넘어선 보편적 인간을 전제로 한 추상적이며 선언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한중 양국에서 사용되는 ‘국민’과 ‘인민’ 그리고 ‘国民’, ‘人民’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만 고찰해도 그 부수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한중 양국의 정치 연설문에서 이런 이데올로기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살펴보자.

#### 4. ‘국민’과 ‘人民’의 번역 분석

외교관계나 국제회의에서 자국의 이데올로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다른 국가의 구성원을 지칭 호명할 경우 국가 체제나 주체와 상관없이 자국의 이데올로기어를 적용시킨다. 이것은 언어 습관의 일종으로 인간의 심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정치 연설문에서 자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모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중국 정치 연설문에서 ‘국민’ 대신 ‘人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어서 중국 정치 연설문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人民’의 한국어 번역을 살펴보자.

ST 1: 中国人民热爱和平, 中国的发展需要和平.

TT 1: 중국 국민은 평화를 사랑하며, 중국이 발전하는 데에도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00)

ST 2: 韩国人民也在致力于开创‘国民幸福时代’、创造‘第二汉江奇迹’的韩国梦。

TT 2: 한국 국민도 역시 국민 행복시대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의 꿈을 창조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 명연설문 베스트』, 29)

ST 1과 ST 2에 제시된 것처럼 중국 정치 연설문에 나타나는 한국과 중국의 구성원은 모두 ‘人民’으로 지칭된다. 이는 앞서 언급된 자국의 이데올로기어의 주도적 지위와 상관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인민’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T 1나 ST 2에 나타나는 ‘人民’은 ‘인민’ 대신 ‘국민’으로 번역되었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주체의 형성과정에서 ‘인민’은 한국사회에서 혐오스러운 용어로 기피되어 그 용어에 덧씌워진 정서에 민감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김성보, 2009: 76-77). 한편 ‘국민’이라는 이데올로기어가 현재 한국의 정치적 배경에 부합하기 때문에 번역자는 ‘국민’이라는 이데올로기어를 선택하였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번역에 있어서도 자국의 이데올로기어가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ST 3: 中韩建交10年来两国关系取得显著成果, 是两国人民共同努力的结果。

TT 3: 중한 양국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0년 동안 양국 관계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국민이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228)

ST 4: 长期以来, 中美两国人民一直相互抱有浓厚的兴趣和友好的感情。

TT 4: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 미국 양국의 국민들은 줄곧 서로에 대해 깊은 흥미와 우호적인 감정을 지녀왔습니다. (『중국어 명연설문 베스트』, 101)

ST 5: 从这一刻起, 中葡两国人民的友谊和两国的友好合作也将在新的起点上向前发展。

TT 5: 지금부터 중국과 포르투갈 양국 인민의 우의와 양국의 우호협력 또한 새로운 기점상 앞으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중국어 명연설문 베스트』, 113)

ST 3과 ST 5에 제시된 것처럼 중국이 포함된 두 국가의 구성원은 중국 정치 연설문에는 모두 ‘人民’으로 호명된다. 이는 앞서 언급된 자국의 이데올로기어의 주도적 지위와 상관있다. ST 3이나 ST 4에 나타나는 ‘中韩人民’과 ‘中美人民’은 ‘인민’ 대신 ‘국민’으로 번역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주체를 호명함에 있어서 ‘인민’이라는 이데올로기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TT 5에서는 ‘中葡两国人民’을 ‘중국과 포르투갈 양국 인민’으로 번역되었다. 그야말로 번역자는 치열한 좌익대결의 무대에 살고 있는 TT 수용자가 ‘인민’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TT 수용자의 용인성을 고려하면 TT 5의 ‘인민’은 ‘국민’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ST 6: 我谨代表中国政府和人民, 热烈祝贺可持续发展世界首脑会议的召开, 并衷心感谢南非政府和人民为此次会议所作的努力。

TT 6: 저는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의 개최를 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와 국민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06)

ST 7: 中国人民欣赏美国人民的开拓进取精神, 钦佩美国人民在建设国家中取得的骄人业绩。

TT 7: 중국인은 미국인의 진취적인 정신을 좋아하고, 미국 국민들이 국가를 건설하면서 이루어내 자랑스러운 업적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명연설문 베스트』, 101)

자국의 이데올로기어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함으로 중국 연설문에서 다른 국가의 구성원을 역시 ‘人民’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ST 7에 나타나는 ‘中国人民’은 ‘중국인’으로, 같은 문맥에서 미국 구성원을 지칭함에 있어서 ‘美国人民’은 각기 ‘미국인’과 ‘미국 국민’으로 번역되었다. ST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어는 TT로 반드시 이데올로기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中国人民’과 ‘美国人民’을 이데올로기어인 ‘중국 인민’이나 ‘미국 인민’ 또는 일반 용어인 ‘중국인’이나 ‘미국인’으로 옮기는 것은 번역자의 몫이다. 하지만 동일한 문맥에서 ‘美国人民’을 ‘미국인’과 ‘미국 국민’으로 옮기는 것은 문법의 교란뿐만 아니라 인식의 혼란이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번역자를 통일성 있게 번역하여야 한다.

ST 8: 中国人民愿与亚洲各国人民一道, 携手共创新世纪亚洲的美好未来。

TT 8: 중국 국민은 아시아 각국 국민들과 함께 21세기 아시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79)

ST 9: 伟大的亚洲人民有着逆境自强的优良传统。

TT 9: 위대한 아시아인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곳곳하게 맞서는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98)

ST 10: 亚欧会议成员在政治、经贸、科技、文化、教育托各个领域, 进行了卓有成效的对话与合作, 促进了两大洲人民之间的了解与友谊。

TT 10: ASEM 회원국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대화와 협력을 실시하여 양 대륙 사람들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80)

ST 8부터 ST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人民’은 국가보다 큰 집단인 ‘대륙’과 결합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중국사회에서 ‘人民’은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 이해되어 국가 개념을 넘어선 보편적 인간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TT 8에 나타나는 ‘각국’은 ‘아시아’와 ‘국민’ 사이의 다리 역할함으로써 ‘아시아’와 ‘국민’의 묶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ST 9와 ST 10에 나타나는 ‘亚洲人民’이나 ‘两大洲人民’은 모두 비정치적 용어인 ‘인’과 ‘사람’으로 번역되었다. ‘人民’과 달리 한 국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중심적 개념으로 특정한 국적을 지닌 자국민만 가리키고 국가보다 큰 집단의 구성원과 결합되어 사용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한 대륙에는 여러 국가가 분포되어 있어서 ‘국민’으로 한 대륙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을 가리킬 수 없다는 것이다.

ST 11: 环境与发展问题牵动着全世界人民的心。

TT 11: 환경과 발전 문제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14)

ST 12: 这次大会的召开, 是全世界妇女, 也是全世界人民的一件大事。

TT 12: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여성의 행사이자, 전 세계인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150)

ST 11과 ST 12를 보면 ‘人民’은 국가나 대륙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인 ‘전 세계’와 결합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중국사회에서 ‘人民’은 인종과 국가의 개념을 초월하여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키는 보편적 인간을 전제로 한 추상적

인 개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ST 11과 ST 12에 나타나는 ‘世界人民’은 동일하게 비정치적 용어인 ‘세계인’으로 번역되었다. 역시 국가적 질서에 종속되는 ‘국민’은 국가보다 큰 집단과 함께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국민’과 ‘人民’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리까지 포함하여 사용되는 이데올로기어이지만 ‘人民’은 국가에 종속되는 개념을 넘어서 지역이나 민족 등 훨씬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대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 13: 金大中总统和金正日委员长以政治家的远见卓识, 顺应南北人民的意愿, 成功地举行了首脑会晤, 使延续半个多世纪的半岛紧张形势明显走向缓和。

TT 13: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정치인으로서의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남북한 국민의 바람에 따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반세기 넘게 지속되었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234)

분단대립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상호 배타적인 ‘국민’과 ‘인민’이 남북한의 주체가 되어 외교관계나 국제회의에서 이러한 주체만의 번역도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체를 비롯한 이데올로기어는 주권의 근본에 대한 상이한 이해방식의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ST 13에 제시된 ‘南北人民’은 ‘남북한 구성원’을 지칭하며 TT 13에서는 ‘남북한 국민’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에 자국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표현을 작동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보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며 북한의 구성원도 한국의 ‘국민’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북한 구성원에 대해 ‘인민’을 안 쓰는 이유는 단지 한국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체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ST 14: 清华的广大师生心系祖国和人民, 为祖国科学教育事业的发展, 为中华民族的解放和振兴作出了重要贡献。... 在我国革命、建设和改革的各个历史时期, 许许多多的清华人, 响应党和人民的召唤, 在各条战线上艰苦奋斗, 为祖国和人民建功立业。他们是清华大学的光荣也是中国知识分子的骄傲!... 你们要成为祖国和人民需要的人才, 既要靠老师们的辛勤培育, 更要靠自己的刻苦努力。... 闻一多先生说: “诗人主要的天赋是‘爱’, 爱他的祖国, 爱他的人民。”“要成为一个有志和有为的青年, 爱祖国、爱人民是首要的要求。要坚持向历史和现实学习, 向人民和社会学习, 既勇于开拓, 又谦虚谨慎, 善于在集体的奋斗中开创新的事业。... 你们一定要发扬从自己做起、从现在做起的精神, 既富千崇高理想, 又始终脚踏实地, 诚诚恳恳地为祖国和人民做好每一件有意义的事情。我相信, 在祖国改革开放和现代化建设的广阔舞台上, 年轻一代一定会干得很好, 一定能创造出无愧于时代和人民的业绩。

TT 14: 칭화대학의 사제들의 마음은 조국과 민족에 단단히 이어져 조국의 과학교육사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 해방과 부흥을 위해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 중국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개혁의 역사적 시기마다 수많은 칭화인들은 당과 국민의 부름에 응하여 각각의 전선에서 끝까지 노력하여 조국과 국민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 여러분이 조국과 민족에게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성실한 가르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갖고 닦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원이뒤 선생은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능은 사랑입니다.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의지가 굳고 전도유망한 청년이 되려면 우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 과거와 현재를 배우고, 민족과 사회를 배우며, 과감히 새로운 것을 개척하면서도 겸손함과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체 투쟁의 대열에 함께 서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데에도 능해야 할 것입니다. ... 여러분은 ‘나부터,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하며,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변함없이 착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의미있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저는 조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이라는 큰 무대에서 시대의 새로운 주역인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일을 해줄 것이며, 시대와 민족에 부끄럽지 않은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어 명연설 베스트』, 206-210)

ST 14에 ‘人民’이라는 이데올로기어가 중복되며 연설문에서 겹겹이 나타났다. ‘人民’이라는 용어에는 이데올로기를 불

러일으키는 호소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즉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人民’을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면 감정의 톤을 고조시켜 그 호소 효과에 기여한다. 이는 연설문 텍스트가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 집적 현상이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되는 ‘人民’은 각기 ‘국민’과 ‘민족’<sup>6)</sup>으로 번역되었다.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표준국어대사전』)으로 정의되고 그 용어 자체만으로도 강한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갖는다. 즉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어에는 강한 호소 기능이 자리하게 되어 ‘人民’과 역동적 등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T 수용자의 경우 ‘국민’과 ‘민족’이 거의 일치하지만 실현 빈도수 면에서 ‘민족’이 압도적으로 출현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祖国和人民’은 언어를 이루는 대신에 한국어에서 ‘조국과 민족’이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번역자가 한국어와 중국어 간 언어적 관계 어휘망의 유형의 상이함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번역은 TT에서의 자연스러움이 확보되어 TT 수용자에게는 맞춤번역으로 볼 수 있다.

ST 15: 首先, 我謹代表中国政府和中国人民, 并以我个人的名义, 向在座的各位, 向全体韩国国民, 致以诚挚的问候和良好的祝愿!

TT 15: 우선 저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개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인사와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명연설문 베스트』, 24)

ST 15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대에서 행했던 연설의 도입부에서 발췌된 것이다. 시진핑은 도입부에서 ‘호감사기’<sup>7)</sup>를 이용해 청자들의 호감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韩国国民’<sup>8)</sup>이라는 표현은 청자에게 친밀감을 주면서 호감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TT 15에서는 TT 수용자가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국민’으로 번역되었다. 이어서 한국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국민’에 대한 중국어 번역을 살펴보자.

ST 16: 저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면서, 이 벽찬 소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TT 16: 在此, 我谨向各位国民表示衷心的感谢, 同时庄严承诺, 我一定会与各位国民一起完成这一艰巨的历史任务。(『한국의 연설문 베스트』, 12)

ST 17: 돌이켜 보면 작년 봄의 극심했던 황사는 우리에게 피해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동북아 황사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TT 17: 回想起来, 去年春天尤为严重的沙尘暴给我们带来了巨大的损失, 但同时也向国民敲响了东北亚沙尘暴极为严重的警钟。(『한국의 연설문 베스트』, 90)

ST 16은 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발췌된 것이다. 역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의 반복을 통해 대중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고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ST 16과 ST 17에 나타나는 ‘국민’은 동일하게 ‘国民’으로 번역되었다. ‘人民’과 달리 중국사회에서 ‘国民’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지 않는 일반 용어이지만 ‘국민’과 유사하게

6) 국민은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이며, 민족은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사회학적 개념이다. 국민은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개념인 민족과 구별된다. 한국인의 경우 국민과 민족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국민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7) 동일한 연설문에서 ‘韩国国民’이라는 호칭은 도입부에서만 나타났고 본론 부분에서는 ‘韩国人民’으로 지칭하였다.

8) 고대 수사학에서 연설문 도입부에서 청자를 준비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청중의 ‘호감사기’, ‘관심끌기’, ‘이해돕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연설자가 감사, 유감, 기쁨 등을 나타내는 것은 호감을 사는 직접적인 방식이다(백미숙, 2002: ).

모두 국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써 의미상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ST 18: 지금 이 시각에도 감염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검역활동과 격리치료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방역관, 계기관 여러분과 의료인 여러분에게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큰 보람과 긍지로 삼고 맡은 바 소임에 더욱 정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T 18: 在此, 我谨与全体人民一起向在这一刻也不顾有可能感染的危险, 献身于检疫和隔离治疗活动的各位表示衷心的感谢和亲切的慰问。..... 因为有各位的献身, 我国国民才能安全地生活。希望各位以此为光荣和自豪, 更加尽职尽责地完成任。 (『한국의 연설문 베스트』, 176)

ST 18은 사스 사태 관련 연설문에서 발췌된 것이고 여기서 언급한 ‘국민’은 ‘한국 국민’을 가리킨다. 두 번 나타나는 ‘국민’은 TT 18에서는 각각 ‘国民’과 ‘人民’으로 번역되었다. 중국사회에서 ‘国民’과 ‘人民’이 모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한 정치 연설문에서 ‘国民’과 ‘人民’을 혼용되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면 TT 수용자로부터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고 심지어 상황 인식과 혼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ST 18에 나타나는 ‘국민’은 동일하게 ‘国民’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ST 19: 이곳에 오기 전, ‘사스(SARS)’ 퇴치를 위한 중국 국민들의 일치된 노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엄청난 재난을 극복해내신 중국 국민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TT 19: 在来北京之前, 我就听说了许多关于中国人民万众一心抗击非典的报道, 借此机会, 我谨向以不屈不挠的意志和努力克服巨大苦难的中国人民致以崇高敬意和亲切的慰问。 (『한국의 연설문 베스트』, 208)

중국사회에서 ‘人民’이 지배적 정체성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ST 19의 ‘중국 국민’은 모두 ‘中国人民’으로 번역되었다.

ST 20: 이라크 국민들의 가슴속에 한국 국민들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심어주십시오.

TT 20: 希望你们能够在伊拉克人民心中种下韩国国民转达的和平的种子。 (『한국의 연설문 베스트』, 126)

TT 20에 나타나는 이라크나 한국의 구성원은 모두 ‘국민’으로 지칭되었고 그것이 각기 ‘伊拉克人民’과 ‘韩国国民’으로 다르게 번역되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번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자국의 이데올로기어가 작동됨으로써 ‘이라크 국민’을 ‘伊拉克人民’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중국사회에서 이라크의 인지도는 깊지 않는 반면에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중국과 밀접한 사회관계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한류 붐으로 인해 중국에서 한류의 유행을 업는 신조어까지 생산될 정도였다. 그중 ‘국민’이라는 낱말이 중국어에 녹아들어 중국인들이 지장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TT 수용자의 입장에서 ‘韩国国民’은 더 자연스러운 표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5. 나가기

‘국민’은 한국의 주체로서, ‘人民’은 중국의 주체로서 상이한 이데올로기의 포괄적 대변체이다. ‘국민’과 ‘人民’이라는 이

9)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에 ‘欧巴(오빠)’, ‘欧妮(언니)’, ‘思密达(-습니다)’, ‘국민(国民)’과 같은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보인다. 그중 ‘국민’은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을 표현으로 중국에서 그대로 녹아 ‘国民女神(국민여신)’, ‘国民老公(국민 남편)’, ‘国民女婿(국민 사위)’이라는 신조어가 파생되었다.

데올로기어에는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는 본 연구를 출발시킨 근본적인 요소이고 ‘국민’과 ‘人民’이 이데올로기적 각축을 벌이며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국민’과 ‘人民’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정치 연설문에 나타나는 ‘국민’과 ‘人民’의 번역

중국 정치 연설문	한국 정치 연설문
中国人民: 중국 국민 韩国人民: 한국 국민 南北人民: 남북한 국민 其他国家人民: 국가명+국민 大洲人民: 대륙명+인/대륙명+사람 世界人民: 세계인 호소 기능의 人民: 국민/민족	한국 국민: 韩国国民 중국 국민: 中国人民 기타 국가 국민: 국가명+人民

(위 도표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민’과 ‘人民’의 개념은 서로 상의함으로 일대일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 ‘국민’은 국가에 종속된 개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국가보다 큰 집단의 구성원을 가리킬 수 없는데 반해 ‘人民’은 보편적 인간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써 국가뿐만 아니라 대륙이나 세계와 직접 결합하여 사용된다. 예컨대 ‘亚洲人民’, ‘世界人民’은 한국어로 ‘아시아인’, ‘세계인’이라는 일반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둘째, 중국 정치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人民’이라는 이데올로기어는 한국어로 옮길 경우 ‘국민’이 압도적으로 출현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인민’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과 의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한국 구성원을 가리킬 경우 우선적으로 자국의 이데올로기어를 작동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만 번역된다.

셋째, 주권자 표현에 있어서 자국의 이데올로기어를 작동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TT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가 허다하다. 번역자는 ‘선택적 번역 전환(optional translation shift)’을 통해 양국의 정치체계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특히 정치 연설문 텍스트는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호소 텍스트로서 번역자는 그 주체 표현을 청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전환해야 한다.

넷째, ‘국민’과 ‘人民’에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 연설문에서 동일한 집단을 가리킬 경우 두 이데올로기어를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혼용은 TT 수용자로부터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고 심지어 상황 인식과 혼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체제를 수립하는 가운데 형태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어도 ‘정치적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번역자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어 번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있는 시점이다. (보충 필요)

## 부록

연설문명	연설자
中韩友好认识早餐会上的讲话 (한중 우호 인사 조찬회)	唐家璇(탕자쉬엔)
博鳌亚洲论坛年会上的讲话 (보아오BFA포럼 제1차 연차 총회)	朱镕基(주룽지)
第三节亚洲会议上的讲话 (제3차 아셈정상회의)	朱镕基(주룽지)
关于非典特别会议上的讲话 (아세안 사스 대책회의)	温家宝(원자바오)
可持续发展世界首脑会议上的讲话 (지구정상회의)	朱镕基(주룽지)
联合国第四届世界妇女大会上的讲话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	江泽民(장쩌민)
韩国经济团午餐会上的讲话 (한국 경제 4단체 주최 오찬회)	朱镕基(주룽지)
清华大学90周年校庆大会上的讲话 (칭화대학 개교 90주년 경축행사)	温家宝(원자바오)
首尔大学的演说 (서울대학교 연설)	习近平(시진핑)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第16任总统就职演说)	노무현(卢武铉)
황사의 지역적 확산과 영향 및 대응 방안 국제 세미나 (沙尘暴的地区性扩散影响及应对方案国际研讨会)	한명숙(韩明淑)
이라크 파병부대 신고 및 환송행사 연설 (伊拉克派兵部队报告及欢送讲话)	노무현(卢武铉)
베이징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 (背景中韩经济界人士邀请午餐)	노무현(卢武铉)
사스 관련 담화문 (关于非典的讲话)	고건(高健)

(보충 필요)

## 〈토론〉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 ‘국민’과 ‘人民’의 번역을 위한 기고”에 대한 토론문

이석철(한국외국어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국민’과 ‘인민’, 중국어의 ‘国民’과 ‘人民’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한중 정치 연설문에 나타나는 ‘국민’과 ‘人民’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한중, 중한 정치 연설문을 분석텍스트로 삼고 실제 번역에서의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국민’과 ‘人民’의 번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두 어휘가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이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를 한국어로 표현할 때 모국어의 사유방식의 간섭을 받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간과하고 그대로 직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번역 입문자나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에게서 이러한 오류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 텍스트 기능, 전달 매체, 독자 수용 등 번역 브리프에 해당하는 사항들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통번역 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말하기, 쓰기 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표현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번역의 시각에서 출발한 조신 선생님의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중 양국의 상이한 사회체제로 인해 정치담론, 특히 이데올로기적 어휘들이 지칭하는 의미 범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두고, ‘국민’과 ‘인민’의 정의를 규명하고 이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정치 연설문의 다양한 번역 양상과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중, 중한 양방향으로 실제 번역 사례를 분석하고 번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한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이 발표가 번역자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어 번역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표문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우선 이 연구는 한국어의 ‘국민’과 ‘인민’, 중국어의 ‘国民’과 ‘人民’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정치 연설문을 분석텍스트로 선정하였는데 연설문으로만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사문의 독자가 더 광범위하므로 한중, 중한 연설문 외에도 정치 뉴스, 기사 등의 텍스트도 함께 분석하였다면 번역 전략의 다양성을 고찰하는 데에 더 많은 근거를 제공해주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2. 다음으로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어의 ‘인민’은 한국어 번역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국민’은 중국어 번역에서 한국 국민에만 한정되어 ‘國民’으로 전환되었고 중국과 기타 국가의 국민은 ‘人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번역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류의 붐으로 중국인이 자연스럽게 ‘國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 외에도 중국이 북한의 ‘인민’을 ‘人民’으로 지칭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추가된 것은 아닌지요?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의 ‘국민’과 ‘人民’의 번역 양상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데올로기어의 번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을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유의미한 발표내용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가 잘못 이해하여 의견이나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분과 5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I

사회 : 최은경(동국대학교)

## 한국어 교재 지시문의 명확성 제고 연구

이수영(영남대학교)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교재의 지시문의 특징을 확인하여 한국어 교재 개발이나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하기 위해 교재를 사용할 때 항상 지시문을 접한다. 지시문은 교재에서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맞게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교재 지시문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어 교재를 연구하거나 개발할 때 도움이 되는 기초 연구가 되고자 한다.

교재란 교육 목표에 맞게 제작된 도구이다. 서종학·이미향(2007)에 따르면 교재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요구와 목적에 맞게 다양한 매개체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적인 도구이다. 교재는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입력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교재의 형태는 다양하다. 또한 교재가 보여주는 내용이 다양하다.

교재에 제시된 표현 중에서 학습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내용의 이해를 위해 사용되는 표현을 지시문이라고 한다. 지시문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발문이 있다. 발문은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발문은 학습자의 말하기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질문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발문과 지시문의 성격이 다르다. 지시문은 학습자의 목표 표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된다. 지시문은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맞게 학습하거나 과제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지시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재의 지시문은 학습 목적에 맞는 학습과 과제 수행을 돕는다. 지시문이 지시 이론에 맞지 않으면 지시하기가 힘들며, 지시문을 읽는 학습자는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시문은 지시 이론에 따라서 수행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재의 지시문은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교재에 사용되는 지시문의 구조는 단순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지시문을 사용하거나 교재에 지시문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며, 학습의 흥미를 잃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문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지,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재 지시문의 기준과 요건을 확인할 것이며, 앞으로 지시문을 만들 때 명확성이 있는 지시문이 되기 위한 기초 연구를 할 것이다.

## 2. 지시문의 정의 및 기능

지시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시는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시성에 따라 관형사와 지시 분사, 지시 형용사 등으로 나뉜다. 지시 이론에 따르면 지시는 단어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지시물이 추상적이거나(희망, 평화, 사랑 등),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거나(용, 불사조, 천사 등), 지시물은 하나인데 상징이 둘 이상일 경우(아빠/아버지/부친 등), 지시물은 변화하였으나 상징이 변화하지 않은 경우(옷-한복/양복)일 때에는 지시 표현이 사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

지시문이란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맞게 학습하도록 안내하는 말이다. 학습자가 지시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였을 때 학습자는 학습 목표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시문은 학습 목표에 맞게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지시해야 한다.

지시문에 대한 연구로 이미향·곽미라(2013), 김서형(2018) 등이 있다. 이미향·곽미라(2013)에서 지시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지시문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서형(2018)에서는 교재에서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고 및 행위 활동을 요구하는 표현을 지시문이라고 한다. 한편 쓰기 평가 지시문에 대한 연구는 박수진(2017)이 있다. 박수진(2017)에서는 쓰기 평가 지시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쓰기 평가 지시문은 평가에서 과업을 제시하는 문장, 글, 그림 등이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지시문이 학업 수행이나 과제 수행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재의 지시문은 학습 목표에 맞게 교재 내용을 수행하게 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국어 교재의 지시문은 학습자들의 목표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교재에서 나타난 지시문을 통해 지시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교재 지시문의 예이다.

〈표 1〉 한국어 교재 지시문의 예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어휘)</li> <li>2) 한국말로 인사해 보세요. (문법과 표현)</li> <li>3) 친구와 연습해 보세요. (말하기)</li> <li>4) 잘 듣고 연결하세요.(듣고 말하기)</li> <li>5)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읽고 말하기)</li> </ol> |
|-------------------------------------------------------------------------------------------------------------------------------------------------------------------------------------------------------------------------------|

먼저 지시문은 학습자가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표 1〉은 자기소개 단원의 지시문의 예이다. 학습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문이 쉽고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재 안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을 안내한다.

학습자가 지시문을 통해 학습 내용을 이해하며 학습 방법을 익힌다. 그러므로 지시문은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재에 사용되는 지시문은 목표 언어인 한국어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교재들이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을 위해 한국어 지시문과 함께 다양한 언어의 지시문을 함께 사용한다. 특히 영어권 학습자를 위해 영어 지시문을 사용한 교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어로 된 지시문을 읽으면 학습을 안내받기 쉽다. 그러나 지시문이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되지 않았을 때 학습자는 한국어 지시문을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재의 지시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법이 제시되었는지, 문장의 길이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시문이 학습자의 올바른 학습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지시문은 학습 목표를 제공한다. 〈표 1〉이 있는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기소개이다. 교재의 지시문은 단원을 시작하자마자 자기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기소개에 필요한 내용과 표현을 학습한 후에 자기소개를 하게 한다. 이렇게 학

습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맞게 학습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지시문은 학습 목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목표를 제공할 때 학습자 수준에 맞는 표현으로 제공해야 학습자가 목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 성취를 확인할 때 준거가 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준거란 사물의 정도나 사물의 성격 등을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의미한다. 지시문은 학습 목표를 제공한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려면 학습 목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시문은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된다. 지시문의 기능과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지시문의 기능과 요건

지시문 기능	요건
학습 목표 제공	학습자 수준에 맞는 표현 사용
학습 내용 이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표현 사용
학습 방법 안내	명시적인 표현 사용
학습 목표 달성 준거	명시적인 표현 사용

이처럼 지시문의 기능은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제공하며, 학습 방법을 안내하며 학습 내용을 이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문의 기능을 중심으로 지시문을 분석할 것이다. 지시문의 특징을 확인하여 앞으로 지시문을 만들 때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기관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의 1급 교재를 분석할 것이다. 초급 학습자는 중급·고급 학습자와 달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으며 지시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특히 1급 수준의 학습자는 글자를 겨우 읽는 수준이거나 제한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거나 정보가 많은 지시문을 만날 때 학습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재의 지시문을 확인하여 1급 수준에 맞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교재마다 가지는 지시문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교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시문을 분석하기 위해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지시문에 대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지시문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맞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시문 길이의 적절성을 확인하며,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지시문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지시문의 명확성에 대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 명확성이란 명백하고 확실한 성질을 말한다. 지시문에서 명확성이란 지시문이 지시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성질을 말한다. 지시는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만약 지시 대상이 추상적이거나 여러 가지를 가리킬 때, 지시물이 변하였으나 상징이 변하지 않았을 때 지시 표현이 사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 지시문에서 지시는 학습 방향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다. 지시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다면 학습자는 학습 목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시문이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가리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지시문의 표현상의 특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재마다 어떤 표현으로 지시문을 구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시문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 교재의 지시문이 활동 부분에서는 구어적인 성격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목표 표현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구어적인 성격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교재의 부분별로 지시문이 어떻게 지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할 교재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대학교 출판 한국어 교재이다. 원미진 외 9(2020)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중에서 사용하는 기관 수가 50개 이상인 교재는 다음과 같다.

〈표 3〉 원미진 외 9(2020:73~76)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상위 15개 교재

구분	교재명	사용 기관 수
1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137
2	<b>서울대 한국어</b>	<b>120</b>
3	표준 한국어	117
4	세종 한국어	113
5	즐거움/정확한 한국어	69
6	<b>연세 한국어</b>	<b>67</b>
7	토픽 준비 교재	53
8	국립국제교육원한국어	28
9	<b>서강한국어</b>	<b>24</b>
10	<b>경희대 한국어</b>	<b>22</b>
11	<b>이화 한국어</b>	<b>21</b>
12	국제교류재단종합한국어	16
1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특수목적교재	16
14	결혼이미지와함께하는 한국어	15
15	<b>고려대 한국어</b>	<b>14</b>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을 확인한 결과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교재가 가장 많다. 그다음은 「서울대 한국어」이며 대학에서 출판한 교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표준 한국어」이다.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교재는 「세종 한국어」이다. 「세종 한국어」는 전 세계에 세워진 세종학당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이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76개국 213개가 세워져 있다. 그러므로 「세종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 기관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이다. 원미진(2020)에서 제시된 한국어 교재 중에서 대학 기관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양한 목적을 종류에 상관없이 분석하기보다는 같은 목적의 교재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지시문의 경향이 더욱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재의 목적 중에서 학문 목적 교재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1〉에 제시된 교재 중에서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서강한국어」, 「경희대 한국어」, 「이화 한국어」, 「고려대 한국어」로 모두 6종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여섯 종류의 교재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서강한국어」는 1급 교재의 지시문이 모두 영어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경희대한국어」는 문법과, 쓰기, 말하기 등으로 기능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재의 성격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능이 통합된 교재인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서강 한국어」, 「이화 한국어」, 「고려대 한국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교재는 교재의 편의상 가~라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교재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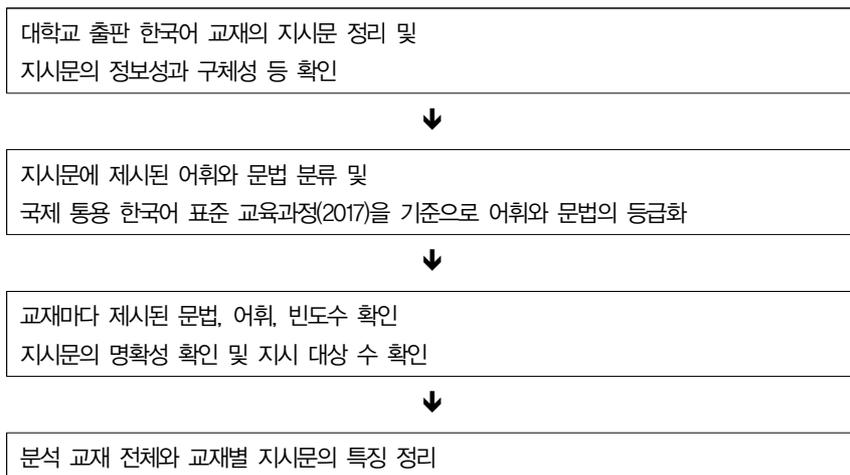
〈표 4〉 분석 교재 정보

분류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 년도
가	고려대 한국어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나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투판즈	2013
다	연세 한국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출판부	2013
라	이화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Epress	2010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한글 학습부터 시작하는 교재가 있는가 하면 한글 학습이 없이 바로 새 어휘나 문법 표현으로 시작하는 교재가 있다. 또한 한글 학습이 있는 교재 중에서 지시문이 영어로만 되어 있는 교재가 있는가 하면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된 교재가 있다. 한글 학습부터 지시문을 살펴보면 비교 대상이 일관적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본격적으로 어휘나 문법 표현을 학습하는 1과부터 분석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의 기초 단계의 책의 지시문을 확인할 것이다. 그 후 지시문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와 문법을 분류할 것이다. 지시문에 사용된 어휘와 문법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 제시한 어휘와 문법과 급수가 맞는지 확인할 것이다. 급수를 확인한 후 기초 단계에 맞는 어휘와 문법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논의 주제에 따라 지시문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 절차를 순서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5〉 연구 절차



자료의 분석은 엑셀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할 것이다. 엑셀스프레드시트에 교재의 모든 지시문을 입력한 후 해당 지시문에 제시된 어휘와 문법을 분류할 것이다. 분류한 어휘와 문법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을 기준으로 급수를 매길 것이다. 또한 문법 품사 중에서 어떤 것이 많이 나오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재의 지시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시문의 특징을 확인하여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교

재를 선택할 때 학습 목표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지시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는 교재를 개발할 때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교육적인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 4. 교재의 지시문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의 1급 교재를 분석하였다<sup>1)</sup>. 지시문에 사용된 어휘와 문법을 엑셀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한 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을 기준으로 급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어휘와 문법이 사용된 빈도를 확인하였다.

##### 4.1 문장 구성

교재 지시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시문의 수와 문장의 복잡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시문 수와 홑문장, 겹문장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먼저, 지시문의 수를 확인하였다. 지시문의 수를 확인한 이유는 지시문의 개수가 많으면 학습자가 읽어야 할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분석 교재별 지시문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어 교재의 지시문 수

교재명	가	나A	나B	다A	다B	라A	라B
지시문 수	567개	330개	335개	250개	305개	229개	338개

초급 한국어 교재별 지시문의 수는 〈표 6〉과 같다. 분석한 교재의 1단계가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300개이다. 교재 나, 다, 라는 1단계가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두 권의 지시문의 수를 합쳐서 계산하면 한 권당 약 590개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 제시하는 1급 어휘 개수는 735개로 분석한 교재 지시문의 어휘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의 기준을 넘지 않는다. 목표 어휘와 문법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교재 지시문 역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의 개수를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모든 교재의 문장이 홑문장인지 겹문장인지 확인하였다<sup>2)</sup>. 문장의 어절 수가 많아지거나 동사가 많아지면 지시해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 이는 지시문의 명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시문은 문장을 단순히 제시하여야 한다. 교재 지시문의 홑문장과 겹문장 확인을 통해 지시문의 단순성을 확인하였다. 홑문장과 겹문장을 나눈 기준은 교재 지시문에서 연결어미의 사용 여부이다. 연결어미가 포함된 지시문은 겹문장, 연결어미가 포함되지 않은 지시문은 홑문장

1) 2장에서 언급한 대학 기관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 중에서 서강 한국어는 지시문이 모두 영어로 제시가 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경희대 한국어는 기능 분리형 교재이므로 이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한국어에서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겹문장은 안은 문장,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 등으로 나뉜다. 이 문장들은 접사와 조사, 연결 어미로 나뉘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이 아닌 이어진 문장을 중심으로 문장 구성을 확인하였다.

으로 구분하였다. 홀문장과 겹문장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표 7〉 한국어 교재 지시문의 홀문장과 겹문장 비율

문장 구성	가		나A		나B		다A		다B		라A		라B	
	개수	비율												
홀문장	504	88.9%	218	65.9%	235	70.1%	148	58.7%	212	69.7%	117	50.9%	145	53.5%
겹문장	63	11.1%	113	34.1%	100	29.9%	104	41.3%	92	30.3%	113	49.1%	167	46.5%
합계	567	100%	330	100%	335	100%	250	100%	304	100%	230	100%	312	100%

분석한 교재에서 홀문장의 개수가 겹문장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가〉는 홀문장의 비율이 약 90%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시문이 단순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교재 다A〉와 〈교재 라〉는 홀문장과 겹문장의 개수가 비슷하다. 특히 〈교재 라〉는 홀문장과 겹문장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교재 나〉는 〈교재 다〉와 〈교재 라〉에 비해 홀문장의 비율이 겹문장의 비율보다 더 높았으나 〈교재 나A〉보다 〈교재 나B〉에서 홀문장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교재에서 문장 구성을 볼 수 있는 지시문의 예를 찾아보았다. 예로 선택한 지시문은 모두 〈주말〉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단원 속 지시문이다. 여러 교재에서 같은 주제를 설명할 때 지시문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같은 주제로 다뤄진 지시문을 확인하였다. 지시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예 1) 여러분은 휴일이 언제예요? 방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친구하고 이야기해 봐요. (가 1 189쪽)  
 예 2) 선생님께 친구의 스케줄을 받으세요. 그리고 누구의 스케줄인지 알아보세요. (나A 139쪽)  
 예 3) 친구의 지난 주말 이야기를 쓰고 발표하십시오. (다A 173쪽)  
 예 4)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친구를 만납니까? 어디에서 만나는지 그 장소를 어떻게 말할까요? (라A 98쪽)

예문을 살펴보면 〈예 1〉은 홀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예 1〉의 지시문이 친구와 대화를 하도록 구성되었다. 대화할 내용은 휴일과 방학이다. 이때 한 문장 안에서 무엇에 대해 무엇을 하라는 내용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예 1〉은 지시할 사항들을 각각의 지시문으로 제시하였다. 〈예 2〉와 〈예 4〉는 홀문장과 겹문장이 함께 사용되었다. 〈예 3〉은 복문으로 구성되었다. 지시문의 문장 구성을 확인한 결과 분석 교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초급 교재에서 1급 수준의 교재 지시문에는 홀문장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예 4〉에서는 주말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말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에서 ‘어떻게’가 사용이 되었는데, ‘어떻게’가 지시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예 4〉의 ‘어떻게’가 말하는 방법이나 내용, 구조 중 어떤 것을 묻는지 분명하지 않다. 지시문은 학습 방법을 안내하며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시문이 지시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시문의 적절성을 논하기 어렵다. 앞으로 지시문의 명확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지시문을 확인한다면 보다 명확한 지시문이 만들어질 것이다.

〈표 8〉 지시문의 평균 어절 수

표현 \ 교재명	가	나A	나B	다A	다B	라A	라B	전체 평균
평균 어절 수	4.12	4.44	4.43	3.36	3.39	6.05	6.49	4.61

분석 교재 지시문의 구성을 확인하면서 지시문의 평균 어절 수를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 대부분 4개 정도의 어절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재 라〉는 평균 6개의 어절로 구성되었다. 어절이 많으면 동사의 개수가 많아진다. 이는 어절이 많아지는 만큼 지시하는 사항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향후 초급 학습자 수준에 맞는 지시문의 어절 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재의 말하기 대화문과 지시문의 길이를 비교해 보았다. 대화문은 각 과의 목표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제 대화문과 지시문을 비교하면 지시문이 학습에 맞게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재 지시문을 확인한 결과 분석한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이 한 문장당 2~3어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홑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재 처음 부분에서는 대화문이 주로 홑문장으로 이루어졌으나 교재 뒤로 갈수록 겹문장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지시문의 홑문장 비율을 확인한 결과 교재 대화문처럼 홑문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지시문의 어절 수와 대화문의 어절 수를 비교하였을 때 〈교재 라〉 지시문의 어절 수가 많다. 이는 지시문 길이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재를 출판하는 기관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4.2. 어휘 수준의 적절성

어휘 분석은 지시문의 문장을 엑셀에 입력한 후 지시문에 사용된 어휘를 따로 분류하였다. 그 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의 등급에 맞추어 어휘와 문법을 등급별로 분류하였다. 지시문에 사용된 어휘와 문법 중 반복적으로 나타난 표현을 중복으로 처리하지 않고 총 개수에 포함시켰다. 지시문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만큼 지시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지시문의 어휘를 총 개수에 포함시켰다. 지시문 어휘 중에서 동음이의어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 제시하는 예문을 보고 해당 어휘를 찾아서 분류하였다.

〈표 9〉 한국어 교재 지시문에 사용된 어휘 급수별 비율

	어휘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sup>3)</sup>	합계
가	사용 횟수	1,604	159	102	14	40	12	74	2,005
	비율	80.0%	7.9%	5.1%	0.7%	2.0%	0.6%	3.7%	100%
나A	사용 횟수	883	120	89	17	13	0	51	1,173
	비율	75.3%	10.2%	7.6%	1.4%	1.1%	0.0%	4.3%	100%
나B	사용 횟수	939	61	64	1	0	0	69	1,134
	비율	82.8%	5.4%	5.6%	0.1%	0%	0%	6.1%	100%
다A	사용 횟수	649	46	69	1	8	0	47	820
	비율	79.1%	5.6%	8.4%	0.1%	1.0%	0.0%	5.7%	100%

3) 〈표 8〉에서 기타로 분류된 것은 고유 명사이거나 보조사 ‘-들’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의 문법 항목에 보조사

다B	사용 횟수	836	53	44	0	0	0	203	1,136
	비율	73.6%	4.7%	3.9%	0.0%	0.0%	0.0%	17.9%	100%
라A	사용 횟수	946	100	121	18	10	7	33	1,235
	비율	76.6%	8.1%	9.8%	1.5%	0.8%	0.6%	2.7%	100%
라B	사용 횟수	1,367	150	204	35	12	5	87	1,860
	비율	73.5%	8.1%	11.0%	1.9%	0.6%	0.3%	4.7%	100%

어휘를 확인한 결과 네 교재 모두 1급 어휘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급 어휘뿐만 아니라 중급과 고급 어휘들이 함께 사용되었다. 특히 <교재 가>와 <교재 라>는 중급과 고급 어휘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교재 나>, <교재 다> 순이었다. <교재 다>의 지시문에는 1% 정도가 3급부터 6급까지의 어휘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 5) 여러분은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친구하고 이야기해 봐요. (교재 가 191쪽)

예 6) 지난주에 뭐 했어요? 쓰세요. (나A 139쪽)

예 7) 친구에 대해 아는 것을 '-지요?'로 질문하십시오.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십시오. (다A 178쪽)

예 8) 여러분 나라에도 숫자와 관계된 지명이 있습니까?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라A 95쪽)

분석한 교재 지시문에서 중급과 고급 어휘가 적은 것은 <교재 나>와 <교재 다>로 나타났다. <교재 나>와 <교재 다>에 서는 <예 6>과 <예 7>처럼 1급과 2급 어휘가 주로 사용되었다. <교재 가>와 <교재 라>에서는 1급 어휘의 사용이 약 80%를 넘으나 3급 이상의 어휘 사용이 많았다. <교재 라A>의 각 과 마지막 부분인 문화와 문학에서 고급 어휘가 사용 되었다. <예 8>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지명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동아리, 활동, 대표 등 중 급 어휘와, 낭독, 낭송, 지명 등 고급 어휘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고급 어휘 가 지시문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교재 라>에서는 문학이나 문화 부분에서 고급 어휘가 사용되었다. <예 7>을 보면 <교 재 가>의 지시문에 중급과 고급 어휘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재 가>의 다른 단원을 살펴보면 '밀줄', '주의', '매기다' 등 지시문에 중급과 고급 표현이 사용되었다.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교재의 지시문의 수준이 높으면 학습자에게 지시할 사항이 잘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에 지시문에 외국어 번역이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지시문이 영어나 학습자의 모국어로 쓰여 있다면 학습자는 지시 문이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할 것이다. 교재 지시문의 번역을 확인한 결과, <교재 가, 나, 라>에서 한국어 지시문과 영어 지시문이 함께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재 다>에서는 한국어 지시문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다>는 2015년 도에 출판된 교재는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이 있다. 영어판을 살펴보았는데 지시문이 영어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문 법 설명 부분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설명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교재 지시문에서 어휘의 급수가 높거나 급수에 포 함되지 않을 때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통해 지시문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의 어휘 수준의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 지시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초급 교재 지시문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 다. 지시문은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대학 출판 한국어 교재의 지시문을 확인한 결과 모든 교재에서 1급 어휘의 사용 횟수가 70%를 넘었다. 특히 <교재 가>와 <교재 나B>의 1급 어휘 의 사용 비율은 80%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재 나A>보다 <교재 나B>의 1급 어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

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들'이 해당되는 급수를 찾을 수 없었다.

해 추후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4.3 문법의 수준과 다양성

문법 분석은 지시문의 문장을 엑셀에 입력한 후 지시문에 사용된 문법을 따로 분류하였다. 그 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의 등급에 맞추어 문법을 등급별로 분류하였다. 지시문에서 하나의 문법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반복되는 표현을 모두 개수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한국어 교재 지시문에 사용된 문법 급수 분포

문법 등급	가		나A		나B		다A		다B		라A		리B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급	1,327	75.7%	828	75.8%	1,065	79.1%	634	89.5%	750	88.2%	715	70.9%	1,072	69.5%
2급	304	17.4%	209	19.1%	93	6.9%	59	8.3%	79	9.3%	235	23.3%	364	23.6%
3급	49	2.8%	35	3.2%	102	7.6%	13	1.8%	9	1.1%	28	2.8%	54	3.5%
4급	5	0.3%	10	0.9%	13	1.0%	2	0.3%	1	0.1%	29	2.9%	40	2.6%
5급	0	0.0%	1	0.1%	14	1.0%	0	0.0%	0	0.0%	1	0.1%	1	0.1%
6급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67	3.8%	9	0.8%	59	4.4%	0	0.0%	11	1.3%	1	0.1%	11	0.7%
합계	1,752	100%	1,092	100%	1,346	100%	708	100%	850	100%	1,009	100%	1,542	100%

분석된 교재에서 지시문의 문법 등급을 살펴보면 〈교재 다〉에서는 지시문에 1급 문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재 나〉와 〈교재 라〉는 1급과 2급 문법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교재 라〉는 1급 문법 비율이 약 67%이며 2급 문법이 약 30% 정도 섞여 있다. 〈교재 라〉는 중·고급 문법이 약 7% 정도 사용되었다. 분석된 교재 모두 1급과 2급의 문법으로 구성되었다.

〈표 11〉 한국어 교재 지시문에 사용된 어미 종류 및 사용 빈도

교재명		사용 횟수						
		가	나A	나B	다A	다B	라A	리B
종결 어미 합쇼체	-습니다	18	16	24	3	13	37	42
	-습니까	0	2	8	57	87	31	47
	-으십시오	0	0	0	183	186	0	0
	-읍시다	0	0	0	2	9	0	0

해요체	-어(요)	242	53	57	1	1	1	5
	-이에요/예요	30	3	11	0	0	0	0
	-을까(요)	7	0	0	0	5	36	51
	-으세요	148	197	197	2	3	112	170

지시문에 사용된 어미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교재 가>의 지시문에서는 해요체인 ‘-어(요)’와 ‘-으세요’가 많이 사용되었다. <교재 나>의 지시문에서는 ‘-으세요’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교재 다>의 지시문에서는 합쇼체인 ‘-으십시오’가 많이 사용되었다. ‘-으십시오’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문해 지시문에 사용되는 종결어미이다. <교재 라>의 지시문에서는 ‘-으세요’, ‘-습니다’, ‘-습니까’, ‘-을까(요)’가 모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라>의 지시문에서 해요체와 합쇼체가 골고루 사용되었는데, 지시성을 기준으로 볼 때 지시문이 둘 이상을 상징하면 지시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재 라> 지시문에서 왜 해요체와 합쇼체를 함께 사용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표 표현 제시와 과제 수행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종결어미가 다양하게 나타났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재 지시문의 종결 어미를 확인하던 중 2급 표현 중에서 ‘-어 보다’가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어 보다’의 사용 횟수를 따로 확인하였다.

〈표 12〉 한국어 교재 지시문에 사용된 표현 중 ‘-어 보다’의 사용 횟수

		사용 횟수						
표현	교재명	가	나A	나B	다A	다B	라A	라B
	-어 보다		207	119	118	4	15	94

표현 ‘-어 보다’는 문장 끝에 나오는 것으로 2급 문법에 해당된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재의 지시문에서 ‘-어 보다’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교재 다>는 ‘-어 보다’의 사용 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 보다’는 2급 문법으로 1급 학습자가 배우지 않은 문법이다. 학습자가 배우지 않은 문법이 지시문에 자주 나오면 학습자는 그 표현의 의미를 찾는 것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습 내용에 주의 집중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 1급 표현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교재 속에서 ‘-어 보다’가 사용된 곳을 확인한 결과 주로 연습이나 말하기 부분에서 ‘-어 보다’가 사용되었다. 앞의 <예 8>을 살펴보면 자신이 지난 주말에 한 일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할 때 ‘-어 보다’가 사용되었다. 학습자에게 무엇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 보다’는 어떤 일을 시험삼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재 지시문의 ‘-어 보다’를 확인한 결과 학습자가 배운 표현을 시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교재의 목표 표현 제시와 과제, 추가 학습인 문화와 발음 등 교재 구성에 따라 지시문을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연습이나 과제 부분에서 주로 ‘-으세요’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목표 표현 제시나 문화 등에서는 ‘-어(요)’, ‘-습니다’, ‘-습니까’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재 지시문은 교재의 구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시문이 구어적인 성격을 보이는지 문어적인 성격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분석한 교재에서 구어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교재마다 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재마다 차이를 보였다. <교재 가>와 <교재

나>에서는 해요체 중에서 ‘-으세요’가 많이 나타났다. <교재 다>는 합쇼체인 ‘-으십시오’가 많이 사용되었다. 한국어능력 시험(TOPIK)의 문제 지시문을 살펴보면 ‘-으십시오’를 사용하고 있다. 연세 한국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지시문과 같은 종류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재 지시문이 격식적인 부분과 비격식적인 부분은 교재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결론

### 5.1. 연구 결과 정리

본 연구는 한국어 초급 교재의 지시문의 특징을 연구하여 한국어 교재 개발이나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되려는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시문 길이와 명시성 등을 기준으로 지시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교재의 지시문에서 1급 어휘와 문법이 사용되었다. 그 비율을 다르나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교재 라>는 1급 문법뿐만 아니라 중급과 고급의 문법이 함께 사용되었다.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확인한 결과 교재마다 특별하게 많이 사용되는 종결어미가 발견되었다. 이는 교재가 가지는 특성에 의해 종결어미가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재의 구성별로 자주 사용되는 종결어미를 확인하였는데, 교재의 구성에 따라 사용되는 종결어미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표현을 보여줄 수 있으나 학습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지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지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추후 지시문의 명확성의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의 기능을 통해 지시문의 역할을 확인한 결과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재 지시문을 만들기 위해 지시문의 길이와 표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초급 한국어 교재 지시문의 평균 어절 수는 4.61개이다. 그러나 교재의 대화문과 지시문을 비교하였을 때 지시문의 길이가 대화문에 비해 길다. 특히 <교재 라>의 교재 지시문은 평균 6어절로 다른 교재에 비해 문장 길이가 길다. 이는 교재 지시문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지시문 길이에 대한 기준을 통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지시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시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지시문은 주로 홑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단문과 복문이 비슷하게 사용된 교재가 있다. 문장이 길어지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해지지 않는다. 또한 지시문에서 사용된 종결어미가 교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초급 수준에서 다양한 표현을 접한다면 학습자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지시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5.2.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초급 교재의 지시문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지시문은 학습자가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제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바른 지시문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재에서 지시문이 가지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재마다 가지는 지시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재 지시문의 요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재의 지시문의 문장만 확인하였다. 지시문과 보기가 있는지 여부, 그림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또한 홑문장과 겹문장을 나눌 때 단순히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겹문장은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표현이나 조사를 통해서도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홑문장과 겹문장을 나누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여 분류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서형(2018), 남·북한 초등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지시문의 문장 종결형 연구, *코기토* No.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69-193쪽.
-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국립국어원.
- 김지연(2017),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 텍스트의 난이도 분석 연구: 문장 길이와 문장 구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등엽(2016), 문장구조 분석을 통한 한국어 겹문장 이해교육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선희(2012), 스마트 러닝 활성화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 전략 연구, *평생학습사회* Vol. 8 No.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93-112쪽.
- 서세정(2012), 한국어 교재 지시문 분석\_교재 수준별 지시문의 어휘적, 통사적 특징 분석, 언어와 문화 Vol.9 No. 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57-186쪽.
- 서종학(2002), 한국어 교재 평가의 실제 -Lukoff(1993)를 대상으로-, *국어교육* 109권, 한국어교육학회, 89-110쪽.
- 서종학·이미향(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 이미향·정성현(2018), 한국어\_듣기\_평가\_문항의\_제시문 구성 방향 연구\_ 곤란도에 영향을 주는 단서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문화학회(INK) 제25차 국제학술대회, 국제한국어문화학회, 266-278쪽.
- 이보라미(2010), 학습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활동 지시문' 연구, *이중언어학* 제43호, 이중언어학회, 325-344쪽.
- 정민수(2008), 과학 영재 수업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본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성현·박진욱·이미향(2018), 한국어 듣기 평가 문항의 제시문 구성 방향 연구\_ 곤란도에 영향을 주는 단서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2권 0호, 한국어문학국제 학술포럼, 173-212쪽.
- 정성현·Wei Qun·이미향(2017), 한국어 듣기 제시문에 대한 숙달도별 곤란 요인 연구-인지 반응에 따른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화법연구* 35, 한국화법학회, 95-128쪽.
- 진미나(2017), 성공지능 관점에서 과학영재교육 교재에 등장하는 발문 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정(2015), 학습동기 촉진을 위한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체험영역 지시문개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토론〉 “한국어 교재 지시문의 명확성 제고 연구”에 대한 토론문

구민지(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함께 다양하고 한국어 교재의 개발이 풍성한 한국어 교재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맞춘 특화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는 만큼 교재 연구도 교재의 특정 영역에 초점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학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토론이 불가능하기에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지시문은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맞게 학습하거나 과제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지시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여기에서 학습자의 시각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이든 교재의 개발이든 교육과 관련된 개발의 시작은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가 보다 설득력을 가지려면 교재의 지시문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학습자가 교재의 지시문으로 인해 학습에 어떠한 방해가 받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구합니다.
2. 2장에서 논의할 내용으로 지시문의 난이도, 지시문의 명확성, 지시문의 적절성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지만 실제 분석한 내용은 지시문의 평균 어절, 어휘, 문법 등 난이도 분석에 상당히 치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시문이 교재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3. 교재의 지시문은 교재가 어떤 성격의 교재이냐, 지시문이 어떤 언어들로 제공되느냐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독학 교재라면 교재의 지시문을 온전히 학습자 혼자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지시문의 난이도나 명확성 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설명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실 수업용 교재이거나 지시문이 학습자의 모국어 또는 제3의 언어와 함께 제공되는 교재라면 그 중요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선정하신 교재는 원미진 외(2020)에 의하면 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즉 교실 수업용 교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도 “교재 지시문에서 어휘의 급수가 높거나 급수에 포함되지 않을 때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통해 지시문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학습자의 지시문 이해를 수월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3의 언어 사용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재의 지시문을 반드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맞춰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4. 발표의 제목은 한국어 교재 지시문의 명확성 제고 연구인데 지시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시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였는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시문 명확성 제고 기준을 거칠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읽기 질문 분석 연구

-고급을 중심으로-

김양원(동국대학교)

### 1. 서론

언어 교육에서 ‘질문’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알고자 하는 바는 얻기 위해서 묻는다는 의미의 질문과는 의미와 역할이 다르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질문은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의 질문이다. 이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과 구별되는 교육적 의미의 질문이다.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은 묻고 답하는 상호작용으로, 교실 내에서는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는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알기 위해, 내지는 알고 있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해 질문하지만,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질문은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발달시키기 위해 질문을 사용한다.

이해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질문은 1차적으로 학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효과가 있으며, 2차적으로는 역동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 내용을 보다 잘 수용하고 학업 성취 결과를 생산해 내는 효과가 있다(이경숙, 2002). 이러한 질문은 읽기 지도에서 첫째, 읽기 텍스트에 제시된 사실적인 정보를 이해하게 되고, 둘째 학습자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저자의 생각을 파악하거나 내포된 의미를 추측하게 하며, 셋째 읽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읽기 활동에서의 질문은 학습자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읽기 활동에서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재가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과 방법을 담고 있다고 할 때, 읽기 텍스트 다음에 실린 질문은 읽기 수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에 출판된 한국어 통합 교재 중에서 고급(5급, 6급)의 읽기 텍스트에 어떤 질문 유형이 실려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어 교재의 읽기 활동에 나타난 질문 유형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읽기 활동에서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나타난 질문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에서 읽기 활동을 위한 질문 유형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 선행연구

한국어 읽기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읽기 자료 분석, 읽기 교육 방안, 읽기 평가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한국어 교재의 읽기 질문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마쯔자키 마히루(2009), 구민지(2012), 이미순(2013), 이다슴(2014), 문시내(2015), 김수신(2016), 장정심(2020) 등 있다.

마쯔자키 마히루(2009)에서는 읽기 텍스트에 대한 질문 분석을 통해 해당 교재에서 읽기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sup>1)</sup>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출판된 한국어 통합형 교재 6종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읽기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문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 유형은 개인적 반응을 묻는 질문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법이나 어휘 등의 표현 방식에 대한 질문은 몇몇 교재를 제외하고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쯔자키 마히루(2009)의 연구는 읽기 텍스트에 대한 질문 분석에서 나아가 읽기 교육에서 비판적 읽기의 도입과 개인적 반응 질문을 활용한 조별 활동 및 발표를 보완책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민지(2012)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에 대한 이해 질문이 학습자 중심으로 상호작용적 읽기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 4종에 있는 텍스트 이해 질문을 분석하였다.<sup>2)</sup> 분석 결과 사실적 질문이 전체의 90% 정도로 나타났고 학문 목적 읽기 교재에 상위-확산 질문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읽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읽기 텍스트에 대한 이해 질문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민지(2012)의 연구는 이해 질문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기존 연구와 다르게 제시하였다는 점, 읽기 텍스트에 대한 사실적 질문이 90% 정도임을 계량 조사로 밝혔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이미순(2013)에서는 읽기 텍스트의 질문 유형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Pearson & Johnson(1987)의 질문 분류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sup>3)</sup> 이미순(2013)에서는 한국어 중급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의 읽기 텍스트에 대한 질문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텍스트 명시형 질문이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선행 지식 전제형 질문, 텍스트 내재형 질문 순이었다. 그러나 한국어능력시험은 텍스트 내재형 질문이 57%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고, 텍스트 명시형 질문이 16%에 그쳤다고 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와 TOPIC의 읽기 질문 유형이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향후 한국어 교재 읽기에서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개발할 때 평가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한국어 읽기 교재에서 제시될 수 있는 질문을 유형별, 위치별로 제안하였다. 이미순(2013)은 읽기 질문에 대한 분석을 중급 교재에서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다슴(2014)은 Nuttall(1996)과 Day & Park(2005)의 모형을 참고해 질문 유형을 7가지로 설정한 뒤 한국어 중급 교재 5종의 읽기 질문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공통적으로 내용 이해 질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둘째,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질문 유형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교재의 난이도별 계열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읽기 텍스트에는 하위 수준의 질문에서부터 상위 수준의 질문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시내(2015)는 학문 목적 학습자가 고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읽기 교재의 질문 유형을 분석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의 질문 유형 분석 결과 질문의 유형은 글 표면적인 이해 질문 33%, 추론적 질문 24%의 순이었다. 질문의 수준은 하위 수준의 질문이 61%, 상위 수준의 질문이 39%로 하위 수준의 질문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김수신(2016)은 중급, 고급 교재와 한국어 교재의 읽기 질문 유형을 읽기 텍스트 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어 중급, 고급 교재에 집중되어 나타난 질문의 유형은 글의 표면적인 이해 질문인 데 반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1) 마쯔자키 마히루(2009)에서는 Nuttall(1996), Day·Park(2005)에서 제시한 읽기 질문 유형 분류를 따라 읽기 질문의 유형을 분류했다.

2) 구민지(2012)에서는 질문의 유형을 사실-추어적 질문, 사실-재구성 질문, 추론-창의적 질문, 확산-창의적 질문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3) 이미순(2013)에서는 텍스트 명시형, 텍스트 내재형, 선행지식 전제형으로 분류하고 하위 유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나타난 질문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표면적 이해뿐만 아니라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정심(2020)에서는 한국어 교재들과의 비교뿐 아니라 한국어 교재와 영어 교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교재에 실린 질문 유형의 분포와 상호보완점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했다. 한국어 교재와 영어 교재의 차이점으로는 한국어 중급 교재가 영어 중급 교재보다 단원 수가 많고, 읽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읽기 텍스트에 대한 질문 개수도 더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어 교재에서는 ‘추론 질문’이 한국어 교재보다 더 많았고, 질문의 내용은 읽기 전과 읽기 후에 예측하는 질문이 많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교재를 대상으로 읽기 질문 유형 분석을 하고 학습 효과와 사고력 증진을 위한 교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3. 연구 대상 및 분석 결과

질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Nuttall(1982)의 질문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sup>4)</sup>.

〈표 1〉 Nuttall(1982)의 질문 유형

유형	질문
유형1	문자 그대로의 질문
유형2	재구성 질문
유형3	추론 질문
유형4	평가 질문
유형5	개인적 반응 질문
유형6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한 질문

‘유형1’은 텍스트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질문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이다. ‘유형2’는 유형1’보다 난이도가 높는데, 텍스트의 여러 부분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 ‘유형1’과 다른 점은 텍스트에 정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텍스트의 여러 부분을 조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형3’은 학습자의 추론 능력과 직관력이 필요한 유형이다. 질문의 답이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함축적이고 압축적이다. ‘유형4’는 학습자의 사려 깊은 판단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유형이다. ‘유형 5’는 텍스트의 내용에 관한 학습자 개인의 생각 또는 반응을 묻는 질문 유형이다. ‘유형 6’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한 질문 유형이다.

분석 대상은 대학기관에서 만든 한국어 교재들 중 ‘서강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함께 배워요 한국어’ 5급 교재 3종

4) 질문을 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질문의 주제, 질문하는 시기,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인지적 과정의 수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그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체계는 Bloom(1956)이 제시한 분류체계로 읽기 이해 질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Bloom(1956)은 인지적 영역 수준을 기초로 질문을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미순(2013: 20-23)에서 소개된 Pearson & Johnson(1978)는 독자의 배경지식과 질문이 요구하는 답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문을 텍스트 명시형 질문, 텍스트 내재형 질문, 선행지식 전제형 질문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문시내(2015)에 의하면 Day & Park(2005)의 모형은 Pearson & Johnson(1978)과 Nuttall(1982) 모형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유형 1, 유형2, 유형3, 유형5, 유형6’은 Nuttall(1982)의 질문 유형과 같지만, ‘유형4’가 예측으로 Nuttall(1982)과 다른 점이라고 하고 있다.

을 선정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교재

교재명	출판사	출판년도	분류
서강 한국어 5A, 5B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11	가
서울대 한국어 5A, 5B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2	나
함께 배워요 한국어 5A, 5B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9	다

본고에서 다루는 질문은 읽기 텍스트에 실린 읽기 후 질문을 대상으로 하고, 한 개의 질문에 여러 개의 소질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한 개의 질문으로 분류한다.

〈표 3〉 A교재 5A 2과 2항 37~40쪽

읽기 전	<p>* 600년 역사의 북촌 한옥 마을 북촌 한옥 마을은 서울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북촌 한옥 마을은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 다음 글을 읽고 북촌의 위치를 ㉠~㉢에서 찾으십시오.</p>
읽기 중	<p>가. 발표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아래 질문의 답이 되는 정보를 찾으십시오.[시간 제한: 5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온 마크입니다. 지금부터 '600년 역사의 북촌 한옥 마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후략-</p> </div> <p>1. 북촌 한옥 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② 서울에서 가장 한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③ 한옥이 전시만 되어 있고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다.</p> <p>2. 어디에서 북촌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① 오죽 공방    ② 북촌 문화 센터    ③ 생활사 박물관</p> <p>3. 북촌 한옥 마을에 가려면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합니까?          ① 1호선        ② 2호선        ③ 3호선</p> <p>4. 북촌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① 두 가지      ② 세 가지      ③ 네 가지</p> <p>5. 가희 박물관은 어떤 곳입니까?          ① 한옥을 전시한 곳          ② 궁중 음식을 소개하는 곳          ③ 부적이나 민화를 전시한 곳</p> <p>나. 다음은 발표문을 요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어느 문단을 요약한 것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없는 나머지 문단을 요약하십시오.</p> <p>다. 읽은 내용에 대해 묻고 대답하십시오.          1. 북촌 한옥 마을과 남산 한옥 마을은 어떤 점이 다른지?          2. 북촌은 서울의 어디에 있습니까?          3. 북촌의 한옥 체험 코스를 설명해 보십시오.          4. 북촌의 문화 체험 코스를 설명해 보십시오.          5. 북촌의 문화 체험 코스에서 여러분이 가 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두 장소를 골라서 이야기해 보십시오.</p>

읽기 후	<p>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p> <p>1.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p> <p>2. 여러분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친구에게 소개하십시오.</p> <p>마. 읽은 내용을 정리하여 말해 보십시오.</p>
------	----------------------------------------------------------------------------------------------------------------------------------------------------------

A교재의 경우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질문이 가장 많고, 가장 다양한 유형의 질문이 있다. ‘가’에 해당되는 질문 다섯 개는 모두 ‘유형1’에 해당되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유형2’의 질문이 요약하기라면, ‘나’에 해당되는 질문 중 어느 부분의 요약인지에 대한 질문은 ‘유형2’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에 해당되는 질문은 ‘유형3’과 ‘유형5’의 질문이다. 이렇게 A교재는 하나의 읽기 텍스트에 16개 가량의 질문을 하여 학습자가 읽기 텍스트에 대해 표면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심층적인 이해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 B교재 5A 1과 2항 25~27쪽

읽기 전	<p>* 주제어휘 다음은 성격에 관련된 말입니다.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p>																												
읽기 중	<p>* 다음은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사람의 성격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나는 성격 유형으로 A형과 B형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후략-</p> </div> <p>1. 가 ~ 라 의 중심 내용을 써 보세요.</p> <p>2. A형 과 B형 성격의 특징과 알맞은 설명을 연결해 보세요.</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급하다</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30%;"></td> </tr> <tr> <td>경쟁심이 강하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td> </tr> <tr> <td>느긋하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A형 성격 •</td> <td>•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한다</td> </tr> <tr> <td>관대하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B형 성격 •</td> <td>• 스트레스에 민감하다</td> </tr> <tr> <td>까다롭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td> </tr> <tr> <td>참을성이 많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한다</td> </tr> <tr> <td>소극적이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able>	급하다	•			경쟁심이 강하다	•		•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느긋하다	•	• A형 성격 •	•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한다	관대하다	•	• B형 성격 •	•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까다롭다	•		•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	참을성이 많다	•		•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한다	소극적이다	•		
급하다	•																												
경쟁심이 강하다	•		•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느긋하다	•	• A형 성격 •	•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한다																										
관대하다	•	• B형 성격 •	•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까다롭다	•		•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																										
참을성이 많다	•		•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한다																										
소극적이다	•																												
읽기 후	<p>* 이야기해 보세요. 성격 테스트를 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 말해 보세요.</p>																												

〈표 4〉에 있는 ‘읽기 전’과 ‘읽기 후’에 해당하는 질문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질문 1번은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쓰는 질문이기 때문에 ‘유형3’에 해당되는 질문이고, 질문 2번은 ‘유형2’에 해당되는 질문이다.

〈표 5〉 C교재 5A 1과 29~30쪽

읽기 전	* 여러분은 외국어를 배울 때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까? 책을 통한 외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읽기 중	*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책을 통한 외국어 공부 방법</p> <p>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을까?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 보았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후략-</p> </div> <p>글 ㉠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보십시오.</p> <p>2.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을 완성해 보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책을 많이 읽다 보면 _____에 익숙해져서 _____도 빨리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글의 전체적인 _____을/를 파악할 수 있고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_____(으)를 수 있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p> </div> <p>3. 다음은 글 ㉠에서 소개한 책을 이용한 외국어 공부 방법입니다. 각각의 효과를 정리해 보십시오.</p> <p>(1) 관용어와 속담, 비유의 표현 등을 모어와 비교하기                  (2) 같은 내용의 책을 한국어와 모어로 읽기                  (3) 읽은 책 소개하기</p>
	읽기 후

〈표 5〉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읽기 전’과 ‘읽기 후’에 해당하는 질문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또한 질문 3번에 소질문 (1), (2), (3)이 함께 있는데 이는 같은 유형의 질문이기 때문에 한 개의 질문으로 분류한다. 〈표 4〉의 질문 1과 달리 〈표 5〉의 질문 1은 읽기 텍스트에 있는 중심 문장을 찾아 쓰는 질문이기 때문에 ‘유형1’에 해당되고,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질문 2와 질문 3은 ‘유형2’에 해당된다. 다음은 한국어 교재에 있는 ‘유형1~유형6’의 질문 유형의 예이다.

〈표 6〉 질문 유형의 예

유형	질문 유형의 예
유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으면 O, 틀리면 X 표 하십시오.</li> <li>• 본문의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li> <li>•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li> </ul>
유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맞은 내용/그림/단어를 연결하십시오.</li> <li>• 내용을 정리해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li> <li>•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li> <li>• 상황에 적당한 예를 찾아 연결하십시오.</li> <li>• ~에 대해 설명/요약/정리해 보십시오.</li> </ul>
유형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글을 쓴 이유/목적은 무엇입니까?</li> <li>•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li> <li>• 이 글의 제목/주제를 쓰십시오.</li> <li>• 글쓴이가 ~에 대해 가지게 된 생각은 무엇입니까?</li> <li>• 긍정적인 표현에는 ‘긍’, 부정적인 표현에는 ‘부’라고 쓰십시오.</li> <li>• 읽은 내용을 정리하여 말해 보십시오.</li> </ul>
유형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쓴이의 태도는 어떻습니까?</li> <li>• ~에 대한 주장으로 적절한 부분을 찾아 보십시오.</li> <li>• ~이/가 ~보다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li> </ul>

유형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li> <li>• ~을/를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li> </ul>
유형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분 ~ 중에서 어떤 것을 해 보고 싶습니까?</li> <li>• 예상과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li> <li>•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li> <li>• 여러분 나라의 ~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li> <li>• 여러분은 ~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li> </ul>

다음은 읽기 텍스트에 대한 질문 유형 분석 결과이다.

A교재는 총 16단원으로 각 과별로 읽기Ⅰ, 읽기Ⅱ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읽기 전 활동으로는 도입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읽기 중 질문은 대질문 2~4개가 있으며 대질문의 유형에 따라 소질문이 3~6개가 있다.

B교재는 총 13단원, 39과의 소단원이 있고 소단원마다 ‘읽고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전에는 주제 어휘가 있고, 읽기와 관련된 질문은 3~5개, 읽기 후 활동으로 ‘이야기해 보세요’로 구성되어 있다.

C교재는 총 16단원으로 각 단원마다 ‘읽고 말하기’가 있는데, 읽기 전 활동으로 질문 1~2개가 있고 읽기와 관련된 질문은 3~5개, 읽기 후 활동은 말하기, 쓰기, 확장 읽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질문 유형 분석 결과

질문 유형	A교재 질문 비율	B교재 질문 비율	C교재 질문 비율
문자 그대로의 질문	32.4%	45%	22.6%
재구성 질문	30.4%	45%	61.2%
추론 질문	17.1%	2.5%	16.1%
평가 질문	1%	-	-
개인적 반응 질문	18.1%	6%	-
글쓴이의 태도 질문	1%	1.5%	-

읽기 텍스트에 대한 질문을 Nuttall(1982)의 질문 분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A교재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질문이 3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재구성 질문이 30.4%, 개인적 반응 질문이 18.1%, 추론 질문이 17.1%, 평가 질문,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 각각 1.0%를 차지하고 있다.

B교재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질문과 재구성 질문이 4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적 반응 질문이 6%, 추론 질문이 2.5%,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평가 질문은 없었다.

C교재에서는 재구성 질문이 6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문자 그대로의 질문이 22.6%, 추론 질문이 16.1%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가 질문, 개인적 반응 질문, 글쓴이의 태도 질문은 없었다.

분석 대상 3종의 교재에서 평가 질문과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 다른 질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으로 볼 때 한국어 교재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읽기 텍스트의 분량이 늘어나면서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읽기 과정 중에는 외국인 학습자가 스스로 텍스트를 응용, 분석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상황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C교재의 경우 문자 그대로의 질문이 다른 교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교재 밖에서 교수자가 외국

인 학습자가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1차원적인 질문, 문자 그대로의 질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읽기 텍스트에 대한 질문 유형 분포는 고르지 않다. Nuttall(1982)의 질문 분류 유형으로 교과서 질문 유형을 분류한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전히 질문 유형 분포가 특정 유형에 치중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문자 내용 확인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단순한 응답 방식의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읽기 텍스트에 대한 질문 제안

잘 만들어진 질문은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력과 더불어 사고력 및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질문은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적절한 자극제로서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교재의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질문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이처럼 교육에서 질문의 중요성이 크지만, 읽기 교육에 있어서도 질문이 갖는 의미가 크다. 질문이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질문을 통해 학습자는 읽기 텍스트에 제시된 사실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나아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거나 텍스트에 함축된 의미를 독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읽기 질문 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보다 효율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질문 개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질문은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질문에서 추론과 깊이 있는 사고력이 필요한 수준의 질문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 한국어교육 현실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한 교실에 있다.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질문은 수준이 부족한 학습자를 비롯하여 최고 수준의 학습자까지 텍스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분석 결과 ‘문자 그대로의 질문’과 ‘재구성의 질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개발될 교재의 질문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유형1’부터 ‘유형6’까지 다양한 질문의 유형이 단계적으로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유형의 질문이 다 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레벨의 교재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질문이 실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더욱 다양한 유형의 질문이 단계별로 제시되어 학습자가 읽기 텍스트를 이해하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구민지(2012), 한국어 읽기 교육 이해질문 분석 연구-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이해질문을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제92호, 한국국어교육학회, 495-522쪽.
- 김수신(2016), 한국어 교재 내 읽기 질문 유형 분석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쓰자키 마히루(2009), 한국어 읽기 질문 유형 분석, 『이중언어학』 41, 이중언어학회, 111-137쪽.
- 문시내(2015),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의 질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다슴(2014), 한국어 교재의 읽기 질문 유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순(2013), 중급 한국어 교재 읽기 질문 유형 분석,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심(2020), 한국어 교재와 영어 교재의 읽기 질문 유형 비교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토론〉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읽기 질문 분석 연구 - 고급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노미연(국민대학교)

증가하고 있는 학문 목적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역량 향상과 읽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읽기의 질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재 및 교수·학습에 적용한다면 학습자의 이해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읽기 학습을 위해 읽기 활동을 위한 질문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발표하신 내용 중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연구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양한 교육기관의 고급 단계에 속하는 5급과 6급 교재의 내용을 폭넓게 분석할수록 읽기 질문에 대한 경향성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고, 읽기 질문에 대한 경향성을 찾아내어 일반화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단지 3개 교육기관의 5급 단계의 교재만을 분석의 범위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2. 다음은 질문 유형의 분석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표 1>의 Nuttall(1982)의 질문 유형을 분석의 틀로 하였는데, 참고 문헌에 이 논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질문 유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쓰자키 마히루(2009:117)에서 인용한 Nuttall(1996)과 Day-Park(2005)의 읽기 질문 유형에서 Nuttall(1996)의 질문 유형과 그 설명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유형 1은 문자대로의 이해(Questions of literal comprehension, 텍스트에 직접적 또는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 3>에 분석되어 있는 A 교재(서강한국어)에서 ‘다’에 해당되는 질문 유형이 ‘유형 3(추론, Questions of inference, 텍스트에 직접적 또는 명확한 기술이 없는 정보를 독자가 추론하는 것을 요구하는 질문)’과 ‘유형 5(개인적 반응, Questions of personal response, 텍스트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의 ‘1. 북촌 한옥 마을과 남산 한옥 마을은 어떤 점이 다릅니까?’, ‘2. 북촌은 서울의 어디에 있습니까?’의 질문 유형은 유형 3이 아니라, 유형 1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에 직접적 또는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정보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Nuttall(1996)에 제시된 질문 유형뿐만 아니라 <표 1>에 제시된 내용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표 6>에 제시된 ‘유형 6’의 질문 유형의 예(‘여러분이 경험을 했거나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등의 예)는 <표 1>에 제시된 ‘유형 6(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한 질문, Questions of concerned with how writers say what they mean)’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석틀에 맞추어 정확한 분석을 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표 1>에 제시된 질문 유형과 <표 6>에 제시된 질문 유형의 예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세 번째 질문은 장르에 따른 질문 유형의 차이입니다. 읽기 텍스트는 장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논설문’, ‘설명문’ 등과 같은 읽기 텍스트 장르에 따라 질문의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문’의 경우에는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므로 글쓴이의 태도를 묻는 질문을 하기 어렵고, ‘논설문’의 경우에는 글쓴이의 태도나 입장을 묻는 질문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장르를 고려하지 않고 질문의 유형만을 분석했습니다. 읽기 텍스트 장르에 따른 질문 유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마지막은 4장 제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읽기 활동에서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김명희(단국대학교) · 정윤자(단국대학교)

### 1. 들어가기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한국어 어휘 학습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때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제작된 전용 애플리케이션<sup>1)</sup>이 아니라 웹툰(webtoon), 동영상, 부동산앱, 음식 배달앱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sup>2)</sup>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그동안 신문기사, 뉴스, 영화, 드라마, K-POP, 웹툰 등 다양한 자료가 사용되어 왔다. 외국어나 제2언어 교육에서, 시각 텍스트인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제2언어를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목표어로 해설하는 것보다 단어의 이해와 기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Carpenter& Olson, 2012; Kost, Foss,&Lenzini, 1999)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어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정주안, 2019; 오은화, 2020; 손만복, 2021, 김명희, 2019 등등).

본 발표에서는 효과적인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해 시청각 자료를 넘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학습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애플리케이션의 요소들로 인하여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은 부동산, 식당 찾기 등과 같이 주제 중심으로 실행되므로 주제별 어휘 교육이 가능하고, 어휘의 사용 예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어휘의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으로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제안하고, 이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으로 나누어 8주간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전과 후에 어휘시험을 통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설문 을 통해 학습자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그 효과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본 발표의 2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방법을, 3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 
- 1) 세종학당재단에서 제작한 ‘세종한국어 어휘학습 초급·중급’, ‘세종한국어 문법 중급’ 등 각 급수별, 분야별로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그 밖에도 각 개인이나 단체가 만든 한국어능력시험 연습용 app, 한국어 교육용 app이 있다. 한편 교사들은 포털 app을 통해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s://kcenter.korean.go.kr>)’에 접속해 각종 교수 자료를 접할 수 있다.
  - 2) 학습용 app은 교육에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학습하면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흥미 유발과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2. 연구 방법<sup>3)</sup>

### 2.1. 연구 대상

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를 위한 교육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8주간, 주 1회, 매회 2시간씩 진행되었다.<sup>4)</sup> 연구 대상은 D대학 유학생 32명으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각각 16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집단은 TOPIC 3급 11명, 4급 5명으로 구성하였다.<sup>5)</sup> 학습자의 국가별 분포와 한국어 수준은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도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이다.

	실험집단(N = 16)		대조집단(N = 16)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적	중국	11	68.8	9	56.3
	베트남	1	6.2	1	6.2
	캄보디아	0	0	2	12.5
	우즈베키스탄	2	12.5	3	18.8
	기타	2	12.5	1	6.2
한국어 수준	3급	11	68.7	11	68.7
	4급	5	31.3	5	31.3

<표1> 연구 대상자의 일반 사항

본격적인 연구 진행에 앞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두 집단을 동질집단으로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실험집단(N = 16)		대조집단(N = 16)		$t$
	M	SD	M	SD	
한국어 어휘능력	50.94	14.08	54.63	13.28	-0.762

<표2> 교수법 실시 전 집단 간 동질성 검사

-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발표자는, 2019년에는 교재 중심의 어휘 수업을, 2020년에는 동일한 교재를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어휘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을 모두 마친 뒤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평가와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애플리케이션 활용 어휘 수업을 진행한 2020년에 강의평가 점수와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 대조집단은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 ~ 12시에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은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14시 ~ 16시까지 진행하였다.
- 실제로 수강한 학습자는 실험집단 23명, 대조집단 22명이고, 이들은 1급 ~ 5급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중급 한국어 어휘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수업이었고, 또한 수강생의 대부분이 3급, 4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험과 설문 결과에 미칠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두 집단의 학습자에게 강의 결과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였고, 시험과 설문에서 3급과 4급 학습자의 결과만을 뽑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설문을 마친 뒤 이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간단히 설명하였다.

## 2.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 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실시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7주간의<sup>6)</sup> 수업은『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습 중급』을 바탕으로 하였으며<sup>7)</sup>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였는데,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어휘를 교육하였다. 수업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주차	내용	주차	내용
1	강의 개요 설명 및 사전 시험 실시	5	'음식'을 주제로 한 어휘
2	'사람'을 주제로 한 어휘	6	'가정'을 주제로 한 어휘
3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어휘	7	'인간관계'를 주제로 한 어휘
4	'건강'을 주제로 한 어휘	8	사후 시험 실시 및 설문조사

<표3> 수업 진행 및 내용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제어는, '사람'을 주제로 한 어휘 73개,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어휘 73개, '건강'을 주제로 한 어휘 90개, '음식'을 주제로 한 어휘 78개, '가정'을 주제로 한 어휘 74개, '인간관계'를 주제로 한 어휘 84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어휘는 물론, 해당 어휘의 유의어, 반의어, 흔히 연관되어 함께 쓰이는 어휘들을 설명하며 수업을 진행하였다.<sup>8)</sup> 우선 대조집단의 경우,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제별로 수업을 진행하되 가나다 순으로 어휘를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4장 '음식' 편에서는 '가지(채소), 갈다, 고구마, 고소하다, 고춧가루...'의 순서로 어휘가 제시되어 있어서 '가지'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어휘와 사용례를 제시한 뒤에 다음 어휘인 '갈다'로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실시했다면 교재를 가지고 학습자와 직접 어휘를 읽고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인데,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PPT를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PPT에는 '표제어 어휘, 의미, 사용례, 참고어휘'를 제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이미지를 넣어 설명을 보조하였다.

실험집단에서도 교재에 따라 주제별로 관련된 어휘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 것은 대조집단의 경우와 동일하나, 해당 어휘와 관련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였다는 점이 특별하다. 예를 들어 4장 '음식' 편에서는 배달 app을 통하여 음식의 종류, 음식 이름, 주문 정보, 구매 후기 등을 찾아보고 이를 설명하면서 4장에서 가르쳐야 할 '재료, 고소하다, 느끼하다, 기름, 양념...'등의 어휘를 가르쳤다. 실험집단 대상 수업에서도 PPT를 제작하여 진행하였고, PPT에는 '표제어 어휘, 의미, 사용례, 참고어휘'와 필요에 따라 이미지를 넣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했기 때문에 대조군에서 일일이 보여주어야 했던 의미와 사용례, 이미지 등의 양이 훨씬 적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어휘의 명칭과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자가 어휘를 공부하도록 하였다.

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은 7주간 진행하였고, 시험은 1주 뒤인 8주차에 실시하였다.

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습 중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8) 실제로, 제시된 어휘의 의미와 그 쓰임을 설명하는 데 2시간은 매우 촉박하였기에 중간에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 2.3.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의 실제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2020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터넷 관련 분야의 발달로 온라인 학습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등지에서 실질적 사용을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되어 기존의 교육환경이 무너지자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온라인 교육을 위해 ‘GOOGLE MEET, Webex Meetings, ZOOM Meetings, Microsoft Teams, Tencent Meeting’ 등의 실시간 화상 회의 app이 활용되었다. 온라인 교육에서 필수적인 화상회의 프로그램도 app을 기반으로 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 수업은 ‘ZOOM Meetings’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화상회의의 ID와 암호는 kakao talk과 WeChat을 통해 공지하였다. 채팅 app인 kakao talk과 WeChat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 회의 정보 제공, 공지, 과제 제출, 피드백, 조별 토의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림1] 애플리케이션 활용 한국어 어휘 수업의 교수-학습 모형

위의 [그림1]에서 보듯이, ‘수업 안내’는 ‘사전 app’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전 app을 활용해 교사는 주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 학습자는 모르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웹툰(webtoon)을 통해 수업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웹툰 app으로는 daum 웹툰, naver 웹툰, 카카오페이지, 봄툰 등이 있다. 웹툰은 한국어와 어휘의 이해를 돕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PC등의 도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 또한 역동적인 그림과 이야기 구성으로 인해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sup>9)</sup>

본 연구의 수업 시간에 활용한 웹툰은 『독립일기』<sup>10)</sup>, 『대학일기』<sup>11)</sup>, 『치즈 인 더 트랩』<sup>12)</sup>, 『미생』<sup>13)</sup> 등이다. 『독립일기』와 『대학일기』는 동일 작가의 작품으로, 한 편씩 봐도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형 웹툰이다. 대학 생활이나 자취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용이 짧고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어휘로 이루어져 있어 학습에 용이하다. 『치즈 인 더 트랩』은 대학 생활을, 『미생』은 회사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교재의 주제 중 ‘학교와 수업’, ‘사회’

9) 김명희(2019)에 의하면, 웹툰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구성 요소, 접근성, 흥미도는 한국어 어휘 학습에 도움을 준다.

10) 2020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연재되고 있는 네이버 웹툰으로, 대한민국 웹툰작가 ‘자까’의 작품이다.

11) 2016년 6월 2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연재된 네이버 웹툰으로, 대한민국 웹툰작가 ‘자까’의 작품이다.

12) 2010년 7월 7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21일까지 연재된 네이버 웹툰으로, 대한민국 웹툰작가 ‘순끼’의 작품이다.

13) 2012년 1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 1부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2부가 다음 웹툰과 카카오페이지 웹툰으로 연재된, 대한민국 웹툰작가 ‘윤태호’의 작품이다.

부분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수업을 진행할 때 O2O app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O2O는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 오다’라는 뜻인데 배달 app, 부동산 app과 같은 구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칭한다. 학습자 대부분이 배달 app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부동산 app을 통해 살 집을 구할 정도로, O2O app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달과 부동산 app은 ‘음식’과 ‘가정’ 관련 어휘를 설명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된다. 아래 [그림2]에서와 같이, ‘옷’과 관련된 어휘는, 쇼핑 app의 ‘의류의 종류, 구매 방법, 치수, 구매 후기’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또한 ‘음식’과 관련된 어휘는 배달 app의 ‘음식의 종류, 음식 이름, 주문 정보, 구매 후기’ 등을 통해, 그리고 ‘집’과 관련된 어휘는 부동산 app의 ‘집의 종류, 전/월세 방식, 집의 조건’ 등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



[그림2]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어휘 자료의 예

이 밖에도 다음, 네이버, 구글 등 포털 app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어휘의 이해를 돕는 사진 및 동영상뿐만 아니라 MBTI 심리테스트, 주제와 연관된 인터넷 기사, 병원, 관공서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각종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사람’ 관련 어휘를 가르칠 때 MBTI 검사에서 나오는 성격과 감정에 대한 어휘를 가르친 뒤, app을 통해 자신의 성격 유형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습자가 이에 흥미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한국어 어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한 어휘 설명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읽기, 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sup>14)</sup> 즉, 한국어 표현 교육과 이해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결과 및 논의

#### 3.1. 학습자 반응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수업에 대한 학습자 반응 조사는 D대학 유학생, 실험집단 16명, 대조집단 16명 총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은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객관식 질문은 리커트 5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14) 현재 많은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관련 app을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D대학 역시 ‘LearningXStudent’라는 app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공지 사항 확인, 녹화된 강의 다시 보기, 과제 제출, 시험 및 퀴즈 등으로 소통하고 있다.

1	객관식	이 수업은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가?
2	객관식	이 수업은 어느 부분에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
3	객관식	이 수업은 한국어 어휘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가?
3-1	주관식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는 무엇인가?
4	객관식	수업 중에 제시한 자료는 수업 내용과 연관이 있었는가?
5	객관식	수업 중에 제시한 자료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5-1	주관식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는 무엇인가?
6	객관식	이 수업 방식은 다른 한국어 어휘 수업 방식보다 효과적인가?
6-1	주관식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는 무엇인가?
7	주관식	이 수업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8	주관식	이 수업에서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9	객관식	이 수업에 만족하는가?
10	객관식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어휘 수업을 듣고 싶은가?

〈표4〉 웹툰 활용 수업에 대한 질문

아래 〈표5〉에서 보듯이, 이 수업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험집단은 평균 1.44, 대조집단은 평균 1.56<sup>15)</sup>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숫자상으로는 실험집단의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표6〉의 독립표본 검정 결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이 수업은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실험집단	16	1.44	.629	.157
	대조집단	16	1.56	.814	.203

〈표5〉 질문에 대한 집단 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을 가정함	1.843	.185	-.486	30	.630	-.125	.257	-.650	.400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86	28,209	.631	-.125	.257	-.652	.402

〈표6〉 질문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이 수업은 어느 부분에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기는 어휘, 문법,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문화, 기타. 모두 8가지이다. 〈표7〉에서 보듯이, 해당 질문에서 대조집단은 전적으로 ‘어휘’를 선택한 것에 비해 실험집단에서는 어휘

15) 리커트 5단 척도 사용. 1번 아주 그렇다. 5번 전혀 그렇지 않다.

62.5%, 문법 18.75%, 듣기 6.25%, 말하기 6.25%, 문화 6.25%를 선택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F = 11.487\*\*)하였고 이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어휘 수업이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의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집단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이 수업은 어느 부분에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실험집단	16	2.38	1.544	.386
	대조집단	16	2.00	.000	.000

〈표7〉 질문에 대한 집단 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을 가정함	11.487	.002	.972	30	.339	.375	.386	-.413	1.16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972	15.000	.347	.375	.386	-.448	1.198

〈표8〉 질문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이 수업이 한국어 어휘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실험집단 평균 1.5625, 대조집단 평균 1.5625로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이 수업은 한국어 어휘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실험집단	16	1.5625	.72744	.18186
	대조집단	16	1.5625	.51235	.12809

〈표9〉 질문에 대한 집단 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을 가정함	2.982	.095	.000	30	1.000	.00000	.22244	-.45428	.4542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00	26.943	1.000	.00000	.22244	-.45645	.45645

〈표10〉 질문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하지만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다. 대조집단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생활에서 자주 한국어를 안 사용해서 단어를 잘 몰라요.’ ‘이 수업을 듣고 다양한 단어를 알 수 있고 한국어로 이야기 기회도 있어서 단어를 많이 배웠어요.’ ‘다 기억 못하지만 혼자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많은 단어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요.’, ‘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간단히 추상적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비해 실험집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답을 하였다.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쓰는 어휘라서 많이 도움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만화로 어휘를 가르쳐 주시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특별한 한국어 어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수업의 학습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모두 자신의 약어와 유행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만화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휘는 평소에 배운 어휘와 달리 재미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우리와 자주 대화합니다.’, ‘공부한 심리 지식처럼 내 주의를 끌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자신의 표현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

이러한 학습자의 답변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활용 수업은 일상생활어뿐만 아니라 축약어, 유행어 등 실질적인 한국어 어휘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며 만화, 심리테스트 등의 자료가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업 중에 제시한 자료가 수업 내용과 연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실험집단 1.5000, 대조집단 2.1875로 수치상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표11>에 따르면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집단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수업 중에 제시한 자료는 수업 내용과 연관이 있었습니까?	실험집단	16	1.5000	.73030	.18257
	대조집단	16	2.1875	.83417	.20854

<표11> 질문에 대한 집단 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을 가정함	.432	.516	-2.480	30	.019	-.68750	.27717	-1.25356	-.1214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480	29.485	.019	-.68750	.27717	-1.25397	-.12103

<표12> 질문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수업 중에 제시한 자료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F = 22.737\*\*\*)하게 나타났다. 보기는 ‘웹툰, 동영상, 그림/사진, 신문기사, 심리 테스트, 쇼핑 홈페이지, 배달앱/부동산앱, 기타’로 총 8가지인데 실험집단은 웹툰 43.75%, 그림/사진 31.25%, 심리테스트 12.5%, 동영상 6.25%, 기타 6.25%를 선택했다. 이에 반해 대조집단은 모두 ‘그림/사진’을 선택했다. 대조집단의 경우, ppt를 사용하여 어휘, 개념, 사용례를 제시하며 설명하였고, 어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집단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수업 중에 제시한 자료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실험집단	16	2.6250	1.99583	.49896
	대조집단	16	3.0000	.00000	.00000

〈표13〉 질문에 대한 집단 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을 가정함	22.737	.000	-.752	30	.458	-.37500	.49896	-1.39401	.64401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752	15.000	.464	-.37500	.49896	-1.43850	.68850

〈표14〉 질문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대조집단은 ‘그림이 재미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림을 사용해서 더 쉽게 단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다’라고 답했다. 반면에 실험집단은 각 자료를 고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하였는데, 대부분의 답이 공통적이었다. 도움이 되는 자료로 ‘웹툰’은 선택한 학습자들은 ‘그림에 글자의 내용을 더하면 배운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일상적인 문장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 등. ‘그림/사진’을 선택한 학습자들은 ‘그림을 보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답했으며 ‘심리 테스트’를 선택한 학습자는 ‘저를 흥미롭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하게 되고 테스트를 할 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라고 답했다. ‘기타’라고 답한 학습자는 ‘모두가 도움이 되고 자신의 표현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웹툰은 글자와 그림이 같이 있어서 어휘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을 주며 흥미롭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어휘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효과적인 매체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사진은 어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심리 테스트 등은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수업 방식이 다른 한국어 어휘 수업 방식보다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험집단은 평균 1.5000, 대조집단은 평균 2.2500의 결과를 보였다.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이 수업 방식은 다른 한국어 어휘 수업 방식보다 효과적이었습니까?	실험집단	16	1.5000	.63246	.15811
	대조집단	16	2.2500	.77460	.19365

〈표15〉 질문에 대한 집단 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을 가정함	.692	.412	-3.000	30	.005	-.75000	.25000	-1.26057	-.2394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000	28.846	.006	-.75000	.25000	-1.26143	-.23857

〈표16〉 질문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하지만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조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재미있게 진행하면서 한국어 공부 동기도 생길 수 있다’, ‘도움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시험과 숙제가 없어서 새로운 배운 단어를 잘 못 기억해요.’, ‘그냥요.’ 등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실험집단에서는 ‘어휘를 일상생활과 연결하기 때문에 쉽게 기억합니다.’, ‘이 수업에 원래 책에서 나오는 단어뿐만 아니라 평생 속에 쓰는 유행어도 같이 가르쳐 줘서 넘 좋아요.’, ‘만화와 그림으로 가르치는데 정말 재미있네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분석하고 재미있는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이해력을 높입니다.’, ‘서로 다른 교수법이더라고요. 이런 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재밌더라고요 합니다.’ 이밖에 e-campus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고 복습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습자들은 애플리케이션 활용 어휘 교육이 일반 어휘 교육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학습 방법을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를 배울 수 있으며 다른 교수 방법에 비해 흥미롭기 때문에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수업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조집단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선생님 친절하고 같이 공부한 분위기가 재미있다.’, ‘선생님이 열정적이고 친절하세요.’, ‘단어 설명을 잘 가르쳐 주세요.’, ‘한 카테고리의 단어들을 한번에 배울 수 있고 반대 단어나 같은 의미 단어도 가르쳐 주셔서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한 단어의 의미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습자가 교수법보다는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말했고, 단어 설명 위주의 학습 방식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비해 실험집단은 ‘비교적 재미있지만 공부하기에 더욱 쉽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만화로 모든 게 지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우 재미있어서, 일상 용어와 축어를 많이 배울 수 있다.’, ‘어휘를 일상 생활과 연결하기 때문에 쉽게 기억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 이외의 지식도 습득하여 비축한 것이다.’라며 수업의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 만화(웹툰)와 일상생활 관련 자료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며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재에 있는 어휘에 비해 평상시 사용되는 어휘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실질적인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수업에서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조집단은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를 기억하는 방법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단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림으로 단어를 배워서 재미있어요.’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수업의 장점에 대해 답한 실험집단의 질문과 대조적이었다. 학습자들은 보다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학습 자료 및 수업 방식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미 위주의 설명을 하면서 가끔 제시했

던 그림 및 사진 자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실험집단은 대부분 해당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딱 좋아해요.’ 등과 같이 ‘없다’고 답했다. 그밖에 ‘당신은 음악의 가사와 영화같은 것을 첨가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종류의 학습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수업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험집단은 평균 1.2500, 통제집단은 평균 1.6875라는 수치를 나타냈다. 독립표본 검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F = 14.563^{**}$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단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이 수업에 만족하니까?	실험집단	16	1.2500	.44721	.11180
	대조집단	16	1.6875	.87321	.21830

〈표17〉 질문에 대한 집단 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을 가정함	14.563	.001	-1.784	30	.085	-.43750	.24527	-.93840	.06340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784	22.362	.088	-.43750	.24527	-.94568	.07068

〈표18〉 질문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어휘 수업을 듣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실험집단은 평균 1.3125, 대조집단은 평균 1.8125라는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F = 14.913^{**}$ )하였다.

	집단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어휘 수업을 듣고 싶습니까?	실험집단	16	1.3125	.47871	.11968
	대조집단	16	1.8125	.91059	.22765

〈표19〉 질문에 대한 집단 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을 가정함	14.913	.001	-1.944	30	.061	-.50000	.25719	-1.02525	.0252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944	22.703	.064	-.50000	.25719	-1.03242	.03242

〈표20〉 질문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위와 같은 설문 결과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수업은 단순한 의미 설명 방식의 수업에 비해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축약어, 유행어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언어를 배울 수 있어서 실용적이며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 말하기, 듣기, 문화 등의 학습에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 3.2.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수업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교수법 실시 전, 대조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사후 검사와 대조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수법 실시 후, 집단별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각각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의어 5문제, 반의어 5문제, 문장에 빈칸 넣기 5문제, 대화에 빈칸 넣기 5문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 5문제이며, 문제 수준은 3~4급으로 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각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어휘의 난이도는 동일하게 맞추었다.

사후검사 진행 후,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에 한국어 어휘 능력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21〉에서 보듯이,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한국어 어휘능력( $t = 2.786$ )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이 한국어 어휘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알려 준다.

	실험집단(N = 16)		대조집단(N = 16)		t
	M	SD	M	SD	
한국어 어휘능력	77.69	14.74	65.25	10.09	2.786**

\*\* $p < .01$ . 〈표21〉 교수법 실시 후 사후검사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

교수법의 효과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실험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 대조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표22〉에 제시하였다.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휘 교육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의 한국어 어휘 능력은  $(-7.284)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조집단의 한국어 어휘능력 $(-3.935)$  또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험집단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험집단(N = 16)		<i>t</i>	대조집단(N = 16)		<i>t</i>
		M	SD		M	SD	
한국어 어휘능력	사전	50.94	14.08	-7.284***	54.63	13.28	-3.935**
	사후	77.69	14.74		65.25	10.09	

\*\*\* $p < .001$ . \*\* $p < .01$ . <표22> 교수법 실시 후 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 4. 마무리

한국어 어휘 교육은 다양하고도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 학습 현장에서는 주제별, 품사별 어휘의 개념 설명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웹(web)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있었지만 ‘한국어 교육용 사이트, 이메일, 개인 홈페이지, 전자 게시판’ 등을 활용한 교육 방법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한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어휘 교육을 목표로 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D대학교 유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은 각 16명이며 한국어 능력 3~4급의 학습자로 구성했고, 사전검사를 통해 동질집단임을 검증했다. 실험집단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어휘를 교육했고, 대조집단은 교재를 활용해 의미 설명 위주로 어휘를 교육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어휘 수업은 실시간 화상회의 app인 ZOOM과 채팅 app인 kakao talk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업 안내는 사전 app을 활용했으며 동기 유발 자료로는 웹툰 app을 활용했다. 본시 학습 진행 시에는 O2O app, 포털 app(사진, 그림, 동영상, 심리테스트 등)을 활용했다. 이밖에 교내 온라인 수업 app을 활용하여 공지 사항 확인, 녹화된 강의 다시 보기, 과제 제출, 시험 및 퀴즈 등의 활동을 했다. 또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읽기, 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 한국어 표현 교육과 이해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업 후,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설문 결과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수업이 단순한 개념 설명 방식의 수업에 비해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었고 어휘 이해에 용이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축약어, 유행어 등 일상 생활에 쓰이는 어휘를 배울 수 있어서 실용적이며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 말하기, 듣기, 문화 등의 학습에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실험집단(평균 77.69점)과 대조집단(65.25점)의 사후검사 비교를 통해서는 집단 간 한국어 어휘능력( $t = 2.786$ )이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 대조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대조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업은 교재, 의미 설명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보다 흥미롭고 기억하기 쉬운 수업이 될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과 시류에 따른 보다 흥미롭고 효율적인 한국어 어휘 교수 방법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명희(2019), 웹툰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만복(2021),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습 중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 오은화(2020),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의 동향 분석: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8집.
- 이승찬(2020), 한국어 교육에서 시각텍스트 사용의 변천 과정: 최근 30년 대학기관 초급 교재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58집.
- 정주안(2019),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동향 고찰 -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rpenter, S. K.&Olson, K. M.(2012), Are pictures good for learning new vocabulary in a foreign language? Only if you think they are no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38, No.1, 92-101.
- Kost, C. R. 외(1999), Textual and Pictorial Glosses: Effectiveness on Incidental Vocabulary Growth When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Foreign Language Annals* 32, No.1, 89-97.
- 『대학일기』, 네이버 웹툰  
<https://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679519> (검색일: 2020. 3. 5.)
- 『독립일기』, 네이버 웹툰  
<https://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748105> (검색일: 2020. 2. 13.)
- 『미생』, 다음 웹툰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20471> (검색일: 2021. 2. 26.)
- 『치즈인더트랩』, 네이버 웹툰  
<https://nstore.naver.com/comic/detail.nhn?productNo=1999768> (검색일: 2021. 2. 7.)

## 〈토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하영(부산대학교)

어휘 수업은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어휘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를 주로 활용하지만,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어휘가 많아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의 의미를 교수하는 데 있어서 수업의 만족도가 교사의 역량과 교수법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도입부에 흥미를 유발하는 자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수업에 대한 흥미가 금방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아 결국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수업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어휘 수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을 통한 학습자의 반응과 어휘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테스트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업의 효율(시간의 단축), 실용성(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 흥미 유발과 흥미의 지속,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학습자의 이해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어휘 교육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접근의 용이성은 매력적이지만 수업 중에 학습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app 또는 web에서 스캔한 이미지를 PPT에 옮겨온 것인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스마트폰을 강의 시간에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와 인터넷 접속, app의 안내와 설치 등, 다소 번거로운 작업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학습 도구 선정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본문의 글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음식’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배달 app을 통하여 음식의 종류, 음식 이름, 주문 정보, 구매 후기 등을 찾아보고 이를 설명하면서 가르쳐야 할 ‘재료, 고소하다, 느끼하다, 기름, 양념...’ 등의 어휘를 가르쳤다.”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을 교사가 어떻게 적절하게 한정하느냐의 문제, 또 댓글, 구매 후기 등에서 문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자극적인 표현, 비속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제에 맞는 적절한 자료 즉 도입부에 사용할 웹툰이나 본시에서 활용할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가르쳐야 할 어휘의 순서를 설정하는 등, 교사의 시간과 노력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발표 시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리라 생각되지만 교수 학습 모형에 따른 수업 운영 전체의 구체적인 예와 설명이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 한국어 원격수업 운영 사례와 개선 방안 연구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를 중심으로-

최광순(University of Customs and Finance, Ukraine)

### 1. 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교육 현장은 면대면 수업에서 원격수업<sup>1)</sup>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원격수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면대면 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의 변화는 이미 예측되었던 상황이다(도재우 2020; 박중열 2020).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서서히 진행되어 온 수업 방식의 전환을 원격수업 방식으로 급격히 바꾸어 놓았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 교육 환경은 원격수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지속될 것이며 한국어 교육 환경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원격수업으로 운영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영희(2015)는 숙명여대와 쿠웨이트대 간의 KF Global E-School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원격수업 운영 사례를 보여 주었다. 권영애·송영은(2017)은 국내 K 대학과 러시아 H 대학교의 실시간 원격교육을 통한 학점교류를 시행하고, 학습 만족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인옥(2020)은 Y 한국어학당 전 과정의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원격수업 사례를 보여 주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족도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정희연·윤지원(2020)은 대전 소재의 P 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비실시간 원격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학습자는 문법과 듣기 수업은 비실시간 원격수업 형태를 선호한 반면에 읽기와 말하기 수업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은·임수진·안윤숙(2020)은 서울 소재 H 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시행된 실시간 원격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 측면에서의 태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원격교육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영역과 비효과적인 영역을 살펴보았다. 김현주(2020)는 7명의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세 번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sup>2)</sup>를 통하여 실시간 원격수업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는데, 학습자들은 한국어 읽기나 쓰기 등의 수업은 동영상 강의 형태의 원격수업을 선호하였고, 토론이나 발표 등의 수업에서는 실시간 원격수업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상·신동광(2020)은 대학생들의 원격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각 지역별 1개씩 총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동영상 강의 형태의 원격수업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교수자의 수업 준비도나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 차이 등 교수자와 관련된 변인이 원격수업의 질 차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동영상

1) 원격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고, 인터넷이나 방송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기존 면대면 수업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원격수업에서 동일하게 교육하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및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박상훈 외 2020:3).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로운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성호·장경원 2018).

강의 형태의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과제물 중심의 수업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대부분 실시간 원격수업이나 비실시간 원격수업만을 실시한 사례 및 학습자 인식, 만족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실시간과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함께 운영한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운영된 사례 및 학습자의 만족도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세무종합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봄학기과 가을학기에 실시한 원격수업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와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선호도 분석을 통하여 향후 원격수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원격수업 유형 및 특징

원격수업은 교육이 실시되는 시간에 따라서 실시간 원격수업(Synchronous Distance Learning)과 비실시간 원격수업(Asynchronous Distance Lear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상훈 외 2020).

실시간 원격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쌍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화상이나 채팅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학습자의 의견이나 질문에 교수자가 바로 피드백을 주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및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면대면 수업과 유사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초기 형태인 비실시간 원격수업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실시되며 학습자가 수업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수업과 관련된 자료에 접속하는 시간과 장소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자료를 교수자가 온라인에 등록하면 학습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수업을 듣고 온라인상에서 비실시간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는 과제 제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내실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비실시간 원격수업에서도 실시간 원격수업에서 이용하는 실시간 토론이나 채팅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실시간 원격수업과 비실시간 원격수업에 대한 비교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 비교(박상훈 외 2020:5)

구분	실시간 원격수업	비실시간 원격수업
시기	수업의 시작과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친밀감 형성에 유용함	많은 학습자가 동시에 접속하기가 어렵거나 교육의 주제와 내용이 어려운 경우 제한된 시간에 활용함
목적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교육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질의와 응답 및 피드백을 바로 제공하여 교육의 참여에 동기 부여가 됨	학습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와 내용의 이해에 원하는 시간을 투입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방식	화상회의 및 문자와 채팅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	교육을 위하여 온라인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수업과 과제 제출 및 토론에 활용함

### 3. 한국어학과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결과

#### 3.1. 한국어학과 원격수업 운영 현황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비대면 원격수업을 명령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sup>3)</sup> 이로 인해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 한국어학과<sup>4)</sup>는 봄학기(2학기)가 운영되는 중에 단시간 내에 전 과정 수업을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대학교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에 수업을 개설하고 교수자는 수업과 관련된 파일이나 동영상 업로드하고 과제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학과는 동영상 업로드나 과제 제시 방식보다 학습자와 교수자의 실시간 원격수업이 면대면 수업 환경과 가장 근접하여 한국어과 전 수업을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실시하는 한편, 출석 확인 및 수업 자료 업로드, 과제 제출 등은 본 대학교에서 정한 학습관리시스템인 구글 클래스룸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대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어학과 교수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다수 참여가 가능한 실시간 원격 화상회의 어플인 ZOOM(이허 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학습자에게 공지하였다. 줌 화상회의를 하는 줌 클라우드 미팅(ZOOM Cloud Meeting)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4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1시간 20분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의 경우 40분 간격으로 다시 나누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수업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유료 버전으로 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시간 원격수업 공지 후 수업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줌 사용과 관련된 메뉴얼을 제시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학과 카카오톡(KakaoTalk) 단체방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면대면 수업을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연일 교수자는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PPT 파일로 원격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과제 확인 및 학습자 관리까지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컸다. 또한, 교수자는 행정 업무 측면에서 학습자의 출석 확인을 위해 매 수업마다 수업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확인이 가능한 수업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촬영하여 대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하고 원격수업 계획서 및 학습자 평가서 등 원격 수업과 관련된 추가 서류들을 작성해야 했다. 학습자는 불안정한 인터넷 상황으로 인한 원격수업 참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50~60명의 학습자가 동시에 실시간 원격수업에 참석하다 보니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으로 실시간 원격수업과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대학교 한국어학과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경희사이버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강의 콘텐츠' 지원을 받아 2학년 '대학한국어기초회화', 3학년 '대학한국어회화1' 2과목을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고 다른 과목들은 봄학기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학습자에게 공지하였다. 그런데 가을학기 초에 잠시 면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되어 비실시간 원격수업 경험이 거의 없는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들을 위해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연계형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도록 면대면 수업에서 메뉴얼을 제공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들이 비실시간 원격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가을학기인 1학기 수업은 몇 주간 수업을 제외하고 전 과정 수업은 화상 강의 형태의 실시간 원격수업과 동영상 강의

3) 우크라이나 법률 사이트 [http://search.ligazakon.ua/l\\_doc2.nsf/link1/MUS33485.html](http://search.ligazakon.ua/l_doc2.nsf/link1/MUS33485.html). 검색일 2021년 1월 10일.

4) 해당 학과는 2018년 9월에 개설되었으며 1, 2학년이 각각 60명, 3학년 50명 등 총 17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우고 있다.

형태인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2과목을 제외하고 다른 수업은 면대면 수업과 동일한 시간대로 진행하여 최대한 면대면 수업과 다름없이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비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에 익숙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학습자들이 주 차별 원격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매주 한국어학과 각 학년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격수업 진도율을 게시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진도율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이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학습자에게는 전화하여 독려하였다. 매 학기 실시하는 기말 평가는 각 과목의 특성과 각 학년의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비실시간과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로 실시하였다.

### 3.2. 연구 방법

국립세무종합대학교 한국어학과는 2020년도 봄학기에는 실시간 원격수업만을 진행하였고, 가을학기에는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와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2학년 61명, 3학년 47명으로 총 108명이며, 설문 문항은 전반적인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봄학과 가을학기에 실시된 원격수업 형태에 대한 선호도와 자유 의견 등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개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채점하는 방식으로, 점수 배점은 1번에 답한 경우는 1점, 5번에 답한 경우는 5점을 주는 방식이며, 마지막 문항은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자율적인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우크라이나 공공 교육기관의 경우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법률<sup>5)</sup>에 의하여 설문지를 우크라이나어와 한국어로 병기하여 실시하였다.

원격수업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 (Chronbach's  $\alpha$ )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며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뢰도 인정의 허용기준은 0.6 이상이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원격수업 설문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번호	항목이 삭제된 경우 Chronbach's $\alpha$	신뢰도 Chronbach's $\alpha$
1	.783	.816
2	.769	
3	.792	
4	.823	
5	.756	
6	.798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원격수업 문항별 신뢰도는 모두 0.6 이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처리를 위해서 통계프로그램 SPSS 22.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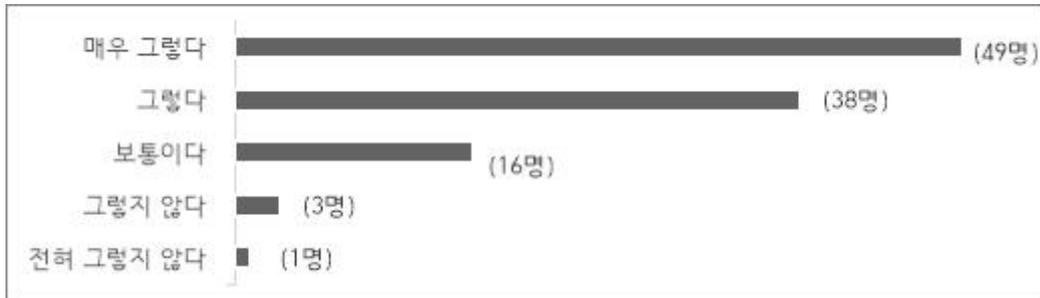
5) 우크라이나 법률 사이트 <http://ips.ligazakon.net/document/view/t192704?an=1> . 검색일 2021년 1월 13일.

### 3.3. 연구 결과

#### (1) 원격수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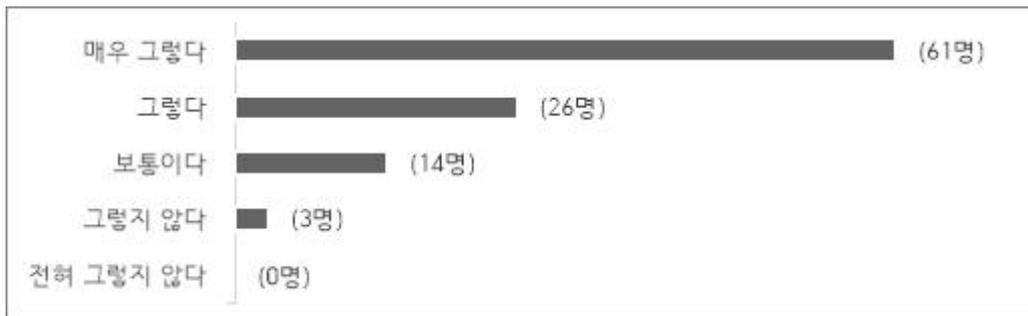
먼저 원격수업이 한국어 수업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습자의 비율이 82%,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습자의 비율이 4%, 보통으로 응답한 학습자의 비율이 15%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은 원격수업이 한국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1>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원격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였다.



다음 <그림 2>에서 87%의 학습자들은 원격수업이 한국어 학습 동기를 강화시켰다고 응답하였으며, 3%의 학습자만이 원격수업과 관련된 한국어 학습 동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 원격수업을 통해 한국어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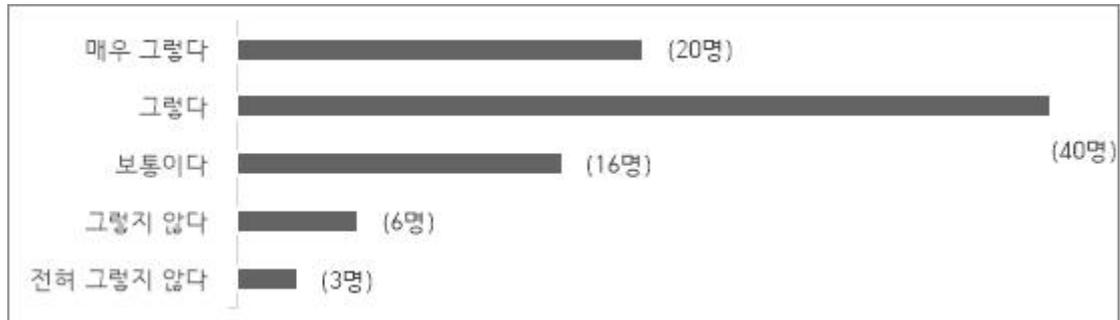
원격수업이 한국어 학습 동기를 강화시켰다고 응답한 이유를 아래 학습자의 의견을 통해 알 수 있다.

- T18 : 1학기 수업 형태는 정말 마음에 든다. 특히 경희사이버대 수업을 통해 한국에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우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경희사이버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있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T22 : 1학기 수업 형태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했다. 특히 경희사이버대 강의는 나에게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했고, 한국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 T26 : 1학기 수업 형태는 나에게 조금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우리 교수님들 강의만 듣다가 한국에 있는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한국어도 재미있지만,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를 통해 실시간 원격수업과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 실시한 1학기 원격수업의 형태가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번 문항은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면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다른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71%의 학습자가 ‘면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의 차이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는 19%, ‘차이가 있다’는 11%의 응답자가 대답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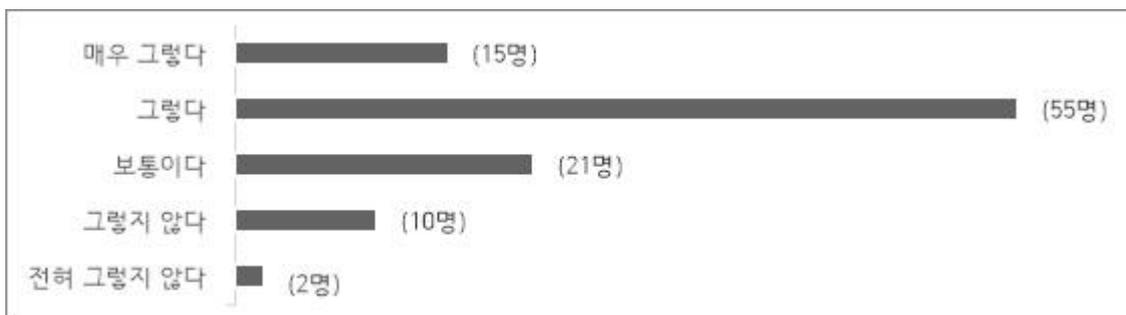
〈그림 3〉 면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에 차이가 없었다.



정희연·윤지원(2020)의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이유로 원격수업보다 면대면 수업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 학습자들은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던 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해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2020)는 실시간 원격수업이 동영상 강의 형태의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다음 <그림 4>는 원격수업 참여도 측면에 대한 학습자 반응이다. 실시간 원격수업과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참여 정도를 질문한 결과 68%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보통이다’는 20%, 12%의 학습자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노정은·임수진·안윤숙(2020)은 실시간 원격수업 참여에 대해 52.8%의 학습자들이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학습자들은 원격수업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아래 응답자의 자유 의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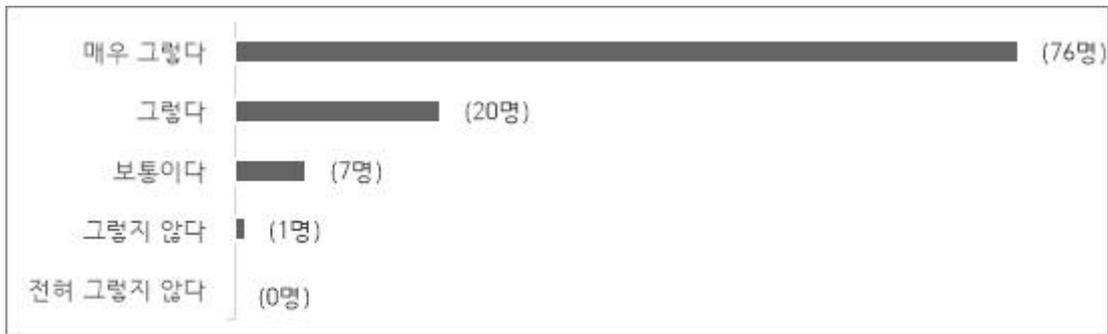
T14 : 2학기(봄학기)에 비해 1학기(가을학기) 수업에는 인터넷이 가능할 때 접속할 수 있는 과목도 있어서 좋았다.

- T34 : 1학기 과정은 비대면 수업과 차이가 없을 만큼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가끔씩 인터넷이 좋지 않을 때 실시간 원격수업은 참여를 할 수 없어서 속상했다. 그런데 경희사이버대 수업은 인터넷이 좋을 때 다시 접속해서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 T48 : 1학기 수업은 2학기에 비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수월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나쁠 때 실시간 수업은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경희사이버대 수업은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 T72 : 1학기 수업은 비대면 수업과 비슷하다고 느낄 만큼 마음에 들었다. 물론 인터넷이 나쁠 때는 힘들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나빠도 들을 수 있는 과목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성적 평가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위의 학습자 의견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해 실시간 원격수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실시간과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 운영할 경우 각 원격수업의 장점을 살린다면 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매우 그렇다’가 73%, ‘그렇다’는 19%로 응답자의 9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전반적으로 원격수업에 만족한다.



다음으로 원격수업 만족도의 학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학년에 따른 원격수업 만족점수 평균 차이 (N=108)

구분	원격수업 만족점수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학년	2학년	61	25.56	.036 (.971)
	3학년	47	2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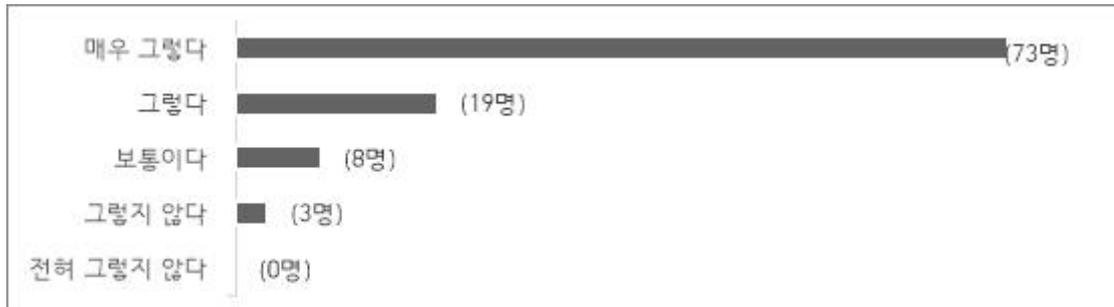
\*p<.05

<표 3>에서 보여 주듯이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t=0.036, p=0.971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원격수업 만족점수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2) 원격수업 형태에 따른 만족도

봄학기(2학기) 수업은 실시간 원격수업으로만 운영된 반면 가을학기(1학기) 수업은 실시간 원격수업과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연계형으로 운영된 비실시간 원격수업이 병행해 이루어졌다. <그림 6>은 가을학기 원격수업 형태에 대한 선호도 측면의 학습자의 반응이다.

〈그림 6〉 실시간 원격 화상회의로만 진행된 봄학기 수업보다  
실시간과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함께 진행한 가을학기 수업이 더 좋았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 89%의 학습자가 가을학기 원격수업 형태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8%, ‘그렇지 않다’는 3%로 대부분 학습자들은 실시간과 비실시간 원격수업이 병행 운영되는 형태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의 학습자의 자유 의견에서 살펴볼 수 있다.

- T10 : 1학기(가을학기) 수업이 더 좋았다. 우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교수님의 수업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내 발음과 듣기가 많이 향상되었다. 새로운 단어도 많이 배웠다.
- T29 : 1학기 수업은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든다.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우리 대학교와 한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과 자료는 모두 수준이 높았다.
- T72 : 1학기 수업 형태는 한국어 학습 전반에 큰 도움이 되었고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다.
- T73 : 1학기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다음 학기에도 경희사이버대 수업을 한 과목이 아니라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인터넷이 좋지 않을 때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 T82 : 1학기 수업은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주었다. 우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한국대학교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것은 한국어 공부에 효과적이었다. 가끔씩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경희사이버대 수업을 다시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T99 : 1학기 수업은 정말 좋았다. 우리 교수님들 강의와 경희사이버대 강의를 함께 듣는 것은 한국어 쓰기와 듣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 교수님들 수업은 질문을 하고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경희사이버대 수업은 내가 원할 때 여러 번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T103 : 한국대학교 교수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새롭고 흥미로웠으며, 우크라이나 교수님들과 가르치는 방식이 정말 다르다. 1학기 수업은 내가 한국어를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위의 학습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알 수 있듯, 학습자들은 본 대학교 교수자 외에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자의 차별화된 교수법과 수준 높은 강의를 현지에서 들을 수 있고 학습자가 편한 시간에 반복해서 한국에 있는 교수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을학기인 1학기 원격수업 형태를 봄학기 원격수업 형태보다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정선·권미경·최은경(2020)은 실시간 원격수업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주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김현주(2020)는 실시간 원격수업이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학습자도 쓰기와 듣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가을학기(1학기) 원격수업 형태가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가을학기(1학기) 원격수업 형태가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 <sup>2</sup>
	B	SE	$\beta$			
(상수)	10.887	1.600		6.803***		
가을학기 원격수업 형태	3.218	0.347	0.670	9.284***	86.196***	0.448

\*p<.05, \*\*p<.01, \*\*\*p<.001

<표 4>의 분석 결과, F=86.196 (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sup>2</sup>=0.448로 44.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가을학기 수업 형태는  $\beta=0.670$ (p<.001)으로 원격수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eta$ 부호가 정(+)적이므로 가을학기 원격수업 형태가 증가하면 원격수업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원격수업 관련 자유 의견

56명의 학습자가 원격수업에 대한 자유 의견을 주었는데, 이를 통해 원격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원격수업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1학기에 실시한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 실시한 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는 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해서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는 자율성과 동영상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하여 볼 수 있어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많은 학습자들이 원격수업을 통해서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자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측면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2명의 학습자만이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을 적었는데, 그 이유는 노트북으로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버퍼링이 오래 걸려서 수업 듣기가 불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재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토로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점이 불편하다고 느끼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와 선호도를 살펴보고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의 원격수업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 한국어학과 2학년과 3학년 학습자 108명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선호도와 보완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원격수업은 한국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한국어 학습 동기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을 높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71%의 학습자는 면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의 차이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정희연·윤지원(2020)의 연구에서 대다수의 학습자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이유로 비실시간 원격수업보다 면대면 수업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실시간과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 운영하였기 때문에 비실시간 원격수업 측면에서 연구한 정희연·윤지원(2020)의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 참여 정도를 질문한 결과 68%의 학습자가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노정은·임수진·안윤숙(2020) 연구에서는 인터넷 접속 등의 이유로 실시간 원격수업 참여에 대해 52.8%의 학습자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실시간 원격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인터넷으로 인한 수업 참여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응답자의 92%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학년에 따른 원격수업 만족점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학기(2학기) 수업은 실시간 원격수업으로만 운영된 반면 가을학기(1학기) 수업은 실시간 원격수업과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연계형으로 운영된 비실시간 원격수업이 병행해 이루어졌다. 89%의 학습자가 가을학기 원격수업 형태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학습자들은 본인 대학교 교수자 외에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자의 차별화된 교수법과 수준 높은 강의를 현지에서 들을 수 있고 학습자가 편한 시간에 반복해서 한국에 있는 교수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을학기인 1학기 원격수업 형태를 봄학기 원격수업 형태보다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쓰기와 듣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가을학기(1학기) 원격수업 형태가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가을학기 원격수업 형태가 증가하면 원격수업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6명의 학습자가 원격수업에 대한 자유 의견을 주었는데, 2명의 응답자만이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버퍼링이 오래 걸려서 수업 듣기가 불편했다는 의견과 한국어로만 제시된 강의 노트로 인해 한국어 공부가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응답자는 1학기에 실시한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 운영한 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는 실시간 원격수업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비실시간 원격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자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원격수업에서도 면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 운영한다면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대학 한국어학과 교수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원격수업이 단지 면대면 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원격 교육과정으로 본다. 이는 해외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의 부족을 해결하고 현지에 있는 학습자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자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의 면대면 수업과 병행하여 운영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보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 수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두 학기 동안 우크라이나인 한국어 학습자의 원격수업 만족도와 선호도를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권영애·송영은(2017), 「학습만족도 중심의 실시간 원격 화상 교육 개선 방안 연구-‘한국디자인의 역사’와 ‘한국어’ 강의 사례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제15권 제1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pp.93-108.
- 김현주(2020), 「외국인 학부생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 경험에 대한 탐색-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1권 제4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pp.1679-1692.
- 노정은·임수진·안윤숙(2020),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 환경에서의 교수자 및 학습자 인식에 대한 사례 연구-H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31권 제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1-53.
- 도재우(2020), 「면대면 수업의 온라인 수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장대문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제26권 제2호,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pp.153-173.
- 박상훈 외(2020), 「원격교육 수업 실행 방안」, 『2020KERIS 이슈리포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박종열(2020), 「코로나19로 촉진된 대학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고찰」, 『기계저널』 제60권 제7호, 대한기계학회, pp.32-36.
- 이영희(2015), 「실시간 원격 화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KF Global E-school 숙명여대-쿠웨이트대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28집, 돈암어문학회, pp.413-437.
- 이용상·신동광(2020),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교육 실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39-57.
- 정희연·윤지원(2020), 「한국어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연구」, 『인문사회21』 제11권 제3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pp.1305-1318.
- 조인욱(2020),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운영 사례와 개선 방향-한국어 교육기관의 전면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58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241-265.
- 최성호·장경원(2018),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4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pp.615-639.
- 최정선·권미경·최은경(2020),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D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81권, 동악어문학회, pp.135-168.

## 〈토론〉 “한국어 원격수업 운영 사례와 개선 방안 연구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조인옥(연세대학교)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육 현장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면대면 실시간 수업이 필수적인 외국어교육의 특성상 급격히 발생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앞섰고 시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국내와 해외 여러 교육기관의 다양하고 입증된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통하여 앞으로 외국어교육 분야에 소중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의 한국어 수업 사례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는데 전 세계 어느 교육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의의를 제고하고 해외 한국어 수업 현장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말씀드리며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려 합니다.

첫째, 해당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실시간 방식으로 수업을 했고 한 학기 동안은 실시간, 비실시간 병행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두 학기의 전체적인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격수업의 전체적인 만족도 외에 각각의 방식에 대한 정도 차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즉 ‘내용 이해도’와 ‘동기’에 대하여 실시간 방식과 비실시간 방식, 그리고 실시간+비실시간 병행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경험과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둘째, 병행 원격수업 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부각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수업 형태에 대한 만족도인지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인지 명확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원어민 교수자의 수업 내용 자체가 좋은 것인지, 병행 수업 형태에 만족한다는 것인지 설문 문항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병행 수업의 경우 비실시간 수업은 ‘대학한국어회화’가 진행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 실시간 수업 내용은 어떤 과목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선 방향 모색의 측면에서 비실시간 수업의 개선점과 실시간 수업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각각 알려주시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실시간 수업으로 ‘회화’ 수업 외에 어떤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면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귀중한 경험과 자료, 고견이 한국어 교육 현장과 연구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분과 6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Ⅱ

사회 : 이효정(국민대학교)

## 중국어와 한국어의 성경 번역 대조 연구

-〈新标点合本〉과 〈개역개정판〉을 중심으로-

FAN Wei-Xia(남서울대대학교)

### 1. 서론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기록에 의해 그때부터 원래 하나의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으며 인간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였다. 이는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조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사회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통번역이 시작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성경과 성경 번역하는 자체는 서양의 문화 사상과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번역계의 기원이자 전 세계 각 분야에 큰 영향을 주면서 역사상 이를 초월할 수 없는 경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 번역은 동양권의 언어와 문화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현대까지 이루어진 성경 번역 약사(略史)와 주로 실현된 번역본에 대해 정리하면서 특히 현재 중국과 해외, 한국에서 각각 많이 사용된 성경역본인 〈新标点合本〉(1988)과 〈개역개정판〉(1998)의 실제 내용 사례 분석을 통해 관련된 번역 현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중국과 한국에서의 성경 번역사의 흐름과 주요 역본을 되돌아보면서 중국어와 한국어 초기 성경 역본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이는 현대까지 이루어진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 역본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이런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최근 중국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 역본의 일부분 텍스트 내용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번역 현상을 분석한다. 중국어와 한국어 각각 성경 문장의 사례분석을 통해 직역과 의역 두 전통 번역 방법은 중한 성경에서 반영된 방식과 어휘와 문법의 어학적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한자어 사용 현상과 언어 문화적 배경에 반영된 다른 특정 표현 현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한 성경 번역의 방법과 관련된 성경 내용과 문체, 표현 방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기독교가 중국에서의 전파는 635년의 당나라 太宗때부터 시작한다. 그 때 경교의 성행으로 『尊经』이라는 경교 경전은 페르시아인 景净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781년 당나라 德宗때 세운 〈大秦景教中国流行碑〉비문을 통해 경교가 중국에서의 유입과 발전 흥망, 그리고 『尊经』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교와 경교 번역은 성경과 기독교의 사상이 중국에서의 전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16세기말에서 17세기 초의 성경 번역은 주로 천주교 선교사들에 의해 행해졌으나 대부분 부분적인 번역에 그쳤다. 1738년 파리의 巴设(J. Basset) 선교사가 라틴어 성경을 대본으로 번역한 〈巴设译本〉(바셋역본)이 탄생하여 이 번역본은 신약 성경의 부분 내용을 번역하였으나 최초의 천

주교 성경 번역본이며 나중에 초기 개신교 성경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초까지 개신교 이전의 중국어 성경 번역은 주로 당나라 때의 경교와 중국에 온 예수회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번역자이자 중국어에 능통한 학자였고 번역 과정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작업하였다고 한다. 중국 개신교 성경 번역본은 주로 문언문으로 대표되는 <마쉬만역본>, <모리슨역본>, <사인조역본>(1840년에 <舊遺詔書>라는 이름으로 출판), <대표역본>과 쉬운 문언문의 <淺文理譯本>, 백화문인 <官話和合譯本>, 현대 중국어의 <現代中文譯本>이 있다(황지원, 2012). 이와 같이 중국어 성경의 역사와 주요 역본에 관한 한미경(1998), 任東升(2006), 이수연(2013) 등 연구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모리슨역본> 번역시는 히브리어 및 헬라어의 원어성경 외에 라틴어를 대본한 <바셋역본>과 헬라어 표준원문(TextusReceptus)과 영어흠정역(King James Version)을 참고하였다. 이 역본은 이후의 중국어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고 한국의 초기 성경 번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미경(1998)에 의해 <모리슨역본>와 <대표역본>은 한국 초기 성경의 주요 참고 대본이라고 검증된다. 19세기 중엽을 지나 5·4운동과 중국 신문화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번역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때 중국어 성경 역본은 淺文理와 官話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淺文理의 대표 역본은 미국 성공회 선교사인 施約瑟(Samuel I. J. Schereschewsky)가 1902년에 완성된 <신구약전서>와 그의 조수에 의해 1910년 출판된 官話 번역본 <二指版>이 있다. 1919년에 이르러 결국 상하이 선교대회에서 구성된 번역위원회를 통해 드디어 신구약전서 통합본인 백화문 <和合本>이 출판되었다<sup>1)</sup>. <和合本>이후부터 중국어 성경이 지속적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인 스스로 성경 번역의 임무를 맡으면서 학자와 문인들이 번역 작업을 점차 주도해갔다. 1980년 이후는 <和合本>을 수정한 <新標點和合本>과 국제성경협회의 <新漢語譯本>이 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번역한 <聖經新譯本(1993)> 등이 있다. 그리고 현대 중국어로 번역된 <現代中文譯本>(Eugene Nida, 1979)성경이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중국과 해외에서 모두 인정을 받고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된 <新標點和合本>(1988)을 중국어 성경 역본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어 성경의 발전사와 역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대한성서공회의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해방 이전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성경번역 및 그 출판의 역사를 두 시기로 나눈다(류대영 외, 1994). 즉 구역(舊譯) 성경 번역·출판기<sup>2)</sup>와 개역(改譯)성경 번역·출판기<sup>3)</sup>로 구별할 수 있다. 189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초기 성경은 주로 만주와 일본에서 시작된 해외 역본인 로스역과 이수정역에 의해 이루어졌다. 1893년 상임성서실행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순수 한국내의 역본 작업을 시작하였다. 1911년 한국교회사상 처음으로 <구약전서>와 <성경전서>를 발간하였고 이를 구역성경이라 한다. 개역성경이 나올 때까지 이 구역성경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는 ‘한글마춤법통일안’ 채용문제, 용어의 공존과 혼란, 밀리 총무의 은퇴, 일제의 군국통치와 외국인 선교사와 선교기관 강제철수 등 문제와 상황에서 ‘조선성서공회’의 난산 등 갈등과 위기를 겪으면서 1938년 구약과 신약이 합본된 <성경개역>이 결국 출판되었다. 이 공인역 개정 성경은 1952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거하여 수정을 거친 뒤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란 이름으로 간행되었고, 1956년 다시 새로운 맞춤법에 따라 일부 수정했고, 1961년에 815개소의 자구수정을 거쳤는데, 이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성경이 되었다. 성경 개역 작업과 해방 이후의 한국어 성경 번역은 래리 스톤(홍병룡 옮김, 2011)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sup>4)</sup>. 그 후 1983년 시작하여 1993년 8월

1) <和合本>은 성경 번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그 간 번역된 중국어 성경들의 단점을 보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1819년 모리슨의 중국어 성경 역본 이래 백년 만에 성경을 정리하였다. 둘째, 백화문으로 번역한 성경 중 가장 정확하고 면밀한 번역본으로, 5·4신문화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신약의 <사복음서> 텍스트는 당시 정부와 학교의 표준 국어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2) 구역(舊譯) 성경 번역·출판기는 1893년 상임성서실행위원회가 조직된 때부터 1911년 <성경전서>가 완간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3) 개역(改譯)성경 번역·출판기는 그 이후 1938년에 나온 <성경개역>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4) 이후의 한국어 성경 번역은 새번역 성경의 시도(<신약전서 새번역> 1967), 신구교간의 공동번역 성서의 출간(공동 번역 성서

에는 17개 교단 대표로 구성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개정감수위원회’가 조직되면서 1998년 8월 31일 다시 <성경전서 개역개정>이 발행되었다. 개역개정판은 개역 성경의 7만 2천 7백 개소를 수정했다고 하고 대한성서공회는 교계의 여론을 수용, 번역에 반영하여 2000년 새로운 개역개정판을 선보이기도 했다. 대한 성서공회에 의해 최근 교단별 성경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85-90퍼센트가 개역개정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61년판 개역성경과 그 이후에 번역된 여러 한글 성경들은 권영문(2019)의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 역본의 관련성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초기 성서에 있어 한국어 초기 성서는 중국어 한자 성경의 기반으로 하여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경(1998)은 중국성서의 어느 판본이 한국의 초기 성서(로스역과 이수정역)에 참고 대본으로 사용되었는지에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로스역은 모리슨역본과 대표역본을 복합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수정역은 대표역본을 대부분 참고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후에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번역·출판된 구역(舊譯聖書<성경전서>)과 개역 개정판(改譯聖書<개역 한글판>)과 <성경전서 개역개정> 포함도 주로 로스역과 이수정 역의 수정본을 기초에 두고 시작하여 수많은 과정을 겪어 발전하여 이어진 결과물이라고 본다. 결국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성경 번역은 초기 중국어 한자 성경의 기초에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한성서공회의 자료에 의해 1900년경 성경 번역에 참가한 한국인 번역자는 대개 한학에 조예가 깊은 인물들로서 한문과 중국어에 능통하여 특히 개인역 단계에서 한문문리신약전서를 비롯한 여러 한문성경들을 대본으로 선교사들과 함께 한글 초역 번역을 하였다는 점도 이에 반영한다.李志剛(2019)에 의해 중국어<和合本圣经>은 모리슨본보다 한 백년 뒤에 늦게 나왔으나 관련 많은 내용이 계속 모리슨역본의 용어로 사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국어 초기 한자 성경 특히 모리슨역본은 역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최근 한국 교단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역개정판>(1998)의 한국어 성경과 중국과 해외에 광범위 사용하고 있는 <新标点和合本>(1988)의 중국어 성경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두 역본에서의 일부분 텍스트 내용을 뽑아 이루어진 직역과 의역의 번역 방식에 따라 반영된 번역 현상과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학적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표현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여 성경에 반영된 어학적 특징과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의 번역방법과 관련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3. 사례분석<sup>5)</sup>

#### 3.1 직역과 의역

성경 번역에서는 직역과 의역 두 가지 번역 방식 모두 존재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원문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언어 습관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경 번역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직역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의역을 취해야 되는지 고대부터 현재까지 역대 수많은 선교사들과 번역가들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다음은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의 역본에서의 직역과 의역 현상을 몇 가지 예시들을 통해 살펴본다.

1977), 현대어 성경(현대인의 성경 1985, 쉬운 성경 2001, 우리말 성경 2004, 메시지 2009, 모세오경 2011 등) 있다.

5) 연구 사례 분석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국제표준역본의 영어 성경 역본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1978)도 같이 참고하였다. 지면의 한계로 발표문에서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 원문만 제시한다.

## 1) 路加福音 14:26

영: I 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father,mother...such a person cannot be my disciple.

중: 人到我这里来, 若不爱我胜过爱(爱我胜过爱:原文是恨)自己的父母...就不能作我的门徒。

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시 1)에 중국어에서는 'hate'로 번역하지 않고 '爱我胜过爱'(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다)로 번역하고, 각주로 다시 원문에서 사용된 어휘 '恨'(미워하다)를 추가설명 했다. 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그대로 "미워하다"로 번역되어 원문을 직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한국어에서는 원문 직역 방법을 중시하는 것과 중국어에서의 의역 방식 경향의 차이점이 보인다.

다음의 예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인다.

## 2) 路加福音 15:8

중: 或是一个妇人, 有十块钱, 若失落一块, 岂不点上灯, 打扫屋子, 细细的找, 直到找着吗。

한: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은전의 명칭)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시 2)에 중국어 번역에서는 중국의 기본 화폐 단위인 "块"(위안)로 전환하여 끝에 "钱"(돈)을 부가설명으로 번역하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통화단위인 '드라크마'를 그대로 음역어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인명에 대한 번역 예시를 살펴본다.

## 3) 历代志上 6:51

중: 亚比书的儿子是布基。布基的儿子是乌西。乌西的儿子是西拉希雅。

한: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 4) 历代志上 8:11

중: 他的妻户伸给他生的儿子有亚比突, 以利巴力。

한: 또 그의 아내 후실에게서 아비들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 5) 路得记 1:20

중: 拿俄米对他们说, 不要叫我拿俄米(拿俄米就是甜的意思), 要叫我玛拉(玛拉就是苦的意思), 因为全能者使我受了大苦。

한: 나오미는 여자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희락)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괴로움)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위의 3)과 4), 5)예시들은 인명에 관련된 번역 사례이다. 중국어와 한국어 번역에서는 인명에 대해 모두 음역 직역이나 음역 직역과 괄호에서의 의미 추가 설명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3)과 4)에는 인명을 음역 직역으로 하였고 5)는 음역과 각주에 원문 뜻의 설명을 추가한다.

또한 다음의 예시들을 살펴본다.

## 6) 诗篇 17:8

중: 求你保护我, 如同保护眼中的瞳人。将我隐藏在你翅膀的荫下。

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 7) 以西结书 3:7

중: 以色列家却不肯听从你, 因为他们不肯听从我。原来以色列全家是额坚心硬的人。

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위 예시 6)에서 중국어 “眼中的瞳人”과 한국어에서 대응된 “눈동자”, 7)에서 중국어 “额坚心硬”과 대응된 한국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다”는 모두 문화소에 대한 이국화 번역 전략을 사용한 현상이다. 특히 7)예시에서의 “额坚心硬”의 “心硬”은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额坚”(이마가 굳다)은 중국어나 한국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경 사건 배경에 반영된 특정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어와 한국어에서는 모두 이국화 전략을 사용하는 번역 현상이다. 그리고 위 예시 6)과 7)에 한국어에서의 관련 표현은 모두 중국어에서의 표현과 일치한다는 점이 보인다.

## 3.2 어휘와 문법

3.1에서는 직역과 의역의 번역 방식은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에 반영된 현상을 살펴보았다. 3.2에서는 어휘와 문법의 어학적 특징에 따라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에서 나타난 다양한 표현 현상을 살펴본다.

## 3.2.1 한자어의 사용

우선 중국어성경과 한국어성경에서 흔히 보이는 한자어 번역 현상을 살펴본다.

## 8) 구약 제목과 신약 제목

구약: 创世记-창세기(Genesis) 民数记-민수기(Numbers) 申命记-신명기(Deuteronomy) 士师记-사사기(Judges) 列王记上-열왕기 상(1 Kings) 列王记下-열왕기 하(2 Kings) 历代记上-역대 상(1 Chronicles) 历代记下-역대 하(2 Chronicles) 诗篇-시편(Psalms) 箴言-잠언(Proverbs) 传道书-전도서(Ecclesiastes) 雅歌-아가(Song of Songs) 以赛亚书-이사야(Isaiah) 哈该书-학개(Haggai)

신약: 马太福音-마태복음(Matthew) 马可福音-마가복음(Mark) 路加福音-누가복음(Luke) 约翰福音-요한복음(John) 使徒行传-사도행전(Acts) 罗马书-로마서(Romans) 哥林多前书-고린도전서(1 Corinthians) 哥林多后书-고린도후서(2 Corinthians) 以弗所书-에베소서(Ephesians) 提多书-디도서(Titus) 约翰壹书-요한1서(1 John) 约翰贰书-요한2서(2 John) 约翰叁书-요한3서(3 John) 犹大书-유다서(Jude) 启示录-요한계시록(Revelation)

위에 예시 8)에 제시된 구약과 신약 제목은 한국어 성경은 중국어 성경에서의 한자어 용어로 그대로 번역된 현상으로 보인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이 특정 용어에 있어 한국어 성경에서의 한자어 사용 현상을 많이 찾을 수 있다.

## 9) 시편 8:1

중: 耶和華-我們的主阿, 你的名在全地何其美! 你將你的榮耀彰顯于天。

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시 9)에 중국어의 “美”자는 한국어의 “미”로 그대로 번역된 게 아니지만 한자 “美”의 의미적인 뜻인 “아름답다”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번역된다. 다음의 예시들을 본다.

## 10) 레위기 1:3

중: 他的供物若以牛為燔祭, 就要在會幕門口獻一只沒有殘疾的公牛, 可以在耶和華面前蒙悅納。

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시 10)에 한자에서는 ‘번’(燔)은 ‘굽다, 말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단어도 ‘태운다’, ‘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어 한자를 알거나 한문에 능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 11) 레위기 2:1

중: 若有人獻素祭為供物給耶和華, 要用細面澆上油, 加上乳香,

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예시 11)에 한자에서 ‘소’(素)라는 의미는 주로 ‘희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또는 ‘고기를 쓰지 않은 음식’으로 주로 ‘채소’나 ‘소찬(素餐)’은 주로 ‘고기나 생선을 쓰지 않은 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국어에서는 발음상, 한글로 ‘소제’ 하면, ‘청소’를 떠올릴 수 있다. 이 단어 역시 한자어에 익숙한 사람만 이해가 가능하고 정확한 개념을 쉽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 외에 레위기 4:3의 贖罪祭(속죄제)와 레위기 6:6의 贖愆祭(속건제), 또한 제사의 방식에 있어서 3가지로 구분된 제사는 擧祭(擧祭, 레위기 7:14, 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搖祭, 레위기 7:30,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전제(奠祭, 레위기 23: 13, 제사지낼 전, 부어 드리는 제물로)같은 것들이 있다. 흉패(胸牌, 레위기 8:8), 무교병(無酵餅, 레위기 8:26), 유교병(有酵的餅, 레위기 7:13), 逾越節(유월절, 12:27), 희년(禧年, 환희의 해, 레위기 25:10) 등 용어도 한자어로 쓰는 현상이 보인다. 이는 근·현대에 들어와서도 한국어 성경의 번역에서는 여전히 중국어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반영하는 점을 알 수 있다.

### 3.2.2 특정 현상

이러한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학적 차이에 따라 중한 성경 번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정 표현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 1) 중국어 성경

먼저 중국어 성경에서만 있는 몇 가지 특정 번역 현상을 다음의 예시들을 통해 살펴본다.

## 12) 역대상 7:15

중: 玛吉娶的妻是户品, 书品的妹子, 名叫玛迦。玛拿西的次子名叫西罗非哈。西罗非哈但有几个女儿。

한: 마길은 홉빔과 습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예시 12)에 사용된 ‘但’(만)<sup>6)</sup>은 현대 중국어 구어에서 ‘只, 仅, 只是’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서면어로 나타나며 구어 ‘有’와 같이 섞어서 쓰이는 현상이 보인다.

## 13) 에스더 4:1

중: 末底改知道所做的这一切事, 就撕裂衣服, 穿麻衣, 蒙灰尘, 在城中行走, 痛哭哀号。

한: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예시 13)에 사용된 ‘哀号’(대성 통곡)는 중국 고대 문어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이 문장에서 고대 용어 ‘哀号’와 현대 용어 ‘痛哭’를 함께 쓰는 사자용어 현상이 보인다.

## 14) 에스더 6:13

중: 将所遇的一切事, 详细说给他的妻细利斯, 和他的众朋友听。他的智慧人, 和他的妻细利斯对他说, 你在末底改面前始而败落, 他如果是犹太人, 你必不能胜他, 终必在他面前败落。

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위 예시 14)의 중국어 성경 번역에서도 예시 13)과 같이 중국어 고대 용어 ‘始而...终必’(~ 시작하였고, ~ 결국 ..., 청나라 때 썼던 표현)로 사용되어 한 문장에서 고대 용어와 현대 용어를 같이 쓰는 현상이 보인다.

위 예시 12), 13), 14)에서 사용된 서면어 표현이나 고대 문어 어휘를 통해 성경의 역사성 또는 성경 말씀의 장중함과 예스러운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본다.

## 15) 创世纪 11:31

중: 他拉带着他儿子亚伯兰和他孙子哈兰的儿子罗得, 并他儿妇亚伯兰的妻子撒莱, 出了迦勒底的吾珥, 要往迦南地去; 他们走到哈兰, 就住在那里。

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예시 15)에 중국어 ‘他孙子哈兰的儿子罗得’와 ‘他儿妇亚伯兰的妻子撒莱’ 두 문장에서는 의미 표현의 중의성 현상을 존재한다. ‘롯’은 데라의 손자인 하란의 아들인지 아브람의 손자인 하란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데라의 며느리인지 아브람의 며느리인지 관련 사건 배경과 전후 문맥이 없으면 결국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다중 복문의 중국어에서 인칭 대명사의 의미 중의성 현상이 보인다.

6) 『乐府诗集』 중 “但闻黄河流水鸣溅溅”의 구절이 있다. ‘但’은 중국어 옛날 시집이나 서면어에 많이 나타난다.

그 외에 중국어 성경에서의 대구 현상과 사자용어의 사용 선호 현상도 하나의 특정한 번역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16)과 17)예시를 살펴본다.

16) 디모데전서 2:4

중: 他愿意万人得救, 明白真道。

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7) 创世纪 8: 22

중: 地还存留的时候, 稼穡, 寒暑, 冬夏, 昼夜就永不停息了。

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위 16)예시에 중국어 ‘万人得救’(구원을 받으며)와 ‘明白真道’(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는 전후 문장을 대구하면서도 사자용어로 사용된 표현이다. 17)예시에서의 ‘稼穡’는 현대 중국어 ‘播种和收获’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2음절 주어인 ‘寒暑’, ‘冬夏’, ‘昼夜’와 서로 호응하며 번역된 것이다.

다음에는 중국어 성경 번역에서의 영어 어법 표현 현상을 살펴본다.

18) 에스라 4:23

중: 亚达薛西王的上谕读在利宏和书记伸帅, 并他们的同党面前, 他们就急忙往耶路撒冷去见犹大人, 用势力强迫他们停工。

한: 아닥사스다 왕의 공문서 사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자, 그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예시 18)에 ‘读在...面前’(~앞에서 낭독하다)은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는 ‘在...面前读’로 표현하고 개사 구조 ‘在...面前’(~ 앞에서)의 사용 위치는 현대 문법과 달리 동사 ‘读’(낭독하다)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영어 성경의 관련 표현 ‘read before’의 어법 순서와 일치하다.

19) 느헤미야 12:43

중: 那日, 众人献大祭而欢乐。因为神使他们大大欢乐, 连妇女带孩童也都欢乐, 甚至耶路撒冷中的欢声听到远处。

한: 이 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시 19)에 ‘听到远处’(멀리 들렸다)는 현대 중국어에서 ‘从远处听到’로 표현하며 위 예시에서의 ‘到’(~까지)는 개사의 역할을 담당하여 예시 18)에서 제시된 영어 문법과 같이 동사 뒤에 나타나는 문법 구조가 보인다.

20) 에스더 4:17

중: 于是末底改照以斯帖一切所吩咐的去行。

한: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예시 20)에 ‘一切所吩咐的’(명한 대로 다)는 현대어에서 ‘所吩咐的一切’(명한 대로 모든 것)로 표현되고 목적어 성분으로 쓰이는 ‘一切’(모든 것)는 중국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과 같이 부사어(모두, 다)의 성분으로 번역된 현상이다.

#### 21) 에베소서 2: 10

중: 我们原是他的工作, 在基督耶稣里造成的, 为要叫我们行善, 就是神所豫备叫我们行的。

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시 21)에 ‘工作’는 현대 중국어에서 ‘일이나 직업’의 뜻으로 나타나며 여기에서 ‘작품’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이 사례에서도 역시 영어의 번역 표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2) 한국어 성경

다음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징의 차이에 따라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 나타나는 특정 현상을 살펴본다.

#### 22) 约翰福音 1:1

중: 太初有道, 道与神同在, 道就是神。

한: 태초에 말씀(헬, 로고스)이 계시니라 이 말씀(헬, 로고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22)에 ‘Word’와 ‘God’의 경우는 중국어에서 ‘道’와 ‘神’로 표현하여 이는 중국 종교 색깔을 맞게 번역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를 각각 ‘말씀’과 ‘하나님’로 번역된다. 그리고 ‘말씀’에 대응하는 동사 ‘있다’의 높임법 어휘 표현인 ‘계시다’로 번역하는 것도 한국어 특유의 언어 특징이 보인다.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화소와 고유한 언어학적 특징의 차이로 인해 번역된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시들을 살펴본다.

#### 23) 디모데전서 1:21

중: 世人凭自己的智慧, 既不认识神, 神就乐意用人所当作愚拙的道理, 拯救那些信的人。这就是神的智慧了。

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 24) 골로새서 2: 8

중: 你们要谨慎, 恐怕有人用他的理学, 和虚空的妄言, 不照着基督, 乃照人间的遗传, 和世上的小学, 就把你们掳去。

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시 23)에 중국어 성경에서는 3개 복문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한국어 연결어미의 발달로 인해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예시 24)의 경우 중국어 성경은 하나의 포괄 문장으로 구성되지만 한국어 성경은 3개의 복문으로 이루어진다. 24)에 한국어의 ‘그것은’은 앞 문장에서 목적어 성분인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를 대체하여 이어진 문장의 주어 역할을 담당하여 다시 하나의 새로운

문장을 구성한다. 이런 주어 추가 현상은 다음의 예시 25)와 26)에서도 나타난다.

25) 베드로전서 3: 18

중: 因基督也曾一次为 罪受苦 (受苦有古卷作受死), 就是义的代替不义的, 为要引我们到神面前。按着肉体说 他被治死。按着灵性说 他复活了。

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6) 베드로전서 2: 9

중: 惟有你们 是被拣选的族类, 是有君尊的祭司, 是圣洁的国度, 是属神的子民, 要叫你们宣扬那召你们出黑暗入奇妙光明者的美德。

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상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 예시 25)와 26)에 한국어 성경에서도 ‘이는’은 역시 앞의 문장을 대체하여 뒤 문장의 주어가 되어 이어진 문장과 연결하는 역할로 보인다.

다음의 27)번과 28)번의 예시를 살펴본다.

27) 창세기 1: 28

중: 神就赐福给他们, 又对他们说, 要生养众多, 遍满地面, 治理这地。也要管理海里的鱼, 空中的鸟, 和地上各样行动的活物。

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 이사야 40: 8

중: 草必枯乾, 花必凋残, 唯有我们神的话, 必永远立定。

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위 예시 27)과 28)에 중국어 성경에서는 연사 또는 무표를 통해 문장을 연결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로 표현한다. 그리고 예시 27)에 뒤 문장의 중국어에서는 접속사를 사용했으나 앞의 절 사이에 부호 쉼표(,)로 표시하여 마지막 절 앞에 하나의 접속사 ‘和(와/과)’로 연결하다. 한국어에서는 절 사이에 모두 접속조사 ‘와/과’로 연결한 점에 이와 차이가 보인다.

다음에는 인칭대명사에 대해 한국어 성경에서의 표현을 살펴본다. 예시 29)를 본다.

29) 마태복음 16:16

중: 西门彼得回答说, 你是基督, 是永生神的儿子。

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시 29)에 중국어 성경에서는 2인칭인 ‘你’로 직접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어 성경에서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지칭(대명)사 ‘주’로 번역된 현상이 보인다. 이는 한국어는 중국어와 영어와 달리 관계성을 중시하는 대화중심언어에 속하

므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성경에서의 종결어미 현상을 살펴본다.

30) 로마서 10:10

중: 因为人心里相信, 就可以称义; 口里承认, 就可以得救。

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31) 로마서 10:15

중: 若没有奉差遣怎能传道呢? 如经上所记: “报福音传喜信的人, 他们的脚踪何等佳美!”

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시 30)과 예시 31)에 한국어 성경에서의 ‘-(느)니라’, ‘-리요(-리오)’, ‘-도다’는 문장 종결어미로 사용한다. 이들은 모두 예스러운 표현으로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서술할 때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성경의 성격을 맞게 사용하여 장중한 느낌을 준다. 이는 중국어에서 어휘를 통해 성경의 성격을 표현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종결어미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보여준다.

#### 4. 결론(현상 요약)

...

■ 참고문헌 ■

- 권영문(2019), 성경 번역과 해석, 올바른 설교, 형제출판사, 31-40쪽  
 래리 스톤(홍병룡 옮김, 2011), 성경 번역의 역사, 포이에마 발행처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1994), 대한성서공회사 2-번역반포와 권서사업, 대한성서공회  
 이수연(2012), 성경中译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이학재(2016), 한글 번역 성경에 있는 중국어 성경의 영향과 그 대안, 성경과 고고학  
 한미경(1998), 초기 한국성서와 중국성서의 서지학적 연구, 박사논문  
 황지연(2012), 중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개신교 성경 번역본을 중심으로, 학회지논문  
 『新标点合本』(1988)과 『개역개정판』(1998) 성경 원문  
 任東升(2006), 〈聖經中文譯本考〉, 《解放軍外國語學報》第一期29卷  
 恩惠(2019), 성경和合本语言对中国社会的影响列举  
 蔡锦图(2018), 和合本的历史和意义  
 李琴(2011), 《圣经》汉译中的本土化阐释策略  
 张天慧(2020), 《圣经》的汉译历程及译文简析  
 高永安(2011), 汉译《圣经》的语言学价值

...

## 〈토론〉 “중국어와 한국어의 성경 번역 대조 연구 -〈新标点和本〉과 〈개역개정판〉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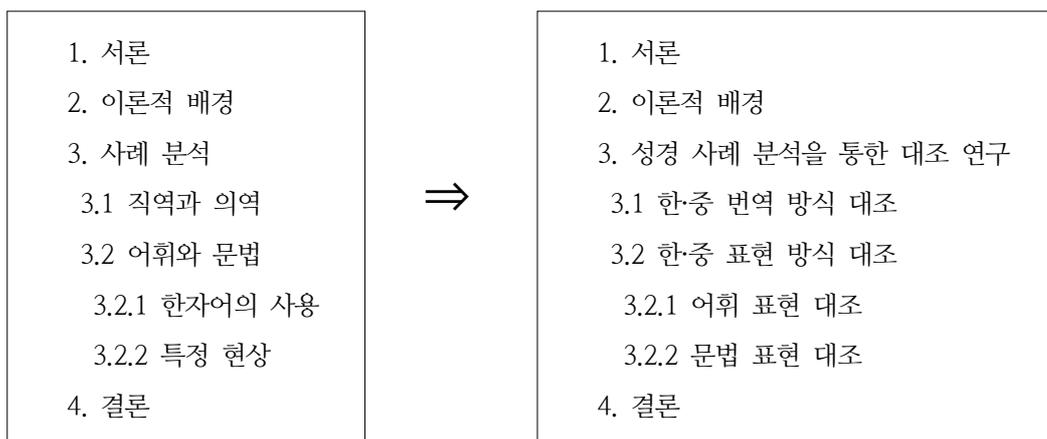
손경애(호남대학교)

발표자께서는 한·중 성경 번역본 속에 나타나는 언어적인 요소를 대조·분석함으로써 성경 번역에 있어 한·중 두 나라의 번역 방식과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자는 데에 목적을 둔 연구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언어 연구와는 다른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흔치 않은 연구이며 토론자인 저한테는 흥미로우면서도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최대한 발표자의 욕구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번역된 세 종류의 성경을 대조해 보면서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몇몇 부분은 저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논문 주제를 보면 연구 범위가 너무 크고, 연구 방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중 성경 번역 대조에 있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대조하여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에 대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석만 나열한 채 이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중 성경 번역 대조를 통한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 연구”처럼 제목을 수정해 보면 어떨까요?

둘째, 목차가 체계적이지 않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셋째, 크리스찬을 위한 신학 관련 연구보다는 성경 속에 나타난 언어학적 요소를 분석하는 어학 분야 논문인만큼 용어 설명에 있어 더욱 친절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경교’가 어떤 종교이며, 어떻게 기독교 전파에 영향을 주게 된 시초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궁

금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로스역’과 ‘이수정역’ 등 낯선 용어에 대해서도 전혀 추가 설명이 없어서 문외한인 저로써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넷째, 한국어 성경 속에서 한자어가 쓰이는 현상을 하나의 특징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쩌면 이는 당연 예측 가능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다루었다시피 한국어 성경은 이보다 먼저 나온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데다가 현재도 한국어의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이기에 한자어를 사용한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다섯째, 중국어와 한국어로 된 두 성경 번역을 대조·연구하는 목적이랄까 또는 그 의의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9) 시편 8:1

중: 耶和華-我們的主阿, 你的名在全地何其美! 你將你的榮耀彰顯于天。

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영: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히브리어 원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니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는 ‘장엄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majestic’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자어를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왜 영어에서는 ‘majestic’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반해, 한국어나 중국어에서는 모두 ‘아름답다’와 ‘美’로 표현하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에 대한 출처나 자료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始而...終必’(~ 시작하였고, ~ 결국 ..., 청나라 때 썼던 표현)로 사용되어 한 문장에서 고대 용어와 현대 용어를 같이 쓰는 현상이 보인다.

위 문장에서 ‘始而...終必’가 청나라 때 썼던 표현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령 이것이 청나라 때 쓰이던 표현이라면 모두 고대 용어에 속할 것인데 왜 고대 용어와 현대 용어를 같이 쓰는 현상으로 본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저의 이견이 발표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만약 제가 선생님의 옥고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 한국어 화상 수업에서의 앱 도구 사용에 관한 파일럿(pilot) 연구

-우랄 연방 대학교 한국어 수강자를 대상으로-

김민영(한국외국어학교)

### I. 서언

-본고는 러시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 수업에서, 교육용 앱을 활용한 교수법을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러시아에서 한국어는 영어와 중국어에 이어 3번째 외국어로 자리매김했다.<sup>1)</sup>

-우랄연방대학교(urfu.ru)는 ‘고려인 박해와 북한과의 산업협력 흔적이 국립기록 보관소에 보존돼 있는 우랄 지역’<sup>2)</sup>에 위치한 러시아 12위 대학교. 한국어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어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풍부하여 최신의 스마트러닝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해당 대학의 교육 형태, 방침, 방향성 등과 조화를 이루며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령 교수자가 매우 앞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무턱대고 적용을 요구할 수 없다.

-본고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랄 연방 대학교가 요구하는 수업 형태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3명의 학생들을 선별하여 한국어 교육용 앱인 세종학당 초급 문법 어플리케이션을 보조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요컨대 이 연구는, ‘다중 화상 수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앱을 활용, 스마트러닝 시대 수업의 한 형태로 그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파일럿 연구라 할 수 있다.

### II. 수업 환경 분석

-학습 대상: 러시아 우랄연방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 전공 2학기 학생 총 24명

-수업 중 사용 언어: 영어, 한국어(학생들은 영어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

-수업 시간: 주 1회, 두 시간, 총 15주

-학습 목표: 초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숙달

-수업의 어려움:

- 학습자 요인: 학생 간 한국어 수준 차. 2학기 차 수업이긴 하나, 토픽 기준 1급 초반부터 3급 수준까지 한 반에 모여 있다. 학습 대상의 특성을 명백히 하기가 어렵다.
- 수업 운영 방식: 화상 전화 툴인 SKYPE로 진행하는 수업이라 칠판 사용이 어렵다. 학생들

1) 러시아에서 한국어는 3위 외국어...영어·중국어 다음(매일 경제 2018.12.04.)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12/757015/>

2) 러시아 우랄에 한국학 연구의 싹 트다(제일동포신문 2020.03.02.)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53>

이 모두 강의실에 앉아서 스크린 속 교수자와 화상 통화하는 형식이다. 이에 동영상 및 PPT 등의 공유가 불가하므로 교구재, 수업 보조 자료 사용이 쉽지 않다. 그림 카드나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화질이 한계가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 대학의 관여: 현지 대학 담당 교수가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 매주 교실 참관. 혹은 수업에 개입. 영어로 수업을 해줄 것을, 학습자들에게 많은 문법을 가르쳐줄 것을, 그러면서도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할 것을 요구한다.
- 교재 문제: 서로 다른 학습 수준을 충족시키며, 수업 운영 방식과 대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교재를 구할 수도 없고 국내에 출판되었다 해도 현지에서 구입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자가 매주 영어 설명을 상술한, 2시간 분량의 핸드아웃을 준비한다. 여러 대학 기관 한국어교재 참조. 본 연구자가 미국 미시시피대학교에서 사용했던 핸드아웃 참조.
- 교수자 요인: 한국어 강의 경력 총 14년, 영어로 한국어 강의 경력 3년 경력. 본 연구의 수업에 한해, 수업이 자칫 교수자의 일방적 지식 전달 형태(교수자 중심 수업 형태)가 되지 않을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문법앱이 그 도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시험적 실행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화상 수업과 앱 활용 수업을 어떻게 동시에 구현해낼 것인가?

-있다면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가?

-전체 적용 전, 파일럿 수업 형태가 필요하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방법: 파일럿 연구(pilot study)

본 실험의 연구 방식은 아래의 전제에서 출발한 파일럿 실험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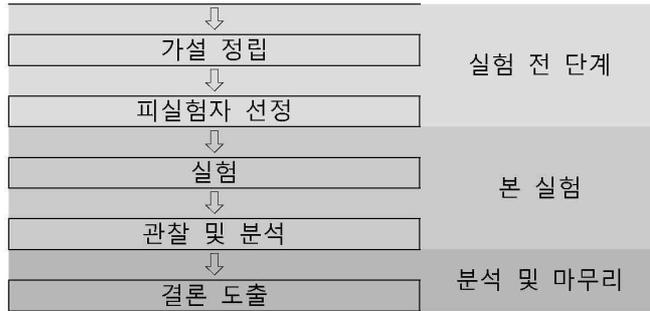
1) 전제: 실시간 다중 화상 강의 시스템만으로 한국어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파일럿 연구: 대규모 연구를 실행하기 전, 샘플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로, 본 연구에 필요한 가설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방법을 선정할 수 있게 하며, 연구 목표와 설계가 현실적인지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물론 샘플이 소수이기 때문에 전체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샘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파일럿 연구 결과를 맹신해서도 안 된다.

####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그림1. 연구 절차]

#### IV. 실험의 설계와 진행

##### 1. 학습자 서면 인터뷰

- 학습자 요인 분석을 위해 수업 2주 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 본고와 관련한 유의미한 질문과 대답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다.

<표 1. 학습자 사전 인터뷰>

질문	응답	비고
3. 수업 영어	24명 중 22명 Advanced level. 2명 Intermediate-high level	전원 영어 유창
	4명 I can only read the Korean alphabet.	1급 하
	8명 I know basic greetings at the first level.	
4. 한국어 실력	8명 I can speak simple Korean at the first-low level.	1급 중
	4명 I can speak with confidence at the first level.	1급 상(또는
	0명 I think I'm at least level 2 in Korean.	2급 하)
	11명 원어민 화자와의 한국어 연습	
5. 기대 사항(최대 2개 응답 가능)	15명 정확한 문법 지식 습득	수업명: '한국어 기초 수업'
	7명 언어문화 지식 습득	
	1명 발음 연습	
	2명 기타(한국 음악 듣기, 한국 영화 보기)	

- 서면 인터뷰를 통해 먼저 1급 하, 중, 상을 구분
- 한국어 실력은 1급 하에서 2급 하까지 스펙트럼이 넓어 수준을 맞춘 수업 진행이 어렵다.
- 수업명이 한국어 기초 수업인 까닭에, 학습자들이 수업에 대한 기대 사항은 문법 습득, 원어민과의 연습, 언어문화 지식 습득 순이었다.

##### 2. 이론의 탐색과 가설의 수립

- 먼저 러시아어권 한국어교육의 특성과 실시간 화상 강의에 대한 이론을 탐색하였다.

###### ①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

###### a. 러시아 내 한국어교육

- 다리아(2020)에 따르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관은 대학기관
- 러시아에서 한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30 여개

-교재 현황: 주로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모스크바 국립 국제 관계 대학교, 원광한국학교  
-그러나 아직 교재 개발은 활발하지 않다.

#### b.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대조

-임광래(2013):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형태론적, 유형론적, 계통론적으로 매우 다른 언어.  
-러시아어는 한국어와 달리 성, 수, 격, 인칭 등 발달, 격은 굴절에 의해 실현.

-함계임(2020)은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의 문법 기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몇 가지 대조언어학적 차이를 설명

-이유 문장의 경우 한국어는 선행절에 이유가, 후행절에 결과 내용이 나타나는 데 반해, 러시아의 경우 반대, 주절의 위치가 다르다.

-러시아어의 문장 분류에 청유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안문과 명령문으로 나누어 사용해야.

-강경민 외(2017)는 거절 화행에 대한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보인다.

-러시아인들은 한국인에 비해 거절 화행에서 완곡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완곡 표현 중 '의문 표현'을 무례하다고 생각. '생략 표현' 또한 부정적.

-러시아인들은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

-'괜찮아요'가 거절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야.

#### ② 한국어 교육에서의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

-Walsh & Reese(1995): 원격 화상 강의 시스템은 학습자의 수업 참여 유형에 따라 데스크탑 화상 시스템과 다중 화상 시스템으로 구분

-데스크탑 화상 시스템은 줌과 같은 형태로 학습자 개개인이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

-다중 화상 시스템은 본 수업과 같은 형태로 교사와 학습자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학습자들은 한 곳에 모여 집단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

-그간 연구는 보통 전자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화상 강의의 장점을 재정리할 필요

#### a.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의 특징

-일반적으로 화상 강의의 장점에 대해서는 민경아 외(2020)에 잘 정리되어 있다.

-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이 편리
- 학습에 대한 높은 접근성
-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
- 활발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실시간으로 일어나 사회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음
-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여 대면 수업과 거의 유사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촉진시킬 수 있음

-일면 아주 이상적인 최상의 교수 학습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라는 특성과 본 연구자의 경험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장점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는 역시 같은 논저에서 언급한 일반적 화상 강의의 단점이다.

- 온라인 및 제반 환경이 필요

- 개별 학습자의 학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 학습자의 집중도 및 몰입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실제와 같은 상호작용을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
- 면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이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의 특징

- 가)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원어민 수업이 가능
- 나) 교수자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강의료는 절감할 수 있으나 수업 준비 측면에서 시간이 대폭 줄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음.
- 다) 대면 수업을 불가 상황을 감안하여, 대안적으로,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수업 방식
- 라) 대면 수업에 비해 활발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마)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오히려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음.
- 바) 개별 학습자의 학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사) 교수자와 강의실 뒷자리 학생의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에 가까움(따라서 수업에 집중하고 싶지 않은 학생은 뒷자리를 선택할 수 있음)

-민경아 외(2020)는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 간에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실시간 상호작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습자가 강의 도중에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

-메신저를 비롯한 비실시간 상호작용이 필요

-비실시간 상호작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의 관심 더욱 많이 요구.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 원활하지 않음.

-학생들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수 단위로 과제 수행 유도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 간에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실시간 상호작용이 확대되어야.

### ③ 가설의 정립

-앞서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러시아어권 한국어교육, 실시간 화상 강의 특징을 살펴 보완의 도구로 ‘스마트폰 한국어교육 앱’을 선택,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수준에 맞는 문법 앱을 과제를 제공하여 피드백과 같은 상호작용을 할 경우,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를 보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업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구로 앱을 선택한 데에는 이영희(2020)를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영희(2020:124)은 모바일 어휘 학습이 ‘종이 교재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과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적극적인 어휘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그림,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학습한 어휘는 플래시카드, 퀴즈, 게임, 녹음 등을 통해 연습할 수도 있으며 적절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교육 방안에 대해 이론적 탐색을 더하였다.

#### ④ 스마트폰 앱과 한국어교육

-‘스마트러닝’은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빠르게 보편화 되면서 생긴 용어로, 기존의 ‘이러닝(E-learning)’과는 달리 휴대가 용이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습 방식이다(이유미 외, 2019:4).

-그러나 스마트러닝과 기존 이러닝의 장점이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sup>3)</sup>

-스페인어 교육에서 이러닝을 다룬 김현식(2017)에서는 Naismith 외(2004), 조세경(2007)을 통해 이러닝이 아래의 학습이론 측면에 부합함을 보인다.

가) 행동주의적 활동(Behaviorist-type activity) :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강화(reinforcement)가 되면 습관으로 형성되어 학습. 모바일 기기는 학습에 필요한 자극을 빈번히 줄 수 있는 도구이다.

나) 구성주의적 활동(Constructivist-type activity) :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능동적 활동의 과정이 학습. 이 학습론에서는 상호작용학습, 과제 중심학습과 같은 학습원리가 강조 된다. 모바일 기기는 구성주의적 활동에 적합하다.

다) 상황적 활동(situated activity): 학습의 효율성은 학습이 실제적인 맥락에서 일어나면 증가. 모바일 기기는 비슷한 맥락에 놓이게 할 수 있다.

라) 협동학습(collaborative activity): 이러닝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소통도구적 효용성은 협동 학습에 잘 어울린다.

마) 비정규 평생학습(informal and lifelong learning): 성인들의 대부분의 학습은 정규학습보다는 비정규학습에 의해 이루어진다. IT 기기 사용학습은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이루어지며, 정규 또는 비정규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러닝을 적용했을 때 동일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앱 기반 수업 역시 이상적일 수는 없다.

-우선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앱만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앱은 블렌디드 러닝에서의 한 형태로 추천될 뿐이다.

-부작용: 수업 시간에 대면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방에 글을 올리는 경우,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지 않게 된다. 즉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작용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바일이 주가 아닌, 보조 틀이 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필요하다.

-한편, 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연구가 있다. ;이유미 외(2019), 한국어 학습 불안과 앱.

-이에 따르면, ‘언어불안’이란 언어 습득 시 발생하는 불안으로 외국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작용 즉, ‘긴장감, 걱정, 신경증적 느낌’을 유발하는 ‘복합적 감정’.

-Krashen 외(1983)는 언어 학습 과정에서의 불안을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 이론(Affective Filter Hypothesis)’으로 설명한바 있다.

-Horwitz 외(1986)에서는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에서 느끼는 불안을 ‘의사소통 두려움(Communication Apprehension), 시험불안(Test Anxiety),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Fear of Negative Evaluation)’로 구분하였다.

3)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불안과 한국어교육용 앱 사용과 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대학 기관 한국어교육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회 이상 사용하는 응답자가 59.1%. 매우 높은 빈도. -논의를 요약하면 학습자들은 보조 도구로 앱을 선호, 선생님 외의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개인학습을 선호하였다. -이를 토대로 ③의 가설을 아래와 같이 재정립하였다.

⑤ 가설의 재정립

-가설: 수준에 맞는 문법 앱을 과제를 제공하여 피드백과 같은 상호작용을 할 경우,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를 보완할 수 있고 학습자의 불안 요소도 낮출 수 있다.

3. 피실험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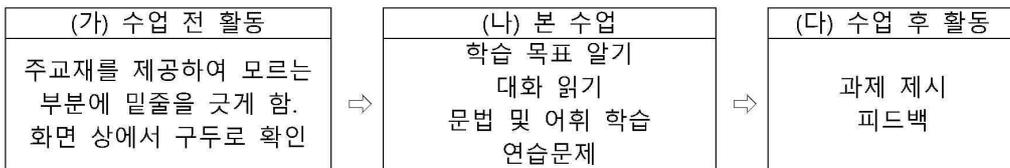
-실험 참여에 승낙한 학생 중, 한국어 수준이 다른 세 명을 선정  
-수강생 전원 여학생, 3인 모두 여성이고, 대학교 2학년, 영어 능력도 모두 상위 수준.

<표 2. 피험자>

순서	이름	한국어 수준	수업에 기대 사항
1	다리아	1급 하(한글 자모만 이해)	문법 지식, 언어문화 지식
2	크세니아	1급 중(기본 인사 및 기본 활용을 앎)	문법 지식
3	알렌산드라	1급 상(1급 수준의 간단한 대화 가능)	문법 지식, 한국음악 듣기

4. 실험 연구

-앱의 선정: 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앱. 문법 설명이 쉽고(러시아로 설명을 읽을 수 있음), 게임 기능이 있어 흥미로움. 앱을 일단 받아두면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독학이 가능함. 해당 앱을 통해 다른 나라 한국어 학습자와 상호작용도 가능함.  
-현재 진행 중인 수업 형식



[그림2. 기본 수업 형식]

-실험 모형 설계:

- a. 실험군: 피실험자 3인, 대조군: 피실험자를 제외한 학습자 21인
- b. 실험 기간: 3월 23일~4월 13일(4주)
- c. 실험 방식: 수업 형식 중 (가)와 (나)는 동일하게, (다)에서 실험군에게는 앱으로, 대조군에게는 기존 형식인 이메일로 과제와 피드백을 제공
  - 대조군: 수업이 끝나면, 퀴즈를 주어 푼 뒤, 이메일로 제출하게 함.

[14~20] Make a sentence like <보기>.



- 14. 가: 시계 뒤에 책이 있어요?  
나: \_\_\_\_\_
- 15. 가: 서랍장 아래에 소파가 있어요?  
나: \_\_\_\_\_
- 16. 가: 창문(window) 밖에 고양이 있어요?  
나: \_\_\_\_\_
- 17. 가: 컵(cup) 옆에 컴퓨터가 있어요?

- 실험군: 수업이 끝나면, 세종학당 초급 앱의 해당 문법 연습문제와 게임을 풀게 함. 문제를 풀고 아래 내용과 같이 캡처하여 제출하면, 이에 대한 피드백 제공



## 5. 관찰 및 분석

### 1) 과제 제출

- 4주의 실험 기간 동안 실험군은 빠진 적이 없으나 대조군은 모두 1번 이상 미제출.
- 과제가 성적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 두 가지로 해석 가능. 첫째, 기존 과제 제출 형식보다 앱 사용이 더 흥미롭게 여겨져 과제 제출에 적극성을 띤 것으로. 둘째, 실험군은 교수가 특별히 자신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어, 이것이 성실한 제출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음.
- 후자라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됨.
- 수업에 대한 적극성, 성실성 판단 근거

### 2) 변동 사항

- 서면 인터뷰 이후 2주간의 수업에서 학습자 수준을 일부 재구성(실험군에는 영향을 안 끼침)

-수업 포기: 1급 하 학생 3인, 1급 상 학생 1인 포기. 최종 20인 중 대조군은 17명

3) 필기시험: 성취도 체크

-4월 20일 중간고사(필기시험) 현재, 실험군의 학업 성취도는 높은 편인 것으로 판단됨

등수	성적	학생	최초 등급
1	20	알렉산드라	1급상
1	20	크세니아	1급중
3	18	*****	1급상
4	16	*****	1급상
4	16	*****	1급중
6	14	*****	1급중
7	12	*****	1급중
7	12	*****	1급중
7	12	다리아	1급하
10	10	*****	1급중
10	10	*****	1급중
12	8	*****	1급하
12	8	*****	1급하
12	8	*****	1급하
15	6	*****	1급중
15	6	*****	1급하
15	6	*****	1급하
15	6	*****	1급하
19	4	*****	1급하
19	4	*****	1급하

- 크세니아의 경우, 수업 중 대답 능력도 향상됨. 높아진 자신감 관찰.
- 알렉산드라는 관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관찰됨.
- 다리아는 수업 중 말하기 능력 향상 면에서는 눈에 띄는 바가 없었으나 1급 하 중에서는 1 위, 최초 1급 중 판정을 받았던 학생들 일부보다도 성적이 높아짐.

4) 실험군 서면 인터뷰 2차(자유로운 대답)

- 질문: 앱으로 과제하니 어땠는지
- 기존 과제보다 앱 사용에 과제에 흥미를 느낌. 특히 게임 기능을 좋아함(3인).
- 어휘 복습도 앱으로 하고 싶다고(다)
- 연습 문제가 더 많았으면(알, 크)
-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은 내용도 앱에서 공부했다고(크)
- 러시아어 설명이 있어서 좋았다고(다)
- 다른 앱도 다운받았다고(알)

5) 본 실험의 문제점 및 결과에서의 논의점

- 최초 등급 판정의 경우 서면과 구두 테스트였으나 수업 능력 향상 확인은 필기시험 형태인 바, 말하기와 쓰기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실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
- 성취도가 실제 향상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대조 실험이 필요

- 1급 상 학생들 사이에서의 학업 성취도 판별법
- 1급 하 학생들의 경우 향상될 내용이 더 다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
- 가설은 틀리지 않았으나 실력 향상이 반드시 앱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움

#### 6)연구자 노트

- 대조군 가운데 성적이 향상된 학생이 있었음. 더 열정적인 학생이었음. 획일적인 수업에서 만족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앱과 같은 도구가 충족시켜줄 수 있으리라 판단됨.
- 수업의 문법과 앱의 문법 진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 본 연구 실험에서는 진도가 유사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게임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방안은?
- 앱이 과연 불안감 해소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앱보다 더 좋은 도구는?
- 본 실험 설계시 해결해야 할 사항 많음.

### 6. 결론 도출

## V. 결론

#### <참고문헌>

- 강경민 외(2017), 한국어 거절 화행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와 러시아인 학습자의 인식 연구, 국제한국어교육, 3(1), 35~76쪽.
- 김현식 외(2017). 스페인어 교수학습을 위한 이러닝 통합 학습 콘텐츠 프레임의 개발과 기대 효과. 중남미연구, 36(3), 1-33.
- 민경아, 박서옥(2020). 실시간 원격 화상 한국어 강의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7:3, 1-36.
- 이영희(2020), 모바일 기반 한자어 교육에 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7, 119-139.
- 이유미, 이연정(2019).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불안과 한국어교육용 앱(APP) 사용의 관련성 연구, 화법연구, 43, 55-87.
- 클로츠코바 다리야(2020), 러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韓國外國語大學 校 大 學 院 석사논문.
- 함계임(2020),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독학 겸용 한국어교재의 문법 기술 현황과 개선 방안, 교육문화연구, 26 (5), 1195-1217.
- Walsh, J. & Reese, B. (1995). Distance Learning's Growing Reach. T.H.E. Journal, 22(11), 58-62. Retrieved April 26, 2021 from <https://www.learntechlib.org/p/78941/>

## 〈토론〉 “한국어 화상 수업에서의 앱 도구 사용에 관한 파일럿(pilot) 연구 -우랄 연방 대학교 한국어 수강자를 대상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금숙(상지대학교)

이 연구는 우랄 연방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화상 수업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교육용 앱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은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는 온라인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시대의 교육 환경에 대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연구자께서 진행한 실험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토론자도 연구자의 논지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발표 요지를 읽었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1. 실험군 학습자들의 실력 향상

첫 단계에서는 서면과 구두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험 후에는 필기시험을 통해 실력 향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특히 말하기, 쓰기, 필기시험 등의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실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검증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험 전과 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필기시험 이외에 구두 인터뷰나 다른 방법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의 특징

5쪽에서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징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라), 마)의 경우에는 단순히 대면 수업이나 화상 강의와의 차이에 따른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 실험군의 과제 제출

실험군이 대조군과는 달리 실험 기간 동안 과제를 모두 제출한 것에 대해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연구자께서도 학습자를 오래 가르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적극적이거나 성실한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응했다면 어느 정도 적극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대조군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실험군이 실험 전에 과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와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 4. 앱 활용과 학습자의 불안감 해소

현재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등 대해 파악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활용이 학습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검증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실험 전과 후에 느끼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또는 화상 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파악하면 앱 활용을 통한 불안감 해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 한국어 속격 구문 연구

강순행(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Italia)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속격명사구들이 보여주는 위미역 위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어 속격 명사구가 가지는 의미적 중의성은 구조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고, 명사구 내에서 속격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보이는 논항들의 선형성은 통사구조 내 위미역 위계에 따른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속격구문의 의미와 분류, 속격 표지의 실현과 탈락 그리고 ‘의’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속격구문의 가지는 논항의 위미역 위계를 어떻게 통사구조 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 2. 속격의 특징

한국어 속격 명사구에 대한 연구는 그 구성과 관련하여 핵명사와 선행명사 간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따른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속격표지 ‘의’의 실현 양상과 그 조건을 다룬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2.1 한국어 속격의 의미와 분류

속격은 명사 간의 소유 관계의 의미에만 제한되지 않고, 속격 표지 ‘의’에 의해 연결된 명사들의 관계에 따라 ‘소속(누리의 학교), 존재(새들의 천국), 관계(누리의 누나), 청소년의 범죄(행위주역), 정원의 나무(장소), 대구의 사과(근원/출처), 개의 주인(대상), 약간의 물(양), 파란 눈의 여자(외양), 평화의 세계(특성)…’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통사 의미적 관계를 바탕으로 속격 명사구를 논항구조와 비논항구조로, 논항구조에 따른 속격명사는 기저 문장의 변형에 따라 다시 주어적, 목적어적 그리고 부사적 속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a. 학생의 질문	“학생이 질문하다”	(주어적 속격)
b. 역사의 연구	“역사를 연구하다”	(목적어적 속격)
c. 주말의 산책	“주말에 산책하다”	(부사적 속격)

#### 2.2 한국어 속격의 형태: ‘의’의 수의적 출현

속격표지 ‘의’는 수의적 출현과 관련하여 한국어 속격구문은 아래의 예처럼 ‘의’의 출현이 의무적인 경우와 수의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 a. 누리\*(의) 공부 “누리가 공부하다”
- b. 한국어(의) 공부 “한국어를 공부하다”
- c. 한국어(의) 발표 “한국어에 대한 발표하다”
- (Cf. 한국어 발표 “한국어로 발표하다”)

"N<sub>1</sub>+의+N<sub>2</sub>"로 구성된 한국어 속격명사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핵명사와 이를 수식하는 선행명사의 통사적 관계에 따라 ‘의’의 출현이 결정될 수 있으며, 아래의 예 (3d, 3e)처럼 비논항적 요소와 결합된 속격명사구에서는 탈락이 불가능하다(박정섭 2002: 913-914).

3. a. 포로(의) 석방
- b. 화물차(의) 운전
- c. 고양이(의) 사진
- d. 최선-\*(의) 보호
- e. 충격\*(의) 패배

신선경(1999: 70-72))에서는 ‘의’의 실현이 필수적인 경우를 서술관계를 갖는 예와 비서술적집합 관계를 갖는 예로 구분하고 있다.

4. a. 시계\*(의) 정확성/한복\*(의) 아름다움/컴퓨터\* (의) 편리함
- b. 철수\*(의) 오해/봉사자들\*(의) 활동
5. a. 감격\*(의) 우승/사랑\* (의) 학교/사랑의 묘약/행운의 여신 (비유적 표현)
- b. 이순신\*(의) 거북선/피타고라스\*(의) 정리/셰익스피어\*(의) 햄릿 (고유명사화된 명사구)
- c. 3분\* (의) 1/소득\* (의) 10%/소리\* (의) 파장/빛\* (의) 속도 (전체와 부분)

‘의’의 출현이 수의적인 경우는 핵명사와 수식명사가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아래와 같다(최기용 1995, 김인균 2003, 박정섭 2003, 박소영 2014 등). 예 (5)에서 선행명사가 보통명사의 소유자역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5a)처럼 임의적 출현이 가능하지만 소유관계를 나타내더라도 핵명사의 위치에 고유명사가 대치되는 경우에는 ‘의’가 생략될 수 없다(박소영 2014: 613-614).

6. a. 이광수(의) 소설 (Cf. 이광수\*(의) 무정)
- b. 철수(의) 신발 (Cf. 철수\*(의) 나이키)

신선경(1999: 76-77)은 ‘의’의 출현이 수의적인 경우를 집합관계 명사구들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7. a. 교회(의) 종소리/한국(의) 영화 (처소와 사건의 관계)
- b. 어머니(의) 손/인간(의) 뇌 (양도할 수 없는 소유, 신체 부분)
- c. 영희(의) 동생/ 우리(의) 엄마 (양도할 수 없는 소유, 친족 관계)

- d. 철수(의) 그림/ 외삼촌(의) 집 (양도할 수 있는 소유)
- e. 고등학생(의) 절반 (전체와 부분 관계)
- f. 한번(의) 실패/다섯 잔(의) 술 (수와 대상의 관계)

소유자역 논항이 다른 논항과 함께 나타나는 (7a)와 같은 경우에는 ‘의’의 탈락이 자유롭지 않다(박정섭 2003: 229).

- 8. a. 수집가??(의) 아리스토텔레스 초상화
- b. 수집가??(의) 렘브란트의 초상화

지금까지 논의된 속격표지 ‘의’의 출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9. a. ‘의’의 실현은 선행 명사가 가지는 논항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b. 속격이 명사구에서 주어역할을 하는 경우는 ‘의’가 실현되지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 d. ‘의’의 실현은 비논항적 요소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비논항적 요소와 결합된 속격 명사구에서 ‘의’의 실현은 의무적이다.
- e. 비유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속격명사구에서 ‘의’의 실현은 의무적이다.
- f. 선행 명사가 뒤 따르는 일반 명사에 대해 소유자역의 의미를 가질 때 ‘의’의 실현은 임의적이다.
- g. 소유 관계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더라도 고유 명사가 핵명사인 경우에는 ‘의’의 실현은 필수적이다.
- h. 속격이 처소와 사건 사이의 관계, 양도 할 수 없는 소유의 관계, 신체의 일부와 친족 관계, 양도 할 수 없는 소유의 관계, 전체와 일부 관계를 나타낼 때 ‘의’의 출현이 임의적이다.
- i. 속격이 속격명사구에서 유일한 논항인 경우는 ‘의’의 출현이 임의적이지만 다른 논항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무적이다.

### 3. 한국어 속격의 의미적 중의성과 의미역 위계

#### 3.1 한국어 속격의 의미적 중의성

아래의 예 (10a)에서 ‘누리’는 ‘집을 소유 한 사람’, ‘집을 설계 한 건축가’ 또는 단순히 ‘누리가 정말 좋아해서 매일 언급하는 집’이거나 ‘매일 가는 집’일 수도 있다. (9d)에서도 ‘누리’는 ‘선물을 만들거나 준비한 사람, 선물을 받을 사람 또는 선물을 선택하거나 계획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0. a. 누리의 집
- b. 누리의 선물

한국어 속격 명사구의 의미적 중의성과 관련하여 의미역 위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일 속격이 명사구에서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면, 속격이 중첩된 경우에도 중의성이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속격의 위치에 따라 해석적 가능성이 달라진다면 핵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들 사이의 어순 제약, 즉 의미역 위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 11. 그의 다빈치의 초상화"
  - a. 그가 소유한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 (소유자역)행위주역)

- b. 그가 소유한 누군가가 다빈치를 그린 초상화 (소유자역>대상)
- c. 그가 다빈치를 위해 그린 초상화 (행위주역>대상)

12. [소유자역] > [행위주역] > [대상] > [명사]<sup>1)</sup>

### 3.2 한국어 속격의 의미역 위계

Grimshaw(1990)가 제안한 의미역 위계 "Agent>Experiencer>Goal/Source/Location>Theme"를 바탕으로 한국어 속격이 가지는 논항의 의미역 위계를 살펴보자.

13. [Experiencer>Theme>NP]

- a. 히틀러의 유대인의 증오
- b. \*유대인의 히틀러의 증오
- c. 한국인의 김치의 사랑
- d. \*김치의 한국인의 사랑

14. [Experiencer>Source>NP]

- a. 그들의 이별의 슬픔
- b. \*이별의 그들의 슬픔

15. [Agent>Source>Theme>NP]

- a. 한국회사의 이탈리아의 올리브유의 수입
- b. \*이탈리아의 한국회사의 올리브유의 수입
- c. \*올리브유의 한국회사의 이탈리아의 수입

16. [Agent>Time>NP]

- a. 아버지의 주말의 산책
- b. \*주말의 아버지의 산책

17. [Time>Theme>NP]

- a. 주말의 한국어의 수업
- b. ??한국어의 주말의 수업

18. [Agent>Location>NP]

- a. 누리의 베네치아의 여행
- b. \*베네치아의 누리의 여행

19. [Agent>Instrument>Theme>NP]

1) 이러한 어순은 앞장에서 소개된 명사구의 문법성을 바르게 예측할 수 있다.

- i. a. 수집가의 아리스토텔레스 초상화
- b. \*아리스토텔레스 수집가의 초상화
- c. 수집가의 램브란트 초상화
- d. \*램브란트의 수집가 초상화

- a.? 어머니의 물로의 이불의 빨래
- b. \*물로의 어머니의 이불의 빨래
- c. \*이불의 어머니의 물로의 빨래

## 20. [Patient&gt;Goal&gt;NP]

- a. 한국 자동차의 유럽의 진출
- b. \*유럽의 한국 자동차의 진출

## 21. [Agent&gt;Patient&gt;Goal&gt;NP]

- a. 한국 정부의 쌍용 자동차의 해외의 매각
- b. \*쌍용 자동차의 한국 정부의 해외의 매각
- c. \*해외의 한국 정부의 쌍용 자동차의 매각

지금까지 논의된 논항의 계층성을 포함하는 의미역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sup>2)</sup>

## 22. [Possessive&gt;Agent/(Experiencer)&gt;Patient&gt;Time&gt;Instrument&gt;Location&gt;Theme&gt;NP]

## 4.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DP 구조

## 4.1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

## 4.1.1 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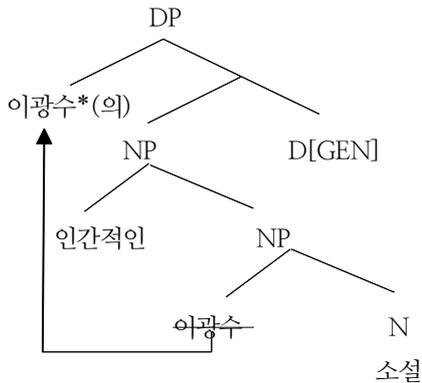
(23b)과 같은 명사구에 대한 Abney(1987)의 DP분석을 바탕으로 박소영(2014: 621-623)은 (24a)와 같은 형용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를 (24b)처럼 분석한다.

- 23. a. [NP Determinante N]      (명사구 NP분석)
- b. [DP D NP]                (명사구 DP분석)

2) Agente와 Experiencer 그리고 “Source/Time/Location과 Goal”사이의 어순은 테스트되지 않았다.

24. a. 이광수의 인간적인 소설

b.



위 구조 (24)에서 소유주 논항 ‘이광수’는 NP의 지정어 위치에서 기저 생성되지만 격의 인가와 속격 ‘의’의 음성적 실현을 위해 DP의 지정어 위치로 의무적 이동을 겪게 된다고 분석한다. 또한 Aboh(2010)와 Kayne(1994)는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인구어 속격 명사구는 크게 “소유주>소유물” 또는 “소유물>소유주”의 순서로 문장에 나타나는데 기본 어순은 영어의 예 (25)처럼 “소유주>소유물”이며 “소유물>소유주”의 어순 (25b)는 소유물이 속격을 부여받기 위해 소유주의 좌측으로 이동된 결과로 분석한다.

25. a. Mary’s picture

b. A picture of Mary

26. a. [DP[D°[IP DP Mary’[I°s [DP picture]]]]]

b. [DP[D°A [FP [DP picture ]][F of [IP DP Mary [I°[DP picture]j]]]]]

위의 예에서 ‘s가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소유물이 소유주를 선행하게 될 경우에는 소유물인 *picture*가 소유주인 *Mary*를 선행하는 기능투사구인 F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을 해서 기능핵 *of*로부터 보어인 *Mary*가 격 부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성윤(2016: 203-204)은 (27a)와 같은 한국어 속격명사구를 (27b)처럼 기능구조 IP를 포함하는 DP구조 내에서 속격을 분석한다.

27. a. 학생의 가방

b. [DP[D°[IP DP 학생[I°의 [DP 가방]]]]]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의 분포가 아래의 예처럼 광범위하므로 단순히 ‘의’를 속격 표지로 분석할 수 없다고 한 안덕호(2012: 610-611)의 논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 |               |        |
|---------------|--------|
| 28. a. 친구의 집  | (소유자역) |
| b. 한 권의 책     | (수량)   |
| c. 내일의 날씨     | (시간)   |
| d. 제주도의 날씨    | (장소)   |
| e. 기쁨의 순간     | (수식어)  |
| f. 영화배우와의 인터뷰 | (동반자)  |

- g. 돌로의 공격 (도구)
- h. 미국으로부터의 소식 (기원)
- i. 미국으로의 여행 (도착점)

위의 예 (28a)에서 선행명사 ‘친구’는 핵명사 ‘집’의 논항으로 소유자역 의미역을 받으므로 ‘의’를 격조사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예들에서 핵명사를 수식하는 선행명사들을 의미역을 부여받는 논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8f)–(28g)에 들은 ‘의’의 선행요소로 부사격 조사들이 오고 있다. 부사격 조사들의 범주를 후치사라고 한다면 ‘의’와 결합한 요소를 후치사구로 분석해야 하는데, 후치사구에 격이 표시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Cf. 김용하 2019: 39–40).

#### 4.1.2 명사핵 선행 굴절형과 명사 수식어 표지

‘의’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하여 안덕호(2012)는 명사핵을 선행하는 요소들에 실현되는 ‘명사핵 선행 굴절형 (prenominal inflection)’으로 관형사형어미 ‘ㄴ’과 같은 요소로, 모두 관형형 요소로서 동일한 통사적 지위를 갖는다고 분석한다(Ibid., 613–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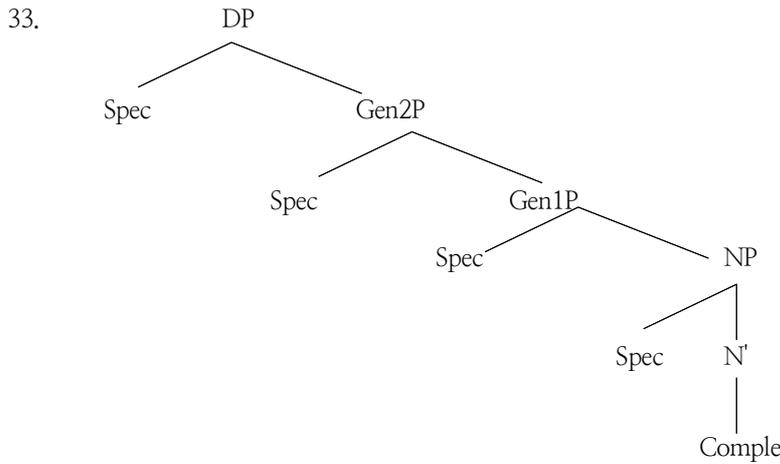
29. ‘의’와 ‘ㄴ’은 모두 명사핵 선행 환경(prenominal context)에서만 출현이 가능하다.
- a. 영이가/\*의 [[츨스키의] 책]을/\*의 철수에게/\*의 주었다.
  - b. 영이가 [[철수가 만난] 아이]를 만났다/\*만난.
30. ‘의’와 ‘ㄴ’은 모두 전체 형태론적 복합체내에서 마지막에 부가되는 접사들이다.
- a. 어린이-들-만-의 (어린이들만의)/ \*어린이-들-의-만/\*어린이-의-들-만
  - b. 아끼-시-터-ㄴ (아끼시던)/\*아끼-시-ㄴ-터/\*아끼-ㄴ-시-터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와 ‘ㄴ’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의’는 [-V] 속성을 가지는 요소에만, ‘ㄴ’은 [+V]의 속성을 가지는 요소에만 부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이루는 이형태적 변화형(allomorphic variant)의 관계라는 것이다. 홍용철(2013) 또한 한국어 ‘의’는 아래의 예 (31)처럼 ‘의’와 결합한 요소가 관계절과 동일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격조사가 아닌 관계절 표지와 같은 범주의 수식어 표지로, 또한 (32)처럼 행위주역 논항인 “정부의”가 관계절 앞에, 대상 논항인 “TGV의”가 관계절 앞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명사 확장 범주구조에서 기능범주 영역의 부가어 위치에 나타나는 요소로 보고 있다(Ibid., 339–340).

31. a. {철수의, 획기적인} 이 모든 책들  
 b. 이 {철수의, 획기적인} 모든 책들  
 c. 이 모든 {철수의, 획기적인} 책들
32. a. 갑작스런 정부의 TGV의 도입  
 b. 정부의 갑작스런 TGV의 도입  
 c. 정부의 TGV의 갑작스런 도입

그러나 속격 명사구 GenPs를 NP와 DP사이에 부가되는 요소로 분석한다면 그 통사구조는 아래의 (33)과 같을 것이며 (강순행 2009: 17), 이러한 통사구조로는 한국어 명사구에서 관계절과 서로 다른 유형의 형용사들이 공기하는 경우에

존재할 수 있는 어순제약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 34. a. [누리가 산] 빨간 새 차                    [RC>AP<sub>1</sub>>AP<sub>2</sub>> NP]
- b. ??빨간 [누리가 산] 새 차                [RC>AP<sub>1</sub>>AP<sub>2</sub>> NP]
- c. ??새 [누리가 산] 빨간 차                [RC>AP<sub>1</sub>>AP<sub>2</sub>> NP]
- d. ??[누리가 산] 새 빨간 차                [RC>AP<sub>2</sub>>AP<sub>1</sub>> NP]

위의 예에서 초점(Focus)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34b, 34c)예들은 비문 처리될 수 있으며, 예 (34d)는 형용사들도 그 유형에 따라서 어순제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 장에서 확인한 명사구 내에서 속격에 의해 실현되는 논항의 선형성에 따른 통사구조의 계층성을 설명하기 위해 명사구내 요소들을 NP와 DP 층위에 상정된 기능구조FP의 지정어에 위치하는 요소로 분석한 Cinque(2010)의 이론을 도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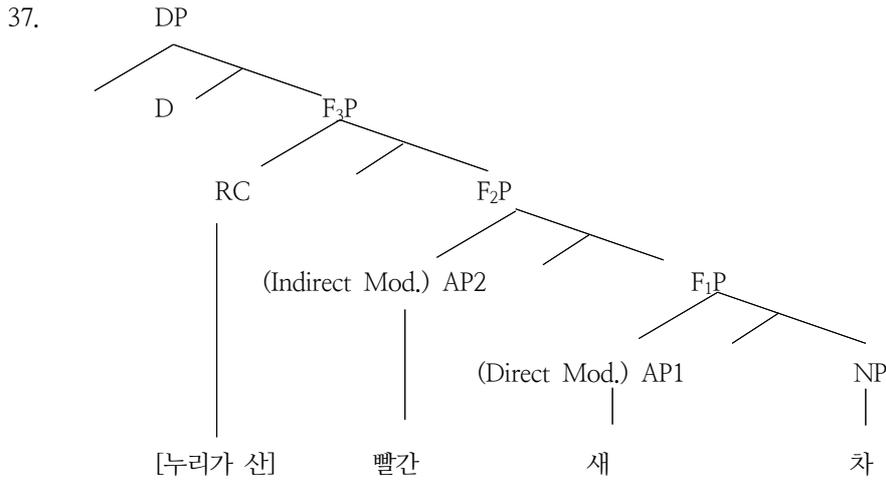
### 4.1.3 제안 : 한국어 속격의 지정어 분석

먼저, 속격 명사구 GenP와 관계절 RC 그리고 형용사 AP를 포함하는 명사구의 어순을 다음과 같을 것이다.

- 35. a.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빨간 새 차
- b. ??누리의 내가 어제 본 빨간 새 차
- c. ?? 멋진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빨간 새 차
- d. ??빨간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새 차
- e. ??새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빨간 차
- f. ?내가 어제 본 멋진 누리의 빨간 새 차
- g. ?내가 어제 본 빨간 누리의 멋진 새 차
- h.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빨간 멋진 새 차
- i.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새 빨간 차
- j.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빨간 새 멋진 차

- 36. [RC>GenP(PossessiveP)>AP<sub>1</sub>>AP<sub>2</sub>>AP<sub>3</sub>>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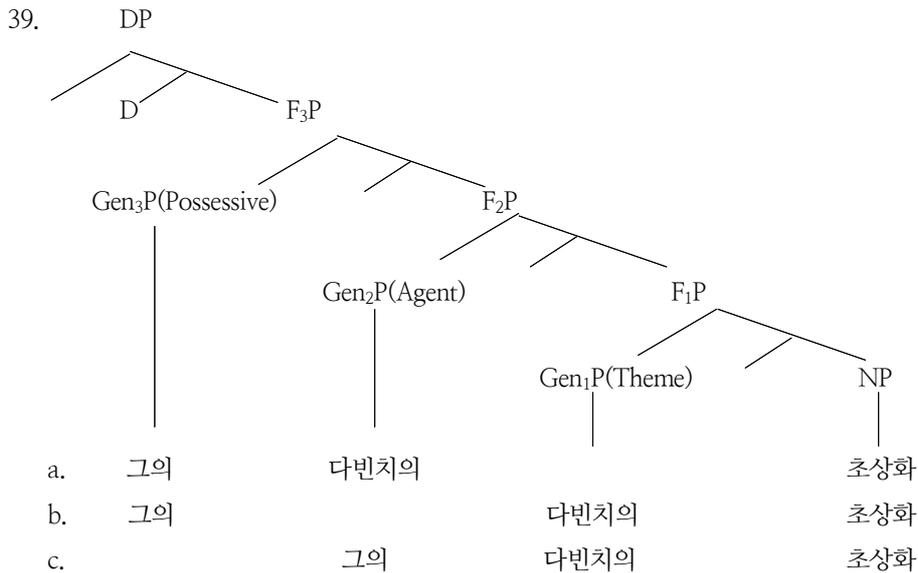
Cinque(2005)의 “형용사의 이원적 분류”를 따르면 명사구 내 요소들의 선형적 어순은 구조적 계층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직접 수식 형용사와 간접 수식 형용사로 구분하여 NP와 DP 사이에 위치한 FP의 Spec에 위치하는 지정어적 요소로 (37)처럼 분석할 수 있다.



이 DP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속격구문 GenPs를 형용사와 관계절의 위치처럼 DP와 NP 사이 SpecFP에 위치하는 요소로 고려한다면 속격의 가지는 의미론적 모호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8)의 의미적 중의성은 (39)에서처럼 구조적 위치에 따른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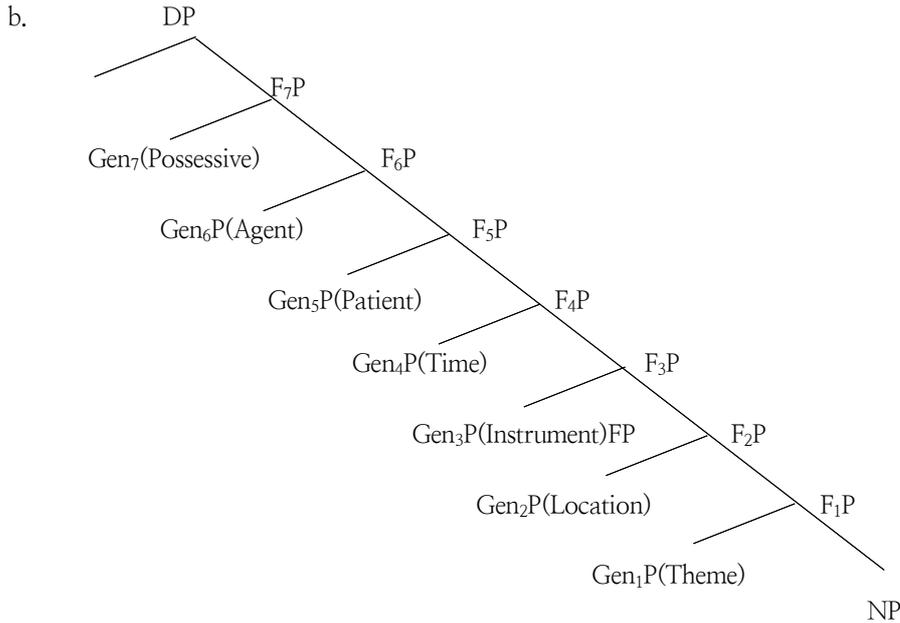
38. 그의 다빈치의 초상화

- a. 그가 소유한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 [Possessor] > [Agent] > [N]
- b. 그가 소유한 누군가가 다빈치를 그린 초상화 [Agent] > [Theme] > [N]
- c. 그가 다빈치를 위해 그린 초상화 [Agent] > [Theme] > [N]



또한, 2.2장에서 논의된 속격구문이 가지는 논항의 의미역 위계 (40a)는 (40b)와 같은 통사구조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0. a. [Possessive > Agent > Patient > Time > Instrument > Location > Theme > NP]



## 5. 나오는 글

지금까지 한국어 속격이 나타내는 논항들의 의미역 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하며 이를 통사구조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Cinque (2010)의 DP구조 내에서 기능구조 FP의 지정어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2.1장에서는 한국어 속격구문의 유형을 핵명사와 이를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었다. 2.2장에서는 속격의 가지는 논항구조와 통사적 특징에 따라 속격 표지 ‘의’의 실현과 생략 조건들을 관련 기존연구들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한국어 속격구문의 의미적 중의성과 의미역 위계를 Grimshaw(1990)와 Longobardi(2001)에서 제시된 “[소유자역]>[행위주역]> [대상]>[명사]”의 어순을 바탕으로 테스트하여 “[소유자역]>[행위주역]/[경험주역]>[피행위주역]>[시간역]>[도구역]>[장소역]>[대상역]>명사]”의 결과를 얻었다. 4장에서는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하여 박소영(2014)과 조성운(2016)에서 논의된 “격분석”과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를 명사핵 선행 굴절형과 명사 수식어 표지로 분석한 안덕호(2012)와 홍용철(2013)의 제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가 격조사 또는 격표지가 아니라 명사구 내에서 핵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의 ‘ㄴ’과 관계절과 같은 명사 수식어 표지로 취급하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지만, 명사구에서 형용사와 관계절이 또는 형용사들이 중첩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어순의 선형성과 속격구문이 가지는 논항들의 의미역 위계를 통사구조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가 부착된 명사구 즉, GenPs가 단순히 명사구NP와 한정사구 DP 층위 사이에 부가되는 요소가 아니라 Cinque(2010)가 제안한 DP구조 내 기능구조 FP의 지정어로 분석하고자 했다.

■ 참고문헌 ■

- 강순행. 2006. 이탈리아어 명사구의 기능구조. *이탈리아어문학* 18. 1-37.
- 강순행. 2008.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명사구내 통사적 계층성 비교연구. *이탈리아어문학* 25. 1-34.
- 강순행. 2011. 이탈리아어 속격구문 연구: 통사구조 내 의미역 위계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 33. 1-27.
- 김용하. 2019. 한국어 속격 조사 '의'의 지위에 대한 관건. *현대문법연구* 98, 37-50.
- 김인균. 2003. 관형명사구의구조와의미관계. *국어학*41, 198-223.
- 김지홍. 1995. 명사구의 확장과 그 논항구조에 대하여. *배달말* 20. . 81-177.
- 목정수. 2007. 한국어 조사 {의}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교육* 123, 437-470.
- 박소영. 2014. 한국어 속격 '의'의 실현과 DP가설. *생성문법연구* 24. 613-629.
- 박정섭. 2003. 명사구에서의 논항 실현에 관한 고찰-불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16. 223-248.
- 박정섭. 2003. 속격 표지 '의'의 수의성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16. 3-18.
- 박호관. 2001. 국어 명사구의 유형과 통사구조. *우리말글* 23. .25-48.
- 신선경. 1999. 명사구 형성과 속격 표지 '-의'. *울산어문논집* 13·14, 55-80.
- 최경봉. 1995. 국어 명사 관형구성의 의미결합 관계에 대한 고찰. *국어학* 26. 33-58.
- 시정곤. 2003. 단어결합과 의미역 위계구조. *언어연구* 19-2. 271-287
- 안덕호. 2012. 최소주의적 관점에서의 소유격: 한국어를 중심으로. *언어* 37. 607-621.
- 이선웅. 2005.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서울: 월인.
- 이종근. 2015. 한국어 속격표지 '의'의 분포와 속격의 본질. *생성문법연구* 25, 277-306.
- 조성윤. 2016. 이탈리아어 di 구문의 통사구조 연구: 장소 전치사 구문과 속격 구문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 48, 201-223
- 최기용. 1996. 의미역 배정과 관련된 명사의 성격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6. 85-119.
- 홍용철. 2010. 한국어 명사 외곽 수식어들의 어순과 명사구 구조. *생성문법연구* 20. 27-50.
- 홍용철. 2013. 소유격 표지 “의”의 분포와 본질. *생성문법연구* 23. 321-345.
- Abeny, S.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Ph.D. disserta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Aboh, E.O. 2010. *The P Route in Cinque G. & Rizzi L. (ed.s) Mapping Spatial PPs,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ume 6, Oxford Studies in Comparative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pp. 225-260.*
- Cinque, G. 2005b. "The Dual Source of Adjectives and XP-vs. N-Raising in The Romance DP". Ms., University of Venice.
- Cinque, G. 2010, *The Syntax of Adjectiv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Kayne, R. 2000. "A Note on Prepositions, Complementizers, and Word Order Universals". In *Idem Parameters and Universals*. 314-32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ngobardi, G. 2001, "The structure of DPs: Some Principles, Parameters, and Problems." In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yntactic Theory*. (eds.) by Mark Baltin & Chris Collin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pp. 562-603.

## 〈토론〉 “한국어 속격 구문 연구: 통사적 지위와 의미역 위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지용(서울신학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속격명사구들이 보여주는 의미역 위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속격 구문의 의미와 분류, 속격 표지의 실현과 탈락 그리고 ‘의’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속격구문이 가지는 논항의 의미역 위계를 통사구조 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의에도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그리고 독자의 부족으로 본 연구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1. 본 연구는 한국어 속격의 의미와 분류에 있어서, 선행 연구의 논의들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의 내용 가운데에 이 연구에서 수용하고 있는 부분과 수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속격 ‘의’의 의미 분류에 의거하여,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과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 한국어 속격의 의미적 위계를 살펴보기 위해 의미적 중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Grimshaw의 의미역 위계를 바탕으로 한국어 속격이 가지는 의미역 논항의 위계를 제시하셨는데, 의미역 논항의 위계를 설정하기 위한 검증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로 제시된 구문 가운데 비문법성에 있어 확실하지 않은 구문들의 최종 위계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속격의 통사적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형용사와 관계절의 위치처럼 FP의 spec에 위치하는 지정어적 요소로 속격을 설정하여, 의미론적 모호성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이 연구의 설정에 동의합니다. 제시하신 구조에 의거하여, 앞의 비문법적인 구문들이 어떻게 비문법적으로 판정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된다면 그 효용성이 보다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국어 경험표현 연구

함계임(한국외국어대학교)

### 1. 서론

한국어 교육에서 경험 표현으로 가르치는 문형은 ‘-아/어보다’와 ‘-(으)ㄴ적이 있다/없다’이다. ‘-아/어 보다’의 경우 대부분 교재에서 초급단계에 교수하고, ‘(으)ㄴ적이 있다/없다’는 초급 혹은 중급 초반에 교수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교재에서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함을 언급하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 문형이 결합한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도 있다. 그러나 세 문형 간에는 사용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상호간의 교체 사용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 1) 가. 저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한 적이 있어요.
- 나. 저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해 봤어요.(\*).
- 다. 저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해 본 적이 있어요.(?)

(1가)는 과거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던 순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1나)와 같이 말하지는 않는다. (1다)의 경우는 자연스럽게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세 문형이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어 보다’와 ‘-(으)ㄴ적이 있다/없다’,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의 사용 상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과 결합하는 동사의 성향을 분석하여 의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네이버 뉴스에서 2021년 4월 15일~ 2020년 10월 31일까지의 신문 기사 제목에 ‘-아/어 보다’와 ‘-(으)ㄴ적이 있다/없다’와 두 문형이 결합된 ‘-아/어 본 적이 있다’가 포함된 것을 수집한 후 중복되지 않는 동사로 된 문장 100개씩을 선정하였다. 세 문형이 문장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각 문형에 결합된 동사를 완료성 여부와 순간성 여부로 나누어 동사의 어휘상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각 문형에서 사용된 동사들의 상적 속성을 파악하여 의미 변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추출은 말뭉치에서 이루어지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형은 국립국어원 말뭉치에 소수만이 검출되어 연구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어자료에서 예문을 찾게 되면 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소 문어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는 신문 기사 제목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 2. 관련 연구들

‘-아/어 보다’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진행이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어 보다’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로 ‘-아/어 보다’가 시행의 의미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보조용언의 하나인 ‘-아/어 보다’를 통사적으로 살펴본 정언학(2006)에서 ‘-아/어 보다’의 최초의 의미는 ‘시행’임을 확인하였고, 이때의 결합동사는 타동사만 가능했지만 현대의 ‘-아/어 보다’의 의미는 시행, 경험, 가정의 의미로 결합가능한 어휘의 종류는 모든 동사와 일부 형용사, 계사라고 하고 있다. 손세모돌(1996)연구에서는 국어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중 ‘-아/어 보다’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시행과 경험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는 이후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호광수(2003)에서는 주어 의지 개입 여부를 ‘시행’과 ‘경험’의 차이로 보고 있다. 정연희(2017)에서는 ‘-아/어 보다’의 문법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의미의 변화가 문법화의 결과이며 각 의미 변화 단계에 어떤 문법화 기제가 적용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의 연구는 조영보(2019), 김진호(2020), 강현화외(2017)이 있다. 조영보(2019)에서는 학습자말뭉치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아/어 보다’의 ‘경험’의미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을 지적하고, 선후행절 시제와 화청자의 관계, 형용사 어간 사용을 기준으로 ‘-아/어 보다’의 담화 기능을 정리하였다. 김진호(2020)에서는 ‘-아/어 보다’와 ‘-(으)ㄴ적이 있다’를 비교였다. 강현화 외(2017)에서도 ‘-아/어 보다’와 ‘-(으)ㄴ적이 있다’를 부정적 경험 여부, 주어 결합 제약, 서술어 결합제약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연구들은 ‘-아/어 보다’의 의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일부 ‘-아/어 보다’와 ‘-(으)ㄴ적이 있다’의 비교 연구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에 한정하여 살펴 본 연구들이라 각 문형이 가진 의미들, 두 문형이 결합한 ‘-아/어 본 적이 있다’에 관한 연구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3. 한국어 경험 표현들의 의미 분석과 변별

### 3.1 한국어 경험 표현의 의미 분석

#### 3.1.1 ‘-아/어 보다’의 의미

앞서 2장에서 ‘-아/어 보다’의 의미는 시행에서 출발하여 경험, 가정의 의미로 확대됨을 확인하였다. 가정의 의미는 구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시행과 경험의 의미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정연희(2017)에서는 시행이 완료된 상황에서 주관성이 더해지면서 동작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경험의 변화가 관습화되면서 상태에 대한 경험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시행에서 시작하여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시행나 경험으로 해석되는 중의적 상황을 거쳐 경험에 이르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 대상 문장들이 시행과 경험 중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분리해보도록 하겠다. 손세모돌(1996)에서 경험의 의미를 선별하는 방법을 5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당하다’, ‘경험하다’ 등의 경험이 전제된 특별한 어휘와 결합하는 경우에 ‘-아/어 보다’를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 (예: 어제, 작년에..)와 공기하는 경우, 넷째, 주어의 의지가 결여된 경우도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동사 이외의 형용사, 명사+이다의 경우도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5가지 조건 중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경험의미라고 했으나 과거시제를 사용한 시행의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 2) 가. 360가지 색상 갖춘 비스OO 냉장고, 골라 봤다.
- 나. 2017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신조어 5개를 꼽아 봤다.
- 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부동산의 흐름을 예상해 봤다.

(2가-다) 모두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지만 주어의 경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주어가 한번 해 보았음, 즉 시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경험’의 의미를 갖는다는 조건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시행이 반복되다 보면 행위가 누적되어 경험이 될 수 있다.

- 3) 가. 그러면서 “KBO리그 시절 큰 경기에서 많이 던져 봤다.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 나. ‘라스’재재 “눈에 띄는 빨간 머리? 사실 빨주노초파남보 다 (염색) 해 봤다”
- 다. 신입사원 10명 중 9명 “퇴사 고민해 봤다.” 퇴사 결심까지 약 3개월.

(3가)는 ‘많이’라는 부사가 더해져 경기에서 다수의 공을 던져 본 경험을 드러내주고 있다. (3나)는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번 염색을 반복했다는 의미로 다수의 염색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3다)는 90%의 많은 사람들은 퇴사를 생각해 봤다를 통해 다수의 시행이 누적되어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안에 다수의 행위(여러 사람의 행위 혹은 반복적 행위)가 경험을 나타내 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세모돌(1996)에서 제안한 5가지 경험의 의미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과거시제’를 제외하고 (3가-다)에서 나타나는 ‘복수(複數)(複數)의 행위’를 추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아/어 보다’의 의미를 경험으로 판별하는 기준은 다음의 5가지이다.

- 첫째, 경험이 전제된 특별한 어휘 (예: 당하다, 체험하다, 경험하다 등)
- 둘째, 시간 부사어와 공기하는 경우 (예: 작년에, 어제, 방금 등)
- 셋째, 주어의 의지가 결여된 경우  
(예: 연이은 학폭 논란에 박명수 고백 “돈 뺏기고 많이 맞아 봤다.”)
- 넷째, 동사 이외에 형용사, N이다와 결합하는 경우 (예: 나도 어렸을 때 배가 고파 봤다)
- 다섯째, 행위의 주체가 다수이거나 행위 자체가 다수의 경우  
(예: “떡볶이집 하루에 6-7번까지 다녀 봤다.”, 프랑스인 60%가 “봉쇄령 어겨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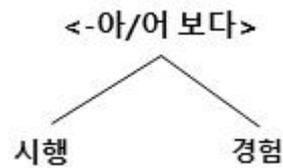
〈표1 ‘-아/어 보다’의 경험판별기준〉

본 연구의 ‘-아/어 보다’가 포함된 문장의 경우 위의 기준을 중심으로 분류했을 때 100개의 문장 중 35개의 문장이 ‘경험’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65개의 문장이 ‘시행’으로 나타났다. ‘시행’이 더 자주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문어성이 강한 신문 기사이다 보니 주관성이 개입된 ‘경험’보다는 ‘시행’이 더 자주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경험’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35개 중 33개가 직접 인용에서 사용되었다.<sup>1)</sup> 직접인용의 경우 화자가 주체가 되어 직접적으로 서술하다 보니 개인적인 관점이 반영된 ‘경험’의 의미가 자주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직접인용이라도 시

1) ‘시행’의 의미로 사용된 65개 중 20개에서 직접 인용을 사용하고 있었다.

행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아/어 보다’는 ‘시행’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경험’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월등히 많으며, ‘경험’으로 사용될 때는 주로 직접인용처럼 화자가 직접 서술하는 상황에서 반복된 행위나 주관성이 반영이 되는 경우이다.



〈그림1〉 ‘-아/어 보다’의 사용 상황

### 3.1.2 ‘-(으)ㄴ 적이 있다/없다’의 의미

‘적’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존 명사로 ‘일부 명사나 어미 ‘-은’, ‘-을’뒤에 쓰여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 있는 때, 또는 지나간 어떤 때”로 설명하고 있다. 김진호(2020)에서는 경험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며 최근 혹은 가까운 과거에 경험한 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보통은 주어의 의지가 개입되는데 일부 동사 (잃어버리다, 도둑맞다, 넘어지다, 다치다...)는 주어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아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는 결국 과거 행위가 일어난 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와 결합하는 동사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종결성]을 가지는 동사가 100개 중에 81개, [+순간성]을 가지는 동사가 100개 중 67개로 행위의 진행이나 과정보다는 행위 결과와 그 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적’이라는 의존명사의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의 사용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가. 국토부 “가덕도 특별법 반대한 적 없어.. 제정되면 최선 다할 것.”  
 나. 하태경 “박형준 딸 홍대 입학한 적도 없다..”  
 다. 변창흠 “자리 연연하지 않지만 사의 표명한 적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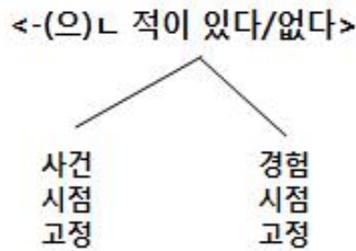
(4가)는 ‘반대한 경우’로 바꾸어 쓸 수 있고, ‘반대라고 말한 시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4나)는 ‘입학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입학할 시점에 입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볼 수 있다. (4다)는 ‘사의 표명한 상황, 때’로 볼 수 있고 ‘사의 표명을 한 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볼 수 있다.

(4가-다)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통은 (4가)와 (4나)같이 문장의 주어가 화자가 아니거나 단체인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간혹 (4다)와 같이 문장의 주어와 화자가 일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를 ‘사건 시점 고정’이라고 하겠다.

- 5) 가. ‘수미산장’ 김현숙 “사기 당한 적 있어.. 마음 다쳐 힘들었다” 고백  
 나. 김준희 “체지방 10% 복근 만들었지만.. 행복한 적 없었다”  
 다. 박은석 “비글은 키운 적도 없어.. 허위 사실 법적 대응”

(5가-다) 모두 ‘-적’ 대신 ‘-때’, ‘-경험’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모두 화자 자신이 주어와 되고 있다. 화자의 경험을 진행이나 과정이 아닌 경험한 시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를 ‘경험 시점 고정’이라고 하겠다.

보통 경험표현이라고 하는 ‘-(으)ㄴ 적이 있다/없다’는 이렇게 행위나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더라도 [+순간성][+완료성]을 가진 동사의 경우에는 (4가-다)와 같이 사건 자체에 시점이 고정되고, (5가-다)와 같이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주어이자 화자의 경험에 시점이 고정된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의 주 기능은 시점 고정이며 주어와 화자의 일치여부에 따라 사건 시점 고정과 경험 시점 고정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으)ㄴ 적이 있다/없다’의 사용 상황

### 3.1.3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

두 문형이 결합된 형태인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의 경우 우선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제외하고 ‘-아/어 보다’가 시행 의미인지 경험 의미인지 확인해 보았다. 100개의 ‘-아/어 보다’ 중 89개가 경험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1개가 시행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경험’의 의미로 사용된 대다수의 ‘-아/어 보다’가 경험 시점 고정인 ‘-(으)ㄴ 적이 있다/없다’와 결합하였다. 유사한 의미 범주의 두 문형이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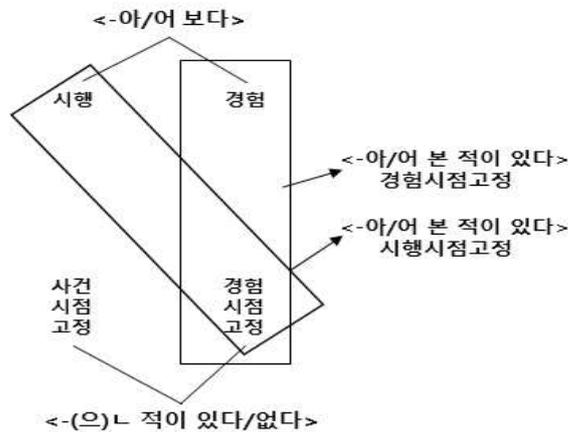
- 6) 가. 이상화 “24년간 스케이트 즐겨본 적 없어” 충격...  
 나. ‘달이 뜨는 강’ 최유화 “짜사랑 이렇게 깊게 해 본 적 처음” 종영소감  
 다. 김예령 “50넘은 나이지만 50kg 넘어 본 적 없어”

(6가)는 일정 시간(24년) 즐기지 않음이 반복되어 경험으로 해석되고 있고, 여기에 화자와 주어가 동일하여 경험 시점 고정으로 볼 수 있다. 24년간 스케이트를 즐기지 못한 경험이 과거의 한 시점까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이렇게’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화자가 직접 경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와 주어가 동일하다. 촬영이 끝난 시점까지 짜사랑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6다)는 특정 기간의 반복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고, 화자와 주체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50넘은 시점까지 50kg이 넘지 않는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소수의 ‘시행’의 의미의 ‘-아/어 보다’가 ‘-(으)ㄴ 적이 있다/없다’와 결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표1〉의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아 ‘시행’의 의미를 가진다고 분류하였다. 그러나 3.1.2에서의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는 경험시점고정의 조건은 유지하고 있어 시행과 경험의 양면적인 모습(시행+경험시점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7) 가. '7년 만의 복귀' 윤정희 “연기 그만둔다는 생각 해 본 적 없다”  
 나. 홍정욱 “정치 재개 모색해 본 적 없어.. 가슴의 부름이 없다”  
 다. 백종원, 대선주자 깜짝 거론. “꿈 꾀본 적도 없어”

(7가)의 ‘연기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해 보다’는 ‘경험’으로 분류되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시행’으로 분류하였으나 화자와 주어가 일치하여 ‘-(으)ㄴ 적이 있다/없다’에서는 경험시점고정의 조건에 충족하고 있다. (7나)는 ‘정치 재개를 모색해 보다’도 역시 ‘경험분류조건’에 충족되는 사항이 없어 ‘시행’에 해당이 되나 화자와 주어가 일치하여 ‘-(으)ㄴ 적이 있다/없다’에서는 경험 시점 고정으로 특정 시점까지 정치모색에 대한 시행을 한 경험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7다)는 ‘꿈 꾀 보다’에는 ‘경험’으로 볼 수는 없지만 특정시점까지 대선주자를 꿈 꾀 시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가-다)는 선행 보조용언에서는 시행의 의미를 가지지만 후행의 ‘-(으)ㄴ 적이 있다/없다’에는 과거특정시점까지의 시행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3〉 ‘-(으)ㄴ 적이 있다/없다’의 사용상황

### 3.2 경험 표현의 의미 변별

3.1에서 ‘-아/어 보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 ‘-아/어 본 적이 있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실제 분석 예문에서 동일한 동사가 세 문형 모두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맞다’가 세 문형과 결합한 경우이다.

- 8) 가. 연이은 학폭 논란에 박명수 고백 “돈 뺏기고 많이 맞아봤다”  
 나. 김성주 “다투는 부모님 앞에서 까불다 빗자루로 맞은 적 있다”  
 다. 여기 아이들, 맞아 본 적이 없으니 때릴 줄도 모른다.

(8가)는 ‘맞다’가 ‘-아/어보다’와 결합한 문장이다. ‘많이’라는 부사가 구타가 자주 반복이 되었음을 말해 주고, 이는 복수(複數)의 시행이 경험이 된 상황이다. (8나)는 ‘맞다’가 ‘-(으)ㄴ 적이 있다’와 결합한 문장이다. 이 경우는 맞은 사건이 자주 발생된 것은 아니고 화자는 맞았던 시점에서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8다)는 ‘맞다’가 ‘-아/어 본 적이 있다’와 결합한 문장이다. 특정 시점까지의 복수(複數)의 주어가 경험을 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쓰다’가 세 문형과 결합한 경우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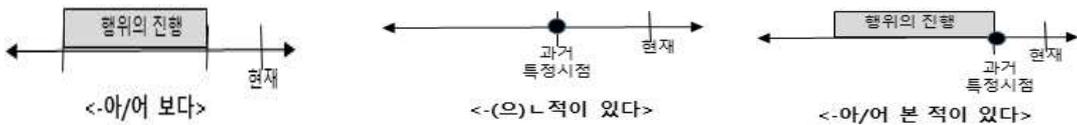
- 9) 가. 탈모예방 헤어제품 두 달간 써봤다
- 나. 오세훈 “한 번도 쓴 적 없는 방식 주장”..안측 “뭘 모르는 소리”
- 다. 백지영 나이 어린 뉴이스트 JR에게 “연통 난로 써 본 적 있어?”

(9가)는 두 달이라는 기간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아/어 보다’가 선택되었다. (9나)는 말하는 시점에서 그간 사용한 경험(기회)이 없었던 방식임을 말하고 있다. (9다)는 말하는 시점 혹은 특정 시점까지 연통 난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는 과거부터 특정시점까지 복수(複數)의 이용이 있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아/어 보다’가 경험의 의미로 사용될 때 결합된 동사의 성향을 살펴보면 [+순간성] 동사와 [-순간성] 동사가 비슷한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순간성] 동사는 일정시간 행위가 이루어져 시간의 폭이 확보가 되고 있다. [+순간성] 동사의 경우 동사 자체로는 순간적 행위가 이루어져 시간의 폭이 없으나 같이 사용되는 어휘들(복수(複數)의 주체, 긴 시간, 반복의 어휘들)의 영향으로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아/어 보다’가 경험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일정 시간은 행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으)ㄴ 적이 있다’가 시점 고정으로 사용될 때 동사의 성향을 살펴보면 [+순간성] 동사는 전체 100개 중 67개, [-순간성] 동사는 전체 100개 중에 33개로 나타났다. 특히 ‘(으)ㄴ 적이 있다’와 결합한 동사 중 [+완료성]을 가지는 동사는 전체 100개 중 81개, [-완료성]을 가지는 동사는 100개 중 19개로 ‘(으)ㄴ 적이 있다’와 결합하는 동사는 일정시간 진행되는 동사류가 아닌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바로 완료되는 종류의 동사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적’의 의미인 과거의 어느 시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결합하는 동사들도 그러한 특징을 가진 동사들과 함께 사용된다.

‘-아/어 본 적이 있다’는 ‘-아/어 보다’와 ‘(으)ㄴ 적이 있다’의 특징이 모두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반복, 다수 의미의 어휘와 함께 [+순간성] 동사가 사용되고, 행위의 시간의 폭이 드러나는[-순간성] 동사들이 모두 나타나 일정 시간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으)ㄴ 적이 있다’의 특징인 특정시점까지의 한계가 있어 특정 시점까지의 행위의 진행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결국 ‘-아/어 본 적이 있다’는 일정시간 행위의 진행이 일어나지만 과거 특정시점에서 진행이 완료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4〉 경험 표현의 시간폭 비교

####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경험 표현 ‘-아/어 보다’, ‘-(으)ㄴ 적이 있다’, ‘-아/어 본 적이 있다’의 각각의 사용 상황을 살펴보고 의미차이를 밝혀 의미 변별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결과, 우리가 대표적인 경험 표현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어 보다’는 경험보다는 시행의 의미로 더 자주 사용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교재에서 경험의미로 함께 다루는 ‘-(으)ㄴ 적이 있다’ 역시 순수 경험이라기보다는 시점고정 표

현으로 과거 한 시점에서 관찰된 사건을 과거의 그 시간에 고정하는 사건시점고정과 과거의 한 시점에서 경험한 것을 인지하는 경험시점 고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시점고정이 가능한 것은 결합하는 용언의 성질이 [+완료],[+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험시점고정이 우리가 경험표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아/어 본 적이 있다, 없다’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아/어 보다’의 시행과 경험이 ‘-(으)ㄴ 적 없다’의 경험시점고정이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정기간 행위의 진행이 있는 후 특정 시점에서 행위가 고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표현으로 알려진 세 개의 문형을 살펴 경험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들도 공존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 문형의 의미적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자료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과 구어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 참고문헌 ■

- 호광수(2003)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 역락
- 정연희(2017) 한국어 보조동사 구성 ‘-아/어 보다’의 의미 변화와 문법화, 담화와 인지24-3
- 정언학(2006) “상이론과 보조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 조영보(2019) ‘-아/어 보다’의 담화 기능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10권1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 김진호(2020) 한국어 교육의 ‘경험’의 의미와 기능어 연구, 아시아 문화 연구 53, 가천대학교 아시아 문화 연구소
- 손세모들(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강현화 외 (2017) “담화 기능에 따른 한국어 유사문법 항목 연구”, 한글파크

## 〈토론〉 “한국어 경험표현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승연(서울시립대학교)

이 연구는 ‘-어 보다’와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중심으로 두 문형이 어떤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핀 연구입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주로 초급 단계에서 교수되는 문법 항목이므로 학습 중요성이 비교적 높은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형을 단순히 ‘경험’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법으로 분류하여 다루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각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신문의 예문들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논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가 이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 보지 못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송구합니다. 다만 몇몇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림으로써 향후 연구를 완성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1. 연구의 서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어 보다’와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경험’의 의미로 가르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두 문형의 의미를 유사하게 다루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교재에서 ‘-어 보다’는 ‘쇼핑’, ‘주문’ 상황에서 ‘-어 보세요’ 문형으로 도입됩니다. 이는 ‘권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때 ‘-어 보다’는 ‘시도’ 즉, 이 연구에서 말하는 ‘시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목표 문법으로 다루는 단원에서는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포함한 문장을 주로 예문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예문 중 많은 수에 ‘-어 본 적이 있다/없다’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 보다’와 ‘-(으)ㄴ 적이 있다/없다’가 함께 쓰여 ‘경험’의 기능을 한다고 학습자에게 인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어 교육에서 ‘-어 보다’와 ‘(으)ㄴ 적이 있다/없다’는 동등한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문법이 갖는 차이를 ‘경험’과 ‘시도’의 측면에서 논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보다는 국어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혹여 토론자가 발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이 연구가 한국어 교육에 대해 갖는 함의가 있다면 발표자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문 8)에서 다루신 ‘맞아 봤다, 맞은 적 있다, 맞아 본 적이 있다’에 대해 ‘맞다’가 부사 ‘많이’와 결합하여 “복수(複數)의 시행이 경험이 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맞다’의 여러 의미 중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져 몸에 해를 입다’의 뜻으로 쓰인 예문 8가) “돈 뺏기고 많이 맞아 봤다”는 ‘주어의 의지 결여’, ‘주어의 경험이 전제된 어휘(맞다) 사용’ 등의 조건만으로도 경험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이는 손세모돌(1996)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험 판별 기준’의 공통된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예문에 대해 ‘복수의 시행이 경험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3. 연구자께서는 분석한 기사 제목 100개의 문장에 쓰인 동사의 의미 속성을 [±순간성], [±완료성]으로 구분하여 통계 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논문으로 발표할 때는 동사 목록이 구체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가능

하시다면 동사의 사례 몇몇이라도 보여 주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연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KCI 등재지 &lt;한국언어문화학&gt; 수록 논문 일람

## ■ 1권 1호 ■

1. 강보유 / 문화언어학과 언어문화 교육 1
  2. 김정령 / 시기별 언어와 문화 습득 연구 13
  3. 김병원 / 한국어 의식론: 무엇이 생략 현상을 조정하는가 29
  4. 김창룡 / 두 개의 허구 장르에 대한 옛 한중의 인식 -옛 소설과 가전문학을 중심으로- 41
  5. 민현식 / (한)국어 문화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 59
  6. 성기철 / 언어와 문화의 접촉 -언어문화- 105
  7. 신현숙 / 어휘 정보와 문화 정보: {옷/ 밥/ 집} 125
  8. 이미혜 /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143
  9. 이은숙 / 한국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보는 판소리 영화 <서편제> 165
  10. 이홍매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신문을 통한 한자어 교육 183
  11. 조항록 /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試論) 199
  12. 태평무 / 중한 문화의 차이와 한국어 교수 221
- «한국언어문화학 창간기념 기획대담» 233

## ■ 1권 2호 ■

1. 강승혜 / 이야기 결말짓기를 통한 한·일간 '복수(復讐)'에 대한 의식비교 1
2. 기타무라 다다시 / 언어 문화 대조 연구의 전망 -한일어의 대조를 중심으로- 27
3. 김병원 / 이야기 스키마의 기능이 드러내는 언어문화의 특성 43
4. 김영란 / 한국어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한국 문화 57
5. 김창룡 / 조선시대의 소학 75
6. 민현식 / 國語文化에 나타난 宗教文化의 요소 89
7. 박숙자 /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119
8. 성기철 / 언어문화의 보편성과 개별성 131
9. 오고시 나오키 / 한국,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한국어 학습 151
10. 이병혁 /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 163
11. 이선한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몇 가지 방법론 문제 175
12. 장춘식 / 한국어 학습과 문화의 교류 183
13. 조항록 /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교육 193
14. 황유복 /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중국 속의 한국어교육 211
15. Sergey O. KURBANOV /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ROM THE PERSPECTIVES OF CROSS-CULTURAL APPROACH 219

## ■ 2권 1호 ■

1. 기타무라 다다시 / 신체 관련 관용구에 보는 한국 문화 1
2. 김숙자 / 한·일 양언어의 감사표현 비교 17
3. 김왕식 / 재일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변화와 그 촉진 요인 33
4. 김창룡 / 죽부인의 문학적 심상 49
5. 김혜숙 / 간판 매체 언어에 나타난 한국 문화 현상 69
6. 박문자 / 중국 대학의 한국학 연구와 그 역할에 대한 고찰 101
7. 박선희 / 주변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한 신라와 가야 갑옷의 고유양식과 정체성 인식 111
8. 신현숙 / 한국어 의미 확장과 한국어 사용자의 인지 모형 131
9. 어트경체책 / 蒙-韓 말[馬] 관련 象徴에 대한 比較 研究 149
10. 엄정미 / 일·한의 젠더 아이덴티티 표상 171
11. 이미혜 /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185
12. 이유기 / 현대국어의 불규칙적 현상과 국어사 207
13. 이지영 / 한국 언어문화 현상: 제안 담화 227

14. 정상균 / 언어와 문학 249
15. 조항록 /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 방법론 소고 265
16. 한영옥 / 상하·친소관계를 중심으로 본 한국인의 부부호칭 변화 281

### ■ 2권 2호 ■

1. 김성주 / 범용 한국어 교재와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1
2. 김창룡 / 부채의 한국 문학적 심상(心象) 19
3. 김혜숙 / 프랑스·독일·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39
4. 민현식 / 한국어 세계화의 과제 89
5. 박장순 / 한류와 수치(數値)로 본 한국영화 르네상스 139
6. 변정민 / 어휘 구조와 매체 언어에 나타난 한국 문화 현상 169
7. 아시다 마끼코 / 한일 양국어의 대우법 대조 연구 193
8. 이유기 / 근대국어의 어휘 213
9. 조항록 / 중국 내 한국어교육의 특징과 발전 방안 249
10. 최은정 /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색채어 체계 대조 연구 269

### ■ 3권 1호 ■

1. 김석기 / 「TV 동화 행복한 세상」을 통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 1
2. 김윤정 /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15
3. LE DANG HOAN / 베트남의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수법 도입 상황 41
4. 박장순 / 커뮤니케이션 톨로서의 문화콘텐츠, 그 개념에 대한 이해 55
5. 변정민 / 언어 변화의 의미적 특성 67
6. 신은희 / 민족주의에 나타난 북한 언어문화의 특징 83
7. 이영래 / 언어행위에서의 (반)공손과 대인관계 105
8. 이희경 /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일본 대학생의 한국어 학습과 한류 125
9. 조항록 / 한국어 듣기 교수법 153
10. 최경희 / 조선족의 친족 호칭어·지칭어연구 167
11. 최권진 / 한국 문화의 이해와 충돌 199
12. 태평무 / 중한 언어문화의 차이로부터 본 양국 간의 의사소통의 특징 225

### ■ 3권 2호 ■

1. 기준성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 연구 1
2. 김성희 /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3
3. 김숙자 / 타문화간 의사소통 면에서 본 한국어의 거절표현 57
4. 김영란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역사 교재 연구 73
5. 김혜숙 / 대학 총장 연설의 단계별 구성과 표현 방법론 99
6. 김혜진 / 한국어 피동형태에 관한 재고찰 123
7. 민현식 /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137
8. 서승아 / 국어과 국민공통 교육과정 개정안의 분석과 검토 181
9. 육효창 / 한국어 음운 교육 연구 203
10. 윤 영 / 학습자 중심의 문화수업 방법 연구 219
11. 이해영 / 한·일 여성관사와 남성관사의 대조 237
12. 최윤곤 / 중국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257
13. 황정아 / 한국어 관용어와 관용표현의 관계 27

### ■ 4권 1호 ■

1. 강보유 / 세계 속의 한류 1
2. 픽셀 튀르키쭈 / 터키에서의 한류와 한국어교육 현황 19
3. Kim Do-young / Possibility of the Korean Cultural Wave in India 35
4. 김혜진·김은진 / 외국인 학습자의 한글 쓰기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제안 51
5. 민원정 / 중남미에서 한국어교육사례 75

6. Beckers-Kim, Young-ja / 비한류 (非韓流) 지역의 한국어·한국학·한국문화 교육 진흥 방안 모색 99
7. 빠릿 윙타나센 / 태국에서의 한류 현상 129
8. 왕혜숙 / 미국에서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과 한류 145
9. 이해영·임명결·왕청청·필신연·정란·최수진 / 한국어-한국학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사례 163
10. 하세가와 유키코 / 일본의 한류 189

#### ■ 4권 2호 ■

1. 김성희 / 한국어 교수법과 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통섭적 관계 1
2. 김 염 /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교육 방법 연구 21
3. 남 연 / 중국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한국문화 지도 방안 43
4. 박건숙 / 일기예보에 나타난 한국 문화 59
5. 오지혜 /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83
6. 왕 단 / 한국어 학습 사전의 형용사의 의미 정보 기술 방법 연구 121
7. 이지영 / 초기 한국어 교재의 내용 분석 159
8. 임 상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183
9. 전태현 / 인도네시아 하사누딘대학교의 한국이해 교육 215
10. 최권진 / 한국어 읽기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37

#### ■ 5권 1호 ■

1. 김대행 /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1
2. 김창원 / 한국어 문화교육과 차이의 문화학 63
3. 한상미 /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적 능력의 평가 83
4. 최권진 / 쿠레레(Currere) 방법을 적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113
5. 권종분 / 비언어적 요소를 고려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135
6. 김의진 & 김혜진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휴대폰(일본)에서의 한국어 입/출력에 관한 연구 177
7. 김인규 / 대학 사회에서의 한국어 사과 화행 연구 195
8. 김혜련 / 식민지기 국어과 교육과 ‘조선, 조선 문화, 조선인’의 재구성 기획 235
9. 이수미 / 텍스트 읽기를 통한 한국 문화 이해의 제 양상 연구 273
10. 이호형 / 문화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 방안 연구 293
11. 조수진 / 대학생 교류를 통한 언어문화 교육의 방향 321
12. 황정민 / 성별 담화표지어의 사용 양상 비교 연구 347

#### ■ 5권 2호 ■

1. 성기철 /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 1
2. 강 영 / 김학철 소설 『격정시대』의 해학과 풍자 27
3. 곡 로 / 중국 관련 뉴스 보도에 대한 담화 분석 45
4. Do-young, Kim / Teaching Korean with Three Language Formula of Phonetic and Semantic Application in Multicultural Environment 69
5. 마쯔자키, 나카가와 /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87
6. 민현식 / 한국어교육에서 소위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115
7. 오지혜, 박안또니나, 임결, 축명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표현 교육 연구 151
8. 윤운진 /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자어 어휘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과 그 대안 177
9. 이지영 / 한국어 교재 구성 연구 195
10. Florian / 인도네시아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제 문제 225

#### ■ 6권 1호 ■

1. 박정은 / 캐나다의 언어정책과 다문화주의 1
2. 유영미 / ‘외국어교육표준’에서의 간 문화적인 이해 29
3. 윤여탁 /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대문학 교육 방법 53
4. 윤영 /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문학수업 방안 71
5. 이홍매 / 부사 ‘자칫’과 ‘하마터면’의 의미, 통사, 화용 대비 97

6. 전미순, 이병운 / 초급 단계 문화 어휘 선정과 문화 교육 방안 119
7. 전월매 / 윤동주와 심연수 시에 나타난 만주 인식 고찰 145
8. 최권진, 황주원 / 마케팅 전공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165
9. Nguyen Thi Phuong Mai / 베트남 학습자들의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언어 · 문화 교육 연구 191
10. 배. 히식자르갈 /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문화교육 연구 213

#### ■ 6권 2호 ■

1. 김정우 /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 개발 방향 1
2. 김지민 / 교수·학습 관점에서 본 오류 판정과 해석의 조건 33
3. 김혜진 / ‘-(어)지-’에 관한 의미적 특징에 대하여 (1) 59
4. 노금송 / ‘가다’와 ‘去’의 인지 의미 대조 연구 77
5. 리광일 / 연변 조선족 중학교 조선말 교육의 실태 고찰 101
6. 문영자 /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류를 막기 위한 한국어교육 115
7. 이흥매 / 이해 변인에 의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읽기 수업의 구성 방안 133
8. 전태현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식물 이름 사전기술과 교육의 문제점 163
9. 조수진 / 한국어교육의 간문화 교육 연구 185
10. 홍혜련 / 간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209

#### ■ 7권 1호 ■

1. 강현화 / 문화교수의 쟁점을 통해서 본 문화교수의 방향성 모색 1
2. 권성미 /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학습자 참여적 한국어 문화 교수·학습모형 연구 31
3. 김염 / TV뉴스를 활용한 문화적 리터러시 교육 연구 59
4. 김중순 / 다문화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사교육의 방향 81
5. Rou Seung Yoan, Kim Keum Hyun / Role and Importance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A Case Study of Malaysian Universities 117
6. 민현식 / 미국의 한국어 학습자 의식 조사 연구 145
7. 박수경 / 인지언어학과 TPR교수법에 의한 한국어교육 활용방안 고찰 173
8. 석주연 / 한국어 문자 언어문화의 제도화와 훈민정음: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와 해례본 『훈민정음』의 간행을 중심으로 197
9. 신윤경 / 문학을 활용한 일제강점기 역사문화 교육-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219
10. 조홍욱 / <서동요 배경설화의 구성방식 연구 239
11. 지현숙 /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과정 연구의 새로운 탐색-소위 ‘다문화교육’을 넘어 261

#### ■ 7권 2호 ■

1. 근보강 / 한·중 분류사 대조와 한국어 분류사 교육 1
2. 김미혜 / 다문화 교육을 위한 문학 제재 선정 원리 탐색 23
3. 김윤희, 최혜실 / <미녀들의 수다>에 나타난 외국 여성 이미지 연구 47
4. 송명진 / 혼혈의 서사화 양상에 대한 사적 고찰 71
5. Shin, Seong-Chul / Strategic Direction and Tasks for the Global Expan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93
6. 신현숙, 박건숙 / 매체 환경에 따른 언어·문화 비교 연구 121
7. 이흥매 / ‘남’의 의미적 특성 연구 149
8. 전태현 / 인도네시아의 언어정책 171
9. 조수진 /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선정에 대한 연구 195
10. 최권진, 정혜령 / 매체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신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221

#### ■ 8권 1호 ■

1. 마금선 / 한국어 교재 발음정보에 대한 고찰 -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1
2. 박인기 / 학교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커리큘럼 상호성 23
3. 송현정, 양정실 /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45
4. 심상민 / 호주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의 현황 65
5. Oh, Hyeon-ah / A Study on the Important Values of Contemporary Korean Human Relations in TV

Commercials 83

6. 이선용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방송언어 활용사 - 거시적 관점의 서술을 중심으로 109
7. 정다운 / 내용 중심 교육과 장르 중심 교육을 통합한 한국어 쓰기 구성 방안 연구 -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131
8. 조정덕 /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의 인지심리학적 미술 치료 사례 연구 159
9. 주월랑, 양명희 /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요구조사 175
10. 최은경 / 한국어교육을 위한 준말 종결어미에 대하여 - 종결어미와 종결어미의 통합형을 중심으로 205
11. 축취영 / 중국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양반전>교육 연구 - <범진 향시 급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31

### ■ 8권 2호 ■

1. 김용 / 논항구조 인식을 통한 한국어 동사 교육 방안1
2. 서승아 / 한국어교육학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1 - 미시구조를 중심으로 27
3. 신명선, 권순희 /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57
4. 신현단 / 한국어 문화에 대한 태도 교육 연구 91
5. 이미향 / 한국어 교수 설계를 위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 언어문화 考 113
6. 이수미 / 한국어교육학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1 - 거시구조를 중심으로 143
7. 이정란 / 외국인 유학생의 구두 발표와 보고서에 나타난 응결 장치 비교 165
8. 이홍매 / ‘말(을/도) 마라’의 의미 화용적 기능 연구 185
9. 정미진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반론하기’의 전략과 언어 표현 연구 205
10. 최경희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225
11. 최권진 / 이슬람권 학습자의 한국어언어문화 적응 연구 253
12. 최열 / 인터넷 활용능력이 한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277

### ■ 9권 1호 ■

1. 강승혜 / 한국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 1
2. 카가와 아키오 / {명사+동사 ‘부리다·떨다·피우다’} 연어에 대한 연구 39
3. 석주연 /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의 비언어적 신체 한국어의 습득 양상 연구 79
4. 신영지 / 한국어 문학교육을 통한 문화적응 가능성의 모색 101
5. 양지선 / 외국인 학습자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 조사 129
6. 오정미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교육과 문화적응 153
7. 오지혜 /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간 리터러시 교육 연구 173
8. 오현아, 박민진 /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상 조선어 교재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199
9. 이효신 / 일지 연구 방법을 사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에 관한 연구 221
10. 진강려 / 한국어 강독 수업에서의 문화 교육 연구 247
11. 최준식 /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271

### ■ 9권 2호 ■

1. 김대행 / 한국 언어문화교육 연구의 내용학적 지평 3
2. 장소원 /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연계 27
3. 박준연 / 외국어교육의 문화교육 49
4. 김정숙 /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소고 75
5. 김가람 / 한국어 학습자의 페이스북(Facebook)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95
6. 남애리 / 미국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 및 태도 연구 119
7. 신현단 / 한국어 문법 교수에서의 교사 코드 전환 양상 연구 145
8. 엄나영, 성은주 /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한 ‘자기 문화 스토리텔링’ 활용 한국어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179
9. 이기영 / 한국어교사의 교수 행동과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상관관계 연구 211
10. 이미향 / 한국어 언어문화교육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고찰 235
11. 정대현 / 한국어교육에서 입력 처리 교수 연구에 관한 통시적 고찰 265

### ■ 10권 1호 ■

1. 권성미 / 한국어 교재 대화 텍스트의 문화 항목 분석 1
2. 김승연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의 시각화 연구 25
3. 오재혁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성 유형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의 변별 지각 양상 57
4. 오지혜 /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연구 75
5. 윤지원 / 한국어 쓰기 수업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연구 99
6. 이은미 / 체험담 내러티브에서의 문말표현 ‘-것이다’에 대하여 131
7. 전은주 / 한국어교육과 로컬리티 153
8. 조형일 / 교육용 외래어·외국어 표현 선정과 표기 방안 연구 183
9. 최은경 / 한국어교육을 위한 ‘덧’ 연구 207
10. 최주희 /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상대 높임의 등급 전환 양상 연구 229
11. 황설운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항목 선정 연구 253
12. 황정민 / ‘거절하기’에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 연구 275

### ■ 10권 2호 ■

1. 김은희, 이미향 / 한(韓)-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언어문화교육 연구 1
2. 김충실 / 한국어어휘 교육에서 원형이론의 적용 -서술성명사와 의존동사를 중심으로- 31
3. 노복동 /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이 자율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49
4. 박민신 / 텍스트 응집성 중심의 한국어 쓰기 피드백 방안 연구 71
5. 박은하 /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양상 99
6. 변웨이샤 / 한국어 조사 {로}와 관련되는 중국어 개사(介詞) 대조 연구 123
7. 윤여탁 /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149
8. 이경애 / 결혼이민자의 학습양식이 한국어 학습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 177
9. 이기영 / 외래어 의미 변형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외래어 의미에 대한 인식 203
10. 이성희 / ‘화성인류학자’를 활용한 예비 한국어교사의 상호 문화 능력 교육 방안 -‘정의적 능력’을 중심으로- 225
11. 임철성, 서혁, 정영아, 신혜영, 최진희 / 재미 한국학교의 교수자 여건 및 전문성 확보 방안 연구 247
12. 주월량 / 문화어휘 ‘우리’의 사용 양상과 ‘우리+명사’ 구조의 의미 인식 연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275
13. 최윤곤, 허유리 / 한국어교사의 채점자 훈련 모형 개발 295
14. 최주열, 김명권 / 한국 문화 교육 항목 선정에 대한 고찰 -외국인 단기 연수생을 중심으로- 317
15. 타니자키 미쓰코 / 자연을 통한 감정 표현 연구 -‘해’와 ‘달’의 한·일 감정 표현 대조- 345

### ■ 11권 1호 ■

1. 김성주 / 터키의 한국문화 교재에 대한 분석과 활용 및 개선 방안 -KORE'YI TANIYARAK KORECE ÖĞRENELİM(『한국을 알아가면서 한국어를 배웁시다』)를 대상으로 - 1
2. 변정민 /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 -‘-어서’와 ‘-니까’를 중심으로 - 23
3. 신윤경 / 한국문학 읽기를 위한 어휘 주석 연구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및 맥락 이해 추가 설명을 중심으로 - 43
4. 양지선 / 베트남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 모색 -교사요구와 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과제 중심으로 - 63
5. 엄나영 / 역할극을 활용한 무역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91
6. 예경순 / 다문화 문식성 향상을 위한 독서 지도 방안 -문학 텍스트 활용을 중심으로 - 113
7. 이준영 / 교육 이념의 전환을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137
8. 정지현, 김영순, 홍정훈 /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유레카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미 165
9. 최정혜 / 한국어 속담에 나타난 과장 표현 연구 -의미 양상을 중심으로 - 195

### ■ 11권 2호 ■

1. 강남욱 /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 1
2. 김규훈, 김건우, 김혜숙 / 상호문화적 국어교육 관점의 국어 교과서 제재 분석 27
3. LIU YING / 한·중 고사성어 대조 연구 53
4. Bui Kim Luan, 이길원 / 베트남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79
5. 우인혜 / 다문화가정의 정체성문제 해결방안 연구 -다문화자녀의 2중 언어·문화교육을 중심으로- 107
6. 임형재 / 해외한국학에 대한 접근방법 연구 -한국학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135

7. 장국화 / 중국인 여성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의 발음 습득 양상 -초·중·고급 학습자의 음성산출 결과를 중심으로- 161
8. 한하림 / 한국 심층 문화 교육을 위한 다중 텍스트 구성 방안 연구 187

### ■ 11권 3호 ■

1. 구민지, 김원경 /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대면 피드백 사례 연구 -초급 학습자의 작문을 중심으로- 1
2. 김선영 /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적 특징 연구 -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 23
3. 김은희 / 읽기-쓰기 통합 수업에서 학습자 글쓰기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의 실현 양상 연구 47
4. 남은영 / 아제르바이잔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과제 71
5. 민정호, 전한성 /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개별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실천 방향 탐색 93
6. 박선영 / 머느리 설화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121
7. 배고운 /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사례 -탄뎀 수업을 중심으로- 151
8. 유나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담화표지 교육 내용에 대한 일고찰 171
9. 이수미, 윤여탁 / 한국어교육학 사전 텍스트의 특성 연구 -어휘 사용을 중심으로- 199
10. 장향실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음운의 제시 순서 연구 221
11. 최권진, 송경옥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재와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247
12. 홍승아 / 한국어 학습자의 주체 높임법 습득 연구 -중·고급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통하여- 271
13. 황미혜 / 결혼여성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91

### ■ 12권 1호 ■

1. 윤여탁 /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1
2. 김규훈 / 서사적 의미 소통의 스토리텔링 분석틀 : 한국어교육을 위한 서사표현교육 담론 탐색 23
3. 김혜진 / 한글능력검정시험의 문항 유형과 중급단계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관한 연구 : 3급 필기시험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53
4. 김혜진·김종철 / 상호 문화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의 '홍' 이해 교육 연구 : 고전 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79
5. 신윤경 / 한국어 쓰기를 위한 문학 텍스트의 내용 지식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검증 연구 113
6. 유민애 / 장르-텍스트 기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 논리적 응결 장치를 중심으로 139
7. 최주열 /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실태 연구 167

### ■ 12권 2호 ■

1. 기준성 / 한국어교육실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학습자 인식 연구 : 모의 수업·강의 실습을 중심으로 1
2. 김민수 / 국어기본법 상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연구 : 현황 및 발전 방향 23
3. 김승연 /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NIE 연구 : 텍스트 시각화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45
4. 김현민 /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75
5. 민현식 /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 97
6. 박수진 / 한국어 학습자 서사의 담화적 특성 : 조사, 시제 선택을 중심으로 125
7. 이수정 / 한국어교육에서 쓰기 지식 교육에 대한 연구 :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155
8. 이준영 / 상호문화성에 기반 한 문학 독서교육 183
9. 황사운 / 한국어교육에서 교수 자료로 활용된 문학 작품 연구 : 초기 교재를 중심으로 221

### ■ 12권 3호 ■

1. 김윤주 / 귀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1
2. 신윤경·방혜숙·성지연 / 학습 환경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쓰기 상위인지 전략사용 연구 25
3. 이경애 / 중국 내 한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 언어 51
4. 이미향 / KFL과 KSL의 학습유인별로 본 한국어 교재의 담화 연구 -1950~1980년 중반의 자료를 대상으로- 79
5. 이훈호·신카 조피아 / 일반적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식사 과정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을 중심으로- 111
6. 정서영 / 스리랑카 중고등학교 한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145
7. 정지현·최화·김영순 / 한국 언어문화 리터러시에 나타난 북한이탈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 183
8. 최수정 / 한국어교육에서의 화용적 특성 기반 문법 교육 연구 -'(이)나'와 '(이)라도'를 바탕으로- 211
9. 최유정 / 한국어교육에서의 명사절 '-기가' 내포문 교육 연구 239

### ■ 13권 1호 ■

1. 김금숙 /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사례 연구 1
2. 류경애 / 한국어교육목적과 학습동기 변인에 따른 상관성 분석 31
3. 배재원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57
4. 이명봉 / 정경론에서의 동일성을 활용한 서정시 교육 연구 -학문 목적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79
5. 장미미 / '부탁' 관련 표현에 대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 차이 분석 -드라마 말뭉치를 기반으로- 111
6. 전미화·윤지원 /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내용 피드백 제시 방안 연구 137
7. 황인교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분석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과 '문화예술교수요목'을 중심으로- 163

### ■ 13권 2호 ■

1. 기준성 / 한국어교육실습 수업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강의 참관을 중심으로- 1
2. 김승환 /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의 문제와 개선 방안 연구 23
3. 박소연 /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단기 교육 과정 내용 개선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일본인 대상 단기 과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9
4. 이설연 / '어휘-구문 상호 학습' 교육 방안 -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 85
5. 정지현·오세경 / 학교 밖 다문화교육 전문가의 교수경험에 나타난 타자지향성의 의미 109
6. 폴리롱 / 홍콩 한국어 입문기 교육에 관한 고찰 -문법 및 문화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135

### ■ 13권 3호 ■

1. 강란숙 / 한국 문화교육의 자료로서 아리랑 TV 영상 자료 활용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반응 조사 연구 -해외 한국학 교육 현장(벨기에)의 수업 사례 제시- 1
2. 김경령 /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도와 쓰기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연구 29
3. 김은미 / 담화화제에 있어서의 한일대조연구 -화제선택과 도입 및 전개를 중심으로- 69
4. 민현식 / 한글문화의 정신사 93
5. 박새암 /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연구 -〈미감리회〉를 중심으로- 119
6. 박은하 /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능력과 초급 단계의 문화 능력 평가 도구 개발 145
7. 이인혜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독자 고려 전략 연구 169
8. 이향 / 외국인 어투에 대한 한국어 원어민 화자의 언어 태도 연구 199
9. 최권진 / (비)효율적인 한국어학습자의 학습 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초청 대학원장학생과 중국인 학습자의 비교 연구- 231

### ■ 14권 1호 ■

1. 고은선·김성훈 / 교수자의 학습자 모어 사용이 제2 언어 텍스트에 미치는 영향 -중국어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1
2. 곽수진·강현화 / 문학·언어 수업의 병행 프로그램연구 27
3. 김규훈 / 생태언어학 기반 언어문화교육의 내용 재개념화 방향 51
4. 김호정·김가람 /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한국어교육과정 연구 동향 분석 75
5. 박성 / 다문화교실에서 역할극을 통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상호문화성을 중심으로- 111
6. 이정현 / 코퍼스를 활용한 피동사 언어 구성의 통계적 분석 -한국어교육을 위한 '보이다' 용례 분석을 중심으로- 143
7. 이지양·박소연·구민지 / 한국어교육 기관 한국어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사례 연구 171
8. 전미화·황설운 /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내용 구조 분석 연구 -'선행연구 검토' 부분을 중심으로- 197
9. 최은숙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적응 현황 및 학습자 요구 분석 223

### ■ 14권 2호 ■

1. 김강희 / 청문회 담화의 종결어미 '-고요' 사용 양상 연구 1
2. 박 환 / 동영상 제작 과제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연구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27
3. 신범숙 / 한국어교육과정 학습 한국어의 언어 재료 탐구 -역사 교과를 중심으로- 51
4. 안하나·임효용 / 카타르 한국어교육 교육과정 개발 방향 및 실행에 대한 소고 -카타르 A학교를 중심으로- 81
5. 안화현 / 태국 대학교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과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109
6. 오지혜 / 다문화교육을 위한 문화 내용 연구 -다문화예비학교와 다문화중점학교 교재 사례를 중심으로- 145
7. 이경희 / 한국어 어휘 '우리' 교육을 위한 고찰 -「한국어기초사전」의 풀이말 검토를 중심으로- 179
8. 이명화 / 한국어 학습자의 토픽(TOPIK) 쓰기 오류 양상 -53번 설명문 쓰기 중심으로- 231
9. 이미향 / 의사소통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재의 학습활동 고찰 255
10. 전태현 / 인도네시아어-한국어 문학 번역의 오역 283

11. 한운정 / 외국인군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플립러닝 활용 언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311

### ■ 14권 3호 ■

1. 강신희 / 이주 노동자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1
2. 구민지·김원경 / 유학생 대상 한국어 스토리텔링 기반 수업 사례 연구 29
3. 김경령 /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국 한글학교의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51
4. 김기성 /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피동 대조 연구 91
5. 김혜진 / 신문 텍스트의 주제 영역별 장르성에 따른 연결어미 사용 양상 분석 113
6. Ra Chae Kun / A Pedagogical Study on Understanding of 'Shinmyoung'(神明) in Modern Korean Novels for Foreign Learners - Based on A. N. Whitehead's Creativity 147
7. 마심리 레일라·정지현 / 한국 정부초청 아제르바이잔 장학생의 학업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173
8. 박성 /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반응양상 연구 - 독자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197
9. 서혁 / 학교교육과 한국어언어문화 교육의 쟁점과 과제 21
10. 오선영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지역어 교육 연구 -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수업 사례를 통해 249
11. 이용희 /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성 및 거절 화행 연구 287
12. 주월량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중간언어 연구 -통사 복잡성을 중심으로- 313
13. 최권진 /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대한 연구 -대한민국 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을 중심으로- 347

### ■ 15권 1호 ■

1. 김규훈 / 한국어 어휘 수업에서 '생태학적 언어 교수 전략'의 활용 가능성 1
2. 김승연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시각적 요소의 변화 경향성 연구\* -1990년대부터 2010년대 교재를 중심으로 25
3. 김윤주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계 방안 61
4. 박봉수, 김영순 / 중국계 결혼이주민의 자녀 이중언어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93
5. 신윤경, 성지연 /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방향 고찰 121
6. 이미향, 윤영, 최은지, 박진옥 / 특수 목적 교육으로서의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선 방향 연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47
7. 이스라 하산 / 요르단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내 말마디 경계 장음화 현상 고찰 175
8. 정효민 / 자기주도학습이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201
9. 조현용 / 한일 교류사 활용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229
10. 홍승아 / 한국 유학 대학생들의 학문적 요약문 글쓰기 -한국인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한 실태 분석- 257

### ■ 15권 2호 ■

1. 강남옥 / 한국어 교재의 구성 유형과 형성 과정 연구 1
2. 강신희 /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한국어 쓰기 교육 모형 개발 연구 37
3. 구민지, 김원경 /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으로서의 설화 '다시쓰기' 63
4. 권기현 / 한국어-베트남어 단모음 대조를 통한 난이도 위계 설정 93
5. 김현진 /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접촉 양상(LCP)이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125
6. 김혜진 / 문화적 문식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설화 교육 연구 -국내 대학 교양 학부의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155
7. 박성 / 영화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교육 연구 -상호문화능력을 중심으로- 189
8. 양지선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중국, 몽골, 학습자를 중심으로- 229
9. 응웬 티 꾸잉안, 김영표 /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더라'의 교육 방안 연구 255
10. 황사운, 이미향 / 외국인이 편찬한 초기 한국어 교재의 한자어 교수 자료 연구 277
11. 이은희 / 한국어 학습자의 스테레오타입과 한국 문화교육 -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305
12. 이지용 / 한국어 공공언어를 위한 챗봇 설계 방안 333

### ■ 15권 3호 ■

1. 1. 구려나 / 월(粵)방언권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습득 연구 -확인 의문문 중심으로- 1
2. 기준성 /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부부간 담화 속 성차별적 요소 분석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27
3. 김설, 김중섭 / 중국 초급 한국어 교재의 발음 영역 구성 방안 연구 -비음화를 중심으로- 49
4. 나채근 /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상문 쓰기를 통한 한국 정서 한(恨)에 대한 이해 교육 85
5. 노채환 / 몽골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오류 분석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113
6. 안정호 /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답시고'의 의미와 교육 내용 연구 -세종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하여- 135
7. 이혜신원 / 색채어의 상징의미 대조 연구 -한국어와 미얀마어 기본 색채어를 중심으로- 161

8. 이해영, 하지혜, 정혜선 / 매체 효능감과 실재감이 실시간 온라인 한국학 강좌 수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87
9. 임형재, 후지모토 타쿠미 / 일본 공공번역의 한국어 오류분석 -일본 정부기관의 한국어 표준 번역안(案)을 중심으로- 211
10. 진대연 /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243
11. 최권진 /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한국어 교사의 교육 경험 연구 -불가리아 모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271

### ■ 16권 1호 ■

- 1.곽선우 / 한국어 핵역양 유형에 따른 태도 지각 양상 연구 1
2. 구민지 / 한국어 읽기 문화 교재의 어휘 난이도 39
3. 김서형 /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사 고쳐말하기와 학습자 반응 간의 상관관계 연구 61
4. 남은영·이숙진·박혜란·장미선 / 베트남 학습자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97
5. 박민신 / 귀국 대학생의 내러티브 정체성 형성을 위한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131
6. 박은정 / 유학생 역번역문에 나타난 어휘 연구 157
7. 서수진 / 한국 현대문학을 활용한 토론·토의 수업 모형 연구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187
8. 성혜진 / 한국어 국외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종학당 정책집행의 효율화 방안 연구 -집행기관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213
9. 유소영 / 헝가리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현황과 과제 -헝가리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의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241
10. 이유인 / 이주노동자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고찰 -네덜란드의 이주노동자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261
11. 임현열, 고광원 / 구조화된 오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철자 오류와 발음 오류의 관련성 연구 -중국인의 한국어 철자 오류에 대한 국어 음운론적 관점의 분석- 297
12. 황희선 / 첨삭 주제에 따른 외국인 대학생 글의 양상 분석 -동료첨삭과 교수첨삭을 중심으로- 323

### ■ 16권 2호 ■

1. 김경령 / 아동반 한글학교 교사의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1
2. 김명광 / 의사소통능력 개념 변화에 대한 일고 -서구 이론을 중심으로- 31
3. 김영 / 고전시가에 표출된 '달'의 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고전문학사 교육 방법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65
4. 김은경 /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스마트러닝 구현을 위한 스마트 교실응답 시스템 활용 방안 93
5. 김태연 /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 -학습자 및 교수자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121
6. 노채환 /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 분석 -음절구조 차이 및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171
7. 오지혜 / 내러티브 기반의 문화 간 의사소통 평가 연구 171
8. 육효창 /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현황과 과제 -학위과정의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 199
9. 이미혜 / 대학기관 한국어 교사 역량에 대한 인식 231
10. 이진경, 박영옥 /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을 중심으로- 255
11. 정미진, 조형일 / 몸짓 언어에 기반한 한국어 환유 표현의 교육 연구 283
12. 주현정, 김태희, 정가민 /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교사의 태도와 전문성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목적에 따른 한국 문화 교사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305

### ■ 16권 3호 ■

1. 기준성·김민수·최민지 / 결혼이민자 소재의 TV 프로그램 담화 속 차별적 요소 분석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1
2. 김기성 /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부정대명사 대조 연구 29
3. 김서형·박선화·장미라 / 한국어 수업 참관을 위한 수업 관찰 도구 개발 연구 51
4. 김수은·한하림 / 한국어 학습자의 사과 담화 구성 양상 연구 -사과하기 역할극 말뭉치를 중심으로- 87
5. 성지연 / 한국어 문법 교육론 교과목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어 교원 양성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121
6. 양지선 /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운영과 교사의 성찰 -수업 성찰일지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143
7. 윤인현 / 『論語』를 통해 본 孔子의 교육관과 활용 방안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시 시사할 교육방안 제시- 171
8. 이기영 /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학업 수행 기술에 대한 고찰 -학습자, 교수자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203
9. 이유경 / 숙달도를 고려한 한국어 교재의 주제별 어휘 목록 선정에 대한 연구 237
10. 이준기 / 한국 현대사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내용 구성 연구 267
11. Hyungjae Lim, Flourish Kamei / A Study on the Use of Machine Transl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297

### ■ 17권 1호 ■

1. 가맹맹 /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말토막 억양에 대한 지각 및 산출 연구 1
2. 강석한·박현정·이성준·민병곤·홍은실·안현기 / 온라인 방식 한국어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에서 변인 연구 35
3. 권문화·전옥·이정희 / 조선족 대학원생의 언어 정체성에 대한 질적 탐구 63
4. 김혜원·양명희 / 발표 담화에서의 상대 높임법 사용 양상 및 인식 연구 - 중급 수준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합쇼체'와 '해요체' 전환을 중심으로 - 97
5. 상향함 /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후설모음 인지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접근 -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 123
6. 우창현 / 부사격조사에 대한 생성어휘론적 접근 - 부사격조사 '-에서'를 중심으로 - 157
7. 이미향·손시진 / 구어와 문어의 사용 실태로 본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문식성 연구 179
8. 이수미 /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쓰기 경험에 대한 양상 연구 209
9. 이은하 / 통계적 학습 능력이 한국어 학습자의 인접·비인접 통사구조 처리·학습에 미치는 영향 233
10. 장혜림·송향근 / 자기주도 학습에서의 예능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모색 - 중국 내 대학의 한국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 283
11. Lee Hakyoan·Pang Myoungun / Korean transnational mothers' bilingual support for their children - Language ideologies and practices at home - 309

### ■ 17권 2호 ■

1. 구민지·박소연 / 한국어교육실습 교안 작성 지도를 위한 기초 연구 1
2. 남미정 /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모국어 전이 예측 가능성 연구 - 베트남어 'ăn'과 '먹다'를 중심으로 - 29
3. 노채환 / 해외 단기 실습 사전 훈련을 통한 예비 한국어 교원의 성장 연구 - 사이버대학 학생의 훈련 일지 분석을 중심으로 - 47
4. 신성철 / 호주 대학의 한국학 현황과 과제 75
5. 유혜신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情' 은유에 관한 시론 - 초코파이 광고를 중심으로 - 99
6. 이해영·정혜선 / 실시간 다대면 온라인 한국어 강의에서 모국어 사용 여부와 숙달도에 따른 차이 - 매체 효능감과 실재감, 수업만족도를 중심으로 - 129
7. 임형재·자양관 / 한국어번역 학습자의 기계번역 결과에 대한 수정(Post Editing)능력 분석 - 중국어권 학습자의 MT-PE- 실험을 중심으로 - 151
8. 조항록·정혜란 / 몽골 초중고등학교의 스마트교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185
9. 진영하 / 말뭉치 기반 한·중 시간 개념화 양상 대조 연구 217
10. 최정선·권미경·최은경 / 실시간 온라인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 D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247

### ■ 17권 3호 ■

1. 민경아·박서옥 / 실시간 원격 화상 한국어 강의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 인식 연구 1
2. 박정미 / 다문화이해교육 운영 사례 연구 37
3. 안효연·김성주 / 중국 지역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교사에 대한 은유 연구 67
4. 윤나영 / 한국어 학습자 형성 어휘의 생산성과 수용성 - 접두파생어를 중심으로 - 89
5. 이상숙 / 이탈리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 111
6. 이세인 / BTS 콘텐츠를 활용한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독학용 교재 개발의 실제 135
7. 정다운·손다정 /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전략 교육 방안 69

### ■ 18권 1호 ■

1. 방성원 /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1
2. 양길석·구민지 / 「한국언어문화학」의 연구 동향 -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 분석의 활용 - 31
3. 용티탄 프영·김영순 / 베트남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화용 습득 경험에 관한 연구 67
4. 이다솜 /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의 학습실재감과 학습 성과에 대한 연구 - 학습실재감, 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을 중심으로 - 93
5. 이선희·이진경 / 해외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과 전공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진단과 평가 - 미국 웰슬리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의 사례 분석 - 21
6. 이주희·정예린·Soththianan Jeeranan·양지현·강승혜 / 태국인 근로자 대상 입국 후 단기 한국 프로그램 개발 및 앱 설계를 위한 요구 분석 151
7. 이향 / 담화 능력 평가를 위한 채점기준표 개발 - 수행결정나무(PDT) 방식을 사용하여 - 185
8. 조희련·이유미·임현열·차준우·이찬규 / 딥러닝 기반 언어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 쓰기 평가의 자동 점수 구간 분류 - KoBERT와 KoGPT2를 중심으로 - 217
9. 최권진 / 번역을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243

10. 최은지 / 한국어 학습자의 의지·의도 양태의 사용 양상에 대한 종적 연구 271
11. 탕이잉·진영하 / 한국어 추측 표현과 양태 부사의 공기 양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297
12. Sainbilegt Dashdorj·Bujinkham Batmunkh·Enkhchimeg Sodnomdorj / 몽골인 학습자의 한국문화 인식 조사 연구 325

##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8. 6. 1.

개정 2009. 9. 1.

개정 2014. 1. 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술 연구 활동에 관한 연구 윤리의 지침을 제시하고, 윤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2.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는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한 자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 (연구 윤리 수칙)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본 학회의 모든 회원과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아래의 연구 윤리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 활동 및 연구 결과 발표 시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2. 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새로운 성과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하지 않는다.
3.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존중한다. 선행 연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4.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데이터는 게재 후 2년 간 보관한다.
5. 논문 및 연구 관련 심사를 맡은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5조 (목적)

본 학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 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 (설치 및 구성)

1. 위원회는 학회 내에 회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2.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장, 연구위원장, 총무이사(선임자 1인)를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 제7조 (위원장)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이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심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심의 사안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위원회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위원)

1. 위원은 진실에 기초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심의 사안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위원은 심의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 제9조 (간사)

1.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위원장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 제1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 일시는 정해진 학술지 발간일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기타 다른 과정을 통한 인지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제11조 (자문위원)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 (소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한국언어문화학』을 포함하여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 저작물(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담론들(이하 '학술 행사'라 한다.)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가 주관·후원·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 회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연구와 관련된 중요 사항

#### 제14조 (운영 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연구 윤리의 검증

#### 제15조 (검증 시효)

1. 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회적으로 본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검증 절차)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대할 수 있다.
2.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 제17조 (예비조사)

1. 위원회는 본 학회 차원에서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 접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가 예비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18조 (본조사)

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한다.
  - 1) 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 2)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19조 (판정)

1.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후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확정된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0조 (재조사)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요청 사유를 중심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조사는 18조 본조사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되, 조사와 판정 일정은 60일 이내로 한다.

#### 제21조 (결과 조치)

1. 검증 절차를 통해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1) 연구 부정행위에 의해 작성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 2)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제2조 1항의 1), 2), 3)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 행위를 행한 자의 경우에는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3년 간 박탈한다.
  - 4) 제2조 1항의 4), 5)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행한 자,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를 행한 자, 제18조 2, 3항을 위배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자의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1년 간 박탈한다.
2.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본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판정, 재조사에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윤리위원회가 보관한다.

## 제4장 연구 관련 부정 행위 제보

### 제22조 (제보 및 접수)

1. 제2조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 관련 제보 및 접수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2항의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 제23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제보자가 본 학회의 회원인 경우, 본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제2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본 학회와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검증 사안은 본조사위원회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연구 윤리 규정의 개정

### 제25조

연구 윤리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 윤리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1. 본 규정은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4. 본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